

始興の傳統文化

(増補版)

始 興 郡

始興の傳統文化

(増補版)

始 興 郡



郡 旗 說 明

1. 全体模型

- (1) [시]字와 [興]字의 形態로서 隆盛發展하는 安全性있는 始興郡의 未來像과 團結, 協同하는 精神을 나타내고 있음.
- (2) 원형은 宇宙 섭리속에서 절대로 國民에게 奉仕기여하는 뜻을 나타냈고 中央線은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国道임.
- (3) [시]字는 두 힘이 모여 하나의 團結體를 이룬 탑 모양의 형상으로서 協同, 團結하는 이 고장의 固有한 精神力을 내포함.
- (4) [興]字는 원형을 두 손으로 받들어 安全하게 主軸을 이루고 있어 굳건한 토대 위에 서 있는 郡民의 團結力의 象徵임.

2. 色 度

- (1) 초록색의 바탕색은 새마을 精神과 서울 외곽 근교 農業의 綠色革命을 뜻함.
- (2) 模形—白色
흰색은 白衣民族으로서 청렴한 國民의 崇高한 精神과 무궁한 發展을 象徵함.



發 刊 辭

우리 始興郡은 오랜歷史와 함께
祖上의 얼과 歷史의 숨결이 담겨진
아름다운 文化遺産을 많이 간직하
고 있는 고장입니다.

어느나라 어느民族이고 자기네의 傳統文化를 굳건하게 確立하고 이
를 所重히 여기며 새로운 意慾으로 文化發展을 이루어 나갈때 民族的
進歩와 隆盛을 圖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 先人들과 더불어 애환을 같이한 民俗的 良風이
나 아름다운 說話와 민요등이 現代化의 물결속에 묻혀 자꾸만 잊혀
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時代의 文化的 課題가 무엇
인가를 바르게 認識하고 새 文化發展의 아름다운 傳統과 자랑의 뿌
리를 찾아 이를 알고 가꾸는 教育의 길잡이로 삼고자 초판을 대폭 수
정 보완하여 개정판을 펴내기로 했습니다.

이 冊字가 始興의 伝統을 繼承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冊字를 펴내는데 아낌없이 많은 資料를 제공해 주신 關係
人士와 公務員의 勞苦를 진심으로 致賀하는 바입니다.

1983. 12.

始興郡守 金 漢 壽

始興郡民憲章

首都 서울을 가슴에 감싸안고 끊임없이 發展하는 始興郡은 물과 바다가 그림처럼 아름다우며 뛰어난 人物들이 예로부터 두드러지게 많이 輩出된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이처럼 훌륭한 내 故郷을 福祉의 樂園으로 建設해 나가는데 있어서 磐石 같은 바탕이 될 憲章을 이에 마련한다. 다 함께 가슴속에 깊이 새겨 줄기찬 삶의 信條로 하자.

1. 밝은 마음씨와 튼튼한 몸을 길러서 저마다의 辛福한 家庭을 이룩하자.
2. 이웃끼리 서로돕고 힘을 모아서 살기좋은 明朗한 마을을 만드자.
3. 부지런하고 儉素한 氣風을 세워 억척스리 살기좋은 고장을 建設 하자.
4. 내일의 일꾼인 어린이와 젊은이를 아끼고 노인들을 제 부모처럼 되시자.
5. 내 故郷의 自然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모든 文化財를 所重히 간직하자

西紀 1975 年 10月 5 日



現. 시흥군 청사
1978年 新築



旧
시흥군 청사



旧 시흥군 보건소



旧 시흥군 지도소



● 청계사동종 (지방지정문화재 제9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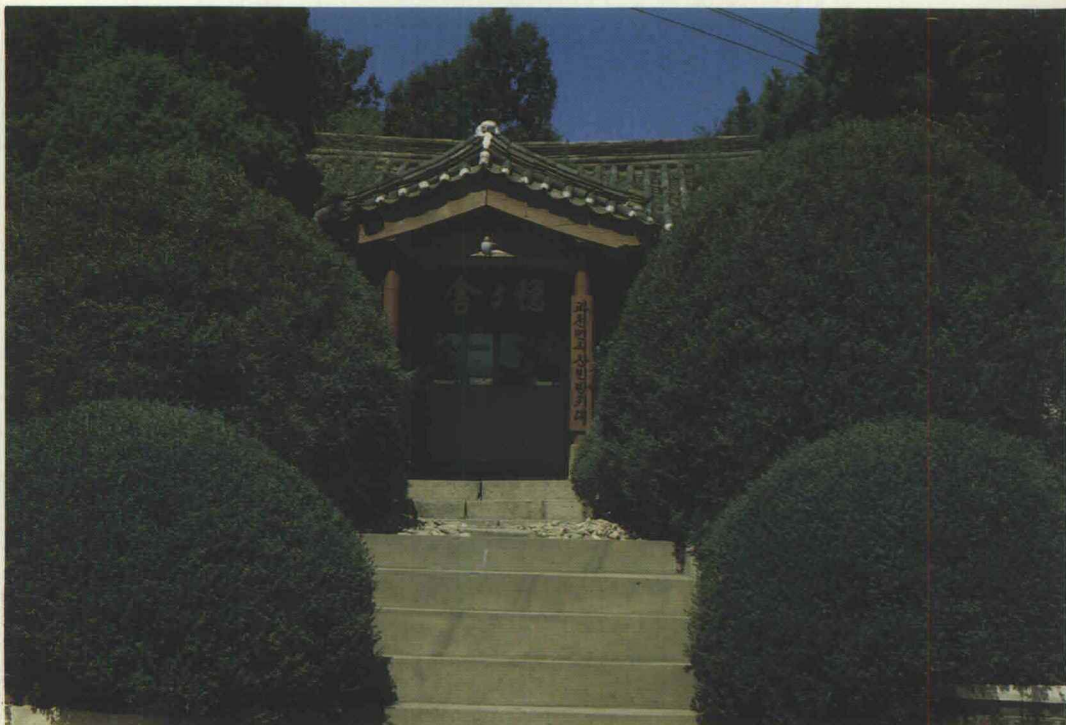
● 청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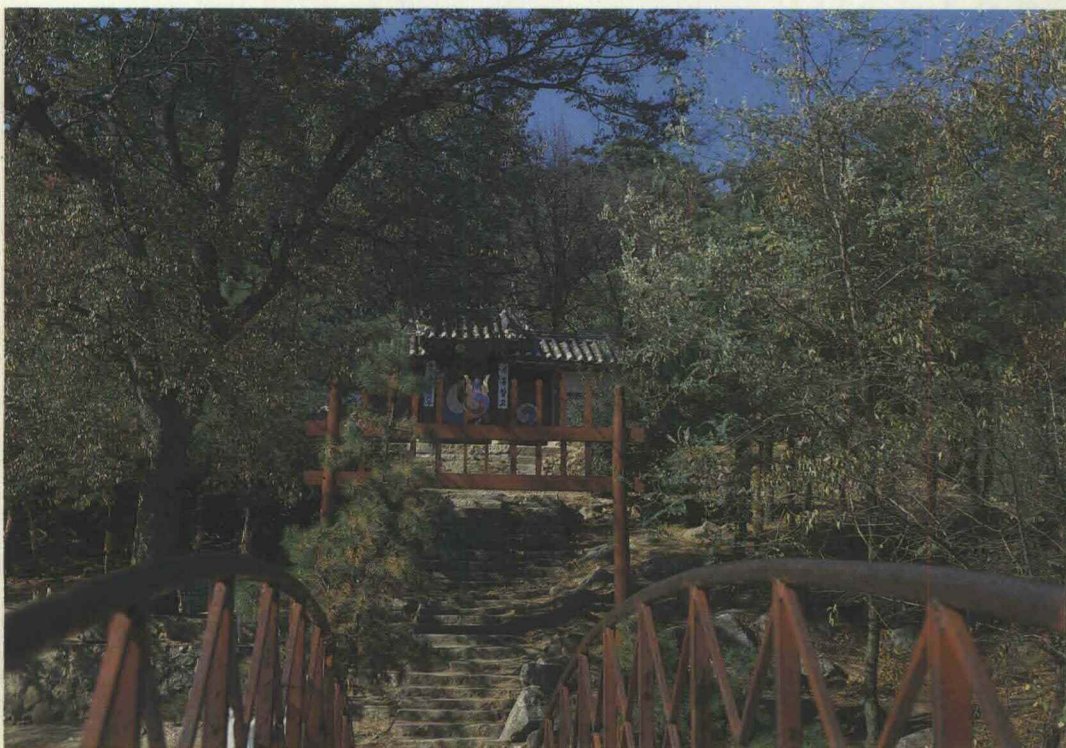
●연주대 (지방지정문화재 제20호)



●연주암 대웅전



• 온온사 (지방지정문화재 제100호)



• 시흥향교 (과천면 문원리)



●오정각



●오정각 정문



● 효령대군 영정 (지방지정문화재 제81호)



● 이원익선생 영정 (지방지정문화재 제80호)



● 김유선생 영정 (의왕읍 왕곡리)

연 혁 (沿 革)

시흥군이라는 명칭은 「동여」(東與), 「동도」(東圖)에 모두 명기되어 있지 않다.

이 명칭은 현재의 안양시를 중심으로 한 일대가 금천(衿川)이었고, 고려 성종때에 별명으로 지은 시흥이란 명칭을 1914년 3월에 부군(府郡)을 폐합할 때에 금천(衿川, 始興), 안산(安山), 과천(果川)의 3개군을 통합하여 시흥군이라고 개칭한데서 비롯되었다.

금천현(衿川縣)은 원래 고구려 때에는 잉벌노현(仍伐奴縣)이라고 불렀는데 신라 경덕왕 때 곡양(穀壤)으로 고쳐 울진군 영현(栗津郡 兪縣)으로 삼았다.

고려초에 금주(衿州)로 고쳤고 성종14년(995)에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 8년(1005)에 파(罷)하고 현종 9년(1018)에 수주(樹州=富平)에 붙이었고, 명종 2년(1172)에 처음으로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조 태종14(1414)에 과천을 이 고을에 붙여 금과현(衿果縣)이라 하였다가 몇달이 안되어 파하였고 다시 양천현(陽川縣)과 합쳐서 금양현이라 하였다가 1년만에 파하고 동16(1416)에 금천으로 고쳐 현감을 두었다.

세조조에는 다시 과천과 합하였더니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복구하였다. 고려 성종때에 시흥이라는 별명을 정한바 있었다.

금천현(衿川縣)의 위치를 동여(東與)에 의하여 확인해 보면 동쪽으로 과천현의 경계까지 11리이고, 남쪽으로 안산군계까지 16리, 서쪽으로 부평부의 경계까지 17리, 북쪽으로 양천현의 경계까지 27리, 노량(露梁)까지 23리, 경도(京都)까지의 거리가 31리라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으로 미루어 금천현(衿川縣)은 현재의 시흥군 일원이 아니었던가 추측된다. 특히 산천조(山川條)에 삼성산(三聖山)은 현의 동쪽 10리쯤이고 호암산이 현의 동쪽 5리쯤에 있으며, 양화도(楊化渡)가 현의북쪽 33리 쯤에 있다는 기사로서 짐작이 된다.

여도(輿圖)에 의하면 금천현은 수원부 진관(水原府 鎭管)인데 방리로는 현내면, 동면, 서면, 남면, 상북면, 하북면의 6개면이 있다.

과천은 원래 고구려의 울목군(栗木郡)또는 동사힐(冬斯勝)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울진군으로 고쳤다. 왕조가 고려로 바뀌어 초기에 과주라고 고쳤고, 현종 9년(1018)에 광주임내(廣州任內)에 두었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다.

고려사지(高麗史地)에 의하면 충렬왕 10년(1284)에는 이 고을의 용산처(龍山處)만을 떼어서 부원현(富原縣)으로 승격시킨 일이 있다 하였다

이 뒤의 거의 400년 가까이 별 변동없이 내려오다가 조선조태종 13년(1413)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을 두는 동시에 고을 이름을 과천이라고 고쳤다가 다음해에 금천에 병합시켜 금과(衿果)라고 부르다가 몇달만에 다시 해체하였고, 세조때 금천을 이 고을에 합했다가 다시 복구시켰다

과천현은 원래 고구려의 울목군인데 동사힐(冬斯勝)이라고도 부른다. 신라 경덕왕 때에 울진군이라고 고쳤고, 고려초에 과주라고 고쳤다가 현종 9년(1018)에 광주(廣州)에 소속시켰었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종 13년(1413)에 현재의 이름인 과천으로 고치고 예에 의하여 현감을 두었다가 동 14년(1414)에 금천과 병합시켜 금과현이라고 일컫다가 몇달이 안되어 곧 없애버렸다. 세조조에 금천현을 여기에 통합시켰다가 얼마 안가서 다시 복구 하였다.

이상이 과천현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다. 그리고 동여에 의하여 그 위치를 확인하여 보면 동쪽으로 광주 경계까지 13리이고, 남쪽으로는 수원부 경계까지 34리이며, 서쪽으로 금천현의 경계까지 20리이고, 안산군의 경계까지 28리이며, 북쪽으로 노량진까지 20리이고, 경도(京郡)까지의 거리는 33리라 하였다. 이 기록으로 보아 과천은 현재의 과천 일대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여도(輿圖)에 의하면 과천현은 광주진관인데 경도 남쪽 3리(三里)의 거리에 있으며, 방리로는 현내면, 동면, 서면, 하서면, 남면, 상북면, 하북면 7개면이 있다 하였다. 별호(別號)는 고려 성종때 정한 부안(富安)이 있고

또 富林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양재역이 동쪽으로 15리라 하는데, 여기가 현재 잠실 일대이고 흑석참(黑石站)이 현의 북쪽 25리라 하였는데 여기는 현재 흑석동이다.

이 뒤 조선조 말엽까지 별 변동없이 내려오다가 고종 32년(1895)에 인천부(仁川府)의 한 군으로 승격되고 다음 해에는 경기도의 4 등군이 되었다가 일제하 1914년에 이 고을이 전부 시흥군에 합쳐 시흥군 과천면이 되었다.

조개표(朝改表)에 의하면 시흥군에 과천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암리이하 6 개리가 있고 신동면에 방배리, 잠실리, 반포리 등이 있는데 방배리는 현재 방배동 일대이다.

안산(安山)은 원래 고구려의 장항구(撐項口)또는 고사야 흘차현(古斯也忽次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장구군(撐口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기에 안산군으로 고쳤고 현종 9년(1018)에 수주(水州=水原)임내에 두었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다.

충렬왕 34년(1308)에 문종(文宗)이 탄생한 고을이므로 지군사(知郡事)로 승격되어 조선 왕조까지 별 변동없이 내려왔다. 동여(東輿)에 의하면 안산군에는 서쪽47리에 있는 오질이도(吾叱耳島), 군의 서쪽 40리에 있는 석을주도(石乙庄島), 성종17년에(1486)에 남양부에서 이속된 소홀도(召忽島)의 3개의 섬이라 하였다.

동여(東輿)에 의하여 위치를 확인하면, 동으로 과천현 경계까지 5리이고 남쪽으로 남양부 경계 35리, 서쪽으로 인천부의 경계 11리, 북쪽으로 금천현의 경계 14리이고 경도까지의 거리는 51리라 하였다.

조개표(朝改表)에 의하면 시흥군의 서면(지금의 소하읍=광명시)의 일부와 수암면 군자면 일대가 안산군 관도이었다.

여도(輿圖)에 의하면 안산군은 수원진 소관으로 서울에서 51리이고, 방리로는 남쪽으로 군내면, 잉화면, 대월면, 와리면, 마유면, 서북으로 초산면 등의 6 개면이 있다 하였다.

고종32년(1895)에 인천부에 딸린 한 군이 되었고, 다음 해에 경기도의 4등군이 되었다. 1914년에 금천, 과천, 안산의 3개군이 시흥군이란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1917년 현재의 시흥군의 현황을 조개표(朝改表)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청은 북면 영등포리에 두었고, 9개면에 83개리가 소속되어 있다. 북면이 11개리, 동면이 7개리, 서면이 8개리, 신동면이 8개리, 과천면이 6개리, 서이면이 5개리, 남면이 5개리 수암면이 가장 많아서 19개리, 군자면이 14개리이다. 이러한 판도가 20년 동안은 큰 변동이 없었다.

1936년 4월 1일 총독부령 제8호로 북면의 11개리, 동면의 1개리, 영등포읍의 11개리와 2개리의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으므로 1읍 7개면이 되었다.

이 당시의 현황을 조람(朝覽)에 의하여 살펴보면 북면이 서울에 편입되어 서면, 신동면, 서이면, 남면, 과천면, 동면, 군자면, 수암면의 8개면이고, 73개리등이며, 군청 소재지는 경성부 영등포동이고, 인구는 9만 4천 5백 1십 7명 이었다.

1943년 상황을 조구역(朝區域)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청 소재지는 전과 같이 경성부 영등포정이고, 8개면 73개리로서 서이면이 없어지고 안양면으로 대체되었다.

1949년 8월 5일 대통령 제159호, 제162호로 동면의 구로리, 도림리 번대방리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고 대통령령 제162호로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72호로 신동면과 동면의 5개리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고 화성군 일왕면의 9개리가 의왕면이 되어 편입되었다.

이뒤 만10년이 되는 1973년 7월 1일에는 법률 제2597호에 의하여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시흥군에서 분리되고 부천군 소래면이 편입되었다.

1974년 6월 1일에는 시흥군 조례 제401호로 광명 출장소를 설치하였으며, 1979년 5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9409호로 남면 및 서면이 읍으로 승격 군포읍과 소하읍으로 개칭됨에 따라 1개 출장소 2개읍 5개면이 되었다. 또한 1979년 8월10일 경기도 조례 제969호로 반월지구 출장소 설치로 수암면과 군자면 관할 구역중 법정리 13개리가 분리되었으며 1980년 1월 4일 시흥군 조례 제648호로 161개 행정리가 221개리로 확장되었으며 1980년 12월 1일 시흥군 조례 제1714호로 의왕면 과 소래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다.

또 1981년 7월 1일에는 법률 제3425호에 의거 광명출장소와 소하읍이 시흥군으로 분리되어 광명시로 승격되었으며 1982년 6월 10일 경기도 조례 제1256호로 과천면을 경기도 과천 지구 출장소로 설치되었고,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소래읍 옥길리, 계수리 일부가 부천시와 광명시로 편입되었으며, 화성군 반월면 초평리 월암리가 의왕읍에 편입되었다.

또한 83. 3. 31군조례 제924호로 의왕읍 동부출장소가 설치되어 현재의 행정구역은 3읍2면 1읍출장소 법정리 49 리 행정리 143 개리 자연부락 247 개소로 구성되었다.

1. 금천(衿川)의 고호(古號) 잉벌노(古號 仍伐奴)의 어원(語源)

「동여(東輿)」에 의하면 금천(衿川)의 고호(古號)가 잉벌노(仍伐奴)라 하였다. 잉벌노는 무슨 말을 차자(借字)하여 적은 것일까? 신태현(辛兌鉉)씨는 「삼지연(三地研)」에서 잉벌의 「잉(仍)」은 「내(乃)」와 같이 통용(通用)하여 「느」음차(音借)이다. 「벌(伐)」은 음(音) 「벌」로 「ㅂ」음차(音借)이나 「ㅍ」음과 와전(瓦轉)한다. 「잉벌(仍伐)」은 「늑으로 느르—늘—늑—느—」늑의 음전(音轉)으로 연장(延長)의 뜻이다.

노음(奴音) 「노」로 「내」양(壤)의 음차(音借)이다.

잉벌노(仍伐奴)는 「늑내」로 연장지(延長地)의 뜻이다. 「곡양(穀壤)」은 「곡(穀)의 「훈(訓)」 「남」 양(壤)의 훈(訓) 「내」로 「늑내」의 훈차(訓借)라 하겠다. 결국 잉벌노(仍伐奴)는 「늑내」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뺨어나간 땅」이란 뜻이라 한다.

2. 안산(安山)의 고호(古號) 「고사야홀차(古斯也忽次)」의 어원(語源)

「삼지연(三地研)」에서는 안산(安山)을 장항구(獐項口) 또는 장구(獐口) 또는 고사야홀차라고 한 장항구에 착안하여, 장항구는 노루목곶 또는 나라(津) 목곶, 곧 「진관곶(津関岬)」의 뜻이다.

고사야(古斯也)의 「古」의 음(音) 「고」, 「斯」의 음 「사」로 축음차(促音借), 야(也)의

음(音) 「야」로 「어」의 음차(音借), 따라서 「고사야(古斯也)」는 곧이(直)이다. 즉, 고사야홀차는 「곧은 곳」 직갑(直岬)이라 하였다. 즉, 안산은 옛날부터 이름이 들인데, 하나는 「노루목곳」으로 한자의 장항구(獐項口)를 빌어썼고, 하나는 「곧은곳」으로 한자(漢字)의 고사야홀차를 빌어 표기한 것이다.

「경기읍지(京畿邑誌)」(장서번호12177)의 안산군 읍지에는 정조 21년(1797)에 행행(行幸)하면서 안산의 형승(形勝)을 읊은 시(詩)가 있는데, 이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소개한다.

「지세(地勢)가 한때 서리어 일만 뽕기의 연(蓮)꽃같이 뭉쳤으니, 보통의 물고기나 게 정도로서는 값을 말하기조차 어렵겠네.

살기는 이 안산 땅처럼 좋은 곳이 없겠는데,
하물며 금년에는 풍년까지 들었다네.

지노반여만타연 심상어해불유전

(地勞盤如萬朶蓮 尋常魚蟹不論錢)

생거취설안산호 황복양양대유년

「生居寂說安山好 況復穰穰大有年」

이 시는 지금까지도 이 고장의 부노(父老)들 간에 성조(聖祖)가 이 고을의 아름다움을 읊은 노래라고 전하고 있다 한다. 이 시로 보아 수원능행(水原陵幸)때 읊은 것인 듯 하다.

3. 과천(果川)의 고포(古號) 「동사힐(冬斯脰)」의 어원(語源)

「삼지연(三地研)」에서는 울목군(栗木郡)은 「밤나무골」의 차자(借字)이고, 「동사힐」은 「冬」은 「동」 「斯」의 음은 「사」 힐의 음 「홀」로 동사힐은 「돋할」(日出)일 것이라 하였다. 과천은 옛날에는 이름이 들인데, 하나는 「밤나무골」이고, 하나는 「돋할」, 즉「해가 돋는 곳」이라는 뜻을 딴 땅 이름이란 것이다.

목 차

제 1 편 역사와 문화의 향기

1. 고장을 빛낸 사람	9
1~1 귀주대첩의 명장 강감찬	9
1~2 고장을 빛낸 효지 김정남	17
1~3 난세의 충신 이원익	19
1~4 실학의 대가 이 익	29
1~5 「열녀」밀양박씨와 「효시」세철	31
1~6 고장을 빛낸 효지 최사립	32
1~7 고장을 빛낸 효지 하우명	33
1~8 김달명	35
1~9 김동려 · 동은	36
2. 현장의 발자취	38
2~1 김승철 중위의 현충비	38
3. 유적 유물의 모습	39
3~1 연주대	39
3~2 별망성	40
3~3 청계사 동종	41
3~4 온온사	43
3~5 연주암삼층석탑	44
3~6 죽음으로 보국한 조병세 묘	45
3~7 조선대 문신 장운익 신도비	48
3~8 조선대 문신 장유 묘와 신도비	49
3~9 인조대인물 한준겸 묘, 신도비	50
3~10 조선조문신 하연 묘 신도비	51
3~11 영회원	52
3~12 고송정	54
3~13 사세충열문	55
3~14 시흥향교	56
3~15 청계사	59
3~16 청계사 극락보전	60
3~17 연주암 대웅전	61
3~18 연주암 금륜보전	62

3 ~ 19 연주암 연주대약사여래입상.....	63
3 ~ 20 연주암 웅진전 나한상	64
3 ~ 21 청계사 아미타불여래좌상.....	65
4. 총 람	
4 ~ 1 인 물	66
1. 김명국	66
2. 김은부	67
3. 김 유	68
4. 이의양	68
5. 이한철	69
6. 이석훈	69
7. 윤영춘	69
8. 신 위	70
9. 정세규	71
4 ~ 2 유적 유물.....	72
1. 효령대군영정	72
2. 부림헌	74
3. 오이도 패총.....	74
4. 초지리 패총.....	75
5. 군자리 무문토기유적.....	75
6. 정왕리 선사유적.....	75
7. 양상리 지석묘군.....	75
8. 거모리 사지... ..	76
9. 대야리 사지.....	76
10. 대야리 마애불.....	76
11. 백운 사지	76
12. 원당사지....	76
13. 수암 사지	77
14. 조인규 사당기.....	77
15. 허 열 신도비	78
16. 홍막금 묘.....	78
17. 홍명원 묘	79

18. 이 구의 묘비	79
19. 이 염의 신도비	80
20. 유 석 신도비.....	80
21. 김약노 묘.....	80
22. 김치인 묘.....	81
23. 유자신 묘.....	82
24. 이기조 묘.....	82
25. 이복남 묘.....	83
26. 권 전 묘.....	83
27. 홍일동 묘.....	83
28. 고잔리 태봉.....	84
29. 군자산 성지.....	84
30. 독내리 성지.....	84
31. 성곡리 성지.....	85
32. 오정각	85
33. 수암리 관아지.....	85
34. 미륵 입상.....	85
35. 청계사 사적기.....	86
36. 문원리 삼층석탑.....	86
37. 현감 선정비.....	87

제 2 편 조상의 얼과 슬기

1. 전해오는 이야기	91
1~1 도랫 마을의 유래	91
1~2 광정마을 유래.....	92
1~3 감투봉에 얹힌 이야기	92
1~4 변시촌의 유래.	94
1-5 용호마을에 얹힌 이야기.....	95
1-6 오봉산 기슭의 명당	96
1-7 주필행궁	98
1~8 능참봉 하자 마자 거동이 스물아홉 번.	99
1~9 웃우물 마을.	100
1-10 계란마을	102

1-11	금바위 마을.....	102
1-12	마산봉에 얹힌 이야기	102
1-13	삼천 병마골 피흘고개	103
1-14	군자봉에 얹힌 유래	104
1-15	흙뿌리 우물에 얹힌 이야기.....	106
1-16	현덕 왕후의 능지 및 관우물	106
1-17	노루 우물(일명 큰우물)	107
1-18	오이도	108
1-19	갈현리 찬우물 마을	109
1-20	남태령 고개.....	110
1-21	문원리 새솔막 마을	111
2.	읍·면 마을 유래	112
2-1	군포읍	112
2-2	의왕읍	116
2-3	소래읍	123
2-4	수암면	130
2-5	군자면	137
3.	옛 생활과 풍속	151
3-1	당제	151
3-2	무동 답교놀이.....	153
3-3	군자리 성황당지.....	155

제3편 천혜의 자원과 보배

1.	명승과 경관.....	159
1-1	관악산	159
1-2	망경대	166
1-3	자하 동천과 자하시경.....	167
1-4	병풍바위	169
1-5	수종폭포 또는 동폭포	169
1-6	서폭포	169
2.	희귀의 종.....	170
2-1	백로 도래지	170
3.	유서 깊은 나무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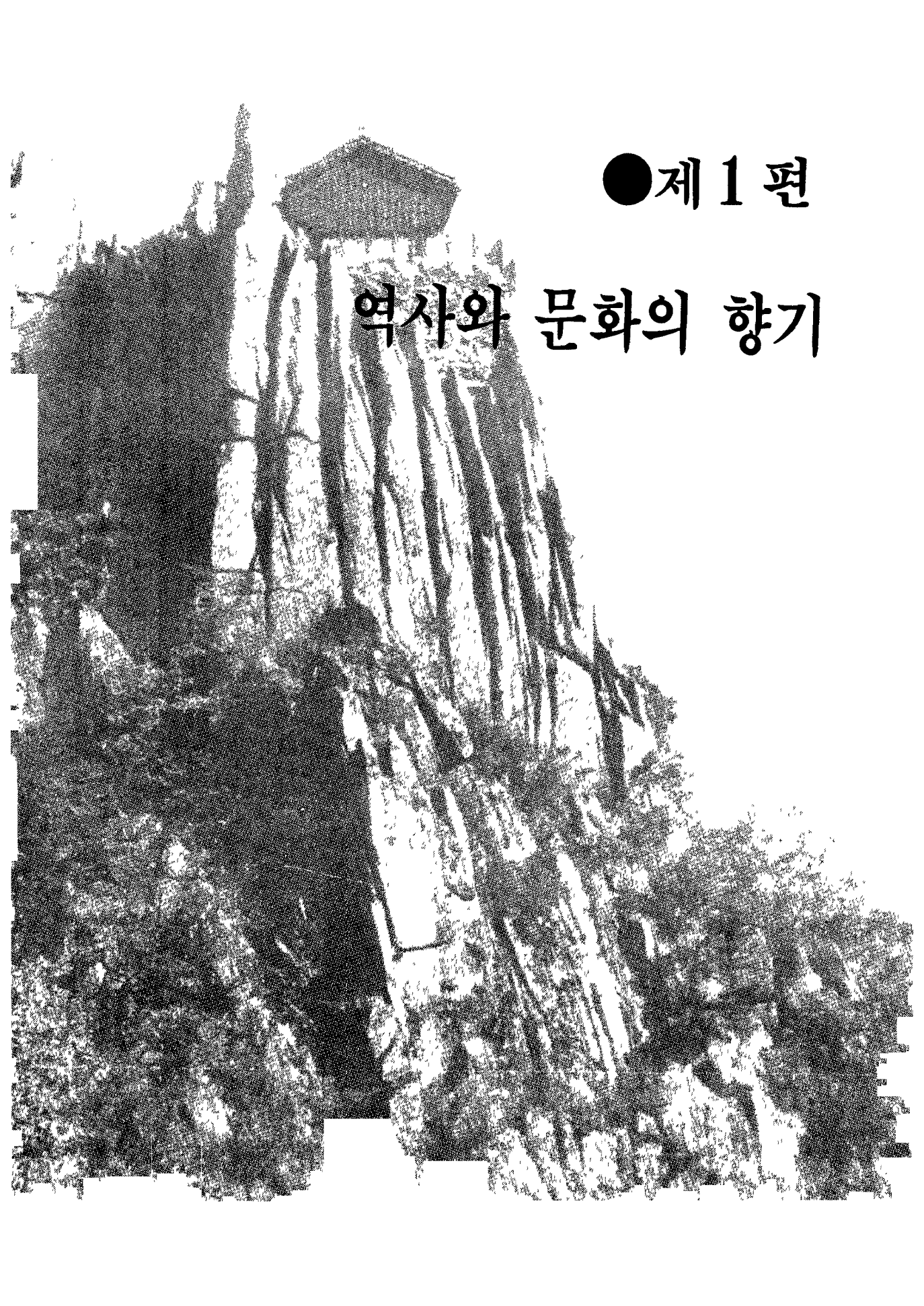
3~1 당정리 느티나무.....	171
3~2 왕곡리 은행나무.....	172
3~3 포일 1리 느티나무.....	173
★보호수 현황	174

제 4 편 민속

●개설 (概說)

1. 의식주 생활	180
1~1 의생활(衣生活)	181
1~2 식생활(食生活)	188
1~3 주생활(住生活)	197
2. 관혼상제	198
2~1 관례	198
2~2 혼례	200
2~3 상례	207
2~4 제례	220
3. 세시풍속	224
3~1 정월	224
3~2 2월	228
3~3 3월	229
3~4 4월	230
3~5 5월	230
3~6 6월	232
3~7 7월	233
3~8 8월	235
3~9 9월	237
3~10 10월	237
3~11 11월	239
3~12 12월	240
3~13 윤달	241
4. 오락	242
4~1 집단놀이	242

4 ~ 2 개인놀이	244
5. 민간신앙	248
5 ~ 1 가족신앙	249
5 ~ 2 부락신앙	253
5 ~ 2 ~ 1 동제의 기능.....	253
5 ~ 2 ~ 2 부락제의 절차.....	255
5 ~ 3 무속	258
5 ~ 3 ~ 1 무당	259
5 ~ 3 ~ 2 굿의 종류	260



●제 1 편

역사와 문화의 향기

1. 고장을 빛낸 사람

1-1. 강 감 찬 (姜 邯 贊 / 龜州大捷의 名將)

강감찬은 정종(定宗) 3년(948)에 금주(衿州, 始興)에서 토호(土豪)의 아들로 태어나니 그의 아버지는 삼한벽상공신궁진(三韓壁上功臣弓珍)이었다.

강감찬의 처음 이름은 은천(殷川)이라 하였다. 그의 일가(一家)가 금주에 정주(定住)하게 된 것은 5대조(5代祖) 여청(餘淸)때의 일로서 여청은 신라(新羅)로 부터 왔었다고 한다. 그런데, 강씨 집안이 금주에서 토호로 성장한 것은 강감찬의 아버지 궁진(弓珍)때의 일이다.



궁진은 태조 왕건의 부하가 되어 훈공을 세움으로써 삼한벽상공신이 되었으니 아마도 금주에 근거한 지방 호족 세력의 하나였던 궁진이 왕건에 투신하여 그의 부장(部將)이 되고 훈공(勲功)을 세웠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강감찬의 성장과정에 대하여서는 전해오는 바가 거의 없으나 부유한 명문(名門)에서 태어난 그는 학문을 좋아하고 지략(智略)이 뛰어났다 한다.

강감찬은 성종(成宗) 2년(983)에 진사(進士) 시험에 합격하고 이어서 왕의 임현복시(臨軒覆試)에서 장원급제(狀元及第)를 하였다.

당시 고려에서는 과거(科擧) 제도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으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한 것은 과거를 통하여 관인(官人)으로 출세

하는 일이었다. 강감찬이 과거에 합격한 것은 34세 때의 일이었으나 여러 관직(官職)을 거쳐 현종(顯宗)이 즉위할 때에는 이미 예부시랑(禮部侍郎)이란 벼슬에 올라 있었다.

고려가 거란(契丹)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미 태조때부터의 일이다. 그런데 광종(光宗) 11년(960)에 중원(中原)에서 오대(五代)의 혼란을 수습한 송(宋)나라가 등장함으로써 고려와 거란, 송 사이에 새로운 국제 관계가 성립되게 되었다.

즉 신흥국가 송이 거란과 남서(南西)로 대립하여 충돌하고 있을 때 고려가 거란의 적대국인 송과 교빙(交聘)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거란(태종이 후진(後晉)을 멸한 후 국호를 「대요(大遼)」라고 고쳤음)을 완전히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에 빠뜨렸으니, 송을 정복하여 중원을 호령하려는 야망에 불타고 있는 거란이 우선 고려에 침략 행위를 강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성종 12년(993)의 제 1차 거란의 침입이다.

소손녕(蕭遜寧)을 도통(都統)으로 하는 거란군(契丹軍)의 침입에 고려에서는 화전(和戰) 양면 작전을 세워 중군사 서희(中軍使 徐熙)가 안무진(安戊鎭 = 安州)에서 적장 소손녕과 담판하고 강화하였다.

화평(和平)이 성립하자 고려에서는 자연히 송과 단교하게 되고 이후에는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였다.

그러다가 목종(穆宗)이 강조(康兆)에게 폐위 살해되고 현종(顯宗)이 옹립되는 정변(政變)이 발생하여 두 나라의 관계는 돌변하고 말았다.

고려의 정변이 거란에 알려지자 그렇지 않아도 송과 은밀히 외교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함경도 지방의 여진(女眞)에 손을 대고 있는 고려의 태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거란의 성종(聖宗)이 정변을 구실삼아 스스로 「의군천병(義軍天兵)」이라 자칭하는 40만군을 이끌고 침입하여 왔다.

고려의 조정에서는 강조(康兆)를 행영도통사(行營都統使)로 임명하여 30만군으로 통주(通川, 宣川)에 나아가 싸우게 하였으나 우세한 적군에게 패하고 포로가 되었다.

강조는 거란의 성종 앞에서 그의 신하가 되라는 권고를 뿌리치고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

통주에서 승리한 거란군은 서북(西北) 최후의 보루인 서경(西京)으로 침입하여 왔다. 그리하여 현종 원년(1010) 12월 28일에 개경(開京)에서 어전회의(御前會議)가 열렸는데, 조신(朝臣)들의 대부분은 패전이라는 현실 앞에 차라리 항복하여 사직(社稷)의 안전이라도 도모하는 길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의견들이었다.

그러나 유독 예부시랑(禮部侍郎) 강감찬만이 이를 반대하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강조에게 있고 비록 형세가 긴박하기는 하나 크게 걱정할 바는 못됩니다.

적의 병세(兵勢)가 너무 강대하여 중과부적(衆寡不敵) 이기는 하지만 잠시 그들의 예봉(銳鋒)을 피하여 서서히 부흥을 도모한다면 재기의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니, 원컨대 폐하(陛下)께서는 남쪽으로 난을 피하였다가 적극 항전을 꾀하십시오”라고 말하여 회의의 분위기를 일변시켰다.

그리하여 일단 항복으로 기울어졌던 어전회의(御前會議)는 강감찬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감연히 항전 구국(抗戰救國)의 방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날밤 왕(王)은 남쪽으로 몽진(蒙塵)의 길을 떠나 나주(羅州)에 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현종(顯宗)은 비록 항전으로 국가의 대책(大策)을 결정하였으나 화평을 모색하기 위하여 피난길 양주(楊州)에서 사신을 거란의 군영에 보내어 화의(和誼)를 청하였다.

이 때 이미 개경(開京)은 함락되고 각지에서 거란인들의 만행과 약탈이

자행되고 있었고, 화평의 교섭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하공진(河拱辰) 등이 노력하여 국왕(國王)의 친조(親朝)를 조건으로 겨우 강화를 성립시킬 수 있었다.

국왕의 친조란 우리 나라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굴욕적인 조건이었으나 원래 고려는 이 약속을 이행할 의사는 없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란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계략에 불과하였다.

여하간 화의가 성립됨으로써 일단 위급한 난국을 모면할 수 있었으니 만약에 강감찬의 건의를 좇지 않고 중신(衆臣)들의 의견대로 거란의 군문(軍門)에 굴복하였다면 후일 현종이 이때를 회고하여 “아마도 고려는 미개한 유목민족인 거란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고려가 항복이란 치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거란에 예속 되는 것을 막아준 사람이 바로 강감찬이었으니,,” 라고 말한바와 같이 강감찬은 거란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주었을 뿐 아니라 실로 고려의 문화와 전통을 수호한 공훈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거란의 침략군이 철수하자 현종 2년(1011)에 강감찬은 국자제주(國子祭酒)로 전임되었다가 중추사·상서리부(中樞使·尚書吏部) 등을 거쳐 현종 9년(1018)에는 서경유수·내사시랑평장사(西京留守·內司侍郎平章事)가 되었다.

이 때 현종이 사령장을 손수 글로 써서 “경술년(庚戌年)에 거란이 한강 까지 깊이 쳐들어 왔을 때姜公(姜公)의 건책(建策)을 채용하지 않았다면 나라를 들어 모두 오랑캐의 규제를 받는 바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강감찬을 크게 찬양하였던 것이다.

강화가 성립한 이후 고려와 거란 사이에는 친조(親朝)문제로 사절이 오고 갔으니, 현종 2년(1011) 4월에 거란에서는 현종의 친조를 요구하여 왔고, 6월에 고려에서는 국왕이 병환중에 있어 나서지 못함을 통고하였다.

그러자 거란에서는 앞서 고려가 영유한 강동(江東) 6주(州)를 돌려달라

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강동 6주를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동 6주에 공고한 성곽(域郭)을 구축하여 군사 시설을 강화하는 데에만 주력하였으니, 현종 4년(1013) 3월에는 거란의 야율행평(耶律行平)이 와서 고려가 강동 6주를 영유한 것을 힐책하기도 하였다.

이 후에도 거란의 강동 6주 환부 요구는 그치지 않았으나 고려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송과의 통교(通交)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거란군의 강동 6주 침입이 잦았고 거란의 침입군은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격퇴 당하였다.

현종의 친조가 거부되고 거기에다가 강동 6주의 반환마저 거절당한 거란의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고려가 송과 통교하므로써 군사적으로 거란을 포위하는 태세를 취하기에 이르자 양국간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강감찬이 서경유수로 임명된당시(현종 9년(1018))는 이와 같이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일촉즉발(一觸即發)의 위기감이 감도는 시기였다. 거란과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서경(西京)은 방어의 총본영(總本營)이 될 곳이다.

그리고 서경유수는 비록 문관직(文官職)이기는 하나 일단 유사시에는 서북면(西北面)에 배치된 군대를 통솔하는 병마지휘권(兵馬指揮權)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란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전운(戰雲)이 감도는 시기에 강감찬이 서경유수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은 아니었다.

강감찬이 서경유수로 부임한 같은 해 12월에 거란의 제 3차 침입이 전개되었다. 소배압(蕭排押)을 대장으로 한 10만의 거란군이 쳐들어 오자 미리 거란의 침입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고려에서는 강감찬을 서북면행영도통사(西北面行營都統使)로써 상원수(上元帥)가 되게 하고 강민첨(姜民瞻)을 부원수(副元帥)로 삼아 이에 대비하게 하였다.

강감찬은 처음 안주(安州)에 본영(本營)을 두고 20만의 대군을 전선에 동원 배치하였다. 그리고 흥화진(興化鎭, 義州)에 나아가 기병(騎兵) 1만 2천 명을 선발하여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뒤 소배압이 이끄기를 기다렸다가 복병(伏兵)으로 하여금 일거에 무찌르게 하니, 소배압이 대패하여 흥화진을 함락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길을 찾아 개경(開京)으로 직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강감찬은 부원수 강민첩(姜民瞻)으로 하여금 적을 추격하게 하여 자주(慈州, 慈山)에서 그를 무찔렀고, 마탄(馬灘, 大同江의 美林津)에서는 시랑 조원(趙元)이 또한 적을 무찔러 1만여명을 죽였다.

이와 같이 강감찬은 흥화진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서전(緒戰)을 장식하였고 적의 예봉을 꺾어 버렸던 것이다.

소배압은 서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진격을 계속하여 현종 10년(1019) 정월(正月)에는 개경에서 멀지 않은 신은(新恩, 新溪)에 까지 이르렀는데 강감찬은 병조판관 김종현(兵曹判官, 金宗鉉)에게 군사 1만명을 주어 개경을 수호(守護)하게 하였고,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도 군사 3,300명을 파견하여 이를 돕게 하였다.

이 때 현종은 성(城) 밖의 민호(民戶)를 성내로 불러들이고 청야작전(淸野作戰)을 써서 대비하였다. 이에 소배압은 사람을 보내 고려에 회군(回軍)을 고하게 하면서 몰래 기병 300기(騎)를 풀어 금교역(金郊驛, 金川)에 이르렀는데 고려군의 야습(夜襲)으로 대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거란군은 개경 공격을 단념하고 하는 수 없이 잔군을 이끌고 철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거란군의 퇴로를 지키고 있던 강감찬은 패주하는 적을 연주(連州, 价川) 위주(渭州, 寧遠) 등지에서 기습하여 500여명을 죽였다.

혼란에 빠진 적군이 귀주(龜州)를 통과할 때에 강감찬은 이를 맞아 대치하였는데, 마침 김종현이 거느린 군사가 도착하고 풍우(風雨)가 남쪽에

서 불어와 정기(旌旗)가 북쪽을 가리켜 나부끼자 좋은 징조라하여 강감찬은 전군을 몰아 격전 분투하여 적을 무찔렀다.

다시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무찌르니 석천(石川)을 지나, 반령(盤嶺)에 이르기까지 적의 시체가 들을 덮었으며, 노획한 인마(人馬)와 병기 등 고려의 전리품(戰利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었다.

이것이 역사상에 빛나는 귀주의 대첩(龜州의 大捷)으로서 생환한 거란병은 수천에 불과하였다고 하며 소배압은 석천에서 다급한 나머지 갑옷과 병장을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요사(遼史)」에 기록되어 있다.

이 패보에 접한 거란의 성종(聖宗)은 사람을 보내 소배압을 질책하면서 「너는 적을 경시하고 적중에 깊이 들어가 오늘의 패전을 가져왔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다시 보겠는가, 내 마땅히 네 얼굴 가죽을 벗긴 후 죽이리라 하고 대노하였다 한다.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한 쾌사(快事)로서 당시 조야(朝野)의 인심을 얼마나 통쾌하게 하였던지 강감찬이 개선하여 돌아올 때 현종이 친히 영파역(迎波驛, 義興驛)에 출영(出迎)하여 채봉(綵棚)을 맺고 주악속에 연회를 베풀어 장군을 위로하면서 강감찬의 머리에 금화팔기(金花八枝)를 꽂아 주고 좌수(左手)로 그의 손을 잡고 우수(右手)로 술잔을 들어 위로하기를 마지아니하였다는 것이며, 이에 강감찬이 사은숙배(謝恩肅拜)하였다고 하니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겠는가.

그리고 현종은 영파(迎波)의 지명(地名)을 의흥(義興)이라 고치고 역리(驛吏)에게도 주현리(州縣吏)와 같은 관대(冠帶)를 허락하였으며, 개경에 귀환하자 다시 명복전(明福殿)에서 연회를 베풀어 3군(軍)을 크게 위로하였다. 그뒤 거란은 감히 다시 고려에 침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현종 10년(1019)에는 양국에 화약이 성립되어 다시 국교가 회복되었다.

귀주대첩(龜州大捷)의 개선장군 강감찬은 이미 7순(旬)을 넘은 고령이

었다. 그는 거란군을 격퇴함으로써 그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할 사명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현종 10년(1919) 4월에 표(表)를 올려 년노(年老) 하였음을 주상하고 은퇴하기를 청하였으나, 현종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채장(几杖)을 하사(下賜)하면서 3일 1조(三日一朝)를 명하였고, 11월에는 「검교태위문하시랑동내사문하평장사천수현개국남(檢校太尉門下侍郎同內史門下平章事天水縣開國男)」이라는 작위(爵位)를 주고 식읍 300호(食邑 300戶)를 봉(封)하였으며, 12월에는 「추충협모안국공신(推忠協謀安國功臣)」이란 칭호를 주었다.

문하시랑동내사문하평장사(門下侍郎同內司門下平章事)는 그가 가지고 있던 벼슬이고 검교태위(檢校太尉)는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정일품(正一品)의 벼슬이며 개국남(開國男)은 작위(爵位)를 말하는 것이다.

다음 해인 현종 11년(1020) 6월에 다시 표를 올려 은퇴할 것을 청하여 허락되었으나 이와 동시에 그의 벼슬은 특진검교태전(特進檢校太傳)을 더하고 작위는 천수현개국자(天水縣開國子)로 높여졌으며 식읍도 500호로 늘었다.

현종 21년(1030) 5월에는 다시 문하시중(門下侍中)을 가(加)하고, 22년(1031) 6월에는 검교태사시중천수현개국후(檢校太師侍中天水縣開國侯)에 식읍 1,000호로 특진(特進)되었다.

이와 같이 그의 위계(位階)와 영예(榮譽)가 인신(人臣)으로 오르지 얼마 안되어 덕종(德宗) (1031) 8월에 84세로 세상을 떠나니 조정에서는 3일간 철조(輟朝)하고 백관(百官)에게 회장(會葬)을 명(命)하여 장례(葬禮)를 후히 지내 주었다. 그의 시호(諡號)는 「인헌(仁憲)」이라 하였으며 선군(先君) 현종(顯宗)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다

그의 탄생지 낙성대는 전에는 시흥군 관내였으나 지금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이며 성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2 김 경 남 (金京南)

고장을 빚낸 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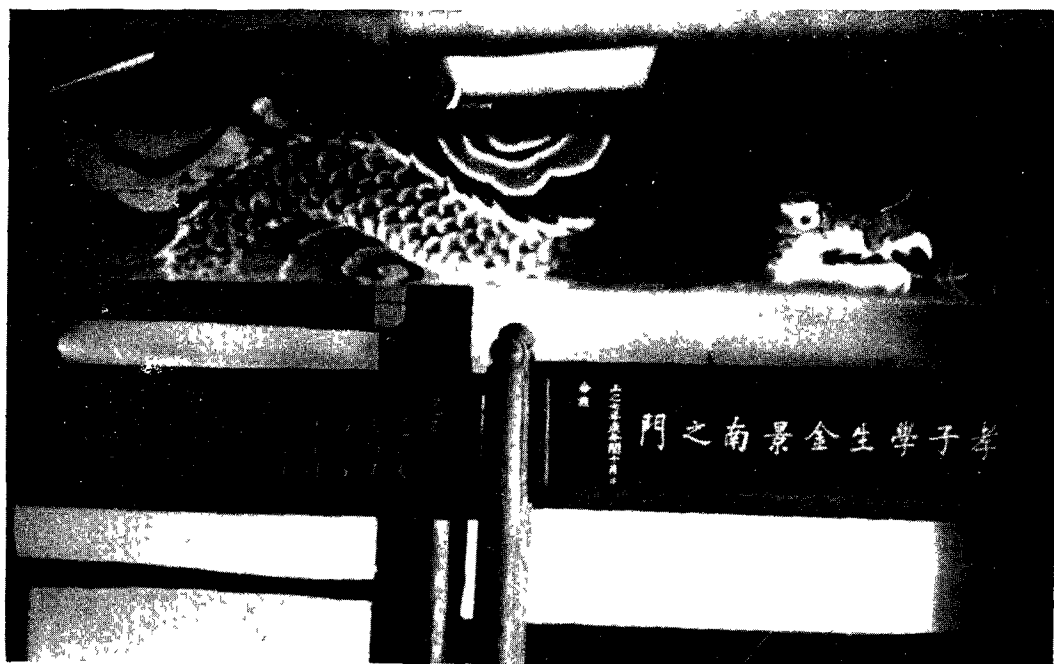
— 움막을 짓고 3년을 한결같이, 호랑이도 감동되어 같이 지켜 —



김경남은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에서 태어났으며 호를 한천(寒泉)이라 한다. 그는 충의공(忠毅公) 김문기의 손자 탄옹(炭翁)의 아들이다.

평소 그의 모친이 버섯국을 좋아 하였으므로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그는 지성으로 산간을 헤매면서 버섯을 채집하여 모친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받들었다.

한번은 집 뒤편에 있는 언덕 비탈에 뜻밖에 잘 자란 버섯이 밀집하여 자라고 있으므로 이를 채취하여 모친의 반찬을 만들어 드렸다.



그후 毎日같이 가보면 神奇하게도 如前히 叢生 하고 있어 이를 採取하여 계속 無難하게 반찬을 만들어 드렸는데 하루는 가보니 버섯은 쓸어버린 듯이 없어졌고 또 바로 그날 밤에 母親이 世上을 떠나니 모두들 奇異하게 여겼다. 그 후 이 곳을 洞里사람들은 버섯들이라 부르고 버섯을 孝子 버섯이라 이름하였는데 後孫들이 이곳에 碑를 새겨 異蹟을 紀念하였다.

그는 母親喪을 치른후 廬幕을 짓고 3年을 한결같이 侍墓하였는데 밤이면 호랑이가 찾아와서 그를 守護하듯 밤을 세우면서 날이 밝으면 떠나니 이 또한 3年을 하루같이 꾸준하였다. 그리고 이 마을엔 作者未詳의 採菌歌 一篇이 傳해 오고있다.

1-3 이원익 (李元翼 / 亂世의 忠臣 梧里政丞)



이원익은 명종(明宗) 3년(1548)에 금양(衿陽, 始興郡)에서 함천부수 이억대(咸川副守 李億戴)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는 태종(太宗)의 왕자(王子) 익영군(益寧郡) 치(祔)이니 왕실(王室)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원익은 자(字)를 공려(公勵) 호(號)를 오리(梧里)라 하였다. 세상에서는 그의 이름보다도 오리대감·오리정승(梧里大監·梧里政丞) 또는 키작은 대감(大監) 등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천성이 단조롭고 맺결같이 곧아서 자기의 할일만 할뿐 남과 잘 어울린다거나 자기를 남에게 알리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원익은 17세 되던 명종 19년(1564)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21세 되던 선조(宣祖) 2년(1569)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초임(初任)으로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가 된 후 저작(著作) 등을 역임하고 선조 6년(1573)에는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이 되었다.

이 해 성절사 권덕여(聖節使 權德與)를 따라 질정관(質正官)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온 후 호조좌랑(戶曹佐郎)을 지내고 선조 7년에는 예조(禮曹)와 형조(刑曹)의 좌랑(佐郎)을 거쳐 황해도사(黃海道事)가 되었다. 때마침 이이(李珥)가 황해감사(黃海監司)로 부임하였는데, 이원익은 그 밑에서 공로를 쌓아 크게 신임을 얻었다.

이이(李珥)가 서울로 전임되자 이원익은 그의 추천으로 선조 9년(1576)에 정언(正言)에 올랐다. 다음 해에는 지평(持平)등을 거쳐 사간(司諫)에 오르고, 선조11년에는 옥당(玉堂)에 들어가 경연관(經筵官)이 되어 선조의 신임을 받게 되었다.

선조 15년(1582)에는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고 선조16년에는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었는데, 이때 도승지(都承旨)인 박근원(朴謹元)과 영의정(領議政) 박순(朴淳)이 불화하여 유소(儒疏)를 배격한 사건으로 이원익은 파직되고 박근원(朴謹元)은 강계(江界)로 유배되었다. 즉 유소(儒疏)를 배격하자 이것을 본 왕자사부 하락(王子師傅 河洛)은 승정원(承政院)이 왕의 청명(聽明)을 흐리게 한다고 상소하였고 이 상소를 본 선조가 대노하여 문죄(問罪)하려고 할 때에 승지(承旨)들은 박근원과 박순의 불화를 사실로 고하여 화(禍)를 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원익은 이에 반대하여 “죄를 동료에게 돌려 혼자만 화를 면하려고 하는 것은 신하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이원익은 도승지 박근원의 죄에 연류되어 파직되고 말았던 것이다.

선조 20년(1587)에 이르러 5년만에 사면되어 안주목사(安州牧使)로 기용되었다. 이원익이 안주목사가 되자 종래 4번제로 1년에 3개월씩 복

무하던 군병(軍兵)의 방수(防守) 제도를 6번제로 고쳐 백성들에게 편의를 주었고, 누에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안주지방에 그것을 장려하여 크게 보급되게 하였다.

그후 이 지방에서는 누에치기가 크게 번창하였으며 안주지방에서는 이원익을 이공상(李公桑) (이원익이 시작한 뽕이라는 뜻)이라 부르는 말까지 생겼다 한다. 그는 안주목사로서의 치적(治績) 때문에 선조 24년(1591)에는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고, 이어서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호조판서·예조판서·이조판서(戶曹判書·禮曹判書·吏曹判書)를 역임하였다.

선조 25년 4월 14일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생하여 이일(李鎰)이 상주(尙州)에서 패하고, 신립(申瑰) 또한 충주(忠州)에서 패하며 수도(首都)가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충주(忠州)의 패보(敗報)가 조정에 이르자 선조는 종실·제대신(宗室·諸大臣)을 모아 논의한 결과 잠시 평양(平壤)으로 난(亂)을 피하고 명(明)에 구원병을 청하여 수복을 꾀하기로 하는 한편, 임해군(臨海君)을 함경도(咸鏡道)로 순화군(順和君)을 강원도(江原道)로 보내어 근왕병(勤王兵)을 모으도록 하였다.

이 때 이원익은 이조판서겸 평안도도순무사(平安道都巡撫使)가 되어 선조의 서행(西幸)보다도 먼저 평양으로 가서 향언백(向彦伯) 등과 평양을 지켰다.

그런데, 사태가 불리하여 선조가 평양에서 다시 의주(義州)로 북행(北行)하자 이원익은 윤두수·김명원(尹斗壽·金明元)과 함께 평양을 지키려 하였으나, 결국 평양도 함락되어 이원익은 안주(安州)로 후퇴하여 흩어진 군병을 모아 대동강 이북을 지켰다.

명나라의 원병이 도착하자 그는 이여송(李如松)을 따라 평양을 수복하였고, 왜구들이 남으로 퇴각하여 선조가 환도(還都)한 후에도 이원익은 평

양에 남아 군사 1만여명을 훈련하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선조 28년(1595)에 우의정(右議政)에 오르고 도도체찰사·영원수부사(道都體察使·領元帥府事)를 겸하여 작전(作戰)의 대임(大任)을 맡았으며 지방을 순시하여 전후 복구에 전력하였다.

이 때 선조는 노령인 그의 건강을 염려하여 만류하였음에도 듣지 않고 성주(星州)에 머무르면서 군기(軍紀)를 바로 잡았는데 어찌나 공정하고 엄격하였던지 령(令)을 어기는 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를 처벌하니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도 명을 어기고 오지 않았다가 파직된 일이 있었다.

선조 29년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시작되었을때 이순신(李舜臣)이 간신들의 시기와 당쟁에 희생되어 투옥되자 이는 국가를 그릇치는 중대한 일이라 하여 이원익은 선조에게 강력하게 항변하기도 하였다.

원균(元均)이 참패한 후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統制使)로 등용한 데에는 이원익의 막후의 노력이 컸으니 이순신은 “군사들로 하여금 죽는 것을 잊게하는 이는 이정승(李政丞)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내가 장수로 밖에 있으므로 참소와 의심이 길을 막는데, 정승께서 내 계획을 높이 평가하여 지금 주사(舟師)가 대강 완패된 것은 전부 이정승의 힘ियो 내 힘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명군이 다시 내원(來援)하자 체찰사(體察使) 이원익은 도원수 권율과 함께 휘하에 이덕형, 김체(李德馨, 金晔) 등으로 복군(復軍)을 설치하게 하고 8도(道)에 모병(募兵)하여 명군(明軍)과 함께 왜구들을 격퇴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임진난이 종결된지 수년이 지난 후 선조 37년(1604)에 이르러 난중(亂中)의 공로에 대하여 논공행상(論功行賞)이 있었는데, 이원익은 유성룡(柳成龍)·윤두수(尹斗壽) 등과 함께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훈록(勲錄)되고 완

평부원군(完平府院君)에 봉해졌다.

광해군(光海君)이 즉위하자 이원익은 영의정이 되었다. 영의정이 된 이원익은 광해군 원년(1608)에 왜란(倭亂)으로 바닥이 드러난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였다.

임진왜란은 무엇보다도 농토(農土)를 황폐하게 하여 난전(亂前)에 170만결(萬結)에 이르렀던 전결(田結)이 난후(亂後)에는 실결(實結)이 54만결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의 조세(租稅) 수입은 격감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원익이 주장하여 종전 특산물로 바쳐오던 공납(貢納)을 미곡(米穀)으로 통일하는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원래 공납제는 여러가지 불편을 수반하고 있었다. 공물은 국가와 지방의 특산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부패하기 쉬운 공물을 먼 지방에서 수송하기도 어려웠다. 그리하여 방납(防納)이 행해지고 각종 협잡이 따랐기 때문에 농민들이 유망(流亡)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대동법은 우선 경기도에 시행되고 그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 후 인조(仁祖) 때에는 강원도에 실시되고, 효종(孝宗) 때에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실시하였으며, 숙종(肅宗) 때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니 미곡으로 통일한 공물(貢物)을 「대동미(大同米)」라 하였고 이것을 관장하던 기관을 「선혜청(宣惠廳)」이라 하였다.

영의정이 된 후 이원익은 수차 사의를 표하였으나 허락되지 않던 중, 광해군(光海君) 7년(1615)에 폐모론(廢母論)을 반대하다가 홍천(洪川)으로 유배되었다.

광해군은 당쟁(黨爭)에 휩쓸려 이미첨(李爾瞻) 정인홍(鄭仁弘) 등 북인(北人)들에 위압되어 임해군(臨海君)을 죽이고 김제남(金悌男)이 옥사(獄事)를 일으켜 영창대군(永昌大君)까지 죽였으며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 유

폐하려 하였다.

이 때 이원익은 죽음을 무릅쓰고 폐모론을 극력 반대하였는데, 광해군은 「내가 효도를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기에 무근한 말을 하여 부모에게 죄를 짓게 하느냐」고 대노하였다.

그리하여 광해군은 선왕(先王)으로부터의 이원익에 대한 높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홍천(洪川)으로 귀양보냈던 것이다.

이 때 관동지방(關東地方)에는 한발이 심했는데 이원익이 귀양가자마자 이 지방에 큰 비가 쏟아져 한발을 면했는데 이지방 사람들은 이 비를 상공우(相公雨)라 불렀다 하며 지금도 가뭄 끝에 오는 비를 상공우라 한다.

이원익이 홍천으로 귀양갔을 때 역시 북인에게 몰려 신흠(申欽)은 춘천(春川)에 귀양갔고, 한준겸(韓濩謙)은 서호(西湖)로 귀양갔으므로 이를 「삼찬(三竄)」이라고 불렀다.

이원익은 광해군 11년(1619)에 풀려나 여주(驪州)로 옮겨다가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광해군이 물러나고 북인(北人)들이 몰락하자 남인(南人)인 이원익이 다시 영의정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때 서울의 시민들은 상공(相公)이 돌아왔다고 크게 축하하여 마지않았다 한다. 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재상(宰相)이었는가를 이로써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원익은 영의정이 되자 인목대비(仁穆大妃)가 광해군의 처형을 명했으나 이에 반대하여 유배에 그치게 했다.

이원익이 또다시 영의정이 됨에 광해조(光海朝)에서 권세를 부리던 무리들은 생사가 오로지 이원익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쓰기도 하였다.

어느 사람은 그의 첩(妾)을 이원익의 첩실(妾室)에게 보내어 신고 있던

구슬신을 선사하고 목숨을 빌었다. 첩실이 이원익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더니 이원익은 눈물을 흘리면서 「신하에게 이런 물건이 있으니 그 임금이 어찌 망하지 않을 것이며, 첩실이 이런 물건을 지니고 있으니 어찌 그 주인이 죽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한탄하여 마지 않았던 것이다.

인조반정 다음 해에 이괄(李适)이 논공행상(論功行賞)에서 평안병사(平安兵使)겸 부원수에 그친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원익은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인조를 공주(公州)로 호종(扈從)하였다.

인조 5년(1627)에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인조는 강화도로 파천(播遷)하였는데 이원익은 도체찰사로 왕세자(王世子)를 호종하여 전주(全州)로 난(亂)을 피했다.

이 해 3월에 후금(後金)과 화의(和誼)가 성립되어 인조는 천도(遷都)하였고, 이원익도 왕세자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이때 이원익의 나이는 이미 79세나 되어 연로하였으므로 정사(政事)를 맡을 기력이 없어 이 해 가을에 인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금양(衿陽)으로 내려갔다.

그 후 여러 차례 인조의 부름을 받았으나 나서지 않다가 인조 12년(1634) 1월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87세였다.

이원익이 세상을 떠나자 인조는 크게 애통하여 관구(棺柩)와 상수(喪需)등을 보내고, 예조낭청(禮曹郎厅)과 경기감사(京畿監司)를 금양으로 보내 호상(護喪)하게 하였다.

효종(孝宗)은 그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리고 인조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 기천서원(沂川書院), 충현서원(忠賢書院), 청천사(淸川祠)등에 제향(祭享)되었다.

이원익은 임진왜란 인조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과 같은 전란(戰亂)과 당쟁(黨爭) 속에서 세 임금을 섬긴 충신(忠臣)이었으며 많은 업적을 쌓

은 훌륭한 정치가 였다. 그러나 이원익이 우리에게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것은 정치가로서의 그의 업적보다도 오리대감(梧里大監)으로서의 그의 인간됨에 있는 것이다.

이원익은 흔히 그 이름보다도 오리정승(梧里政丞)이니, 키작은 대감(大監)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전(口傳)에 의하면 이원익의 키가 3척 3촌이었다 하나 이는 키가 작은 것을 과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느날 이원익이 한 치쯤 되는 나막신을 신고 관상(觀相)을 보였더니 점장이가 아래 위를 한참 훑어보고 「키가 한치만 작았더라면 오단(五短)으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 될 상(相)입니다만…」하였다.

이에 이원익은 신고 있던 나막신을 벗어 보이자 점장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재상(宰相)감을 이렇게 만나 뵈오니 황송하옵니다」하였다 한다.

이원익의 생활 태도는 지극히 소탈하고 검소하였다. 그는 오랜 동안 벼슬자리에 있었고 재상자리를 몇 번이나 역임하였으면서도 그가 사는 집은 비바람조차도 가리기 어려운 두어간짜리 오막살이 초가집이었으며 그가 노환이 심중(沈重)하여 누워 있어도 약 한 첩을 쓸 여유도 없었고 끼니조차도 변변히 잇지 못하였다 한다.

그의 집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가 현관(顯官)에 오르기 전에 집을 지으려고 재목을 마련하였는데, 그가 갑자기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오르게 되었다.

호조판서는 국가의 재정을 맡아보는 자리이니 세상 사람들의 의심을 받기 쉽다 하여 집짓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후 계속 벼슬길에 있게 되고 재상까지 되니 집을 지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마련해 두었던 재목은 썩고 삭아버리게 되었다 한다.

그가 재상자리에 있을 때, 그의 청렴 검소한 성품을 잘 아는 임금은 노령의 빈궁(貧窮)을 딱하게 생각하여 비단 금침(衾枕)과 비단 의복을 하

사하였다. 그러나 그가 굳이 사양하는 것을 보고 소욕(素褥)과 소의(素衣)를 내려 그의 고집을 가상하게 여겼다 한다.

인조는 가끔 이원익이 지내는 모습을 신하들에게 물었고, 곤궁하게 지내는 것을 들으면 나라의 기둥인 그를 잘 보살피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 두어서야 되겠느냐고 꾸지람을 한 일도 여러 차례였으며 약과 양식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승지(承旨)와 내시(內侍)를 그의 집에 보내 안부를 알아보게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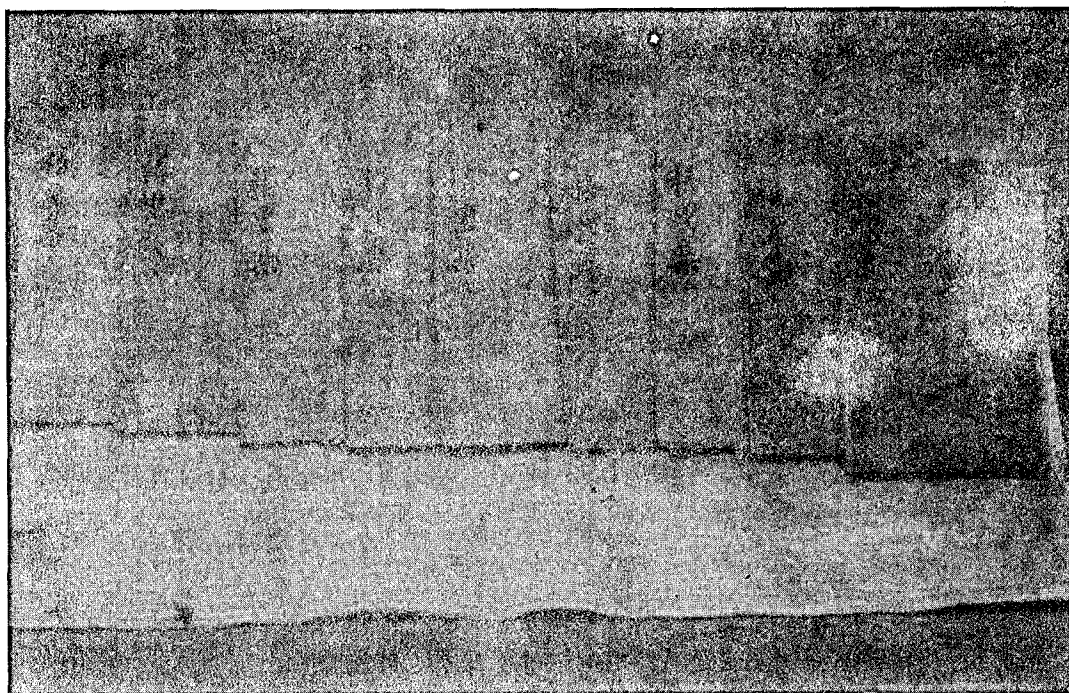
이원익은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섬긴 인조의 각별한 신임과 존경을 받았다. 이원익이 왕의 부름을 받고 입궐할 때에는 특별히 왕좌(王座) 앞뜰까지 가마를 타고 들어오도록 하였으며 또 그가 들어올 때에는 내시를 뜰에까지 내려보내 부액(扶腋)하여 들어오게 하였다.

이원익이 앓고 있을 때 인조는 친히 문병차 그의 집으로 행차하려고 한 일도 있었다. 이원익이 노령에 병이 무거워 여러번 자리를 사양하였으나 인조는 매양 「대궐에 들어오지 않아도 좋으니 집에서 조리하면서 국사(國事)를 보살피 주고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청 하였으며, 「그대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정사를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원익은 홍천으로 귀양가 있을 때 순목(順目)이라는 순박하고 성실한 종이 가끔 금양에서 홍천의 적소(謫所)를 방문하여 그를 위로하였다. 어느날 이원익은 찾아온 순목을 보고 이렇게 읊었다.

「노량(露梁)을 떠날 때에는 봄 빛이 가득하더니 홍천의 골짜기 위엔 여름 구름이 떠 있네, 산(山)넘고 물 건너 또다시 찾아오니, 네 아버지의 어짐을 많이도 닮았구나」

귀양살이의 외로움과 그를 찾아준 순목의 고마움이 서려있다. 이에 대하여 순목은 다음과 같이 화음(和吟)하였다.



「길 떠날 땐 화창한 봄 날씨였건만, 당도할 땐 한 여름 구름을 뵈니다. 행여 고마운 사랑에 보답하고자 할 뿐 어찌 아버지의 어짐을 이었다 하십니까」

이원익이 광해군 11년(1619) 5년만에 적소에서 풀려 여주로 옮겼을 때 그 곳 호장(戶長)의 집에 기거하면서 돛자리를 짜서 팔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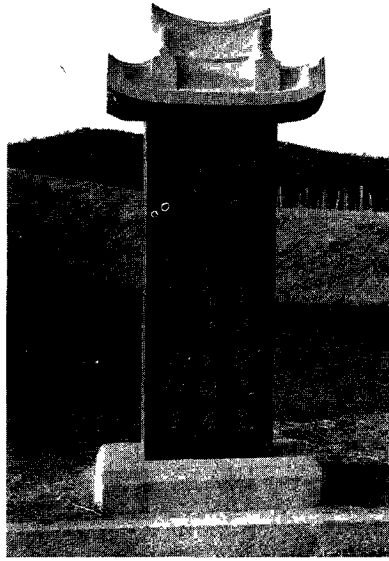
이 때 호장의 아내가 죽었는데, 이원익은 몸소 나서서 상례(喪禮)를 치루어 주었다. 뒤에 장현광(張顯光)이 이것을 알고 「영의정이 호장의 아내 치상을 하니 호장의 아내가 영광이로다」하고 그의 소탈한 인격에 감복하면서 한바탕 웃었다고 한다.

이렇듯 이원익은 가는 곳마다 일화를 남겼고 그의 일화에 접할 때마다 친근감을 갖게하는 것이다.

이원익의 묘는 시흥군 소하읍 소하리(광명시 소하동)에 있는데 쌍묘이며 묘전에는 묘비, 상석, 망주석 및 문석각 2기 장명등이 있다.

1-4 이 익 (李 翼) 1681 (숙종 7) ~ 1763 (영조 39)

- 朝鮮朝 실학의 대가 -



이조 영조 때의 남인(南人) 학자로써 자는 자신(子新)이며 호는 성호(星湖)다. 본관은 여주(驪州)로서, 대사헌(大司憲) 하진(夏鎭)의 아들이다. 1705년(숙종 31) 증광과(增廣科)에 합격하였으나 그의 형 이잠(李潛)이 당쟁으로 희생된 후 벼슬의 뜻을 버리고 학문에 몰두, 유형원(柳馨遠)의 학풍을 계승하여 실학(實學)의 대가(大家)가 되었으며, 특히 천문(天文) 지리(地理)·의약(醫藥)·율산(律算)·경사(經史)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영조는 그의 명성을 듣고 1727년(영조 3년) 선공가감역(繕工假監役)으로 임명했으나 사양하고 저술(著述)에 힘쓰는 한편 서학사상(西學思想)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천문략(天門略) 천주실의(天主實義) 주제군징(主制群徵) 칠극(七克) 진도자증(眞道自證) 등을 연구하였다.

그는 평생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광주(廣州) 침성리(瞻星里)에 머물러 학문을 연마하였으나 항상 국가 부흥을 위한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저술하여 실증적(實證的)인 사상을 확립시켰다.

역사 서술의 태도에 있어서도 종래의 방법을 버리고 비판적 고증적(考証的)인 방법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당쟁(黨爭)의 폐단은, 이해(利害)의 투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양반(兩班)이 실제적인 실업(實業)에 종사하지 않고 관직을 얻음으로 재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직제(職制)에 대해 너무 많은 수의 관리가 배출되므로 자연히 당파싸움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는 양반계급의 생업(生業) 종사와 과거제도의 잡다(雜多)를 피하고 관리 승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그는 토지경작(土地耕作)을 기본적인 경제정책으로 삼고 중국의 정전제(井田制)를 이상(理想)으로 한 한전법(限田法)의 시행을 제창하였다.

그 후 이익의 사상은 제자 안정복(安鼎福)·이가환(李家煥)·이중환(李重煥)·윤동규(尹東奎)·신후담(愼後陞)·권철신(權哲身) 등에 의하여 연구 계승되고 정약용(丁若鏞)이 집대성(集大成) 하였다.

그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벼슬로 죽은 후 조정에서는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추증(追贈)하여 생전의 공로를 추모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성호사설(星湖僿說)·곽우록(霍憂錄)·성호문집(星湖文集)·사칠신강(四七新講)·상위전후록(喪威前後錄)·자복편(自卜篇)·관물편(觀物篇)·백언해(百諺解)·해동악부(海東樂府) 등이 있으며 이익 선생의 묘는 화성군 반월면 이리 속칭 「능골」 산마루터에 있고 이익선생이 두문불출하여 독서에만 전념하던 곳은 수암면 성포리이다.

이익 선생의 묘역은 약40평이며 묘제는 평범하여 특징은 없다. 다만 직계 후손이 없어 황량했던 것을 1967년 5월 성호 이익선생추모회에 의해 정비되고 묘비도 건립되었다.

1 - 5 「열녀」 밀양박씨와 「효자」세철

-자신의 검지를 절단하여 부모의 생명을 구하다-

군자면 원시리에 살았던 밀양 박씨의 이조모께서 그의 시부모님이 중병으로 누워 계실 때 주야로 천지신명께 기도하였다 별별 명약과 유명한 의원을 초청 진료해도 별 효과가 없어 심히 애태우던 중 거북이의 피를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 거북이를 구하려고 애쓰던 중 마침내 신이 감복하여 개천 얼음속에 거북이 한마리가 나타나 이 거북이를 잡아 피를 복용시켰으나 효과가 없어 더 병세가 악화되어 사경에 이르자 최후 수단으로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절단하여 수혈하자 소생이 되었다고 한다.

또 그의 아들 세철도 부친의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생하던 중 극진한 효성으로 봉양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그리하여 세철도 열녀의 어머니 밀양 박씨의 뜻을 받들어 그의 검지를 잘라 피를 수혈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였다 한다.

그 후 양대에 걸친 효성이 지극함이 근동에 소문이 자자하였던 바 그 사실을 대왕께까지 전해지고 그의 효성을 지극히 칭찬한 후 고종29년(1892년)에 열녀문과 효자문을 사사하였다.

1-6 효자 최사립 (孝子 崔斯立)

—지극한 효성으로 말라죽은
썩에서 꽃이 피다—

효자 최사립은 이조 중종때 사람으로써 지금의 과천면 사람이다.

최사립은 평소부터 효행이 지극하여 그의 효성은 근동에 자자했다.

어느 겨울날 그의 부친께서 병환이 대단하여 이름있는 의원 및 약을 다 썼으나 효험이 없어 걱정하던 중 병환중인 부친께서 “내가 썩 꽃을 먹으면 살 것 같다” 라고 하셨지만 엄동설한의 추운 겨울에 썩 꽃을 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최사립은 정한수를 떠놓고 신령에게 썩 꽃을 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방 벽을 엮은 다 죽은 썩 넝쿨이 벽을 타고 뻗어나와 썩 꽃이 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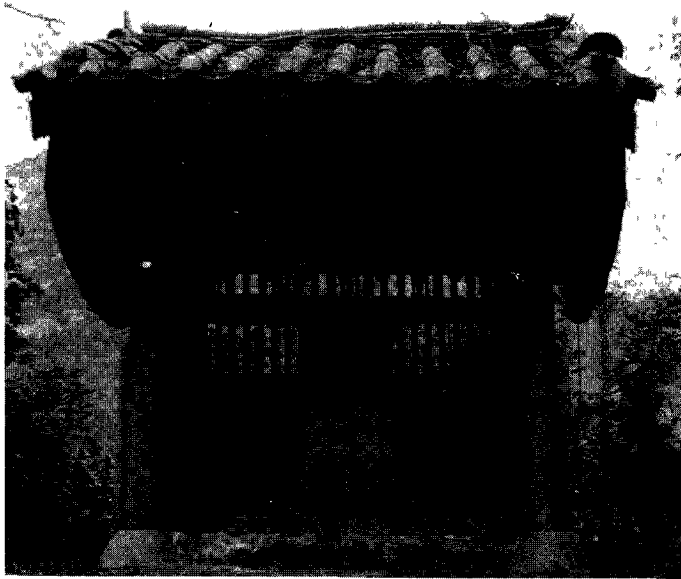
그는 신령님께 감사하고 꽃을 부친께 드렸다.

이후 부친의 병환은 씻은 듯이 다 낳았다.

이처럼 신까지 감동시킨 효행이 알려지자 조정에 알리어 중종 대왕으로 부터 효자문을 사사 받았다. 이후 후손이 관리하고 보존하던 중 효자각은 소실되고 효자문만 후손인 최종수가 보관하고 있다.

1-7 하 우 명 (河友明)

—지극한 효성으로 호랑이가 잡아먹은 오리가 다시 살아나—



하우명은 시흥군 소래읍 신천리에서 조선조 세조시대에 태어났으며 그의 호는 연당(連塘)이다.

그는 모친을 섬기기를 지극한 효성을 다 하였으며 조석으로 올리는 진지상의 찬을 만들어 먼저 맛보며 손수 조리한 것이 아니면 진지상을 올리지 않았으며 그의 모친도 또한 하우명이 조리한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일이 있어 우명이 친히 조리를 못할것 같으면 음식을 잡수 시지 아니하였다 한다.

이토록 지극한 효성을 드렸던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너무 애통하고 심상하여 매우 슬퍼하였다. 제사(祭祀)의 음식을 손수 마련하여 갖추고 나무하고 물 깎는 일까지 손수하면서 3년을 마쳤으며 벼슬에는 뜻이 없었다. 그러나 세조왕이 도진무절제사(都鎭撫節制使)로 기용코자 하였으나 두 번이나 지병을 빙자하여 사양하고 취임하지 아니하였다.

시묘(侍墓)를 설때 묘앞에 등을 켜는 대석을 설치하고 밤이 새도록 등불을 밝혔었다. 하루는 등불이 꺼지고 등잔이 넘어졌다. 어찌된 연유인지 몰라 애통하게 호곡하며 탄식하였다.

그 이튿날 붉은 여우 한마리가 등잔대석 앞에서 죽어 있었다. 또 호랑이가 묘막밖에와 걸터 앉아 있으면서 두려워 하지도 아니하였다. 혹 제사를 지낸 음식을 던져주면 먹었으며 갔다가 다시와서도 사람을 해치지 아니 하였다 한다.

일찌기 하우명은 거위와 오리를 길러 장차 제수(祭需)에 쓰려하였는데 하루는 호랑이가 갑자기 거위를 잡아먹었다. 우명이 탄식하되 「이것은 내가 조상의 제사에 쓸 물건인데, 호랑이가 비록 짐승이지만 어찌 내 마음을 몰라 주는가」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3일만에 거위가 살아서 돌아 왔는데 상한데가 없었으니 이는 다 그의 효성에 감탄함이었다.

모친이 돌아가자 시묘를 살면서 마치 산사람을 섬기는 것 같이 하였는데 문벌이 응당 중복이 없지 아니한데, 설을따 몸소 운반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나의 정성을 다하여 모친의 모습을 생각하고 초상화를 모신 영당(影堂)을 세워서 제절따라 새로운 제수들을 받들어 제를 올렸다.

양친을 섬김에는 그 효성이 천성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모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는 예를 다하여 받들었고 기제를 맞아서는 먼저 죽은 형제, 자매, 신위(神位)를 같이 배설(配設)하여 제사를 지내되 우리 부모님께서는 평시에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 배가 부르다고 하였다.

그후 지방관(地方官)이 그의 효행을 조정에 상신하니 왕께서 가상히 여기사어 정문(旌門)을 세우고 호세(戶稅)를 면제하여 줌으로서 효행을 기리도록 하였다.

현재 소래읍 신천리에 그의 효행을 기리는 정문(旌門)이 있다.

1 - 8 김 달명 (金達命)

김달명(金達命)은 의정김씨로서 사재(思齋)문목공(文穆公) 김정국(金正國)의 9世孫인 헌납(獻納) 김한노(金漢老)의 아들이다. 어려서 부터 그 품성이 효성스러웠으며 그 어머니 강씨가 병환에 눕게되자 便을 맛보아 길흉을 판단하고 손가락의 피를 입에 흘려넣기도 하였다.

어머니가“생선을 먹고싶다”고 하자 때가 추운 삼동이라 부인조씨가 함께 울며 하늘에 기도하니 고양리와 개가 산고기를 물어다가 놓는 기적이 생기었다.

그후 아버지와 어머니 상을 당하여서는 상복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3년을 죽(粥)으로 목숨을 견디고, 참외와 과실을 먹지 않으며 날마다 성묘하고 애통하니 무릎을 꿇은곳에 풀이 다 말랐었다. 정조대왕(正祖大王)이 승피(算避)하던 날은 그나이 70이었으나 夫人과 같이 3년동안 素食하였었다. 철종 3년(1952) 유림(儒林)에서 포상(褒賞)하기를 청하여 동몽교관(童蒙敎官)이 추증(追贈)되고 그 부인도 같이 정려(旌閭)하기를 請하여 정려의 은전(恩典)을 받았다.

1 - 9 김동려(金東礪). 동은(東殷)

所在地：始興郡

遺蹟：

時代：朝鮮朝

김동려와 동은 형제의 행적이 나라에서 정려(旌閭)의 은전이 있음은 다만 孝한 者를 위해서가 아니라 不孝하는 者를 권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孝道하는 것이 저순(舞)이나 증자(曾子)와 같이 行하여도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들어 내는 것에 일삼을 것도 아닌 것 같으나 옛날로 부터 孝에 能한者는 적고, 能치 못한者가 많기 때문에 권장하고 격려하는 方法이 없다면 그 퇴폐하는 풍속으로 보아 조금도 늦출일이 아니고 마땅히 먼저 행할 일이다.

安山の 西쪽에 효자 김동려와 동은형제가 있었는데 본래 시골 사람이어서 더욱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동려는 일찍부터 황향과 같은 효행을 하였고 자라서는 農事를 지어 부모를 봉양할 때 몸에 편하고 입에 맞는 것은 빠뜨리지 않고 모두 올렸다. 병환에는 북두칠성에게 기도하였으며 손가락의 피를 입에 흘려 넣어드려 열흘 동안 연명케 하였다. 喪을 當하여서는 沐浴시킬 때 屍水를 활아 먹었고 장례를 모시는 데는 집안의 힘을 다 하였고 아우 동은과 같이 예제를 엄격히 지켜 수도 마시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고기도 먹지 않았으며, 묘소앞에 여막을 설치하고 비오고 눈오는 날도 가리지 않고 새벽과 저녁으로 慟哭하였다. 마침내 그 몸이 쇠약하는 지경에 이르러 어머니 喪을 當하고 1년이 못가서 죽으니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동은도 날마다 定省하며 어머니가 종기를 앓으면 그 고름을 입으로 빨으며 안질이 나면 혀로 핏물을 빨았다. 돌아가실 때에도 몸을 정결히 하여 돌아 가시게 하였다.

예절을 따르는 것이 그兄과 같으니 이것은 진실로 천성으로 되는 것이라 이러한 사실을 볼때 이 형제는 누가 더 孝스럽다고 말할수가 없

었다.

흥년이 들어 형제가 양곡을 풀어서 집안 친지들을 도왔을 뿐 아니라 이웃 사람을 다 함께 구제하였으니 이 역시 효성에서 우러난 것이다. 하늘이 주신 이치가 과연 잘못되지 아니함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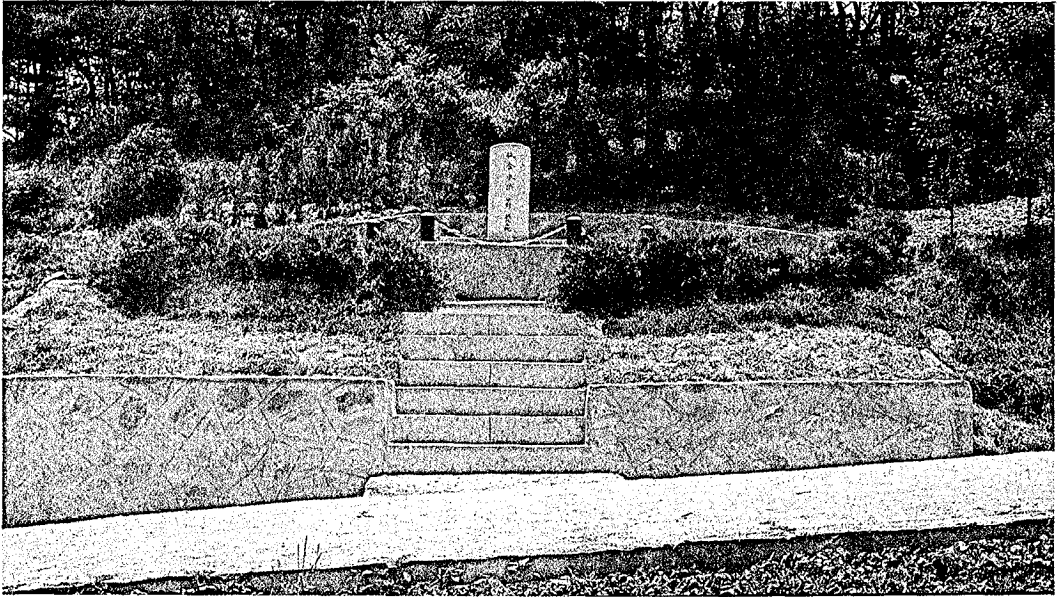
동은의 아들 광의(光儀) 또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올리고 大便을 맛보아 가며 하늘에 기도하였고 父母가 돌아가신 後에는 여막살이 父母를 욕되게 아니하며 한 집안에 3孝子가 났으니, 어찌 末世에 보기 쉬운 일이라 하겠는가!

동려가 살아있을 때부터 유생들의 公議로써 狀牒을 올린 것이 卷軸이 되어 정문(旌門)을 세우도록 할 것을 바랐으나 但 나라에 알릴 길이 없어 장차 매몰되는가 하였으나 이에 여막으로 그 동리를 포하여 오래도록 전할 계획을 하니 내 고장 인사의 효도를 넓히는 뜻이 지극하였다. 이 여막을 지나는 者は 반드시 머리를 숙으리며 동려는 누구이기에 탁행(卓行)이 능히 사람들을 감동케 하며 장차 이 여막과 같이 종시(終始)를 같이 할 것이니 우리 또한 사람인 바에 어찌 다투어 사모하고 스스로 권면(勸勉)하여 사람마다 舜과 曾子가 되게 하면 이 여막이 風化에 도움이 됨에 어찌 적다할 것인가! 그 일을 주관하는 것은 비록 士人 김정진(金定鎭), 김달영(金達永)이지마는 내가 一郡의 風化의 責을 받은 자로 간곡히 記文을 쓰라고 하니 감히“글을 못한다”고 사양할 수는 없는 것이다.

辛亥年10월에 水原 李等이 親이 쓰다.

2. 현장의 발자취

2-1 김승철 중위 현충비 (金承鐵 中尉 顯忠碑)



김승철 중위는 평안북도 선천군 출신으로 6.25 당시 육사 9기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이한림 장군의 부관으로서 근무하던중 1950년 7월 2일 작전임무 수행으로 파천면 갈현리 산13번지의 도로상을 통과하던중 갑자기 숨어있던 괴뢰군 저격병에 의하여 저격을 당하였으나 재빨리 자기의 몸을 던져 방패삼아 이한림 장군을 구하고 장렬하게 숨져간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당시 육군 준장이던 이한림 장군이 1959. 9. 9 전사 현장에 김승철 중위의 장렬한 순국정신을 기리고자 면사무소 약 1km 못미처 파천면 갈현리 찬우물 부락에 26평의 묘역에 기단 0.7m 탑높이 1.35m의 현충비를 세워 그의 공을 기리던바 1965년 7월 국방부에서 인수 관리하던중 1970년 부터 시흥군(파천출장소)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한일 중고등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 해마다 묘역을 가꾸며 고인의 영혼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3. 유적 유물의 모습

3 - 1 연 주 대 (戀 主 臺)

지정번호 : 지방기념물 제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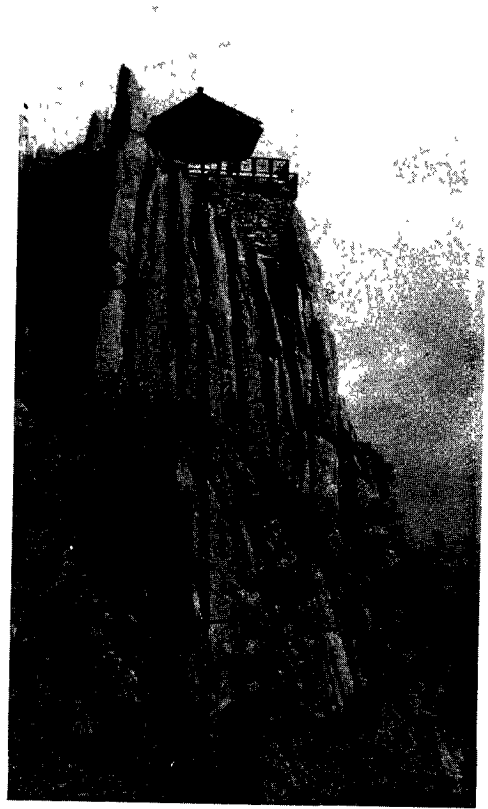
소 유 : 연주암 주지

위 치 :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재 료 : 자연암벽 (自然岩壁)

시 대 : 조선조초기 (朝鮮朝初期)

해발 750m의 연주봉(戀主峰)에 여러개의 크고 작은 죽순처럼 솟아있는 절벽위에 석출을 쌓아 올린곳에 비둘기집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연주대(戀主臺)이다.



태종(太宗)이 셋째 왕자 충령대군(世宗)을 장차 세자로 삼을 뜻을 눈치챈 첫째왕자 양령대군과 둘째왕자 효령대군이 왕궁을 빠져나와 발길 닿는대로 방랑(放浪)의 길을 떠났는데, 산에서 산으로 헤매이기 수일만에 문득 발을 멈춘 곳이 관악산(冠岳山)이었다 한다.

그가 관악사(冠岳寺)에 들어가 입산수도(入山修道)를 피했으나 왕좌(王座)에 대한 미련과 동경(憧憬)의 정을 누를 길이 없어 관악사를 현연주암 위치로 옮겼는데 그래도 왕좌에의 미련에 이끌리어 발길은 언제나 왕궁(王宮)이 바라다 보이는 산정(山頂)으로 옮겨지곤 하였으니, 두 왕자의 심정을 아로새겨 이곳에 암자를 짓고 연주대라 이름하니 관악사도 어느덧 연주암이 되고 말았다.

3 - 2 별 망 성 (別 望 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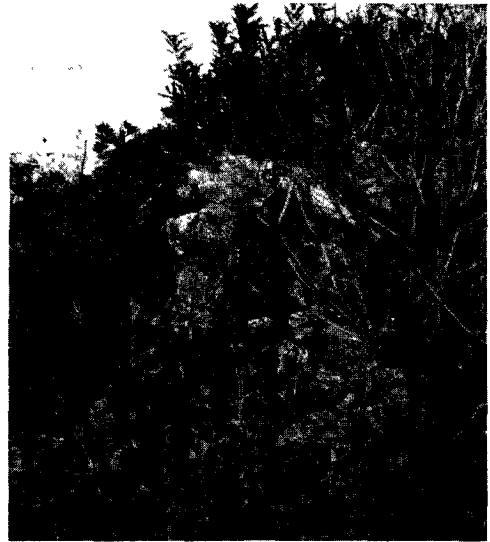
지정번호 : 지방유형문화재 제86호

위 치 : 시흥군 군자면 초지리 442-1

크 기 : 높이 2m 길이 500m

재 료 : 석성 (石城)

시 대 : 고려 후기



남양만을 연하여 육지를 상대로 요새지를 형성하였다.

독립봉(獨立峰)의 배면정상(背面頂上)에서 해안을 따라 양소구릉(兩小丘陵)으로 석축하였는데 이것은 몽고내침시 해도(蒙古來侵時 海島) 혹은 해안산성(海岸山城)의 하나로서 축성(築城)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부분적으로 파괴되기도 하였으나 높이 2m 내외 주위 약 500m가 남아있고 성내에는 청자(靑磁) 및 도기편(陶器片)이 출토된다.

평지 가까운 곳에 군영지(軍營址)로 보이는 터(臺地)가 남아 있으며 이곳 지명인 초지진(草芝鎭)은 2초지(2草芝)라는 전설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이곳에 선박의 출입이 어려워져 사곶(砂串)으로 영(營)을 옮겼다가 문종(文宗)때 소능(昭降)이 인근 목내리(木內里)에 있게 되고 바다가 다시 깊어져 선박의 출입이 가능해지자 다시 영(營)을 두게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 3 청계사 동종 (淸溪寺 銅鍾)

지정번호 : 지방유형문화재 제9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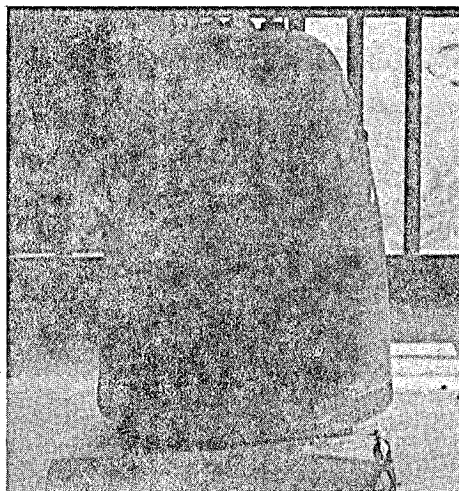
소 유 : 청계사 주지

위 치 : 의왕읍 청계리 산11

크기 기 : 고1.1m, 구경76.5cm

재 료 : 청동 (靑銅)

시 대 : 조선 제19대 숙종27년 (1701)



한말에 기록된 여지도서 (輿地圖書)에 청계사는 광주군 의곡면 (義谷面)에 있다고 하였다. 또, 청계사의 주맥은 수원의 광교산 (光敎山)으로 부터 뻗어 왔다고 되어있다. 청계사의 창사연혁에 관한 것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한말의 지리서 (地理書)에 기록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 범종이 조성된 때가 조선 숙종대왕 27년 (1701)인 것을 종명 (鍾銘)으로써 알 수 있으니 상당한 유래는 있는 절이라 하겠다.

동종은 이 절의 극락보전 (極樂寶殿)과 삼성각 (三聖閣)바로 앞에 있는 종각 안에 있다. 종의 꼭대기는 수평으로 평퍼짐하지 않고 약간 둥그스름하게 볼러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 서로 반대쪽을 향해 있으면서 몸이 엉켜있는 쌍룡의 용뉴 (龍鈕)가 돌출해 있어 여기에 쇠리를 꿰어 종을 매달았다. 어깨 부분에 둘러진 띠는 그 안에 연속으로 꽃무늬를 새겨 장식하였고 맨아랫쪽 종구 (鍾口)의 둘레를 장식한 띠에는 보상화문 (寶相花文)이 연속으로 새겨져 있어 신라 이래의 고유양식을 나타내면서 화려한 장식효과를 내고 있다.

또 종의 어깨 부위 둘레 4면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방형에 가까운 4개의 독립된 유곽 (乳廓)을 마련하고 그 안에 각기 9개씩의 유두 (乳頭)를 새겼는데, 유곽의 띠와 유두는 모두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고

유두의 꽃무늬 자방(子房)만이 다소 도두라진 꼭지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장식들도 모두 신라 이후의 한국종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색인 것이다.

한편, 네개의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각기 한분씩의 보살입상(菩薩立像)을 새겨 넣었고, 종 몸체의 중허리에는 종을 한바퀴 뱅도는 두가닥의 평행선이 도두라지게 새겨져있다. 그 평행선 바로 아랫 쪽에는 조선 숙종 27년(1701)에 이 종을 조성했다고 하는 연유가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어 그 제작연대를 뚜렷이 알 수 있게 하였다. 명문은 「강희 40년 신사 4월 일 주성, 광주청룡산청계사대종 중700근(康熙四十年辛巳 四月日鑄成廣州靑溪寺大鍾重七百斤)」이라 하였다. 이 명문으로 보면 당시 절에서는 지금의 청계산을 청룡산이라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靑”자도 “靑”로 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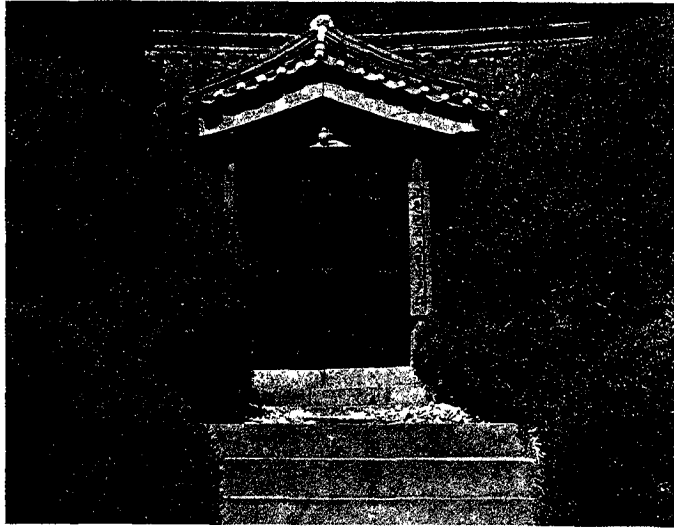
조선시대 후기 범종의 형식과 특색을 고루 갖춘 비교적 큰 종이며, 귀중한 자료이다. 높이는 110cm, 구경(口徑) 76.5cm, 머리쪽 직경 42cm, 종구의 두께 7cm이다.

3-4 온 온 사 (穩 穩 舍)

지정 번호 : 지방유형문화재 제100 호

위 치 : 시흥군 과천면

필 자 : 정조대왕 (正祖大王)



온온사는 이조22대 왕이신 정조대왕께서 선친이신 사도세자의 능이 있던 수원의 장릉(莊陵)을 참배하러 갈때 쉬던 객사로 후에 현청으로 사용하였다.

현재 과천면 사무소의 위치가 원래 그 자리라 하는데 지금은 그당시 것으로 추측되는 석축들이 있으며 「온온사」의 현판은 정조대왕의 어필(御筆)이다.

하루는 정조대왕께서 용늠참배차 수원에 내려가는데 피로한 몸을 쉬고자 잠시 객사에 들렀는데 심신(心身)이 하도 편하여 기이하게 여기고 객사의 이름을 온온사라 하여 어필을 내리셨는데 그 현판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현판의 크기는 168cm×77cm로써 지방유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3 - 5 연주암 삼층석탑 (戀主庵 三層石塔)

지정 번호 : 지방유형문화재 제104호

소 유 : 연주암 주지

위 치 : 과천면 문원리 산 158

크 기 : 고 3.2m

재 료 : 화강암 (花崗岩)

시 대 : 고려시대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석탑으로 각부의 비례가 잘맞고 수법도 정연하여 중기(中期)시대로 본다.

그러나 사찰측에서는 신라 문무왕 17년(677)에 의상조사(義湘祖師)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한편 연주암 경내(戀主庵 境内)에 영정(影幀)이 있는 조선 태종의 둘째아들인 효령대군(孝寧大君)이 암자(庵子)에 머무르면서 건조하였다고 한다.

기단(基壇)은 4매의 판석(板石)으로 조립되어 있으며 1매의 갑석(甲石)에는 부연(副椽)이 있고 그 상면에는 탑신피임대 3단이 있으며 정상은 반전(反轉)이 있는 높은 피임대가 있다.

옥개석(屋蓋石)은 각 1매씩으로 조립되어 있고 옥신(屋身)에는 양우주(兩隅柱)가 있다. 옥개석의 1층 아랫면의 받침은 4단이고 2, 3층은 3단이며 옥개정상(屋蓋頂上)에는 각형피임 1단이 있다.

전각(轉角)에 반전(反轉)이 있고 로반 양화, 보개(露盤, 仰花, 寶蓋)가 남아 있으며 낙수홈이 있다.

3 - 6 죽음으로 보국한 조병세 묘 (趙秉世 墓)

수암면 조남리 26번지에는 조선말기의 순국열사 조병세선생의 묘가있다
조병세(趙秉世)는 1827년(순조27)에 가평군 청평(淸平)에서 현감 조유순(趙有淳)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부터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1859년(철종10)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史官)이 되고 1864년(고종 1)에는 철종 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후 1874년(고종11)에 함경도 암행어사가 되고 1887년(고종14)에는 대사성(大司成)으로 승진하였으며 이어서 대사헌 등을 거쳐 1887년 (고종 24)에는 공조 판서가 되었다. 이듬 해에 예조판서·이조판서를 역임하고 1889년(고종26)에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거쳐 우의정에 오르고 1893년(고종30)에는 좌의정이 되었다.

이듬해인 1894년(고종31)에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관제가 개혁되자 중추원(中樞院)의 좌의장(左議長)이 되었다. 뒤에 고종의 고문적인 특진관(特進官)에 임명되었으나 대부분 가평에서 세월을 보냈다 1906년(건양 1)에 폐정(弊政)개혁을 위한 시무책(時務策) 19조를 상소하고 1908년(광무 2)에 의정부 대신에 임명되었으나 곧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1905년(광무 9) 11월에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었다. 노·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여러 나라로 부터 한국에 있어서의 특수 이익을 인정받게 되자 곧 한국을 그의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진회(一進會)라고 하는 친일 단체를 만들어 보호 조약의 필요성을 선전하게 되고 일본 정계의 원로인(이또오)를 파견하여 일본 공사(하야시)와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궁궐에 들어와서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보호 조약안을 승인하도록 강요하였다. 조약안이 거부되자 그들은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던 참정(수상) 한규설(韓圭晳)을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고 외부(외무부)로 가서 외부 대신의 도장을 가져다가 강제로 조약에

날인하여 버렸다.

이 을사 조약의 내용은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와 사무를 일본이 통리 지휘한다는 것, 앞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국제적 성질을 띤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못한다는 것, 일본이 한국의 외교에 관한 일을 관리하기 위하여 황제 밑에 통감(統監) 한 사람을 둔다는 것 등이었으니 요컨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병세는 통곡하면서 「나라가 이미 망하였으니 내 신하로서 따라 죽음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79세의 노구를 무릅쓰고 상경하여 을사 5적(乙巳五賊)의 처형을 주장하려고 황제의 알현을 청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방해로 고종과의 면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조병세는 참정 심상훈(沈相勳)·시종 무장관 민영환(閔泳煥)·특진관 이근명(李根命) 등과 백관을 이끌고 궁중으로 들어가 상소의 우두머리로서 5적을 처형할 것과 조약의 폐기를 단행할 것을 상소하여 황제로부터 「소장을 보건대 공분(公憤)에서 나온 것이므로 조처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물러났다.

이튿 날, 상소가 별로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둘 것 같지 않자 조병세는 원임 의정대신의 자격으로 각부(各部)에 통첩을 보내어 대소 관원의 궁내 집합을 통고한 다음, 이근명 등과 함께 상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회답을 얻지 못하였다. 이에 심상훈·민영환·이근명 등과 백관을 인솔하고 수일간 궁궐에서 연좌하면서 상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1월 27일에는 일본 헌병들에 의하여 표훈원(表勳院)에 구금 당하게 되었다. 조병세가 구금된 뒤에는 민영환이 대신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들어가 조약 폐기를 요청하였지만 민영환

역시 연행되어 평리원(平理院)에 구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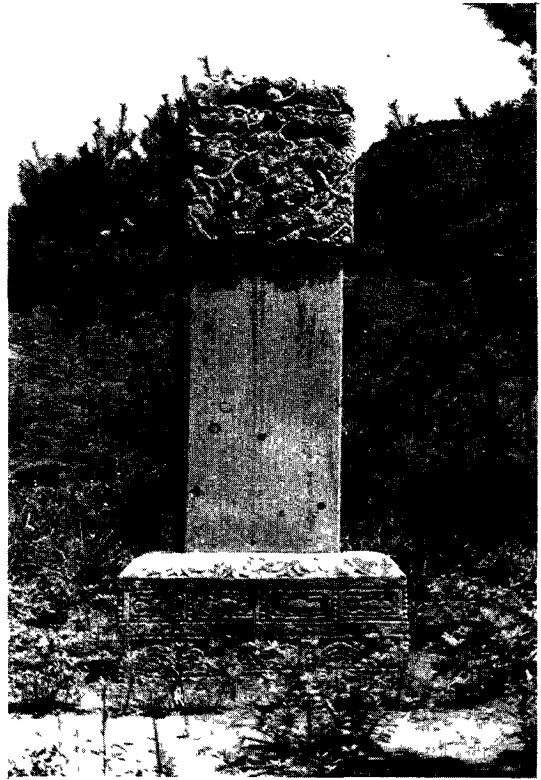
뒤에 조병세는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로 가평에 추방되었으나 12월 1일에 다시 상경하여 대항문 밖에서 석고 대죄하면서 조약 폐기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 때 일본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를 체포하고 억지로 교자에 태웠다. 국난을 바로 잡을 수 없음을 분통히 여긴 조병세는 교자 속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아편을 꺼내어 마시고 죽질 조민희(趙民熙)의 집에 당도 하였을 때 그의 용태는 이미 위독한 지경이었다.

당황한 일본 헌병들이 의사를 부르라고 수선을 떨었으나 이때 그의사위 이용직(李容植)이 꾸짖기를「이놈들아, 우리 대한의 대신이 나라를 위하여 자결코자 하는데, 너희 무리들이 무슨 일로 간여 하며 또 돌아가시는 분을 욕보이느냐」고 하자 모두 도망쳐 버렸다. 조병세는 절치 부심하여 순국하니 때는 1905년 12월 1일이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너무나 할것 없이 마치 부친상을 당한 듯이 슬퍼하였다.

그는 자결하기 전에 각국 공사 및 동포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겼는데, 각국 공사에게 보내는서한에서「조병세는 원로 대신이나 우리 나라 사례에 비추어 국무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에 공문을 보내오니 귀 공사는 즉각 회동하고 담판, 조약을 부인하여 우리의 주권을 잃지 말게 하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하고, 일본 공사에게도 서신을 보내 준열하게 꾸짖었다. 그의 생애야말로 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관료로서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귀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3-7 조선대문신 장운익 (張雲翼)의 신도비

장운익 (明宗16년 (1561)~宣祖32년 (1599))은 조선대의 문신으로 자는 만리(萬里) 호는 서촌(西村),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장유(張維)의 부로 선조 12년에 (1579)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582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급제 하여 공조좌랑, 예조정랑, 장령(工曹佐郎, 禮曹正郎, 掌令) 등을 지내고 1591년 양양부사로 재직중 정철(鄭澈)의 일당이라 하여 귀양되었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풀려나와 도승지, 해주목사,



형조판서(都承旨, 海州牧使, 刑曹判書)로서 접반사(接伴使)가 되어 명나라 제독 마귀(提督 麻貴)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울산싸움에 참전했으며 후에 다시 형조판서가 되었다.

시호는 정민(貞敏)으로 이 비(碑)는 김상헌(金尙憲)이 찬(撰)하고 신익상(申翼相)이 썼으며 최석정(崔錫鼎)이 전(篆)하였으며 그의 묘는 수암면 조남리에 있다. 신도비는 崇禎戊戌六十二年 己巳十一月 立이라 되어있다.

비대석(碑臺石)은 높이 94cm로 하부에는 3구획으로하여 운문 중부(雲文 中部)에는 4구획으로 하여 안상 상부(眼象 上部)에는 복련(覆蓮)이 있고 비신(碑身)은 높이 2.05m 이수(螭首)는 높이 1.1m이다.

3-8 조선대문신 장유의 묘 (張維 墓)와 신도비

장유(宣祖20년(1587)~仁祖16년(1638))
는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지국(持
國)호는 계곡 또는 묵소(谿谷, 默所)
로서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선조38
년(1605)사마시(司馬試)를 거쳐 광해
군 1년(1609)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



과(乙科)로 급제한 후 주서, 검열 등을 지내다가 광해군 4년(1612) 김직
재의 무옥(誣獄)에 연루되어 파직되었으며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이
조좌랑, 이조정랑을 지내고 정사공신(靖社功臣) 2等到 봉해졌다. 그후 대사
간 대사헌 대사성을 지내고 1624년 이괄의 난때 공주로 왕을 호종(扈
從)하여 신평군(新豐君)이 되었고 인조 5년(1627) 정묘호란(丁卯胡亂) 시에는
강화로 왕을 호종(扈從) 하였으며 예조, 이조판서를 거쳐 1636년 병자호란
시(丙子胡亂時)에는 공조판서로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강화(講和)를 주장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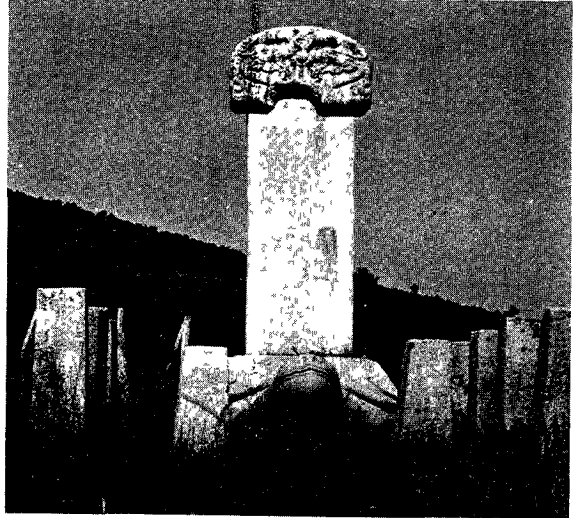
이듬해 예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으며 그후 신평
부원군에 진봉(進封)되었는데 천문, 지리, 의술, 병서(兵書) 그림, 글씨에 능
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그의 묘는 수암면 조남리에 있으며 묘(墓)앞에 비(碑)와 상석(床石) 향
로석이 있고 문인석(文人石)이 있으며 신도비(神道碑)로 송시열이 찬(宋
時烈 撰)하고 심익현(沈益顯)이 썼으며 숭정기원 무장후병진 시월 입 (崇
禎紀元 戊辰後丙辰 十月 立)이라 쓰여 있는데 귀부(龜趺)는 2.5m×4.2m
에 높이 1.3m이고 비신(碑身)은 1.3m×32cm에 높이 2.65m이며 비개(碑
蓋)는 옥개(屋蓋)위에 용(龍)이 조각되어 있다.

3-9 인조대인물 한준겸 (韓浚謙)의 묘 (墓)와 신도비 (神道碑)

한준겸 (韓浚謙)은 조선 (明宗 12년 (1557) ~ 仁祖 5년 (1627) 때의 인물로 자는 익지 (益之) 호는 유천 (柳川)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판관 효운 (判官孝胤)의 아들이자 인조의 장이다. 선조 (宣祖) 12년 (1579) 생원 (生員)이 되어 태릉 참봉, 검열, 정자, 주서, 전적 을 거쳐 1592년에는 예조정랑, 원주 목사 (禮曹正郎, 原州牧師)를 지냈고 그후 지평, 교리, 사인, 응교, 동부승지, 우승지, 경기도관찰사, 대사성, 경상도관찰사 를 역임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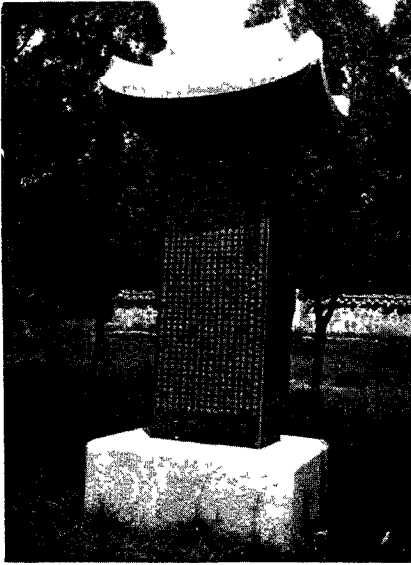


며 1605년에는 호조판서 (戶曹判書)가 되었고 선조 (宣祖)로 부터 영창대군 (永昌大君)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칠신 (遺教七臣)의 한사람으로 계축옥사 (癸丑獄事)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할 책임자로 뽑혀 유배지에서 지중추부사 (知中樞府事)에 임명되어 오도 도원수 (五道 都元帥)를 겸임하여 국경 수비에 힘썼으며 1623년 인조반정 (仁祖反正)으로 딸이 인열왕후 (仁烈王后)로 책봉되자 서원부원군 (西原府院君)에 봉 (封)해졌으며 이괄 (李适)의 난때 공주로 왕을 호종했다.

시호 (諡号)는 문익 (文翼)이다. 그의 묘는 군자면 거모리 산 62번지에 있으며 봉분 (封墳) 앞에 상석 (床石), 향로석, 동자석 2, 묘갈, 묘비, 망주석 2, 문무석 각 2, 4 각 장명등이 있다.

신도비 (神道碑)는 崇禎 2년 기사 ((己巳) (1629)) 10월에 세운것으로 비문 (碑文)은 이연구가 찬 (李廷龜 撰)하고 김상용 전 (金尙容 篆)하여 오준이 썼다.

3-10 조선조문신 하연의 묘 (河演 墓)와 신도비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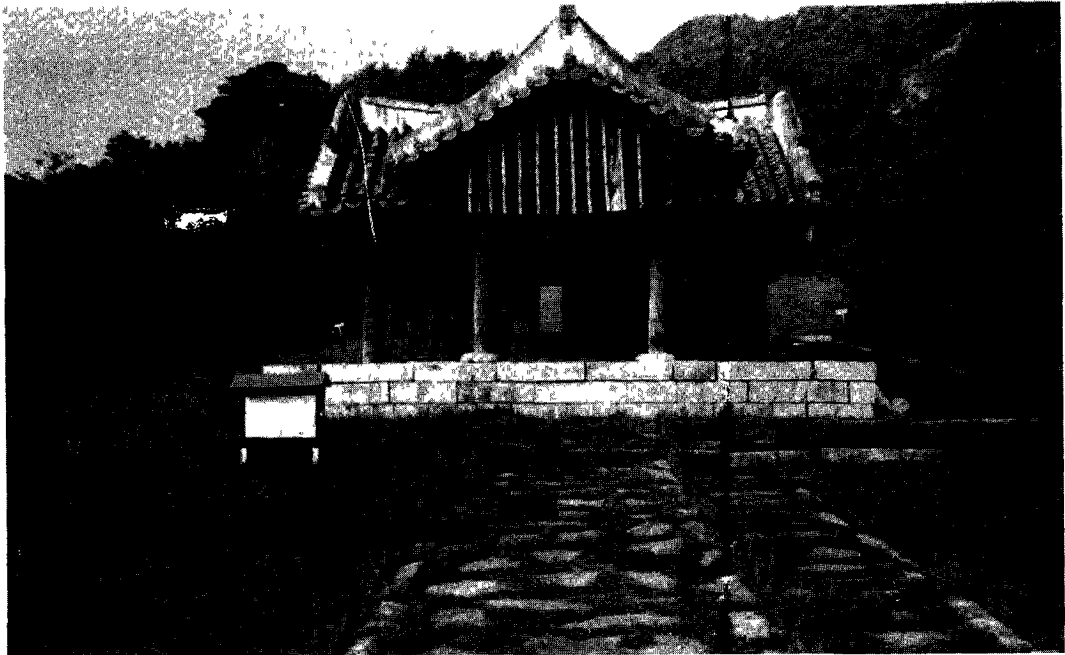
하연(河演) (고려 우왕(偶王) 2년 (1376)~조선 단종(端宗) 1년(1453) 은 조선朝의 문신(文臣)으로서 자는 연양(淵亮)이며 호는 경숙(敬肅)으로 본관은 진주(晋州)인데 태조(太祖) 5년 (1396)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후 봉상시 록사(奉常時 錄事)를 거쳐 직예문춘추관수찬관, 집의 동부대언(直芸文春秋館修撰官, 執義, 同副代言)등을 역임하고 세종(世宗)이 즉위하자 지신사,

예조참판(知申事, 禮曹參判)을 지낸 후 세종 5년(1423)대사헌으로서 조계종(曹溪宗)등 불교 7종파(佛教 7宗派)를 선, 교, 양종(禪, 教, 兩宗)으로 통합할 것을 건의 시행케 했으며 경상도관찰사 예조참판(禮曹參判) 평안도관찰사에 부임했고 한때 유배되었으나 다시 형조참판, 대제학, 대사헌, 좌참찬, 우찬성에 올라 70세로 궐장(凡杖)을 하사받고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다

진주(晋州)의 종천서원, 협천(陝川)의 신천서원에 제향(祭享)되었고 단종(端宗) 2년(1454)에 문종(文宗)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으며 시호(諡号)는 문효(文孝)인데 그의 묘는 소래읍 신천리 421번지에 있으며 묘(墓)주위에는 문무인석 각 2基 망주석 묘비가 있다

신도비(神道碑)는 장방형화강암 지대위에 오석(烏石)의 비신(碑身)을 세웠으며 가첨석(加檐石)을 돌려놓았는데 비문(碑文)은 남지근 이 찬하고(南知謹撰) 김교덕 서, 전(金教憲 書, 篆)하였으며 근년(近年)에 세운 것이다.

3-11 영 회 원 (永懷園)



영회원은 시흥군 소하읍 노온사리(광명시 학온동)에 있다.

온신국민학교에서 동남 약1.5km 지점으로 속칭 아왕릉(兎王陵) 이라고한
다

「아왕릉」은 이조16대 인조대왕의 소현빈을 모신 능으로 본군 출신인 강
감찬 장군의 19대손이다.

병자호란으로 인조와 소현세자를 비롯하여 제 2, 3의 왕자와 문무제신이
청조에 인질로 잡혀 갔었으며 이를 구출하는데 임경업장군의 공이 컸었
다

한편 나중에 세자들을 석방하면서 청제(淸帝)는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노라고 마음도 외로웠을 것이니 무엇이든지 소원을 한가지 청하면 들
어주겠노라”고 하였다.

제 1 왕자인 소현세자(昭顯世子)는 청제가 애용하고 있던 용적(龍硯)을 청하여 이를 받았으며 제 2, 3 왕자는 “우리 세왕자만 고국에 돌아갈 수 없으니 청국에 잡혀온 우리나라 사람 모두와 동행하여 귀국하고자” 라고 원하였다.

이리하여 세자들과 납치되었던 전원이 무사하게 귀국하게 되었으며 이런 내용을 들은 인조는 제 2, 3 왕자를 깊이 칭송하고 제 1 왕자인 소현세자를 불러 「너는아비에게 욕을 끼쳤을뿐 아니라 나라의 위신을 상하게 하는 대죄를 지었으니 용적에 목숨을 바쳐 사죄하라」 하시고 그 용적으로 세자를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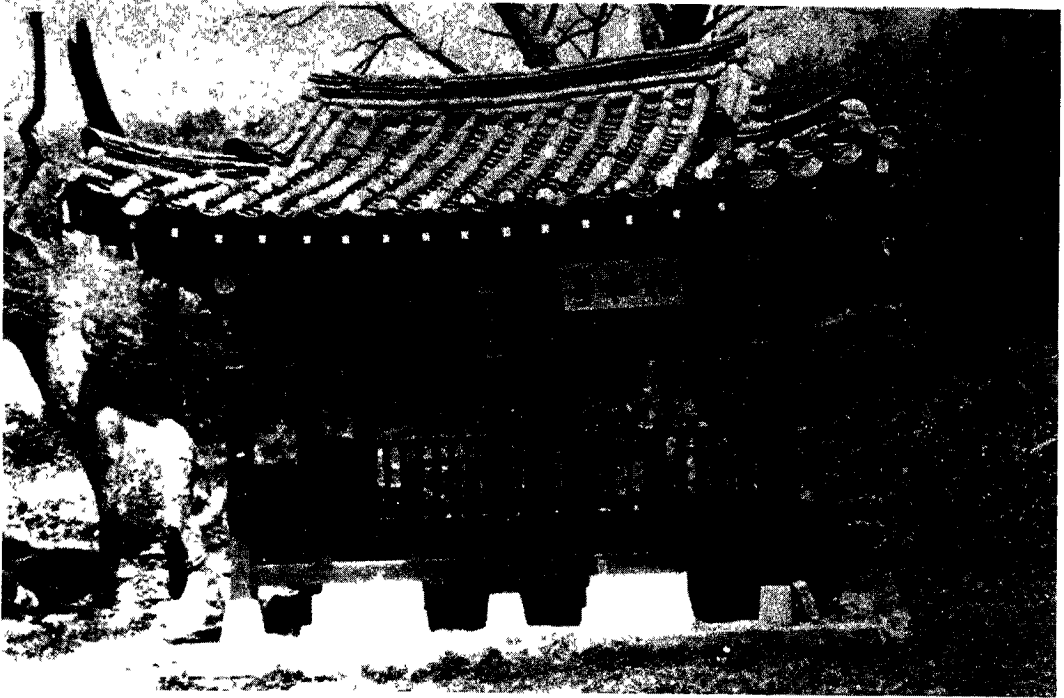
이 비운을 당한 세자빈 강씨는 인조를 효성으로 받들어 그 현숙함이 칭송이 자자했고 인조 또한 그를 몹시 아꼈으나 어느날 간신의 모함으로 세자빈은 사약을 받아 병술(丙戌)년에 죽었다.

세자빈은 죽음과 함께 서민으로 제적이 되어 소하읍 노온사리에 매장되니 그것이 바로 영회원의 유래이다

간신의 모함으로 무고히 죽어간 소현세자빈은 초라한 무덤으로 지냈으나 숙종때에 세자빈의 무고함이 들어나 세자빈으로 복위되고 원회묘(怨懷墓)라 하던것을 지금의 영회원으로 개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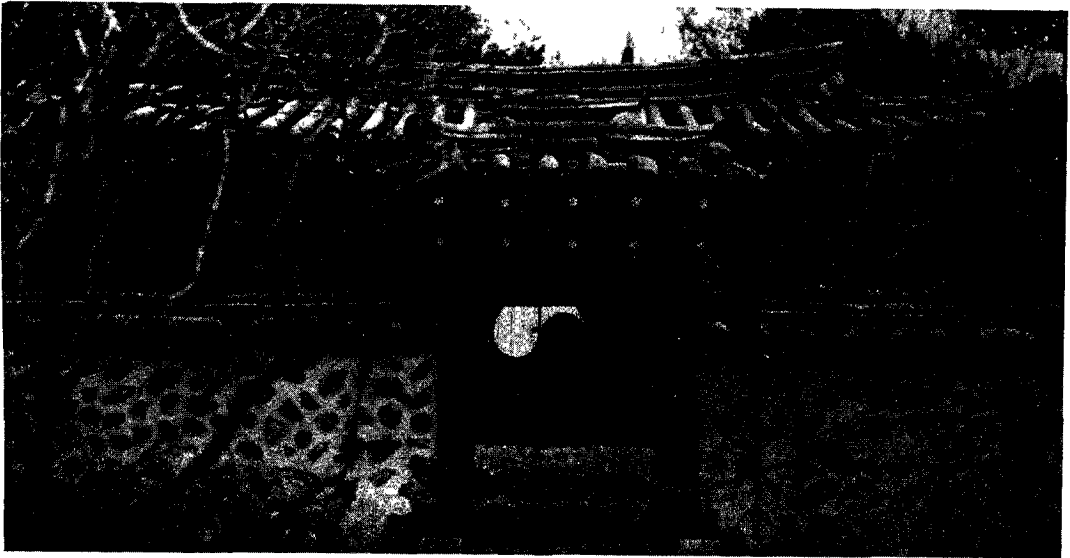
이 일대에는 노송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 묘원의 분위기를 자아냈으나 일제시대 무분별한 벌채로 모두 베어지고 잡목만 남아있어 더욱 초라한 모습이며 현재는 광명시 학온동에 소재한다.

3-12 고 송 정 (枯 松 亭)



고송정은 수암면 화정리 2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선세조 2년(1456) 조부 김문기(金文起)의 부친 김현석(金玄錫)이 단종복위 모의에 가담했다가 탄로되어 참화(慘禍)를 받아 효자 김충주(金忠柱)는 야밤에 도성을 탈출하여 안산땅 화정리 마하산중(麻霞山中)에 이르러 숲을 구워 파는것을 업으로 하면서 호를 스스로 탄옹(炭翁)이라 하였다 한다 「그는 매일 산정에 올라 바위에서 단종이 있는 영월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니 산정에 있던 소나무도 눈물에 젖어 말라 죽었다 하여 고송정(枯松亭)이라 부르며 그 바위를 망월암(望越岩)이라 하며 소나무가 서있던 그곳에 정자를 세워 고송정(枯松亭)이라 칭했다 전하는데 정면 2간 측면 2간, 굴도리 집으로 각주이며 겹처마에 팔작(八作) 지붕이다.

3-13 사세충열문 (四世忠烈門)



소재지 : 시흥군 수암면 와리 157

크 기 : 통식중형 (通式中型)

소유자 : 金 相 默

시 대 : 조선후기 (朝鮮後期)

조선 제14대 선조25년(1592) 임진왜란 (壬辰倭亂)이 일어났을 때 당시 충신인 김여물(金汝物)은 자결하기전 다음과 같이 유서를 남겼다.

“남아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이 신하의 도리이나 다만 나라의 수치를 씻지 못하고 장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될뿐이다.”라고 말하고 죽기를 결심한바 탄금대(彈琴臺)아래에 이르러 적의 무리 수십명을 죽이고 자결하였다. 그때는 1592년(선조25년)로 연령은 45세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영의정 김유(子 領議政 金瑬) 손자 강도검찰사 김정징(孫子江都檢察使 金慶徵), 증손 돈녕부도정 김진표(曾孫 敦寧府都正 金震標)의 처(妻) 4명이 인조 4년(仁祖14年 1636年) 병자호란 (丙子胡亂) 때 나라가 패하자 다함께 강화도 강물에 몸을 던져 순절(殉節) 함으로써 적군에게 욕을 면하였다. 그후 그들의 애국 충정을 기리고 길이 기념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이 열여문(烈女門)을 세워 주위에 담을 쌓고 삼문(三門)을 세웠다.

3-14 시흥향교 (始興鄕校)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관악산록에 자리한 향교로 언뜻 보아도 명당임을 알 수 있다. 홍살문 바로 앞에는 관악산 계곡에서 머금은 맑은 물은 토(吐)하고 오른쪽 아득히 청계산이 보이며 신도시 건설이 한창인 과천벌이 한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서도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대도시 서울에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속리(俗離)된 향교가 자리잡고 있는 것을 모르는 이가 많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몇 백년은 됐음직한 느티나무가 향교를 찾는 이들을 반겨주고 한여름이면 매미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입구에 들어서면 옛 선인들의 도장(道場)내음이 물씬 풍기는 듯하다 천연의 지세를 그대로 살려 지은 까닭인지 관악산의 정기가 이 곳에 모였음을 무래한이라도 한눈에 알 수 있다 고옥 사찰 어느 곳이나 볼 수 있는 낯익은 홍살문을 들어서면서 옛 유생들의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을듯 말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더욱이 정문에 당도하면 선비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매미소리로 재현되는 듯 귀를 울린다 향교에서는 소위 유교



에서 말하는 공자를 비롯한 5성(聖)과 설총, 최치원, 등 동방 18현에 대한 분향을 매년 춘추에 올리고 있다. 이 때면 깨끗이 정리한 푸른 색의 예복에다 관모를 차려입은 모습이 향교라는 분위기와 어울려 흡사 몇 백년 전의 관가에 온 느낌이 절로 나게 된다.

그 모습을 보면 옛 유생들이 강의를 받던 명륜당에서 예복을 갈아 입은 이들은 옛 성현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에 올라 정중히 도열한 뒤 분향축(焚香祝)을 한뒤 차출된 2인의 헌관에 의해 분향을 하고는 5번에 걸친 배례를 정중히 한다. 이같이 오늘의 향교는 옛 날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명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고 옛 의식만이 남아 있어 쓸쓸한 감회를 느끼게 한다. 이에 지금을 사는 현대인에게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새삼스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사고(思考) 속에는 알게 모르게 인의(仁義)도덕의 근간이었던 충효의 사상이 깊숙히 자리하고 있음을 볼 때 유교의 도장으로 대표되었던 향교의 위용이 되살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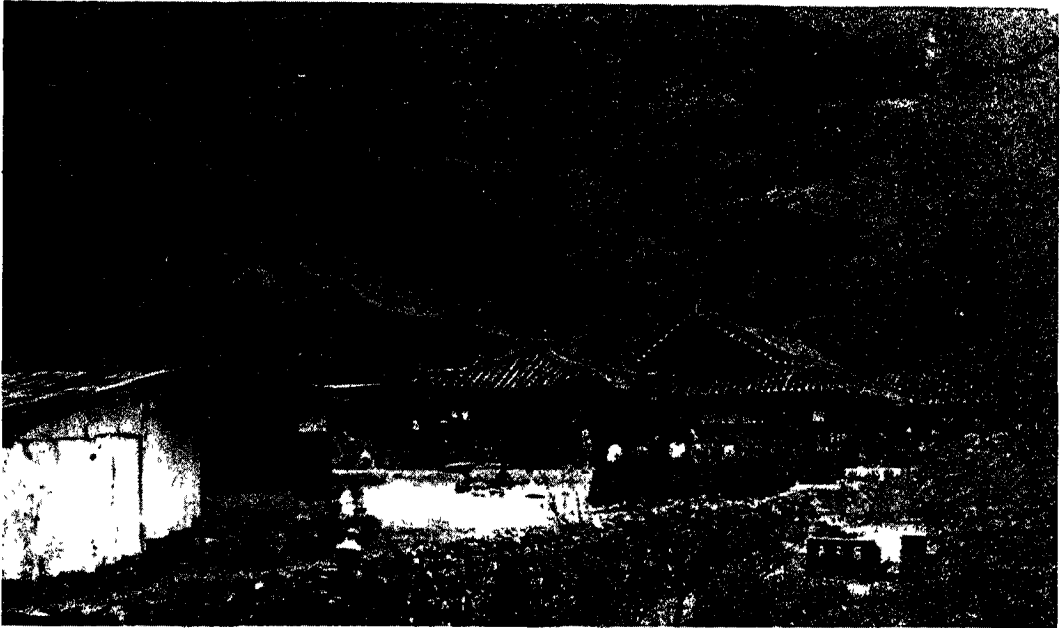
이 향교는 지금부터 6백 여년전 조선 태조 이성계가 유교존상을 통치이념으로 삼으면서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즉, 태조는 개국 당시 전국 160개의 주군(州郡)에 1개교씩 향교를 설립하여 젊은 이의 교육기관으로 출

발하였고 교육정책을 시현하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1398년(태조 7)에 개교했다. 지금도 지정이외의 문화재 건조물 제12호로서 보존되고 있는 이 향교는 설립 당시 과천향교라 하였다.

대개의 향교가 수 백년 내려오면서 수난을 당했듯이 이 향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병화(兵火)로 소실되고 또, 복원한 비운을 맞이 했었다. 이 외에도 이 향교가 개교된 지 2년만에 즉 정종 2년에 원인모를 불로 소실, 1410년 다시 재건되는 등 기구한 역사를 안고 있다. 그러던 것이 1690년(숙종16)에는 당초 세웠던 지금의 가일리에서 서이리로 이전 신축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2백 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으나 과거에 급제한 유생이 없었기 때문에 향교의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이 심했던 것 같다. 이러한 여론 때문에 당시 향교를 운영하고 있던 현감의 일반 사람의 비판을 풍수지리적으로 설명하여 여론을 피하면서 지금의 위치로 이전 신축했다.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전되어 오는것을 들어 보면 향교를 이전한 후에 많은 인재가 장원급제하여 이 향교에 대한 명성이 서울 장안에 자자했다 한다. 1944년에 과천향교, 안양향교, 시흥향교를 통폐합하여 현재의 시흥향교로 불리우게 되었다 하며 지금의 건물은 1975년에 보수하였다.

대성전은 전면이 3칸, 측면이 2칸(15.6평)의 익공(翼工)양식에 겹처마로 된 맞배지붕이며, 명륜당은 전면이 4칸, 측면이 3칸(20.6평)으로 각 1칸씩 늘린 것이다. 이외에 내·외삼문이 있다.

3-15 청 계 사 (淸 溪 寺)



소재지 : 시흥군 의왕읍 청계리 산11 크 기 : 중형사원 (中型寺院)

관 리 자 : 청계사주지 시 대 : 고려창건 현상은 조선
현재의 사찰규모와 가람 (伽藍) 의 배치는 조선시대의 전형 (典型) 으로 보이며 고대의 사찰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찰축의 말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중엽 제26대 충선왕 (忠宣王) 때에 의천국사 (義天國師) 가 창건한 사찰이라 한다.

조선 제10대 연산군이 도성내에 있는 사찰을 없애고 그곳에 관청을 세우자 불교측에서는 이곳을 선종 (禪宗) 의 본산 (本山) 으로 정하였다고 전한다.

수차에 걸쳐서 중수 (重修) 하였다고 하는데 사찰내에는 극락보전 (極樂寶殿) 과 산신각 (山神閣) 삼성당 (三聖堂) 봉향각, 요사가 있다 또 신라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탑, 석등, 옥개석의 파괴된 부재가 있으며 사적비 (事蹟碑) 2기가 있는데 이중 하나는 숭정기원후기사년 (崇禎紀元後己巳年) (1689) 에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하나는 오랜 풍화 작용으로 마모되어 판독할 수가 없어 안타깝다

3—16 청계사극락보전 (淸溪寺極樂寶殿)

소재지 : 시흥군 의왕읍 청계리 산11 크 기 : 중형법당 (中型法堂)
관리자 : 청계사 주지 시 대 : 조선후기 (朝鮮後期)



고려시대에 창건하였다 하나 법당등의 건물 양식으로 보아 상당히 후기의 건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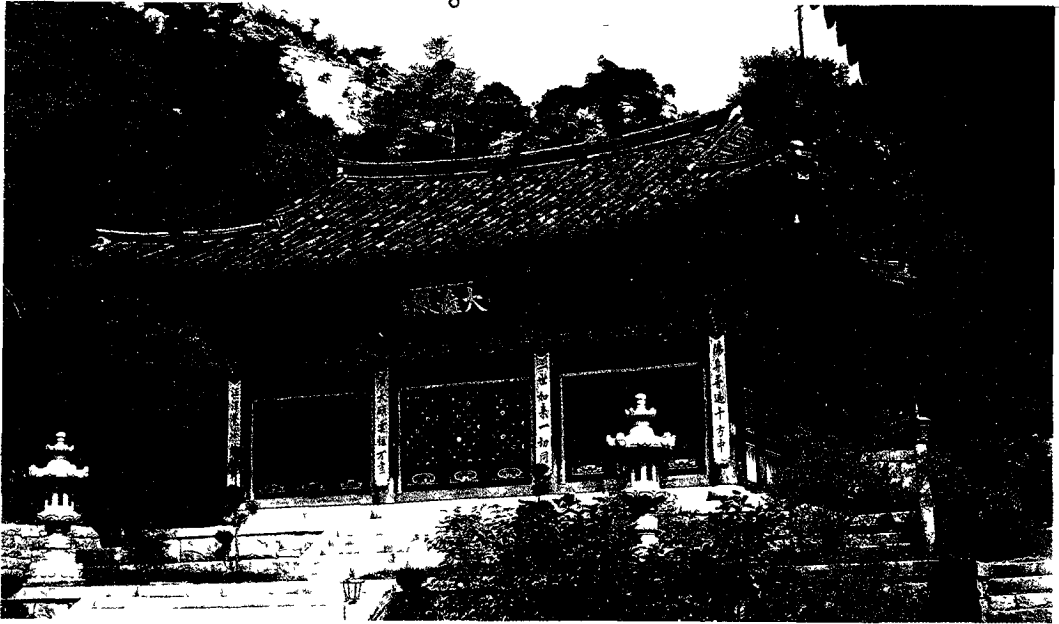
고려시대의 중엽 제26대 충선왕(忠宣王)때 창건하였다는 청계사의 극락보전은 그 규모가 정간(正間)이 3간(30평)에 익공양식(翼工樣式)이고 목부(木部)에는 단청이 칠해져 있으며 겹치마에 팔작(八作) 지붕으로 전면은 각각 4분합의 세살문이 있다.

내부에는 아미타불상(阿彌陀佛像)과 관세음보살상(觀世音菩薩像), 대세지보살상(大勢至菩薩像)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목조불상들이고 중수(重修) 할때에 대들보에서「庚子三年三月」이라는 기록이 나왔다고 한다

1968년 단청을 다시 칠하고 1973년에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한다.

3 - 17 연주암대웅전 (戀主庵大雄殿)

소 재 지 :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산158 크 기 : 중형법당 (中型法堂)
관 리 자 : 배송원 (裵松園) 주지 시 대 : 창건조선 현상은 근세



오래된 건물이 아니고 근세의 건축물이나 해발 638M의 높은 산정에 법당(法堂)을 세워 주목을 끌고 있다.

8작 지붕에 한식 골기와의 형태로 단청이 화사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이다.

도형(圖形)의 주초석(柱礎石) 위에 건물을 세웠다.

1491년 7월 29일에 세운 대웅전 중창 공덕비(大雄殿 重創 功德碑)가 대웅전 옆에 있으며 1972년에 중수(重修)했다고 한다.

3-18 연주암금륜보전 (戀主庵金輪寶殿)

소재지: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산 158

관리자:배송원(裴松園) 주지

재료:목 재

크기:소형법당

시대:조선 후기



조선후기(朝鮮後期)의 건물이나 현재 이곳 연주암(戀主庵)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정제된 기법(技法)을 보이는 건물이다.

대웅전(大雄殿)의 뒷편에 있으며 맞배지붕에 한식 골기와의 형태로 좌우에 방풍판이 있다.

단청이 화사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이다.

내부의 중앙에 칠원성군이 있으며 왼쪽에 산신(山神) 오른쪽에 축성(燭聖)을 모시고 있다.

* 금륜보전(金輪寶殿)이란 현판은 해강(海岡)의 글씨로 금박을 입혔다

3 - 19 연주암연주대약사여래입상(戀主庵戀主臺藥師如來立像)

소재지: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산 158

관리자:배송원(裴松園) 주지

재료:화강암(花崗岩)

크 기:전고(全高) 1.17m

시 대:고려 현상은 근세



현재 많은 가공(加工)이 보이나 원형을 살피기에는 충분하며 불교미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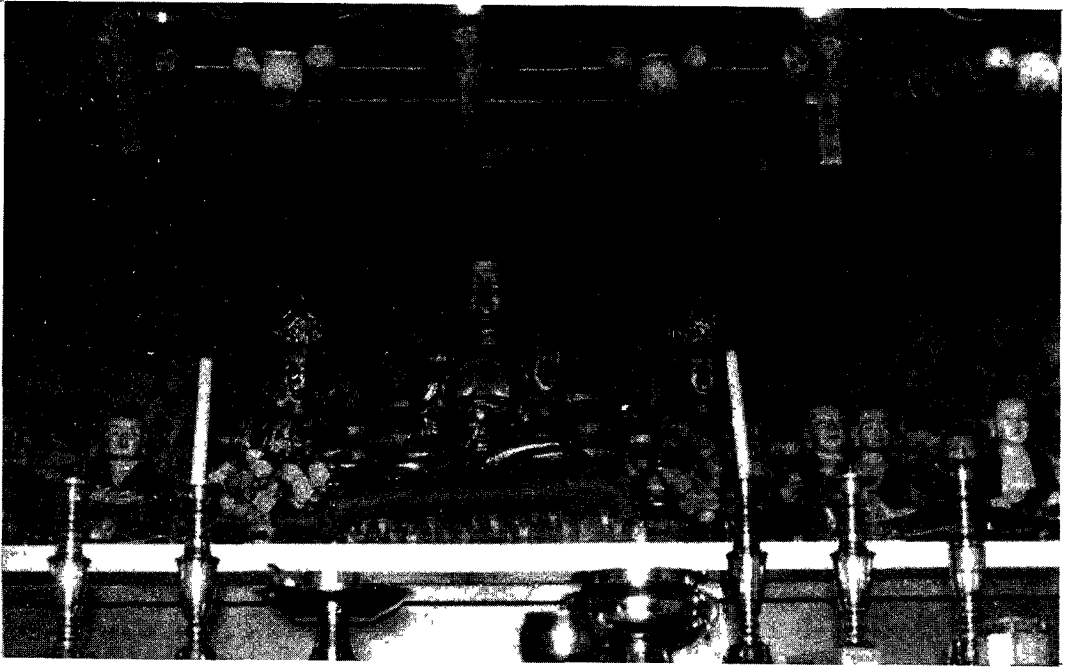
응진전(應眞殿) 옆 암벽에 감실(龕室)을 마련하고 개석(蓋石)과 좌, 우판석의 벽면 앙연상대(仰連上臺)로 이루어진 감실(龕室) 안에 마애(磨崖)의 형식으로 봉안(奉安)하였다.

본래 보주형 두광, 신광(頭光, 身光)을 구비한 양각(陽刻)된 불상이었으나, 마멸되어 그 표면에 석고로 조상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장방형의 하대간주, 상대받침 1석과 그 위가 감실(龕室)인데 옥개하면(屋蓋下面)에는 서까래가 표현되고 상면에는 합각머리가 뚜렷하다. 8작지붕의 감실(龕室)은 크기가 110cm×90cm이다.

본래의 마애불은 高 117cm 약사여래입상은 高96cm, 간주 高112cm, 광배 曄67cm, 상대크기 94cm×50cm이다.

3-20 연주암응진전라한정 (戀主庵應眞殿羅漢幀)



소재지 :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산 158 자 료 : 견직 (絹織)

관리자 : 배송원 (裴松園) 주지 크기 : 全長 2 68m 高 80cm

시대 : 조선 후기

그림이 그려진 년대(年代)는 오래되지 않았으나 부드럽고도 화사한 화풍(畵風)이 주목되며 이곳의 불정(佛幀)으로는 가장佳作(佳作)에 속한다

응진전내(應眞殿內)에 있는 라한정(羅漢幀)은 16라한정으로 1폭에 8분의 라한(羅漢)을 모시고 있으며 전부 2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폭의 크기는 134cm×80cm이다.

라한상(羅漢像)의 의문, 의습(衣文, 衣褶)등이 사실이고 특히 산수목(山樹木)등 도식화(圖式化)된 감이 있으나 금박 청, 록, 적색 등의 색칠이 화사한 편이다.

응진전(應眞殿)은 1492年 6월에 중건(重建)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전에는 「의상대」라 했다 한다.

3 - 21 청계사아미타여래좌상 (淸溪寺阿彌陀如來坐像)



소재지 : 시흥군 의왕읍 청계리 산 11

재료 : 목재

관리자 : 청계사 주지

시대 : 조선후기

청계사(淸溪寺)의 주존불(主尊佛)로 봉안된 것인데 조선후기(朝鮮後期)에 조성(造成)된 것으로 각부(各部)가 정제(整齊)되고 단아(端雅)하여 주목된다.

극락보전(極樂寶殿)의 중앙에 아미타여래좌상(阿彌陀如來坐像) 좌우에 관음보살(觀音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협시(脇侍)하고 있다.

아미타여래좌상은 라발(螺髮)의 머리에 육계(肉髻)가 크고 목에는 3도(3道)가 있고 법의(法衣)는 통견이다.

좌우의 보살(菩薩)은 머리에 화관(花冠)을 썼으며 모발이 흘렀고 법의는 통견이다.

좌상(坐像) 高 110cm 보살상(菩薩像)의 高는 各 107cm이다.

4. 총 랍

4 - 1 인 물

인 명	생 애 및 사 적
1 김명국 (金明國)	일명은 명국(命國, 鳴國)이다. 자는 천여(天汝)요, 호는 연담(連潭)또는 취옹(醉翁)이며 안산(지금의 시흥군)사람이다. 선조33년(1600)에 태어나 서원(書員)으로 교수를 지냈다. 산수(山水)화와 인물을 잘 그렸으며 사람됨이 소박하여 농담을 잘 하는 또 술을 즐겨 수두(數斗)의 술을 마시는 까닭에 실컷 취해야 필치가 평화롭고 신운이 유통하였다 한다. 일찌기 한 승려가 넓은 집을 갖고와서 저승에 관한 그림명사도(冥司圖)를 청하면서 세포 수십마를 예로 올리니 명국은 그 일부를 종에게 주면서 「술값에 충당하여 두어달 실컷 마시게 하라」하고 승려한테 「나의 흥이 날 때를 기다리라」하였다. 하루는 만취되도록 술을 마신후 집을 펴놓고 한참동안 바라보다 일필로 그려대니 전우(殿宇)와 귀치와 괴물의 행색이 너울거려 무서운 기운이 돋고, 깔려 죽은 자들을 전부 승려로 만들어 놓으니 승려가 놀라서 「어허 공은 어찌하여 남의 큰 일을 그르치려 하는가」하니 명국은 웃으며 「너희들의 일생악사가 바로 흑세무인이니 지옥에 들어갈 놈이 너희들이 아니고 누구겠느냐」하였다. 승려가 꾸짖으며 「이것은 불살라 버리고 집이나 돌려달라」하니 명국이 웃고 「너희들이 완품을 갖고 싶거든 술을 더 사오너라, 그러면 고쳐 주겠다」고 하니 승려가 술을 사왔다.

인 명	생 애 및 사 적
	명국은 한잔 또 얼큰히 마시고 술이 취한채 그림을 다시 그리니 머리깎은 승려는 머리를 낮게하고 수염이 없는 자는 수염이 그리고 납의는 채색을 하니 그 전의 흔적은 볼 수 없게 되었다. 승려가 감탄하여 「공은 진실로 천하의 신필이외다」 하여 절을 하고 떠났다하는 일설이 있는데 이제까지 그 그림이 보존되어 사문의 절보(沙門의 絶宝)라고 이른다. 유작으로는 관폭도(觀瀑圖), 투기도(聞基圖), 달마도(達磨圖) 2점 등이 있다.
2. 김은부 (金殷傅)	? ~ 1017 (현종 8) 고려 현종의 장인 안산현(지금의 시흥군)사람으로 현종초 공주 절도사로 있을 때 거란의 침입을 피하여 왕이 공주에 닿으니 김은부가 예를 갖추어 극진한 영접을 하였고 거란병이 물러가고 왕이 파산역에서 돌아올 때에 딸을 바쳐 현종의 원성(元成) 왕후가 되었다. 원혜, 원형 두 황후도 모두 그의 딸이다. 그후에 형부시랑이 되었고 거란에 사신으로도 다녀왔으며, 지중추사 금부상서로 승진하고 그 후에는 벼슬이 중추사상에 이르렀다. 그가 죽은 뒤 왕후의 인연으로 창국공신의 호와 안산군개국후(安山君 開國侯) 등의 여러 벼슬을 받았으며 그의 처도 안산군 대부인으로 피봉되었다.

인 명	생 애 및 사 적
3 김 유 (金 樛)	이조 효종 4년(1653년)~숙종45년(1719년) 김유는 이조숙종때의 문관으로 자는 사직(士直)이며 호는 검제(儉齊)로써 시호는 문경(文敬)이며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관찰사 징(澄)의 아들로써 남계(南浮) 박세채(朴世采)의 제자로 학문에 조예가 깊어 스승 박세채가 그의 후계자로 정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도 그를 매우 아끼었다 한다. 1674년 예론(禮論)으로 박세채 송시열이 처벌되자 과거를 포기하고 이천(利川)에 숨어서 살았으나 숙종조에 들어가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699년(숙종25년) 문과에 급제하여 찬수랑(纂修郎)이 되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증보하고 삼사(三司)를 역임하고 부제학, 이조참판, 대제학에 이르렀으며 문장에 능하고 학문에 연구가 깊어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후에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그의 저서로는 소학집주(小學集註) 증보주자외기(增補朱子外記) 존주록(尊周錄) 외 문집(文集)이 있으며 64세때 그린 영정과 문집을 그의 후손인 의왕읍 하곡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진영이 보관하고 있으며 그의 묘는 의왕읍 왕곡리에 있다.
4. 이의양 (李義養)	1768 (영조44)에 태어났다. 이조 순조때의 화가로서 자는 이신(爾信)이며 호는 운제(雲齊) 또는 팔송관(八松觀)이라 하며 안산(지금의 시흥군) 사람이다. 그림에 능하였다 하는데 고화비고(古畵備考)에 의하면 그의 작품인 산수화(山水畵)가 있는데 관(款)은 운재라 하였고 인(印)은 이 의양, 그리고 술제(述齊)가 찬하였고 또 다른 화목에는

인 명	생 애 및 사 적
	화산(花山)이 찬(贊) 하였다고 한다. 그의 작품은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제14권에 강남우후도(江南而後圖)가 수록되어 있다.
5 이한철 (李漢喆)	1808(순조 8)년에 태어났다. 이조후기의 화가로서 윤제 이의양의 아들이다. 호는 희원(布園)으로서 벼슬은 군수(郡守)를 지냈다. 산수, 화조, 인물을 잘 그려 일본의 세키노가 그의 산수 인물의 필치를 격찬한 바 있다. 그의 작품으로는 산수도, 인물도, 어해도 등이 전한다.
6 이석훈 (李碩薰)	○1919년 5월 2일 황해도 장단에서 태어남 ○6.25 당시 월남하여 소래읍 대야리 99번지에서 정착 거주함. ○국궁의 화살제조로 71. 9. 13 인간문화재 47호 지정됨 ○숙부 이근상(李根相)으로 부터 14세때 부터 화살촉의 제조 기술을 습득하여 47년간 종사하였으며 화살촉의 재료는 서해안 서산과 안면도 지방에서 신의주 대나무를 구입하여 3~4개월 건조후 ,화살제작. ○1980. 12. 11(62세) 사망 하였으며 부인 장태희 여사와 아들 2명이 있다.
7 윤영춘 (尹永春)	○1907. 9. 18 함경북도 북청군 북청읍 북리 44번지에서 태어남. ○1.4 후퇴시 월남하여 군포읍 당리 532번지에서 정착 거주함. ○북청사자놀이 앞머리 기능 보유자로 1967년 3월에 중요무형

인 명	생 애 및 사 적
	문화재 15호로 지정됨. ○17세때 부터 호기심을 갖고 북청군의 사자놀음 제일 실력자로부터 기술을 습득했고 꾸준히 연마하여 1958년 민속놀이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음. ○1981. 6. 21에는 사단법인 함북 북청사자놀음 예술 보존회로부터 공로 상장을 추정함. ○1981. 2. 15사망(74 세)함.
8. 신 위 (申緯)	○영조45년(1769. 8. 11)~현종13년(1847) ○자하동(紫霞洞=지금의 과천)에서 태어남. 이조말기의 학자로서 자는 한수(漢叟)이고, 호는 자하(紫霞)이며 본관은 평산이다. 참판 대승(大升)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렸고, 14세때에 정조가 궁중으로 불러 들여서 크게 칭찬하고 사랑하였다 한다. 1799년 문과에 급제 벼슬은 도승지를 거쳐 이조 참판에 이르렀다. 당시 시(詩), 서(書)화(畵)의 삼절(三絶)이라 이름하였고 조선 개국 이래 시작(詩作)이 가장 많았으며 백년 이후의 시인들도 그를 작시법의 스승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필법(筆法) 화품(畵品)이 다 신경(神境)에 이르러 그가 쓰고 그린 종이 조각하나라도 보배로 전하여 지고 있으며 그의 아들 명연(命衍)은 호를 애춘(藹春)이라 부르며 아버지의 유고를 수집하여 책을 만들었는데 그 역시 삼절(三絶)로 이름이 났었다.

인 명	생 애 및 사 적
9.정세규 (鄭世規)	1583(선조16)~1661(현종 2) 이조 인조때의 대신으로 자는 군칙(君則)이며 호는 동리(東里)라 하며 시호는 경헌(景憲)이며 본관은 동래로써, 율(栗)의 아들이다. 1613년 사마시에 합격 금부도사의 벼슬을 지낸후 안산군수(현재 시흥군수)가 되었다가 그후 병으로 사임하였다. 1636년(인조14) 안산군수 당시에 치적을 쌓아 충청도 관찰사로 보직되었는데 호병이 남한산성을 포위하였을때 그는 도병을 이끌고 용인의 험천(陰川)에 진주하였다가 호적의 급습을받아 부상을입고 안성을 거쳐 청주에 나가 항거를 계속하던 바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말을 듣고 달려와 분하여 눈물을 흘렸다 한다. 그후 왕의 간절한 부름을 받고 호조참의가 되었으며 전라감사 개성유수를 역임하고 공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후 모든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에 돌아가 7년후 죽었다.

4 - 2 유 적 유 물

명 칭	유 래 및 연 혁
1. 효령대군영정 (孝寧大君影幀)	○지정 번호 : 지방유형문화재 제81호 ○위 치 : 과천면 문원리 연주암 ○소 유 자 : 연주암 주지 이조 태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영정이다. 삼베 위에 다 원래의 색을 갖인 물감으로 그렸다. 영정의 크기는 가로 74cm에 세로가 102cm나 된다. 영정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초상화이며, 현재 있는 효령대군의 영정은 오른 손에 지팡이를 짚고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이다. 그림을 그리는 솜씨와 법이 매우 세밀하고 살아있는 것과 같이 뚜렷하고 섬세하고 정교하다. 특히, 그림이 보존되어 온 상태가 아무 손상이 없이 원래대로 양호하다. 750m나 되는 관악산 연주봉에 자리잡고 있는 연주암에 있는 것으로 이 그림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려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도 그림을 대하면은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훌륭한 솜씨의 그림이다. 효령대군은 태종임금의 둘째 아들이므로 이름은 보(補)이었으나 처음에 부른 이름은 복호자의 호(祈)이었다. 성년이 되어서의 이름은 착할 선(善)자에 아제비 숙(叔)을 쓴 선숙(善叔)이었다.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閔氏)였다. 효령대군은 어릴 때 부터 책 읽기를 즐기고 또 한, 활쏘기에 능하여 아버지이신 태종대왕(李芳園)을 따라 항상 사냥터에 다녔으며, 아울러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 효성과 우애가 지극했다. 동생 세종(忠寧大君)과는 어릴 때부터 우애가 깊어 왕이 자기 집에 들르게 되면 밤이 깊도록 나라정치에 대해 전반적인 면에 걸쳐 서로의 의견을 교환

명 칭	유 래 및 연 혁
	하였다. 특히, 효령대군은 불교에 독실하고 공부를 많이하여 조정의 여러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님들을 모아 불경(佛經)을 토론하고 강의 등을 하도록 하였다. 1464년(세종10년)에 원각사를 세우게 될 때, 총감독의 지위에 올라 이 공사를 친히 감독했고 「원각경(圓覺經)」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책을 펴냈으며 문장에도 능했다. 아버지이신 태종이 셋째 왕자인 충령대군(후에 세종임금이 되신 분)을 장차 세자로 삼을 뜻을 눈치챈 첫째 왕자 양령대군이 왕궁을 빠져 나오려 하자 이를 동정한 둘째 왕자 효령대군도 함께 왕궁을 빠져 나와 발길 닿는대로 방랑의 길을 떠났다. 그러던 중 며칠 만에 문득 발길을 멈춘 곳이 지금의 관악산이었다. 이 관악산에 있는 관악사라는 절에 들어가 도를 닦았으나 왕좌에의 집념과 미련 그리고, 동경의 정을 누를길이 없어 연주봉 꼭대기에 올라 왕궁이 잘 바라다 보이는 큰 바위 위에 대를 쌓아 그곳에서 왕궁을 바라보며, 한숨과 눈물을 지었다하여 이곳을 연주대라고 하였다고 전해오는 말도 있으며, 이러한 인연에서 지금의 연주암에 효령대군의 영정 한 폭이 있는 것 같다.

명 칭	유 래 및 연 혁
2. 부림현 (富林軒)	○소유 : 면유 ○위치 : 과천면 관문리 107번지 ○시대 : 조선 정조 조선 정조시 객사의 한 건물이었다고 하며 현재 과천면사무소 동측에 있는 건물이 원위치라고 하는데 정조의 어필인 부림현이 현판으로 전하며 과천에 수립이 율창하여 부림현(富林軒)이라 썼다 한다.
3 오이도패총 (烏耳島貝塚)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산168 오이도 신포동(고줄이) 지표하 80cm 지점에서 패각층(貝殼層)이 나타나는데 패각층의 두께는 1m내외로 두터운 편이며 해안을 따라 길이 약 50m에 걸쳐 형성되어 있고 거기서 서북쪽으로 산 비탈에서도 패각층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경작지인데 약 500평 넓이의 밭에 모두 패각이 섞여 있으며 주로 김해식 인문토기(金海式 印文土器)가 많이 출토하지만 흑도(黑陶)에 가까운 것도 출토된다. 고줄이 일대 구릉상(丘陵上)에서는 즐문토기편(櫛文土器片)과 무문토기편(無文土器片)도 발견되지만 이것들이 쌓인 패총은 발견할 수 없다. 즐문토기 패총은 북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소규모였던 것 같다. 삭달리 일대의 북안(北岸)에도 패총이 많이 보이지만 모두 삼국시대 초기것으로 보인다.

명 칭	유 래 및 연 혁
4.초지리패총 (草芝里貝塚)	시흥군 군자면 초지리 초지리 별망 성지(城址) 동쪽해안(남양연안)에 소규모의 김해기(金海期)의 패총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김해식 인문토기편이 출토되고 있으며 패총의 두께는 30cm내외이고 길이는 50m 정도로서 해발 1m내외의 저지대에 있으며 이 패총은 78년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이에 서울대학교에서 발굴 하였으며 발견된 유물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중이다.
5.군자리무문토기유적 (無文土器遺蹟)	시흥군 군자면 군자리 (군자산) 군자봉 서록(君子峰 西麓) 능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표고 약 30m의 구릉상에 300여명의 평평한 곳에 무문토기의 후기에 속하는 흑도질 토기편이 출토되는데 무문토기시대의 취락지(聚落址)로 추정된다.
6.정왕리 선사유적 (先史遺蹟)	시흥군 군자면 정왕 6리 옥터국민학교 주변일대에 즐문토기 유적이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걷어낸 패각층에서 즐문토기 후기의 토기 파편이 발견되고 있다.
7.양상리 지석묘군 (支石墓群)	시흥군 수암면 양상 2리 북면한 구릉지를 따라 내려오다가 소천(小川) 가까운 평지 도로변에 8基가 10여m 간격으로 군집하여 있는데 현상태는 무지석식으로 보이나 소형판석(小形板石)들이 주위에 산재한 것을 보아 탁자식(卓子式)도 있었던 것 같으며 그중 큰 것은 3.28m×2.6m, 두께 1.2m CUP MARK가 2개 있고 또 다른 하나는 3.1m×2.6m, 두께 1m 등이다. 한편 78년 9월 2일 경희대학교 학술조사단에 의하여 조사

명 칭	유 래 및 연 혁
•	되었는바 특별한 유물의 출토는 없었으나 한반도 중부지방의 지석묘에 대한 형식 연구에 도움을 줄수 있는 유적이라 한다.
8. 거모리사지 (寺 址)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와 선부리의 접경(接境)지에 있으며 고려자기 파편이 산재하였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
9. 대야리사지 (大也里寺址)	시흥군 소래읍 대야리 (소래산) 소래산 동쪽 기슭에 있으며 석축(石築)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데 소정방이 건립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10. 대야리마애불 (大也里磨崖佛)	시흥군 소래읍 대야리 소래산 정상 동쪽 부근 병풍바위에 음각(陰刻) 되어 있으며 자연암의 균열과 인위적인 손상으로 마멸이 심한데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며 높이는 13m 대좌는 3.7m이다.
11. 백운사지 (白雲寺址)	시흥군 의왕읍 왕곡리 백운산 능선에 있는 현재의 절은 1970년 경에 세워진 것이라 하며 이곳은 청평김씨종중(靑平金氏宗中)의 山이 연해 있는 곳으로 현재의 백운사도 종중에서 세웠다고 전한다. 원래의 백운사는 894년에 창건했었다고 전하는데 현백운사에서 3km정도 올라간 지점에 있었다하나 기와의 파편이 몇개 산재할 뿐 잡초가 무성하다.
12. 원당사지 (元堂寺址)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山13 축대의 일부와 초석(礎石) 2개가 산재하며 근년(近年)에 쓴 3基의 묘가 있고 석불좌상 2구가 있는데 1구는 결가부좌(結跏趺坐)에 우수(右手)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이나 좌수(左手)

명 칭	유 래 및 연 혁
	는 파손되어 있고 두부는 목이 부러져 울려 있으며 1구는 육계(肉髻)가 있고 목아래 부분은 둥글게 돌출시켜 의문(衣文)을 선각하였다. 출토되는 기와 파편의 문양(文樣)으로 보아 조선末까지 존재하다가 폐사가 된 것 같다.
13. 수암사지 (秀岩寺址)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산 4 주위에 샘터가 하나 남아 있을 뿐 모두 경작지화(耕作地化)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
14. 조인규사 당기 (趙仁規祠堂記)	시흥군 과천면 조인규(고종14년(1227)~충렬왕 34년(1308)는 고려조(朝)의 문신(文臣)으로 자는 거록 본관은 평양인데 조정에서 선발되어 몽고어를 배우고 이름이 알려져 제교(諸校)에 보직, 장군에 오른 뒤 충렬왕 1년(1275) 성절사로 원나라에 다녀온 것을 비롯 전후 30여 차례나 원나라에 왕래했고, 승지, 삼사사(三司使) 지도침의사사(知都僉議司事) 및 판군부사사(判軍簿司事), 세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충렬왕 24년(1298) 충선왕이 즉위하자 사종(司從)시중(侍中), 참지광정원사(參知光政院事)가 되었으나 조비(趙妃) 사건으로 안서에 장유(杖流)되었다, 1305년 석방되어 판도침의사사에 등용되어 1307년 평양군에 봉해지고 선충익대보조공신(宣忠翊戴輔祚功臣)이 되었으며 시호(諡號)는 정숙(貞肅)인데 이 사당기는 이곡(李穀)이 찬(撰)했고 옥수성(玉守成)이 서(書)했다고 대동금석목(大東金石目)에 있다.

명 칭	유 래 및 연 혁
15허엽의신도비 (許曄神道碑)	시흥군 과천면 허엽(중종12년(1517)~선조13년(1580))은 조선朝의 문신으로 자는 태휘(太輝), 호는 초당(草堂)이며, 본관은 양천(陽川)인데 명종 1년(1546)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갑과(甲科)로 급제 1551년 부교리(副校理)가 되고 1553년 장령(掌令)으로 있을때 재물을 탐한 혐의로 파면 되었다가 1559년에는 필선(弼善)으로 기용되고 이듬해 대사성(大司成)에 올랐으며 선조 1년(1568) 대사련(大司諫)에 올라 향약(鄉約)의 시행을 건의하였고 선조 8년(1575) 동, 서인의 당쟁이 시작될 때 김효원(金孝元)과 함께 동인의 영수(領袖)가 되었으며 부제학(副提學)과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고 한직(閑職)에 전임되었다가 상주의 객관(客館)에서 죽었다. 그는 김정국(金正國)이 찬수한 경민편(警民編)을 보충 반포하고 삼강이륜행실(三綱二倫行實)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청백리(靑白吏)에 녹선(錄選)되고, 개성의 화곡서원(花谷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허엽의비(碑)는 남응운(南應雲)이 전(篆)했고 노수진(盧守愼)이 글을 지었으며 전면은(前面) 한호(韓護)가 썼고 후면은 허잠(許箴)이 썼는데 비문이 조선금석총람에 있다.
16 홍막금의묘 (洪莫金의墓)	시흥군 군자면 원시리 산18 홍막금은 조선 영조때의 인물이며 인조반정공신 홍명원(洪命元) 장군의 후손으로 1977년 5월 7일 반월공업도시 조성공사에 따라 분묘이장 작업시 길이 2m, 폭 70cm의 판이 나왔는데

명 칭	유 래 및 연 혁
	관재(棺材)는 두께가 15cm이며 옷칠을 했고 관 상면에 덕은 명정에 「절충장군 용호위부호군 남양홍씨지구」(折衷將軍 龍護衛副護軍 南陽洪氏之樞)의 글씨가 쓰여 있었으며 관은 회(灰)로 밀폐되어 습기가 없었다 한다.
17 홍명원의묘 (洪命元의墓)	시흥군 군자면 성곡리 홍명원(선조 6년(1573)~인조 1년(1623))은 조선朝의 문신으로 자는 낙부(樂夫)이며 호는 해봉(海峰)인데 본관은 남양이다. 선조 30년(1597)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검열, 사서(司書)를 거쳐 헌납(獻納)이 되어 권신(權臣)들을 탄핵하다가 함경도도사로 좌천되었고 예조정랑(禮曹正郎), 죽주부사(竹州府使) 정주와 의주의 목사등을 역임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가 부모봉양을 위해 광주목사로 나가 선정을 베풀어 표창을 받았다. 광해군 초에는 명나라와의 긴장을 무마했고 후금(後金)의 위협에 강경론을 주장했으며 1623년 인조반정으로 경기도 관찰사가 되어 반정후의 치안유지에 힘썼으며 시와 문장에도 뛰어났는데 묘역(墓域)에는 송시열(宋時烈)이 찬(撰)했고 송준길(宋浚吉)이 쓴 비와 상석(床石), 동자석(童子石)한쌍이 있고 夫人 파평윤씨(坡平尹氏)의 묘가 있다.
18 이구의묘비 (李謬墓碑)	시흥군 과천면 이 구(태종 18년(1418)~예종 1년(1469))는 조선 세종의 네째 아들로 자는 헌지(獻之)이다. 어머니는 소헌왕후 심씨인데 세종 19년(1428) 임양대군에 봉해졌으며 그후 세종 12년(1430년) 성균관에 입학하여 세조를 보

명 칭	유 래 및 연 혁
	좌하여 조정의 득실과 민간의 이해를 잘 가려 세조의 신임을 얻었으며 시호(諡號)는 정간(貞簡)이다. 이 묘비는 안평대군의 글씨이다.
19이염의신도비 (李璘의신도비)	시흥군 군자면 군자리 (군자산) 영흥대군 이염은 조선 세종의 여덟째 아들로 소헌왕후 심씨의 소생인데 영흥대군으로 봉해졌으며 그림과 글씨에 능하고 음율에 능통하였다고 한다. 이 비(碑)는 안산(安山)에 있던 것을 광무 4년(1900) 9월 17일 이곳으로 이장했다고 하며 비문에 의하면 홍치(弘治) 11년(1498) 무오(戊午)년에 세운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신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오랜 풍화작용으로 글씨는 알아보기 어렵고 이수(螭首)를 갖추었으며 비대는 후대(後代)의 것으로 보인다.
20유석의신도비 (柳碩神道碑)	시흥군 수암면 부곡 1리 강원도 관찰사등을 역임한 유석, 호는 개산(皆山)이다. 신도비는 조강(趙綱:호 瀾州)이 썼고 현목이 경오(1690) 추각립이라 쓰여 있으며 비신(碑身)은 높이 2.12m, 폭 96cm 두께 33cm 이고 비대석(碑台石)과 가침석(加檐石)이 있다.
21김약노의묘 (金若魯墓)	김약노는 이조 영조때의 대신으로서 본관은 청풍이며 대제학 김유의 넷째 아들이다. 1727년 (영조 3년) 문과에 급제하여 육조판서를 두루거쳐 벼슬을 쌓아 1749년 (영조25년)에 좌의정이 되었다. 그의 아우(김유의 다섯째 아들)상노(尙魯)가 영의정 당시 세자인 사도세자를 세자의 장인 남양홍씨(南陽洪氏)와 모함하여 세자를 죽게하였다.

명 칭	유 래 및 연 혁
	정조대왕께서는 분주한 정사를 뒤로 미루고 선친의 묘가 있는 수원 화산 용능을 자주 찾아 참배하곤 하였다. 그당시 용능 참배길은 과천을 경유하는 길 밖에는 없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정조대왕께서 용능을 참배하러 가던중 현재 갈현리 찬우물 마을에서 잠시 쉬어 목을 축이시고 주위 산천(山川)을 둘러보니 산기슭에 큰 묘가 있어 물어본 바 당시의 영의정 김상노의 형 김약노의 묘라 하니 정조대왕은 얼굴을 일그리며 즉시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한다. 그후 정조대왕은 대신에게 명하여 김약노의 무덤이 보기 싫으니 한양에서 안양을 거쳐 수원을 가는길을 새로 만들라 명하였으니 그후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다보니 부득이 안양에 만안교(萬安橋)를 설치케 되었다 한다.
22 김치인의묘 (金致仁의墓)	1716 (숙종42) ~ 1790 (정조 14년) 이조 영조때의 재상으로 자는 공서(公恕), 호는 고정(古亭)이다. 시호는 현숙(憲肅)이며 본관은 청풍(淸風)으로 영의정 재로(在魯)의 아들이다. 1748년(영조24)에 문과(文科)에 장원 급제하여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다. 그의 아버지 재로(在魯)는 탕평(蕩平)의 논(論)으로 선비들에게 배척을 받았으나 치인은 선비들과도 잘 사귀어 칭송을 받았으며 소래읍 안현 1리 50번지에 묘와 비석이 있다

명 칭	유 래 및 연 혁
23 유자신의묘 (柳自新의墓)	1533 (중종28) ~ 1612 (광해군 4) 이조 광해군의 장인 수릉관(守陵官), 잠(潛)의 아들로써 진사에 합격하여 태릉참봉(泰陵參奉)을 거쳐 형조참판을 지냈다. 임진왜란때 동지충추부사가 되어 세자 광해군을 따라 강계에 갔으며 후에 성천부사(成川府使)가 되었다가 1595년(선조28)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면되었다 그후 한성부윤이 되었다가 1598년(선조31) 명나라 감군포정사(監軍布政使)인 양조령(梁祖齡)의 부하를 구타한 사건으로 파면되었고 그후 다시 한성부윤에 이르렀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관례에 따라 국구(國舅)로 문양(文陽)부원군에 피봉되었으며 아들 희분(希奮), 희발(希發), 희량(希亮)과 손자 충립(忠立)이 다 벼슬에 나갔으며 수암면 능곡 1리에 신도비와 묘가 있다
24 이기조의묘 (李基祖의墓)	이조 인조때의 문관 자는 자선(子善), 호는 호암(浩庵)으로 시호는 충간(忠簡)이며,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이조판서 현영(顯英)의 아들로써 박동열(朴東說)에게 글을 배운 후 장성하였으며 이덕형(李德馨)의 손녀를 아내로 맞았으며 21세때 문과에 급제 승문원 박사(承文院 博士)로 있을 때 권간(權奸)에게 거역하다 파면되어 수원(水原)에 돌아갔다. 인조반정으로 형조좌랑(刑曹佐郎)에 임명 도승지(都承旨)에 이르렀고 효종때 호조판서에 이어 예조판서가 되었으나 우의정 김육(金堧)과 의견이 맞지 않아 함경북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얼마 후 병을 얻어 자임하였으며 이후 김육에게 용서되어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임명되었으나 돌아오던 중 금화(金化)에서 객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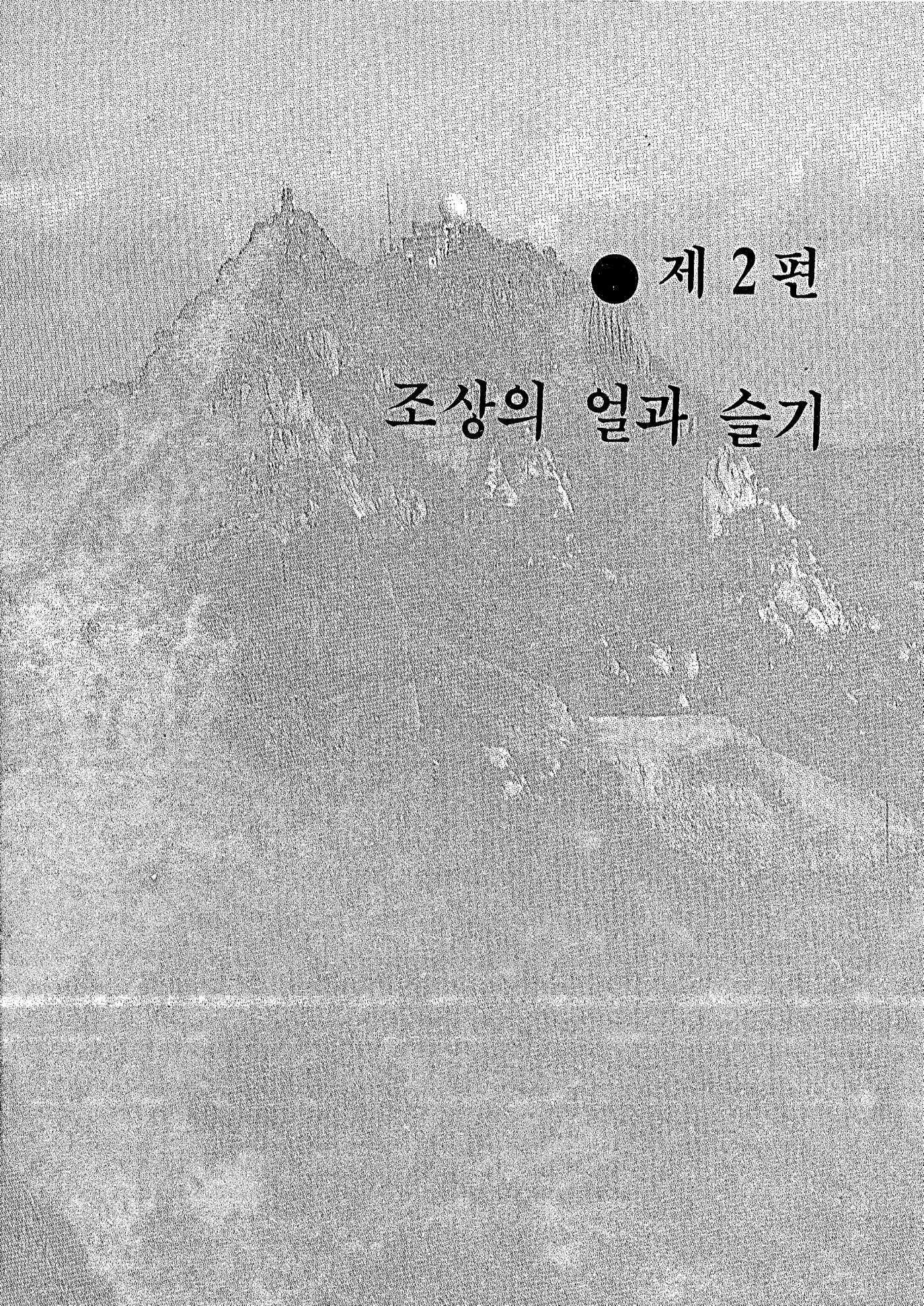
명 칭	유 래 및 연 혁
	유고(遺稿)로는 3권이 있으며 묘는 과천에 있다.
25.이복남의묘 (李福男의墓)	이조선조때의 장군.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우계(羽溪)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1597년(선조30) 왜적의 재침때 전라병사(全羅兵使)로 명나라의 부총병(副總兵), 양원(楊元)을 따라 남원을 수비하였다 그해 8월에 왜적이 남원을 포위하며 조방장(助防將), 김경로(金敬老), 산성별장 신희(申浩) 등과 순국을 맹세하고 소수의 장병을 데리고 남문으로 성중에 들어가 분전하다가 전사하였으며 묘가 과천에 있다
26 권건의묘 (權健의墓)	1457 (세조 3) ~ 1501 (연산군 1) 이조 초기의 문인 자는 권강(叔強), 시호는 충민(忠敏)이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길창군 남(驍)의 아들로써 1476년(성종 7)에 급제 중추원 부사(中樞院 府事)를 지냈다. 문장과 글씨에 능했으며 묘는 과천면 막계리에 있다.
27.홍일동의묘 (洪逸童의墓)	이조 초기의 명신으로 자는 일휴(日休)이며, 호는 마천(麻川)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절도사 상직(上直)의 아들이다. 1442년(세종24년) 문과에 급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상호군(上護軍)을 지냈다 성격이 호탕하고 옷은 언제나 더러웠으며 술과 밥을 말로 먹고 시를 읊으며 풀피리를 잘 부는 것으로 유명했다. 세조도 그를 보고 감탄하여 「돌아다니며 구경을 시키라」 하니 명을 받들어 돌아 다니던중 홍주(洪州-洪川)에 닿아 한없이 술을 마시다가 너무 취하여 그대로 죽었다하며 묘가 과천에 있다.

명 칭	유 래 및 연 혁
28. 고잔리태봉 (古棧里胎峰)	태봉은 수암면 고잔리에 위치한 것으로서 고려시대 왕자의 태를 묻은 곳이라 하여 태봉(胎峰)이라 전하여 오며 현재 태를 묻었던 흔적과 비를 세웠던 아랫 부분만 남아 있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산봉(山峰)에 비와 태를 담아 매장했던 솔과 같이 생긴 석조물(石造物)이 하나 있는데 이 비를 세우면 마주 바라다 보이는 부락(월피 1리)내 부녀자들이 바람이 난다는 전설이 있어 1940년경 이곳 주민들이 비의 윗부분만 산 아래로 굴리어 700m 아래 앞논에 현재 묻혀 있다고 하며 태함은 도굴되었고 일부 매몰되어 있는데 드러난 부분의 크기는 대략 1.32m×60cm이고 비좌(碑座)는 93cm×57cm×50cm이다.
29. 군자산성지 (君子山城址)	시흥군 군자면 군자 1리 (군자산) 표고 187m의 독립봉인 군자봉 정상에 있으며 삼국시대 (三國時代)의 토기편(土器片)과 기와의 파편이 산재해 있고 정상부에는 후대에 지었던 성황당 자리가 있으며 조선때는 봉수대((峰燧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다. 삼국시대 한강유역과 남양만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지키는 요새지(要塞地)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위는 약400m 높이는 약10m이다.
30. 목내리성지 (木內里城址)	시흥군 군자면 목내리 목내리와 초지리 사이의 표고 40.8m, 73m, 57.8m의 산능선과 목내리, 성곡리 사이의 표고 48m, 93.8m, 85.2m의 산능선 그리고 목내리 입구에 위치한(표고87m) 성안등이 천연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산능선을 따라 축조한 것으로 현재 높이 2m 폭은 상부(上部) 2m내외 하부 5m내외의 토축성(土築城)이 있다.

명 칭	유 래 및 연 혁
31. 성곡리성지 (城谷里城址)	시흥군 군자면 성곡리 (해봉산) 유래미상으로 길이 약 20~30m 정도 토성(土城)의 흔적이 남아 있다.
32. 오정각 (五旌閣)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 26 재료 : 목재, 크기 : 정면 3 간, 측면 2 간 시대 : 조선 제26대 고종 7년 (1870) 조선 제 6 대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세조)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사육신과 함께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했던 충신 이조판서 김문기와 그의 자 통정대부(通政大夫), 김현석(金玄錫), 손 김충주(孫 金忠柱), 증손 김경남(金景南), 현손(玄孫) 김약전(金約前) 등 5 대에 대한 정문(旌門)을 함께 봉안한 곳으로 오정각이라 칭한다. 고종 7 年(1870)에 명정(命旌)하여 건립한 것인데 정면 3간, 측면 2 간이며 초익공양식(初翼工樣式)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1968년 전체를 보수하고 1976년에 말끔히 단청(丹靑)하였으며 1981년에 시흥군에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금령김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33. 수암리관아지 (秀岩里官衙址)	수암면 수암리에 있었던 건물로서 이조시대 관아로 사용되었던 목조건물이 거의 붕괴되어 1972년 10월경에 헐었다고 하며 그 목재의 일부는 안산국민학교에 보관되어 있다. 현대 초석(礎石)이 횡(橫)으로 10개가 (22.5m) 종(從)으로 4 개가 (7.7m)있으며 그 주위에 기단(基壇) 장대석(長台石)이 둘러있다.
34. 미륵입상 (彌勒立像)	○위치 : 과천면 문원리 山 117 ○소유 : 보광사 ○크기 : 2.1M × 41cm

명 칭	유 래 및 연 혁
	얼굴, 목, 발 부분등의 형태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조각되어 있어 미륵상을 조각하다 미완성 된 것으로 추측되며 갓(冠)이 주위에 놓여 있는 것을 지금은 보광사에 있다.
35. 청계사사적비 (淸溪寺事蹟碑)	○소재지 : 시흥군 의왕읍 청계리 산 11 ○관리자 : 청계사 주지 (住持) ○재 료 : 화강암 ○크 기 : 신고 1.74m, 폭 92cm, 후 26cm ○시 대 : 조선 제19대 숙종 15년 (1689) 현재 사적기는 없으나 석비(石碑)가 남아있어 청계사의 내력을 살피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고려시대 중엽 제26대 충선왕 때에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청계사에 사적비 2基가 있다. 그중에 하나는 숭정기원후 기사년(崇禎紀元後己巳年)에 조성되었다는 비문이 있는데 다른 하나는 알 수가 없다. 비문에는 「청계사사적비 청계사주 고려시중 조정숙 공망별서 토야공회인규자거진평양부상 원군인야 모토군 대인이씨 몽일입회 기이...숭정기원후 기사(1689) 6월 일(淸溪寺事蹟碑 淸溪寺郎高麗侍中趙貞肅公亡別墅土也公諱仁規字去塵平壤府祥原群人也母土郡 大人李氏夢日入懷己而...崇禎紀元後己巳(1689)6月 日)」라 쓰여 있는데 비신(碑身)의 높이는 1.68M이고 폭 62cm 옥개석(屋蓋石)은 115cm×34cm이다.
36. 문원리 삼층석탑	○위치 : 과천면 문원리 75 ○소유 : 배차손 ○크기 : 1.65m

명 칭	유 래 및 연 혁																		
	과천면 관문리 옛 사지(寺址)에서 발견된 것을 현 보광사 창건시에 옮겨와서 보존하고 있는데 원래의 부재가 많이 없어졌다.																		
37 현감의 선정비 (縣監의善政碑)	이조 정조 이전에는 지방에서 한양에 이르는 도로는 오직 지금의 수원—군포—과천을 지나는 도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옛부터 과천은 한양의 관문이었다. 서울을 잇는 도로를 따라 많은 상점들이 줄을 이었으며 한양의 관문이라 우수하고 능력있는 관료들이 과천의 현감으로 부임케 되었다. 부임한 현감들은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로 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현감이 타계(他界)하면 선정비를 세우곤 하였다. 선정비의 대부분은 과천면 관문리 249-5번지 일대에 있던것을 1972년 잔존하고 있는 18기를 모아 과천출장소 (구과천면사무소)앞뜰에 옮겨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그 선정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table> <tr> <td>현감 민치록 (閔致祿)</td><td>현감 김병기 (金炳冀)</td></tr> <tr> <td>현감 이병영 (李秉伶)</td><td>현감 민상호 (閔商鎬)</td></tr> <tr> <td>현감 민혜량 (閔惠亮)</td><td>유수 정기세 (鄭基世)</td></tr> <tr> <td>현감 허 익 (許 遷)</td><td>군수 서인순 (徐寅淳)</td></tr> <tr> <td>군수 길영수 (吉永侏)</td><td>현감 홍일순 (洪一純)</td></tr> <tr> <td>순상 홍우창 (洪祐昌)</td><td>현감 정동준 (鄭東浚)</td></tr> <tr> <td>현감 김엽조 (金念祖)</td><td>현감 박태원 (朴泰元)</td></tr> <tr> <td>현감 이현도 (李縣道)</td><td>현감 오희호 (吳希浩)</td></tr> <tr> <td>현감 이인수 (李麟秀)</td><td>현감 변성환 (邊星煥)</td></tr> </table>	현감 민치록 (閔致祿)	현감 김병기 (金炳冀)	현감 이병영 (李秉伶)	현감 민상호 (閔商鎬)	현감 민혜량 (閔惠亮)	유수 정기세 (鄭基世)	현감 허 익 (許 遷)	군수 서인순 (徐寅淳)	군수 길영수 (吉永侏)	현감 홍일순 (洪一純)	순상 홍우창 (洪祐昌)	현감 정동준 (鄭東浚)	현감 김엽조 (金念祖)	현감 박태원 (朴泰元)	현감 이현도 (李縣道)	현감 오희호 (吳希浩)	현감 이인수 (李麟秀)	현감 변성환 (邊星煥)
현감 민치록 (閔致祿)	현감 김병기 (金炳冀)																		
현감 이병영 (李秉伶)	현감 민상호 (閔商鎬)																		
현감 민혜량 (閔惠亮)	유수 정기세 (鄭基世)																		
현감 허 익 (許 遷)	군수 서인순 (徐寅淳)																		
군수 길영수 (吉永侏)	현감 홍일순 (洪一純)																		
순상 홍우창 (洪祐昌)	현감 정동준 (鄭東浚)																		
현감 김엽조 (金念祖)	현감 박태원 (朴泰元)																		
현감 이현도 (李縣道)	현감 오희호 (吳希浩)																		
현감 이인수 (李麟秀)	현감 변성환 (邊星煥)																		



● 제 2 편

조상의 얼과 슬기

1. 전해오는 이야기

1 - 1 도랫마을의 유래

—형제간의 애틋한 우애로 동생이 다시 돌아온 마을—

지금부터 약 200년전에 군포읍 당 5리 이 마을에는 김씨 성을 가진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였고 동생은 가난하였다.

두 형제가 결혼을 하여 사는데 동생은 아들을 낳았는데 형님은 아이가 한명도 없었다.

마음씨 착한 동생부부는 형님댁이 아기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백일을 정하고 기도를 드렸다.

어느날 동생의 꿈에 형님내 집 우물에서 큰 용 한마리가 머리를 쓰윽 내밀고 하늘로 솟구치더니 다시 동생네 우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아침에 깨어나 하도 이상하여 부인에게 이야기하였더니 부인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도 계속 형님이 아기갖기를 기도를 하였으나 형님네는 태기가 없고 도리어 동생댁이 다시 아기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동생네는 큰 아이를 형님네 드리기로 하고 자기들은 딴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형님은 거절하였다.

동생네는 이미 떠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아이와 함께 정처없이 길을 떠났다.

한곳에 정착하여 가난하게 살았으나 다복하게 생활했다.

세월은 흘러서 자녀들도 장성하고 이젠 정말 근심걱정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형수님 홀로 계시니 우리가 되돌아가서 다시 도와가면서 삼시다 하여(마을로 돌아왔다) 도랫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의 동생의 우물은 없어졌지만 두 우물의 용(龍)이 한 우물로 모여 살고 있다한다.

이곳 도랫마을의 우물은 쌍용(雙龍)이 노는 물이라서 이 우물의 물을 먹으면 쌍둥이를 낳는다는 전설이 있다.

1 - 2 광정 (光亭) 마을의 유래

- 꿈에본 빛을 정자의 이름으로 -

군포읍 산본리 443번지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수리산 중턱에 이조 9대왕의 삼남 안양군(安陽君)의 묘라하는 묘가 있다.

옛날부터 이 안양군의 묘를 지키며 살아온 옥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무예를 좋아하여 활쏘기, 칼쓰기는 남보다 뛰어났으며 사냥을 업으로 삼고 살았다 한다.

그는 나이가 차서 성년이 되면서 무예가들의 훈련장으로 좋은 이곳에 활터를 만들기로 하고 근처 무예가들을 불러 연습을 연마하고 풍류를 즐길 행락장소를 마련키로 하여 재물을 모아 공사를 착공하여 정자짓는 일을 계속하던 어느날 옥담의 꿈에 정자터에 찬란한 빛과 함께 우아한 정자의 모습이 나타나매 길조라 생각하고 무예가들과 협의하였다.

세월이 흘러 정자가 완성되어 이름을 구하던 중 꿈에 본 빛과 함께 정자를 생각하여 광정(光亭)이라 붙였다 한다.

그리하여 지금도 이마을을 광정이라 부르고 있으나 현재는 정자도 없고 묘만 쓸쓸하게 자리하고 있다.

1 - 3 감투봉 (懸頭峰)에 얽힌 이야기

- 두용이 승천하려 서로 싸웠다는 이야기 -

군포읍 부곡리에는 마치 감투처럼 생긴 봉우리가 두개 있다.

생긴 모양이 감투같다 하여 부락 사람들은 감투봉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감투봉에는 슬픈 전설이 있다.

고려시대 지관(地官)을 지내던 박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려쁜 딸이 있었는데 과년하여 이웃마을의 주(朱)씨네로 출가하였는데 시부모님 봉양 잘하기로 근동에 소문이 자자하였었다.

어느날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친정으로 향하였다.

그녀가 친정마당에 도착하여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아버지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서북쪽 높은 산봉우리에 가면 흰나무 세그루가 있는데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유언을 했다.

딸은 그곳이 명당인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며 시치미를 떼고 방에 들어가 아버지께 병문안을 올리고 며칠을 병간호를 했다.

그녀의 효성이 지극한지 친정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자 그는 시댁으로 돌아와 친정에서 들은 명당이야기를 명심하고 시아버님 봉양을 하던 중 갑자기 시아버님이 병을 얻어 눕게되자 그녀는 백방으로 의원과 약을 구해다 치료에 애썼으나 애석하게도 운명하였다.

이때 그녀는 전에 친정아버지에게서 들어 둔 흰나무 세그루가 있는 명당으로 시아버님을 모시기로 하고 그곳에 오빠 몰래 묘를 만들어 시아버지를 모셨다.

그 후 얼마후 친정아버지도 병이 재발하여 세상을 달리하였다.

이때 아들들은 전에 아버지가 말해둔 명당으로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매일 새벽이면 먹구름과 함께 천둥번개가 번쩍이며 큰 용 두마리가 그 산봉우리에서 싸우는 것이었다.

그제사 누이의 시아버지를 자기 아버지와 같은 장소에 장사 지낸 것으로 알고 누이에게 시아버지의 이장을 권유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그러자 큰 아들이 결심하여 가슴에 낫을 품고 두마리 용중 한 마리를

없애기로 하고 산소에 가 제사를 지낸후 새벽에 그 산봉우리를 향하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며 두마리 용이 처절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이때 큰 아들이 어울려 싸우던 두마리의 용중에서 한마리를 베어 죽였다.

그러자 싸우던 용이 조용해 지고 죽어버린 용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하여 누워있던 것이다.

이후로부터 그 산봉우리를 서로 용이되어 승천하려 서로 싸웠다 하여 감투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후 주씨네는 부유하게 살았으나 후손이 적었으며 반대로 박씨네는 자손이 귀하였다가 후에는 자손들이 번창하였다 한다.

1 - 4 변시촌(邊氏村)의 유래

조선말기 5대독자로 자란 변씨 내외가 살고있었다 이들은 선조때 부터 자손이 귀하여 늘 자녀 많은 집안을 부러워 하였다 집안에 자녀가 없으니 늘 쓸쓸하고 고독하였다.

자손이 없으니 후에 저승에 가서 조상님들을 어떻게 뵈을 것인가 하면서 늘 탄식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물맑고 경치좋은 명산을 찾아 다니면서 지성을 드리며 자손 얻기를 소원했다 좋다는 약은 다 구해서 먹으며 별일을 다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던 중 물 맑기가 유리하고 산수가 수려한 현 군포읍 부곡리 부근에 당도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지성을 드리는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들은 길가에 주막을 차려 놓고 길가는 손님들을 접대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부인이 잠깐 잠든 사이에 귀한 선비 한분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 소원을 들었노라. 너희 정성에 내가 탄복하였구나”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알려 주었다.

“지금부터 150일 동안 몸을 정결히 하고 깊은 동굴속에서 사람과 일체 만나지 말고, 두 부부가 정성스레 기도를 드리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하고는 홀연히 떠나갔다.

이 두 부부는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힘들고 고달팠지만 오로지 자손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정성껏 기도를 드렸다.

시간이 흘러 이제 150일이 지나게 되자 이상하게도 부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 이들의 기쁨은 말할수 없이 컸다.

이제 저승에 가서도 조상님들을 뒤흔들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면서 기뻐했다. 그후 4남2녀를 낳아 5대독자를 지내던 가문에 큰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 지금은 자손이 번창하였다고 한다.

1 - 5 용호(龍虎) 마을에 얽힌 이야기

고려말 용천(龍天)이라는 마을과 호지(虎地)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조그만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모락하고 헐뜯으며 종종 싸우기가 일쑤였다. 용천이라는 마을은 그 모양이 마치 용(龍)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서로가 용호상박의 형국이었다. 용천마을은 용의 기세로 호지마을은 호랑이의 기세로 서로 추호의 물러남도 없이 당당한 기세였다.

그러던 어느날 호지 마을 측에서 화해를 하자는 전갈을 보내왔는데, “지금 용천 마을 장(長)께서 우리 호지 마을로 급히 오셔서 서로 도와 가면서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봅시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받아 본 용천마을 장(長)은 크게 노하여,

“절대로 그런 제의를 받아 들일 수 없다.”

라고 회신을 보냈다. 호지 마을에서는 크게 실망하여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데 어느날 꿈에 흰수염의 도사가 나타나서 말하였다.

“내일 아침 동이 트는 즉시 동남쪽으로 가면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을 터이니 그 고목나무의 잎사귀 하나를 따서 발로 밟도록 하라.”

다음날 아침 일찍 호지마을 장이 그곳에 가보니 과연 큰 고목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잎사귀 하나를 따서 밟았더니 갑자기 흰 연기가 솟구치면서 연기속에서 공교롭게 용천마을 장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전에는 내가 미안했소. 어제밤 꿈에 도사님이 나타나시어 이곳까지 오셨군요. 우리 힘을 합쳐 살아갑시다. 마을 이름을 이제 龍虎라 하는 것이 어떻겠소?”

이리하여 용천마을과 호지마을은 서로 협조해 가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용호마을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1 - 6 오봉산 기슭의 명당

—어머님 묘소를 100일 기도로 명당마련—

의왕읍 고천에 부곡으로 넘어가는 고개 못미처 오른쪽으로 봉우리가 5개 있는 높은 산이 있어 이름하여 오봉산이라 일컫는 바 경관이 수려하여 등산객이 줄을 잇고 있다.

이산 기슭에 이조 역대에 걸쳐 정승판서를 낸 명당이 있으니 이조 속종때 이조판서를 지낸 청풍김씨 인백(仁百)의 정경부인 안동권씨의 묘이다.

안동권씨 사후 6대 정승이 그 집안에서 배출되었으니 가히 명당이 아니라 이 산소 자리는 본래 함양박씨 선조의 집터로 다음과 같은 유래가 구전되고 있다.

인백의 아들 극형(克亨)은 평소 효자로 인근 수십여리에 걸쳐 칭송이 자한 인물이었던 바 위로 두 형님이 요절하자 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며

충효를 인륜의 대근간으로 삼고 살았었다.

그러던중 어머니가 노환으로 돌아가시자 가매장을 하고 이어 어머니 산소 자리를 찾아 수산을 헤메었으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집에서 정한수를 떠 놓고 100일 기도를 작성하고 자정이면 어머니를 편히모실 묘소가 마련되길 기원하며 노심초사하던 중 하루는 과객 2명이 석양빛을 받으며 문전에서 하는 말이 하루밤만 유숙하고 가게 해달라는 청을 받고 극형은 보시다시피 나는 상중이고 집안도 빈한하여 대접할 만한 음식도 없으니 어쩌면 좋으랴? 하는 말에 과객은 그저 하루밤만 쉬어가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다시 간청하자 극형은 손님을 안내하여 집안으로 들이고 죽을 쑤어 대접하며 장거에 노독이 심할테니 우선 요기라도 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건너가 손님이 잠잘때 쫄해서 자정에 또 기도를 드리러 밖에 나와 기도를 한후 방으로 들어 가던중 손님이 자지않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문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인즉

“여보게 자네 아까 보았지” 그 박씨네 장독대말이야 아주 훌륭한 명당인데 참으로 아깝네 그려.” 그러게 허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이러한 말을 들은 극형은 이튿날 손님들을 대접하여 보내고 나서 곰곰 생각하니 그 박씨라는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와 세교하는 친구이므로 난처한 입장이지만 어머니를 생각하고 친구네 집으로 가 사정하길 “여보게 내가 진히 청할 말이 있는데 자네의 도움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네 꼭 부탁좀 들어주게” 하며 청을 하자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청이라 심히 괴로우면서도 좋은 말로 거절하니 극형이 낙담하여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 이튿날 부터 친구네 집 마당에 거적을 깔고 상주하다 싶이 무언농성을 하던 중 광주현감이 조상차 찾아왔다가 상주의 행적을 묻고는 박씨네로 찾아가 사정을 알고 보니 심히 난처한 지라 극형에게 너무 과욕을 말고 달리 방도를 구해보게

하며 박씨에게 가서 극형의 청을 해보자 일언지하로 거절하니 현감도 할 수 없이 관아로 돌아가고 극형은 방긋쓰고 포망으로 얼굴을 가린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헌데 그 순간 박씨네 집이 원인모를 불로 순식간에 타 버리고 재만 남게 되었으니 박씨 생각에 이것은 천운이니 내친구를 위하여 하늘의 지시로 받아 들여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하인을 시켜 극형에게 장삿날을 택일하여 어머님 장례를 모시도록 하라고 이르니 하인이 달려가 본 즉 극형은 심히 낙심한 관계로 허탈한 발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인도 심히 불쌍하게 생각하며 집주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하자 극형이 지극히 고마워하며 어머님 장례를 모실 수 있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함양박씨 선조가 살던 극형의 친구네집 장독대 자리라 하는바 극형의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했다는 말이 있으며 장삿날에 극형의 집에 유숙했던 과객이 나타나 자기는 박상희라는 지관이라 소개하며 장사 절차를 돌보았다는 일설이 있으며 박상희는 당대의 유명한 지관이었다 한다. 그리고 묘자리는 금계포란 형으로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 하는 명당이라 한다.

1 - 7 주필행궁(駐蹕行宮)

효심이 지극했던 이조 정조대왕은 부왕(父王)이신 장헌세자의 능을 양주에서 화산으로 옮기고 배능행차(拜陵行次)를 자주 했었다.

그당시 한양(서울)에서 화산능까지는 우리의 리수로 140리였으며 이를 90리로 공인(公認)했다. 당시의 궁중 법도는 임금이 도성(都城)에서 백리밖을 벗어날수 없어서 억지로 90리라 부르게 한 것이다. 즉 한양에서 과천의 남태령까지 70리고 과천에서 수원이 70리였으나 정조대왕의 효성으로 90리라 부르게 된것이다. 그리하여 지금도 과천에서 수원은 20리라 부르게 된 것이다. 어쨌든 140리길을 멀다고 앓고 정조대왕은 늘 능행을 자주했는데

이때 생긴 말이 「모처럼 능참봉에 한달 거동이 29번」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임금님의 능행이 많았었다.

이때 능행시 잠시 쉬어 가시던 곳을 주필행궁이라 불렀으며 그 당시의 건물이 지금의 의왕읍 청사의 자리이다.

이곳은 서울과 화산능의 중간정도로 한양에서 능행차 출발한후 이곳에서 시간적으로 점심을 들게 되는 지점인 것이다.

일설에 이 주필행궁을 짓기 위해 남한산성에서 아릅드리 나무를 베었는데 그당시 굵기가 한아름이나 되는 구렁이가 나와 도로에 구렁이 자국을 내었다하며 지금도 오래된 버드나무가 읍청사 옆에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바 당시에 말을 메어놓았던 나무라는 말이 있다.

1 - 8 “능참봉 하자마자 거동이 스물아홉번”

옛 조선 정조대왕때의 이야기다.

효성이 지극했던 정조대왕은 한양에서 경기도 화산의 부친의 능을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이 배능행차를 하였으니 어쩌다 능참봉의 벼슬에 오른 사람이 힘들었음을 일컫는 말로 “어쩌다 능참봉 하자마자 거동이 29번”이란 말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돌아가신 부친에 대한 정조대왕의 효성이 지극하였음을 가히 짐작할만 하다.

이런 이유로 능참봉의 일이란 조그만 실수도 있어도 얹히고 오직 능지키고 관리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야 했던 것이다.

옛날 능행때 일기가 불순하여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이면 한양까지의 환궁이 어려워 날이 꺾때까지 중간에 쉬어 가는곳이 있었으니 이곳이 바로 지금의 의왕읍 사무소 자리에 있었던 주필행궁이다.

이곳에서 유숙하시던 날엔 정조대왕은 밤을 뜬눈으로 지새어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이때 비바람의 핑계로 능참봉이 직무를 소홀히 할까하여 같이 수행하던 대신을 시켜 확인하는 일이

자주 있었으니 능참봉하기도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어느날도 한강이 홍수로 범람하자 주필행궁에서 유숙케 되었는바 신하를 시켜 능참봉의 동태를 살피되 잠을 자고 있으면 그자리에서 목을 벨 것이요. 만약 잠을 안자고 누워 있으면 압송해 오라는 분부를 내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능참봉에게 객중이 말해주기를 “이달 그믐에는 아무리 천지가 개벽할듯 뇌성병력이 치고 비가 쏟아져도 굴건 제복을 갖추고 능에 엮드려 있어야 목숨이 부지되리라”하고 전해주어 그렇게 실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 신하가 와서 확인해보니 능에 엮드려 있는지라 대신은 대왕에게 그렇게 고하자 대왕은 매우 기뻐하시며 능참봉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 한다. 그후 정조대왕은 충직한 능참봉으로 인하여 배능행차의 횡수를 줄였다하며 왕이 신하에게 은혜를 베푼곳이라 하여 이고장을 사 은혜 또는 사그네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한 왕이 행차를 자주하여 머물던 곳이라 하여 현재의 왕곡리를 왕림(王臨)이라 부르기도 한다.

1 - 9 “웃우물” 마을

옛날 전주동(全州洞)에 두 이생원(李生員)이 서로 이웃하여 의종게 살았다고 한다.

주의의 산천 경계가 수려하고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 인심이 샘솟듯 하였으며 후덕한 정은 삼천리 금수강산 어디를 가도 한결같은 태평성대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생원은 벌써 오래전부터 어두운 그늘이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이름모를 피부병에¹ 걸려 앓아 누웠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름모를 병에 걸려 누워있으니 일도 손에 안잡히고 수
침에 싸인 얼굴로 이웃 친구들을 찾아 치료 방법을 묻고 상의하는게 제일
크고 중요한 일이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해에는 유난히 가뭄이 심하였던지 먹을 물조차 귀해
십여리나 떨어진 산골에서 겨우 한초롱씩 물을 떠다 식수로 사용하는 처
지였으나 이생원은 유명한 의사를 부르기도 하고 백방으로 약을 구해 치
료했으나 별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어느날 길가던 중이 이생원의 집에 들러 시주를 요구하였다.

그 중의 행색을 보니 못생긴데다 오랫동안 세수한번 안한듯 초라하고 더
럽기가 짝이 없었다.

그러나 본래 인심이 좋은 이생원은 먹을 물도 귀한때인데도 깨끗하게 씻
겨주고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니 그 길가던 중은 고맙다고 절한후 생원집
을 떠났다.

그런데 길가던 중은 이웃의 이생원집에 찾아가 말하길 이곳은 물이 귀
한 지형으로 물이 귀하여 피부병이 있으니 내가 이곳이 올때 지팡이를 꽂
아 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우물을 파면 물이 사시사철 넘칠 것이요. 그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병에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니라”하고 사라졌다.

생원은 친구의 덕이 높고 인정이 많아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 여기고
친구에게 알린후 행려승이 알려준 곳을 찾아 우물을 파니 물이 귀했던 마
음이었는데도 다섯자도 못파서 물이 쿵쿵 솟아 났다. 물맛 또한 좋고 그
중이 시킨대로 그 물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목욕시키니 거짓말 같
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 그로부터 우물에 대한 소문이 온동네에 자자하
게 되자 피부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효과를 보았으며 특히 옷
으로 인한 피부병은 잘 낫다하여 이 우물을 옷우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후 동네 이름조차 옷우물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현재의 의왕읍 오전 3

리 132번지 부근인바 십여년 전 까지만해도 이 우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흔적도 없어져 안타까울 뿐이다.

1 - 10 계란마을

이조 중엽 하정승(하연)의 묘를 안착시키기 위하여 풍수지리에 능하다는 수십명의 지관을 초청 명당자리를 찾게 했으나 몇달이 걸려도 찾지 못하던중 몇명의 지관이 신천6리 근처에 명당자리가 있다하여 그자리에 계란을 놓았는데 하루가 지난 다음날 이른 새벽에 병아리 울음소리가 들려 마을 주민들이 가보니 전날 계란을 놓았던 곳에서 병아리가 깨어나 이곳이 명당자리라고 일컬었으며 그후 현 소래읍 신천6리를 계란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다

1 - 11 금바위 마을(소래읍 은행리)

이조시대에 장마가 계속되던 때에 하루는 비는 그쳤으나 안개가 끼어 한치의 앞도 내다 볼수 없을때 별안간 온마을이 밝아지면서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아 알아본 즉 마을뒷산의 바위들이 금빛을 확산하고 있었다 그 후 이마을을 금바위라 하였다

1 - 12 마산봉(魔山峰)에 얹힌 이야기

— 힘자랑하다가 아들, 딸을 죽인 마귀할머니—

삼한시대 수암면 산현리의 높은 산봉우리에 마귀할머니가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 한다

그 슬하에는 장성한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마귀할머니를 닮아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산봉우리에 마귀할머니가 사는 동굴 앞에는 집체만한 바위가 버티고 있어 동굴출입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

어느날 마귀할머니는 아들과 딸을 시켜 그 바위를 굴러버리라고 했다.

그러나 원체 큰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센 장사라도 이 남매의 힘으로는 어쩔수가 없었다.

마귀할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아들, 딸을 호령호령 하며 쥐 잡듯이 몰아세웠다. 남매는 화난 마귀할머니가 무서워 온갖 사력을 다해 그 바위를 밀어 넘기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한달동안 바위와 씨름하는 남매에 대해서는 마귀할머니는 무관심 했다

그러던 어느날 조금씩 그 바위를 밀어 내던 남매는 마지막으로 죽을 힘을 다해 힘을 쓰자 바위는 우뢰같이 소리를 내며 밑으로 굴러 떨어졌고 그 남매는 기진맥진하여 그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심술궂은 마귀할머니도 작으마한 인정은 있는지라 그제서야 쓸어진 남매에게로 달려가 흔들어 깨웠지만 원래 지쳐버린 남매는 일어날줄 모르고 아주 영영 저 세상으로 깊이 잠이 들어 버리고 만것이다

마귀할머니의 절망은 말할수 없었고 마귀할머니는 그자리에 털석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고 내내울다가 지쳐 마귀할머니도 그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러하여 마귀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마산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동굴은 메워 졌다고 한다.

1 - 13 三千병마골 피흘고개

수암면 조남리에 위치하고 안양에서 서쪽으로 상거(相距) 약 20리인 곳으로 임진란시 방어군 총지휘관 신헌장군이 산하군 병마를 근처 골짜기에 잠복시키고 약 1키로 떨어진 왜군의 포진지를 공격할때 모책(謀策)으로서 노부인은 정탐하기 위하여 적진에 침입케하고 그 암호로서는 야간을 이용하여 취침여부를 살펴 다 자면은 “다자귀야” 하고 잠이 들지를 앓았다면 “더자귀야”로서 암호연락 총공격하여 왜병을 격침시켜 그 피흘음이 내를

이루었다하여 이고개를 피흘리 고개라 하고 따라서 이 골짜기를 三千兵馬 골 이라고 한다.

지금도 당시 전사한 아군의 무덤이 남아 있다.

1 - 14 군자봉(君子峰)에 얹힌 유래

—심술곶은 노인에 대한 이야기—

옛날 군각의 한마을에 사는 유(柳)씨가 집안을 이루어 14형제 모두가 조정에서 큰 벼슬을 할만큼 권세가 당당하였다 한다.

유씨 종가택에 한 심술곶은 노인이 살았는데 인심이 고약할 뿐 아니라 심술이 궂기로 동리뿐만 아니라 인근에까지 소문이 나 있었다.

하고한날 착한 동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을 못살게 굴었다.

하루는 이 심술곶은 노인이 집안에 있는 한 종에게 매질을 몹시 심하게 하여 매에 못이긴 종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이때 16살 먹은 종의 아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그 길로 길을 떠나 이곳 저곳을 거렁뱅이로 전전하다가 강원도 금강산 어느 절에 들어갔다.

절에 들어가 잔심부름을 하며 여러해를 지내니 매사 행동이 범상치 않은 지라 어느날 그 절의 스님이 종의 아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총각이 대답하되 지술(地術)을 배워 지관(地官)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후 어느날 스님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으니 길을 떠나 세상에 나가 지술을 활용하여 중인을 깨우치라 했다.

그길로 총각은 자기가 살던 옛집으로 찾아와 사랑채에 머물렀다. 십여년이 지난 후라 그 집에서는 아무도 그 총각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총각은 그 집안 식구 및 동리 사람들을 전부알아 볼수 있었다. 그중에는 옛날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인 그 심술곶은 노인도 있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사랑방에 앉아서 노인과 동리 노인들과 함께 이야기
저 얘기 오고 가다가 이 총각은 산소자리에 대한 얘기로 말머리를 돌려
앞산의 유씨 조상묘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 냈다.

유씨 조상묘가 그야말로 명당중에 명당인데 한가지 흠은 앞쪽에 “군자
봉” 산봉오리가 세자세치만 낮았더라도 유씨집안은 지금보다 더 부귀영화
를 누릴 수 있을 것을 참으로 아깝다고 혼자소리처럼 뇌까렸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씨 가문에선 권세와 세도가 하늘을 찌를 듯하니
군자봉 봉우리 3자 3치 낮추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노릇이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인근 백성을 동원하여 한나절 안에 봉우리를 3자
3치를 깎아내려 버렸다.

총각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산소밑에 있는 신도비(거북비)를 산소 쪽으
로 10자 끌어 올리고 산소옆에 있는 「벌바위」를 깨뜨려 버리되 내가 떠난
지 한나절 후에 시행하라고 이르고 그 다음날 일찍 총각은 길을 떠났다.
그후 총각이 일러준 대로 신도비(거북비)를 10자 위로 끌어 올리니 거북
이의 발이 위치한 곳에서 선혈이 쏟아졌다.

또한 벌바위를 깨뜨리니 왕벌 2마리가 바위틈에서 튀어나와 총각이 간
쪽을 향하여 날아갔다.

한편 총각은 그길로 김포 나루터로 가 용가마(무쇠솥)를 뒤집어 쓰니
왕벌 2마리가 날아와 총각이 뒤집어 쓴 가마솥을 빙글빙글 돌면서 무쇠
솥을 벌침으로 쏘기 시작했으나 한참만에 왕벌 2마리는 기진해서 죽어버
렸다 한다.

총각은 솥에서 나와 김포나루를 건너 어디로 사라져 버렸고 그 이후
유씨 집안은 권세가 차츰 기울기 시작했다 하며 지금도 군자봉은 당초
보다 약 3자 3치 정도 낮아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며 묘비에 있던 신도비도
산 아래에 떨어져 있다 한다.

1 - 15 흠뿌리 우물에 얹힌 이야기

—꿈에 신령이 나타나 동리를 구한 촌장—

약 400여년전 전주이씨가 군자면 장곡 1리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원래 부락명은 배모양으로 생겼다하여 “배형국”이라 하였다고 전해온다

그런데 이마을 안에 우물을 파고 식수로 쓰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고 또 도둑이 심해서 자연히 동네가 망해가곤 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고심하던중 어느날 이마을의 촌장꿈에 신령이 나타나

“배형국”이란 마을명을 해명해주며 “배안에다 우물을 파니까 배가 가라앉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하고는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촌장이 깜짝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촌장은 고심하던 중이라 하도 기이하고 신기해서 동네사람들과 의논한 끝에 마을내에 우물을 모두 메우고 동네를 벗어난 지역의 흠뿌리에 우물을 파서 식수로 쓰니 동네에 우환이 없어지고 도둑도 자취를 감추어 살기 좋은 동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1 - 16 현덕왕후의 능지 및 관우물

—군자면 목내리 산47번지—

군자면 목내리는 일명 궁안(宮內)라 부른다.

이곳 산 47번지에는 조선조 단종의 생모인 권씨의 능지가 있었다.

바로 현덕왕후의 능지이다.

이능은 세조때 파손되었는데 수년전 현재의 산주가능지에 묘를 쓸때 땅속에 파묻혀있던 돌 해태 한쌍을 파냈다하나 유실되어 없어졌다고 동리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1978년 8월 반월 신 공업도시 개발지구내 문화재 발굴 조사단이었던 단국대학교에서 이곳에 대한 부분적인 발굴 조사를 하여 이조시대 능묘호석(陵墓護石)의 전형적인 난간석주를 발견해 냈는데 이의 크기는 161×64×32cm의 크기였다.

한편 이곳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현덕왕후의 능묘가 현능(顯陵)으로 옮겨지고 이곳이 폐관될때 멀리 바다에 버려진 왕후의 관이 이 우물에 와 닿았다하여 이 우물을 관우물(棺井)이라 부르고 있다.

이 우물은 이 근동에서 가장 맑고 물이 풍부한 우물로 동리 전체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근년에 세멘트로 손질했고 바로 옆에는 수령이 160여년된 향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는 리의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한편 단국대학교 발굴단에 의하면 현덕왕후의 능지의 유적에 대해서는 과거 능묘의 유물이고 또 이곳의 동리 이름이 능내라 일컫게 된 연유등을 생각하여 묘역과 주변에 묻혀진 부재(部材)등을 수습 발굴하여 복원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며 관우물도 전설적인 이야기지만 현재의 원형대로 보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1-17 노루우물(일명 큰우물)

—노인이 깨우친 이야기—

시흥군 군자면 장곡 2리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전설에 의하면 옛날 큰 우물에 돌로 된 노루가 있었고(현재도 그들의 일부와 새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음)우물 근처에 크나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거지는 물론 스님이 시주를 청해도 시주는 커녕 목탁과 배낭마저 빼앗아 버리는 고약한 주민이 있었다.

마을에서는 물론이고 근동간에도 많은 옥을 먹고 나쁜 소문이 나있는데 하루는 아주 잘 아는 고명한 스님이 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었고 그 옥심장이 부자는 그 스님을 불러 어찌하면 우리집에 동냥어치나 구걸뱅이가 오지 않겠느냐고 물은 즉 스님이 말하기를 당신네 뜰앞에 있는 노루바위를 깨틀어 버리면 다시는 거렁뱅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가버렸다.

옥심장은 그 길로 큰 망치를 들고 가서 노루의 목을 쳐서 목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목에서 선혈이 계속 뻗어 올랐다고 한다.

그후 그 집은 점차로 망했고 피가 그치지 않아서 우물의 자리에다 절을 짓고 정성을 다한 결과 피가 멎었다 하며 지금도 그 부잣집터에서는 옛날 기왓장이 출토되고 있으며 옛 절터를 찾아 20여년전에 그 자리에 대안사란 절을 지어 현재 유지되고 있으며 그 절터에서 역시 옛절의 흔적이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그 노루의 일부라고 하는 축돌의 일부가 우물속 깊이 박혀 있으며 그 우물은 70년 이후 크게 복원하여 공동 빨래터와 10여정보의 농업용수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늘에 까지 어려운 사람이나 지지를 업신여기거나 괘시하면 노루우물 부자처럼 망한다는 얘기가 구전되고 있으며 절객을 대접하는 미풍이 전래되고 있다.

1-18 오이도(烏耳島)

—목마른 임금님이 섬에 물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는—

오이도는 시흥군의 유일한 섬이었다.

지금은 염전으로 연결되어 육지가 되었지만. ...

군자면 염전의 끝 오이도는 수인선 군자역에서 염전으로 이어진다.

까마귀의 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섬 모양이 까마귀 귀 같아서인지 어쨌든 오이도는 일명 옥귀도(玉貴島)라고도 부른다

옛날 제밀(濟物浦=仁川)에서 임금님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하다가 팔미도(八尾島) 앞바다에서 조난하여 이 섬에 표류했다고 한다.

임금님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더니 한 섬사람이 물을 떠 왔는데 그 그릇이 玉이라 임금님이 그것을 보고 귀가 번쩍 뜨였다고 해서 옥귀도(玉貴島)라고 이름 지어 졌다고 전한다

어느시대 임금님인지는 모를 이야기지만 이곳에서는 이렇게 전해진다.

1 - 19 갈현리(葛峴里) 찬우물 마을

—정삼품 품계를 받은 우물—

찬우물은 옛이름으로 가자(加資) 우물이라 일컬었다.

유래는 이조 역대 제왕중에서 극히 효성이 지극하신 22대 정조대왕의 선친 장헌세자(莊獻世子사도세자)를 영조대왕께서 나무상자(쌀뒤주)에 넣어 죽여 수원 화산 응능에 묘를 썼다.

정조대왕께서는 분주한 정사를 틈타 나홀로 한번 꼴로 수원 화산에 있는 선친묘를 찾아 참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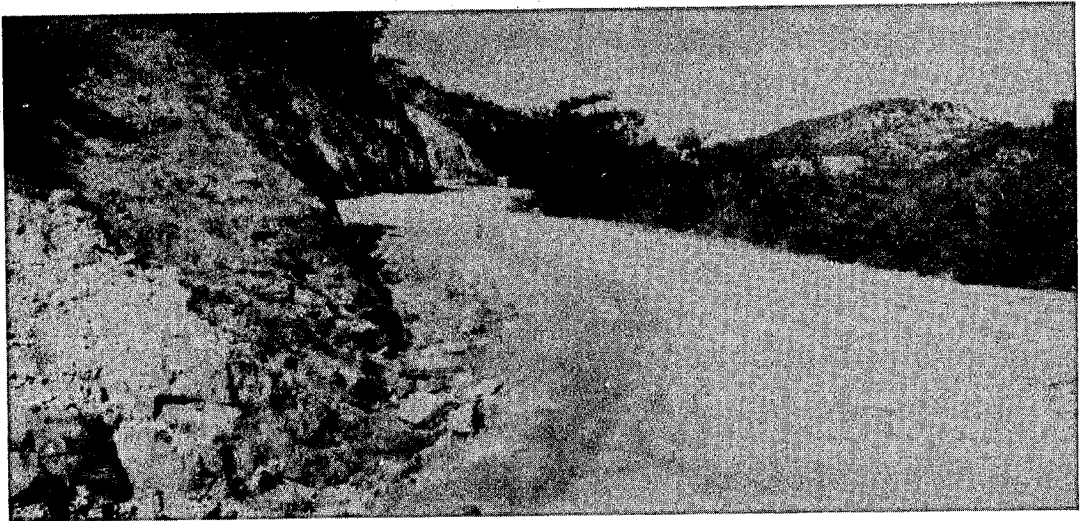
정조대왕께서는 항시 수원 화산능을 가시는 도리가 하나밖에 없는 지라 과천을 통과하게 되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 정조대왕이 수원 응능을 참배하러 과천을 통과하시다 이 마을에 이르자 갈증이 심하시어 신하가 우물에 가서 냉수를 떠서 정조대왕께 올리니 대왕께서 이 물을 잡수시고 참으로 차고 맛이 좋다하시며 찬사를 하셨다.

그후 이 마을 우물물은 차고 맛이 좋다하여 찬우물 마을이라 불려 내려오고 있다.

당시 대왕께서도 이 우물을 가자당상(加資堂上)을 제수(除授)(정삼품 이상으로 품계를 올려 임금님이 직접 관리하게 한곳) 하시며 이마을 이름을 찬우물이라 붙였다.

1-20 남태령(南泰嶺)고개



현 남태령 고개는 정조대왕이 선친이신 사도세자의 능에 능행하실 때 현 남태령 고개에서 어가(御駕)를 멈추시고 잠시 휴식하실 때 대왕이 이 고개의 이름을 묻자 과천현 이방이던 변씨가 임금님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남태령」입니다. 한바 측근에 있던 변이방을 시기하던 자가「이 고개이름이 옛부터 여우고개로 불리는 바 어찌 상감께 거짓으로 아뢰느냐」하고 변이방을 힐책하자 변이방이 다시 땅에 엎드려 이고개 이름이 원래 여우고개라고 여쭙기가 신하의 도리가 아님으로 임기응변으로 서울서 남쪽으로 첫 고개이기에 감히 남태령(南泰嶺)이라 작명하였나이다」하고 아뢰면 정조대왕께서 변이방을 칭찬하셨다. 한다.

그후로는 여우고개는 없어지고 남태령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대왕의 능행시마다 이속(吏屬)과 백성이 능행을 칭송키 위하여 무동담교 놀이를 만들어 칭송했다 한다.

1 - 21 문원리 (文原里) 새술막 마을

예로부터 아래 지방에서 한양을 가자면 지금의 수원을 지나 과천을 거쳐 한양(서울)으로 통하는 길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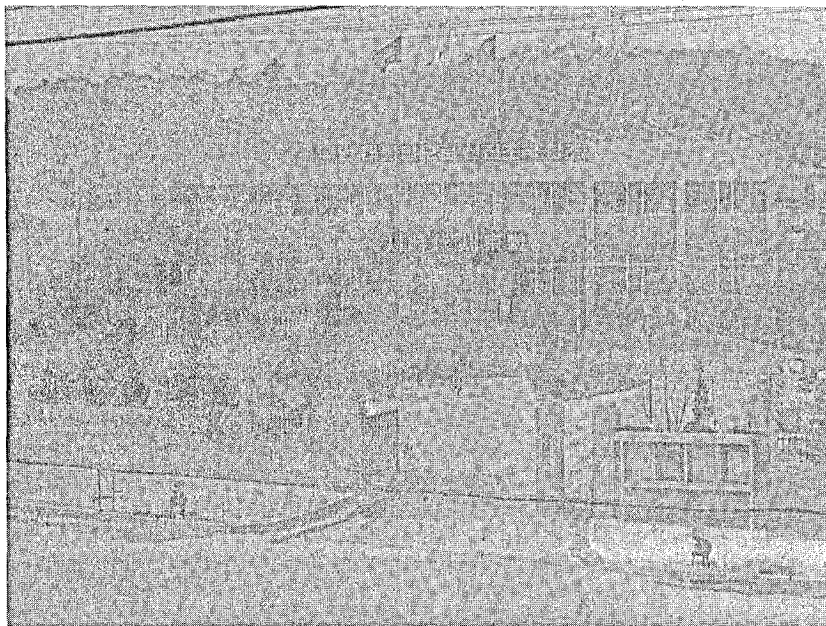
과거를 보러 올라오는 선비들 역시 이 도로를 통하여 한양(漢陽)에 이르렀으니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하는 사람, 실패의 쓰라린 아픔을 안고 낙향하는 사람도 과천을 경유하여야 되었기 때문에 과천은 한양의 관문이였다.

관가인 관문리를 내점이라 하고 새술막 쪽을 외점이라 하였다.

새술막은 내점(현 관문리)을 오기전에 들러 술을 찾는 사람이 많아 술집이 도로변에 많이 생기게 되어 새술막이라 불리웠다.

내점인 관문리에는 현 과천국민학교 위치에 통나무로 된 객사가 있어 한양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하룻밤 쉬어 한양을 찾았다고 한다.

2. 읍·면·마을 유래
2-1 군포읍



現·군포읍 사무소



旧·남면사무소

지 명		지 의 종 류	유 래
A	B		
군 포 읍 軍 浦 邑	읍	읍	본읍은 원래 과천군 이었는데 군합동으로 시흥군 남면으로 되었다가 읍으로 승격되었음.
금 정 리 衿 井 里	리	리	본리는 당초에 우물의 물이 잘 났으므로 물기는 사람들의 옷을 적신다고 하여 금정이라 함
평 금 정 坪 衿 井	별 금 정	부 락	본 동리의 위치가 별판에 자리잡고 있어 평금정이라 함.
도 기 촌 陶 器 村	그 룯 점	부 락	질그릇 만드는 동리라 도기촌 이라함.
금 정 衿 井	안 금 정	부 락	물이 많이 나서 옷자락을 적신다고 하여 금 정이라 함
제 궁 齋 官	재 강 골	부 락	신라시대 청풍 김씨에 제궁이 있었다.하여 제궁이라 함.
괴 곡 槐 谷	늣 퇴 울	부 락	본 동리에 괴목나무가 잘 된다고 하여 괴곡으로 부름.
당 리 堂 里		리	이 마을은 건설초에 당집을 지어 정성을 드렸고, 그 당집 아래에 있어서 당리로 되었음.
군 포 軍 浦		부 락	경부선 군포역에 있는 마을이라 군포로 부르게 되었음.
도 내 道 內	도 램 말	부 락	본동리 앞에 길이 있었는데, 그 길 안쪽에 있었으므로 도내로 되었음.

지 명		지 의 종 류	유 래
A	B		
용 호 龍 虎		부 락	200년전 동네 정씨의 사패지로서 청룡 백호가 환연 했으므로 용호라 함
당 정 리 堂 井 里		리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으므로 당정이라 함
봉 성 鳳 城	안 새 전 리	부 락	본 동리의 형체가 봉이 앉아 있는것 같다고 하여 봉성이라 함
평 봉 성 坪 鳳 城	벌 새 전 리	부 락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 평봉성이라 함.
당 정 (堂 井)		부 락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으므로 당정이라 부름
부 곡 리 富 谷 里		리	농토가 많고, 부자가 많이 있는 마을이라서 부곡이라 함
삼 성 三 性		부 락	주씨, 장씨, 곽씨 三姓이 동리를 건설하였다 하여 삼성이라 함.
구 선 말 九 仙 洞	시흥새오대	부 락	아홉 신선이 놀던터가 있었으므로 구선말이라 부름.
부 곡 富 谷	대 골	부 락	부자가 살았던 곳이라 부곡이라 함
산 본 리 山 本 里		리	본리는 산밑에 있는 관계로 산본리라함
도 장 동 道 藏 洞		부 락	본동리 앞에 있는 길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여 도장이라 부름

지 명		지 의 명 종 류	유 래
A	B		
궁 내 宮 内		부 락	이조 시대에 어느 공선의 궁이 있었다 하여 궁내라함
광 정 光 亭		부 락	이조 초에 어느 공신의 정자가 있었다 하여 광정이라함.
곡 란 谷 蘭		부 락	난초꽃이 많은 곳이여서 곡란이라 함.

2 - 2 의왕읍



現・의왕읍 사무소 1946年 建築

지 명		지 의 종 류	유 래
A	B		
의 왕 읍 儀 旺 邑		읍	1936년 10월10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일왕면 일부(5개리는 수원시로 편입) 및 의왕면 일원을 폐합하여 일왕면의"일"과 의왕면의 "왕"을 따서 일왕면이 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시행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의왕면으로 개명되었다가 읍으로 승격되었음.
고 천 리 古 川 里		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인하여 고물(古井)의"고"와 별사 근내의 "천"을 따서 고천리로 부르게 되었음
고 물 古 井	고 우 물 古 井	부 락	옛날 어느 현인이 이곳을 지나다가 목이 말라서 이마을에 유일하고,오랜 옛날부터 있던 우물에서 물을 마신후(A) 고물이라 부르다가 옛우물이라 하여 (B) 고우물이라 부르고 있음
안 골 內 谷	안 풀	부 락	옛날부터 골이 쭉 들어가 있어서 (A) 안골이라고 부르다가 어음의 변화로 (B) 안풀이라 부르게 됨.
고 고 리 古 古 里		부 락	옛날 어느 현인이 이곳을 지나다가 오래전의 아득한 옛날부터 있던 마을이라 하여 고고리라 부르게 됨
별사근천 坪 肆 觀 川	사 그 내 砂 川	부 락	약 159년전 정조대왕께서 화산능에 참배하시는 길에 넓게 보인다 하여(A) 별사근천이라 하고 별사근천 비석을 세우셨으며

지 명		지 의 명 종 류	유 래
A	B		
			근대에 와서는 모래내라 하여 (B) 사그내라 고 부르고 있음.
내 손 리 内 孫 里		리	1914년 능내동과 손동을 합하여 능내동 의 “내”자와 손동의 “손”자를 따서 내손 이라 한다.
능 내 陵 内	능 안	부 락	세종대왕의 제 4자인 임명 대군의 묘소가 이곳에 있고 그 자손이 대대로 거주함에 그덕을 추모하는 뜻에서 능내라 부르다가 발음변화로 (B) 능안이라한다
손 동 孫 洞	손 골	부 락	옛날부터 이곳에 이상한 죽이 많아서 “손 동”이라 부르게 되었음
갈 뢰 葛 山	갈 미	부 락	옛날에 쑤이 많다 하여 갈뢰라고 부르다가 발음변화로 지금은 갈미라고 부른다.
삼 리 三 里		리	이조시대부터 신씨가 많이 살았으며 이조 말엽 행정구역 변경으로 광주군에서 수원군 으로 편입됨에 따라 삼리라고 칭하게 된것임
상 장 의 上 莊 儀	장 안 말	부 락	이조시대 신씨조상 장령공이란 분이 살게 되어 “장”자를 따서 상장의 하장으로 부 르다가 어음변화로 지금은 (B)장안말이라고 부르고 있다.
철 도 관 사 鐵 道 官 舍		부 락	이조시대 신씨조상 장령공이 사실때 장의 동을 하장의 상장의라 칭하였으나 1944 년 철도관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하장의는 폐 동되고 철도 관사로 자연히 부르게 되었음.

지 명		지 의 종 류	유 래
A	B		
괴 동 槐 洞	괴 말	부 락	이조시대 진계군으로 있을때 창고가 있다 하여서 괴동으로 칭했으나 어음변화로 (B) 괴말이다 부르게 됨
오 전 리 五 全 里		리	1914년 군·면·동 폐합당시 오마동 전주동을 합하여 오전리라 칭하게 되었음.
등 곡 藤 谷	등 칩 골	부 락	본 부락에는 예전부터 등칩이 무성 하였던 관계로 등곡이라고 칭하다가 (B) 등칩골 이라고 부르고 있음.
전 주 동 全 州 洞	전 지 남 이	부 락	예전에 전지남(全地南)이라는 부자가 살아서 본을 따서 전주동이라 부르다가 (B) 지금은 전지남이라고 부르고 있음.
왕 곡 리 旺 谷 里		리	약 400년 전에 광주군 지역이었으며 북에 의곡면이 있고 왕륜면이 있었는데 40여년 전에 행정구역 폐합으로 광주군에서 수원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왕륜면의 “ ” 왕자와 의곡면의 “곡”자를 따서 왕곡이라 칭함.
곡 사 근 천 谷 肆 觀 川	곡 사 그 내 谷 砂 川 (C)꼴사그내	부 락	약157년전 정조대왕께서 참배 하시는 길에 꼴로 된곳에 계곡이 있다하여 곡사근천으로 부르다가 (B)또 곡사그내로도 부르다가 (C) 근래에 와서는 꼴사그내라고 부르고 있음.
통 산 通 山	통 미	부 락	동네 뒷산 봉우리가 둥글게 되었으며 동네 산줄기 밑에 있다고 하여 통산(A)이라 부르다가 근대에 와서는 통미(B)라고 부른다.

지 명		지 의 명 종 류	유 래
A	B		
이 리 二 里		리	고려말에는 어엽리(魚獵里)라고 칭하였으나 이조말엽 당시 행정 구역 변경으로 광주군에서 수원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리”라고 부르게 되었음.
창 촌 食 村	창 말	부 락	고려말에 증계골이 있을 당시 창이 있었다 하여 창촌(A)이라 부르다가 어음변화로 창말(B) 이라 부름
임 교 동 林 校 洞	교 동 校 洞	부 락	고려말에 증계골이 있을 당시 향교가 있다고 하여서 임교동(A)이라 부르다가 근대에 와서는 교동(B)이라고 부르고 있음
청 계 리 淸 溪 里		리	청계산으로 부터 맑은물이 흘러 동리를 흐르고 있다고 하여 청계리라고 부르고 있음
상 청 계 上 淸 溪		부 락	청계리의 웃동네라 하여 상청계라고 칭함
하 청 계 下 淸 溪		부 락	청계리의 아랫 동네에 위치하여 하청계라고 칭함
한 직 동 漢 直 洞	한 직 골	부 락	예전에 이곳에 서당이 있어 공부하던 서당 학생들이 한직동이라고 지었다 함.
독 정 이 獨 亭 里		부 락	옛날에 원이 있었던 정자라 하여 “독정”이라고 부른다 함
포 일 리 浦 一 里		리	행정 구역 폐합전에는 포일리와 포이리가 있었는데 1914년 행정 구역을 합한후 포일리로 되었음.

지 명		지 의 명 류	유 래
A	B		
신 기 新 基	새 터	부 락	약 150년전 새로 민가가 생기게 되어(A) 신기라고 부르다가 지금은(B) 새터라고 부르고 있음.
양 지 편 陽 地 便		부 락	약200년전 새로 민가가 생기어 향양 지지의 뜻으로 양지편이라 부르고 있음
포 모 루 浦 隅	별 모 루	부 락	약200년전 새로 민가가 생기게 되어(A) 포모루로 부르다가 별 모퉁이에 위치하므로(B)별모루라고 부르고 있음.
삼 거 리 三 巨 里	세 거 리	부 락	예전부터 과천과 안양으로 인편이 빈번하다고 해서(A) 삼거리라고 부르다가 근대에 와서는(B) 세거리로 부름
덕 장 동 德 莊 洞	덕 장 골	부 락	옛날부터 부락이 생기어(A) 덕장동으로 부르다가 시대의 어음변화로 지금은(B) 덕장골이라고 부르고 있음
학 의 리 鶴 儀 里		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당시 학현동과 의일리을 합병하여 학의리가 되었음.
의 일 외 동 義 逸 外 洞	의 일 義 逸	부 락	세종대왕의 제 4 왕자인 임명 대군이 객향 하신후 우거하신 현능내동을 의일 내동과 외동으로 나누었고 이곳에서 의를 수하였다 하여(B)의일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음
학 현 동 鶴 峴 洞	학 현 鶴 峴	부 락	속설에(俗說) 위치 학공영(謂知鶴穴映)이라고 함
월 암 리 月 岩 里		리	광주군 관하 월곡이었던바 서기1868년 수원군으로 가입됨과 동시에 월암리라 개칭해서 현재에 이룸

지 명		지 의 종 류	유 래
A	B		
대 촌 大 村	큰 말	부 락	부락터가 크다하여서(A) 대촌 (B) 큰말이라 칭하게 되었음
도 통 道 龍		부 락	이조 중엽에 이 지점 도로상에서 룡이 승 천하였다 해서 도룡이라 칭함.
불 정 佛 井		부 락	이 지점 산하에 불상이 유하였고 그 밑 정호가 있는 주위에 부락이 생기어 “불정” 이라 칭하게 되었음
초 평 리 草 坪 里		리	이조시대 광주군 관하 월곡면의 일부 이 었든바 수원군의 개편과 동시 초평리로 명 칭케 되었다.
상 초 평 上 草 坪	웃 새 우 대	부 락	부락이 상하로 구분되어 상 초평리 로 명 칭을 붙였음.
하 초 평 下 草 坪	아랫새우대	부 락	부락이 상하로 구분되어 하 초평리로 명 칭을 붙였음
신 촌 新 村		부 락	1942년 부터 신축가옥의 형성으로 명칭을 붙여 신촌이라 했음.

2 - 3 소래읍



現·소래읍 사무소 1948年 建築

지 명		지 의 종 류	유 래
A	B		
소 래 읍 蘇 萊 邑		읍	1914년 군폐합으로 인천부가 부천군이 되었고 동년 4월 1일에 면 폐합으로 신현면 전반면, 황등천면이 합하여 소래면으로 되었다가 1980년에 읍으로 승격 소래읍이 되었음.
금 이 리 錦 李 里		리	미 상
검 의 리 儉 義 里	거 멀	부 락	미 상
도 리 현 桃 李 峴	도 리 재	부 락	복숭아 나무와 오얏나무가 많았으므로 도리재라 칭함.
방 축 두 防 築 頭	방 축 머 리	부 락	방축 연변에 부락이 새로 생긴후 방축두라 칭함.
진 촌 陳 村	진 말	부 락	미 상
계 수 리 桂 壽 里		리	1930년 계일(桂一)의 “계”자와 수로동(壽老洞)의 “壽”자를 따서 계수리라 칭함.
구 미 리 九 美 里		부 락	미 상
건 지 정 乾 支 井		부 락	이 지방이 옛날에 너무 건(乾)하였으므로 건지정이라 칭함.
계 일 桂 一		부 락	미 상
내 동 內 洞	안 골	부 락	안골과 뒤골이 있는 관계로 내동이라 칭함

지 명		지 의 명 종 류	유 래
A	B		
덕 석 동 德 石 洞	덕 석 골	부 락	미 상
과 림 리 果 林 里		리	과목과 산림이 무성하였으므로 과림리라 칭함.
모 갈		부 락	옛날에 목과 동을 동리 사람들이 모갈이라 개칭.
부 라 위		부 락	옛날 이동리 산허리에 각암이라는 바위가 있어서 부라위라 칭함
중 림 동 重 林 洞		부 락	산림이 거함으로 해서 중림이라 칭함.
탄 평 동 炭 坪 洞	숫 두 르 지	부 락	미 상
대 야 리 大 也 里		리	소래산 밑에 있는 동리이며 면내에서 제일 큰 소래산 밑에 있다해서 대야리라 칭함.
방 아 다리	방 교 春 橋	부 락	옛날 이곳에 물방아가 있었다하여 방아다리라 칭함.
상 대 야 리 上大也里		부 락	소래산 북쪽에 있다하여 상대야리라 칭함.
하 대 야 리 下大也里		부 락	소래산 서쪽에 위치하여 하대야리라 칭함.
도 창 리 道 倉 里		리	도두머리의 “도”자와 강창의 “창”자를 선택해서 도창리라 칭함
강 창 동 江 倉 洞		부 락	옛날 바닷물이 이 마을까지 들어올때 배에

지 명		지 의 명 종 류	유 래
A	B		
			서 짐을 내려 이 동리의 창고에 쌓았다하여 강창이라 칭함
도 두 머 리		부 락	도로가 동리 위로 관통 하였으므로 도두머리라 칭함
점 말		부 락	옛날에 그릇을 굽는 점이 있었다 하여 점말이라 칭함
미 산 리 米 山 里		리	미곡 생산 지대라 하여 미산리라 칭함
구 국 鳩 谷	구 시 미	부 락	동리가 골짜기에 있다하여 “골자구니”라 칭함.
고 기 동 古 基 洞	예 터 골		옛날부터 집터가 많으므로 고기동이라 칭함
양 오 재	중 엄 中 庵	부 락	양과 오리치기에 적당하므로 양오재라 칭함
창 동 倉 洞		부 락	이조시대에 국가의 창고를 이자리에 두었다 하여 창동이라 칭함.
무 지 리 茂 芝 里		리	옛날 황등천면이 폐합됨에 따라 무지리라 칭함
능 내 동 陵 內 洞	능 안 말	부 락	옛날에 능이 있음을 근거로 능내동이라 칭함.
신 흥 동 新 興 洞		부 락	약80년전에 신동을 신흥동이라 칭함.
은 행 동 銀 杏 洞		부 락	이동리의 은행 나무를 표준하여 은행동이 라 함.

지 명		지 의 명 류	유 래
A	B		
매 화 리 梅 花 里		리	매채기를 표방하여 120년 전에 매화리라 칭함.
매 채 기		부 락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이라 하여 매채기라 칭함.
섬 말		부 락	옛날에 이 지대가 바다로 있을때에 섬이었으므로 섬말이라 칭함.
방 산 리 芳 山 里		리	1909년 방골과 산우물을 합하여 방산리라 칭함.
고 잔 동 古 棧 洞		부 락	바닷가에 있으므로 고잔이라 칭함.
마 루 미	종 산 宗 山	부 락	미 상
방 골		부 락	미 상
산 정 동 山 井 洞		부 락	옛날에 동리의 산에 정자나무가 있어서 山亭이라 불렀던 것을, 일본인이 이 동리에 찬 우물이 있다 하여 산정(山井)이라 개칭함.
신 천 리 新 川 里		리	이 동리에 있는 뱀내 하천의 '천(川)'자를 따고 신촌(新村)이라는 '新'字을 따서 신천리(新川里)라 칭함.
사 천 장 蛇 川 場	뱀 내 장 (C) 장 터	부 락	이 동리에 있는 하천이 뱀의 형체로 되어 있다 하여 뱀내장이라 함.
뱀 내 하 천		하 천	하천의 모양이 뱀의 모양과 흡사해서 뱀내하천이라 칭함.

지 명		지 의 명 종 류	유 래
A	B		
신 촌	새 말	부 락	이 동리가 뱀내장 이라는 동리가 있은후에 새로 생긴 동리라 해서 新村이라 칭함.
안 현 리 鞍峴里		리	안현리에 길마 같은 산이 있어서 그 고개를 중심으로 하여 안현리라 칭함
가 대 동 家垓洞	가 리 말	부 락	미 상
송 내 동 松内洞	길 마 채	부 락	구한국 시대 김정승 묘설치시에 그 주위에 산림이 거함으로 송내동이라 칭함.
장 낙 동 長樂洞	장 낙 골	부 락	지금부터 400년전에 놀이터가 있었으므로 장낙동이라 칭함.
양 지 동 陽支洞	양 지 편	부 락	햇빛이 아주 잘 쏘여서 따뜻했으므로 양지동이라 칭함
은 행 리 銀杏里		리	지금부터 50년전에 은행목을 표준하여 은행리라 칭함.
금 암 錦岩	금 바 위	부 락	이동리 후편에 있는 바위를 표준으로 하여 금암이라 칭함.
상 기 동 上基洞	우 터 골	부 락	이 지대가 옛날부터 좋은 집터가 있었다 하여 상기동이라 칭함.
은 행 정 銀杏亭		부 락	이 동리에 있는 은행목을 표준으로 하여 은행정이 라 칭함.
한 정 寒井	찬 우 물	부 락	동리에 있는 우물이 차다 해서 찬우물이라 칭함.
옥 길 리 玉吉里		리	이 동리에 옥과 같은 돌이 산에 있다 해서 옥길리라 칭함.

지 명		지 의 명 종 류	유 래
A	B		
두 길 동 斗 吉 洞		부 락	미 상
식 곡 食 谷	식 골	부 락	미 상
옥 연 동 玉 蓮 洞		부 락	미 상
함 박 동 咸 朴 洞		부 락	옛날에 이곳에 처음으로 함씨와 박씨가 살 았다 해서 함박이라 칭함.
포 리 浦 里		리	이동리가 해변에 있음을 표준하여 포리라 칭함.
결 둑		부 락	지금으로 부터 약40년전에 김기봉 이라는 사람이 이 둑에 집을 지었다 하여 결둑이 라 칭함
신 촌		부 락	지금부터 20년전에 이 동리가 일제히 새 로 생겼다 해서 신촌이라 칭함.
새 우 개		부 락	구한국 시대에 어업이 발전 하였다 해서 새우개라 칭함.

2 - 4 수암면



現 · 수암면 사무소



旧 · 수암면 사무소 1966年 建築

지 명		지 의 종 류	유 래
A	B		
수 암 면 秀 岩 面		면	지방의 산악에 주봉인 수암봉을 상징하여 수암면이라 정하였다.
고 잔 리 古 棧 里		리	동리가 해안에 접해 있어서 고잔리라 했음.
원 고 잔 元 古 棧		부 락	행정구역명이 고잔리에 속한 부락이다.
적 금 積 金		부 락	동리 입구 산등에 성황당이 있어 행인이 돌을 모아둔 돌속에서 금덩어리가 나왔다. 하여 적금이라 칭함
당 곡 堂 谷		부 락	약100년 전에 어떤 소녀가 당을지어 놓고 부모의 명복을 빌었다 하며 그후부터 부락 이름을 당곡이라 부름.
광 석 리 廣 石 里		리	동리 앞에 넓은 들판이 있어서 광석리라 하였다.
나 분 들 元 廣 石	원 광 석 元 廣 石	부 락	행정 구역명이 광석리에 속한 부락이다
둔 대 곡 屯 堡 谷		부 락	상 동
능 곡 리 陵 谷 里		리	이조 광해군 시대에 영상(領相)유부원군의 묘소가 이곳에 있어 능곡이라 칭함.
삼 거 리 三 巨 里		부 락	동리마을 앞에 인천과 서울로 통하는 구길 이 삼각형으로 놓여 있어 동리명을 삼거리라 하였음.
두 일 杜 日		부 락	이 마을이 산골짜기에 있었기에 임진왜란 때 아군이 진을치고 동리앞을 행군하는 일 군을 쳐서 막았다 하여 두일이라고 부름

지 명		지 의 종 류	유 래
A	B		
논 곡 리 論 谷 里		리	이조 중엽에 대신이 이 마을에 살았다 하며 때때로 중신들이 이 마을에 모여 국사를 의논하였다 해서 논곡이라 칭함.
논 論 곡 谷		부 락	행정구역명이 논곡리에 속한 부락이다.
물 왕 리 物 旺 里		리	옛날 이고장은 특히 수목이 울창 하였다하며 만물이 왕성하다는 의미에서 물왕리 라고 칭함.
물 왕 골		부 락	행정구역명이 물왕리에 속한 부락이다.
월 미 月 尾		부 락	마을 뒷산이 반달같이 되었고, 산세에 따라 마을이 형성 되었으므로 월미라 칭함
목 감 리 牧 甘 里		리	옛날 이 지방에 목암사라는 절이 있어서 지명을 목감리라 칭함
목 암 모 감		부 락	행정구역명이 목감리에 속한 부락이다.
울 포 栗 浦		부 락	옛날부터 울목이 많고, 밤이 많이 생산되는 마을이라 하여 울포라 한다.
부 곡 리 釜 谷 里		리	이 지방 지형이 복부형 즉 가마솥을 뒤집어 놓은 형이라 하여 부곡리라 칭함
원 부 곡 元 釜 谷	가 며 울	부 락	행정구역이 부곡리의 일부 부락임.
별 터		부 락	약 50년전에 별판에 민가가 새로생겨 별터라 칭함
신 촌 新 村		부 락	행정구역명이 부곡리의 일부 부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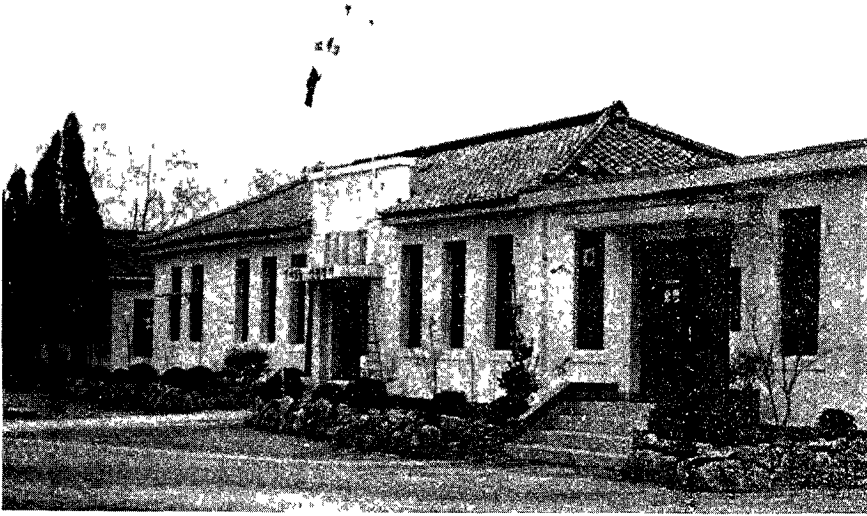
지 명		지 의 명 종 류	유 래
A	B		
수 암 리 秀 岩 里		리	마을 뒷산 봉우리가 돌로 되어 있어 이산을 수암봉이라 하였는데 산밑에 동리가 형성되어 산명을 따라 수암리라 하였다.
안 산 安 山		부 락	한일 합방을 전후하여 안산군청이 이 부락에 있었는데, 군청 소재지라 하여 안산이라 칭하였다.
산 현 리 山 峴 里		리	글자 그대로 동리 부근에 큰산고개가 있다하여 산현리라고 정하였다
원 산 현 元 山 峴	묘 재	부 락	행정구역이 산현리에 속한부락이다.
생 곡 生 谷		부 락	상 동
성 포 리 聲 浦 里		리	이 지방은 옛날부터 포구로서 선박이 왕래하고 사공의 뱃노래가 그치지 않는다 하여 성포리라 하였다.
성 머 리 城 頭 里	성 두 리 城 頭 里	부 락	이 부락은 포구였든바 지금은 염전이 생겨 포구가 없어졌음.
점 성 占 星		부 락	행정구역이 성포리에 속한다.
양 상 리 楊 上 里		리	이 지방 산 형세가 앵서유지임 즉뽕꼬리가 버드나무에 깃을 드리웠다 하여 양상리라 하였다
상 양 대 上 楊 垓		부 락	행정구역이 양상리에 속한 부락이다
하 양 대 下 楊 垓		부 락	상 동

지 명		지 명 의 종 류	유 래
A	B		
월 피 리 月 陂 里		리	동리북판에 언덕이 있어 매년 구정 15일에 달맞이를 하며 당년 흉풍을 판단 하였다 하며 이언덕을 중심으로 하여 월피리라 칭함
달 이 리		부 락	행정구역이 월피리에 속한 부락이다.
부 로 지 富 老 志		부 락	행정구역이 월피리의 일부 부락이다.
와 리 互 里		리	1913년 행정구역 폐합 당시 와리라고 제정함
동 작 銅 雀		부 락	행정구역이 와리의 일부 부락임
신 촌 新 村		부 락	최근에 민가가 새로 생겨 신촌이라 함
전 촌 前 村	압 술	부 락	행정구역이 와리의 일부 부락임.
왜 두 들 기		부 락	상 동
장 상 리 獐 上 里		리	이 지방에 산 형세가 노루형이라 하여 노루장(獐)자의“장”자를 따서 장상이라 함
동 마 골 東 谷		부 락	수암봉 동쪽 골짜기에 마을이 있어 이지방 주민들은 동곡 또는 동마골이라 함.
장 곡 獐 谷	노 리 울	부 락	부락의 뒷산 모양이 노루형이라 하여 장곡 또는 노리울이라 한다
장 하 리 獐 下 里		리	이지방 산세가 노루형이라 하여 노루장(獐)자의 “장”자를 따서 장하리라 하였다
벌 말 坪 村		부 락	약100년전에 벌에 민가가 생기게 되어 벌말이라 부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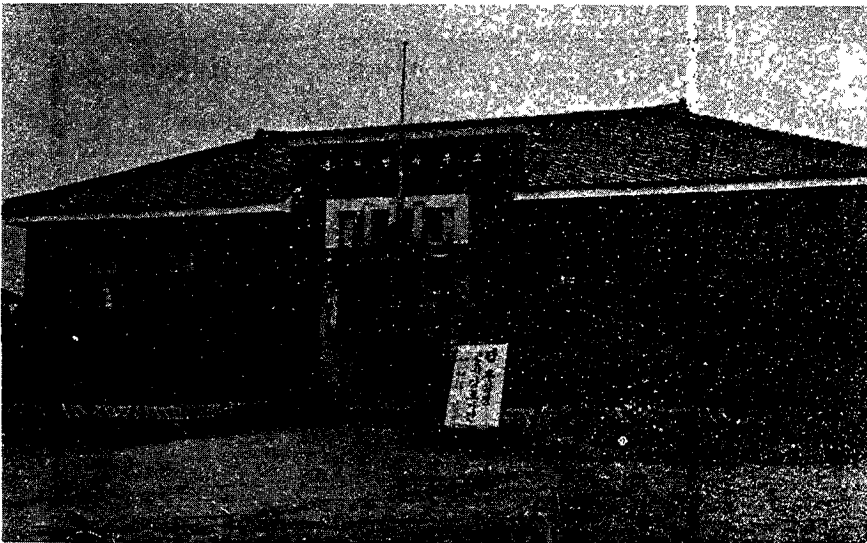
지 명		지 의 명 종 류	유 래
A	B		
원 뒤 院 后		부 락	행정구역이 장하리의 일부이다
조 남 리 鳥 南 里		리	산형새가(비조투루)형 즉 나르는 새가 수 풀로 뛰어든다는 모습이라 하여 새조(鳥) 을 따서 조남리라 하였다
장 군 곡 張 君 谷	장 군 재	부 락	이조 효종대왕이 국구인 장부원군의 묘소 가 이곳에 있어 부락이름을 장군곡 또는 장군재라 부르고 있음.
남 왕 南 旺		부 락	행정 구역이 조남리의 부락이다.
원 조 남 元 鳥 南	새 미	부 락	행정 구역명을 조남리를 본따서 원조남 또 는 새미라고 부르고 있다.
소 능 메 小 陵 山		부 락	적은 능을 중심으로 하여 부락이 생겨 소 능메라고 한다.
방 화 訪 花		부 락	부락 지형이 나비가 꽃을 찾는 형국이라 하여 방화 또는 방화고개라 칭하게 되었 다.
을 미 乙 尾		부 락	부락 뒷산 모양이 새가 꼬리를 감춘것과 같다하여 을미라고 한다
화 정 리 化 井 里		리	동리안에 큰 우물이 있는데 옛날에 이 우 물에 꽃이 피었다 하여 화정리라 하였다
고 주 멀 元 花 井		부 락	행정구역명이 화정리를 본따서 원화정 또 는 고주멀이라 한다
너 비 울 廣 谷		부 락	부락이 넓은 골짜기에 있다하여 광곡 또 는 너비울이라 부르고 있음

지 명		지 의 명 종 류	유 래
A	B		
태 봉 胎 峰		부 락	옛날 이곳에 태자의 태를 산에 묻었기 때문에 태봉이라 부르고 있음.
가 래 울 楸 谷		부 락	행정구역이 화정리의 일부 부락임
하 중 리 下 中 里		리	1913년 행정구역 폐합당시 하중리라고 정하였다.
관 곡 官 谷		부 락	옛날에 관전이 많이 있던곳이라 하여 관곡이라고 함.
새 터 新 基		부 락	약50년전에 새로 민가가 생겨 새터로 부르고 있다.
센 말 間 村		부 락	부락과 부락 사이에 마을이 있다하여 간촌 또는 셋말이라 한다.
하 상 리 下 上 里		리	1910년 행정구역 폐합 당시 하상리라고 제정하였다.
상 직 上 職		부 락	행정구역이 하상리의 일부부락이다
하 지 골 荷 池		부 락	상 동
고 잔 역 전 古 棧 驛 前		부 락	간척지 공사 관계로 난민들이 대거 입주하여 부락이 발달 하였는데 지명을 따서 고잔역전이라 부르게 되었음

2 - 5 군자면



現・군자면 사무소



旧・군자면 사무소 1951年 建築

지	명	지	명	유	래
A	B	종	의		
군 자 면 君 子 面		면	류	1914년 3 월 군구분합시 안산군의 반부인과 리, 대월, 마유에 삼개면을 합하여 군자 면이 된것이며 면명인 군자는 면내 수봉 인 군자봉에서 군자를 딴 것임.	
거 모 리 去 毛 里		리		원래는 검호라 칭하였다 하며 거모리로 개 칭하게 된것은 일제초부터 라는데 지형 상 터력과 같이가늘고 길다하여 거모리라 개 칭한 것임.	
석 곡 石 谷	도 일	부	락	옛날에 이곳을 돌곶이라 칭하였으며(혹칭 도일)석곡은 돌곡을 한자로 칭하는 것으로 지금에 와서는 누구나 석곡으로 부르고 있 다.	
내 곡 內 谷		부	락	약 30년전에 생긴 부락인데 석곡부락의 안 마을이라는 데서 내곡이라 칭하게 된것임.	
주 정 舟 井	뱀 물	부	락	예전에 바다의 조수가 이곳까지 들어왔으 며 선인들의 음료수를 이곳의 우물에서 길 러다 먹었다 하여 주정이라 한것임	
금 호 錦 湖		부	락	이곳 뒷산이 옥녀봉으로서 이 옥녀가 찢 직조비단을 이곳의 우물에서 행군다 하여 금호라 부름	
사 미 糸 美		부	락	옥녀가 직조하는 실꾸리에 위치한다 하여 비단실을 상상하고 사미라 부르고 있음	

지 명		지 의 명 류	유 래
A	B		
군 자 리 君 子 里		리	군자리 중심지에 면내 제일 높은 군자봉이 있어 이 산명을 따서 군자리라 칭한것임.
아 래 말		부 락	구지정 동리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구지정에 비하여 아래말이라 칭한 것임.
구 지 정 九 芝 井	구 지 물	부 락	떠바위에 우물이 아홉개 있는곳이라 하여 구지정이라 한것임.
양 지 편 陽 地 便		부 락	이곳은 산간지로써 양지쪽에 위치한다 하여 양지편으로 부르게 되었음.
산 북 山 北		부 락	산은 군자봉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이 군자봉 북편에 위치한다 하여 산북이라 칭함.
셋 터 말		부 락	약30년전에 생긴 부락으로서 당시 새로생긴 부락이라는 뜻으로 셋터말이라 부르는 것이 지금에 와서도 역시 셋터말이라고 부르고 있음.
목 내 리 木 內 里		리	목내리는 이리내에 이목과 능내 두 부락이 있어 이목에 '목'과 능내에 '내'를 따서 지명을 목내라 한다.
능 내 陵 內		부 락	이마을 옆산에 단종왕의 어머니 능이 있었다하여 능안말이라는 뜻에서 능내라 부름.
이 목 梨 木	배 나 물	부 락	이곳은 배나물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 배나물이 옳다고 보는 것은 이지점이 배를 내는 곳이라는 뜻이기 때문임. 그러나 이 뜻은 사라지고 배(船)가 배(梨)로 변하여

지 명		지 의 명 종 류	유 래
A	B		
			나물이 나무(木)로 변하여 이목이 된것임
선 부 리 仙 府 里		리	이곳은 면내 제일가는 산악지로써 그 산 새가 화려하다 함과 동시에 실로 선경을 이루었다 하여 선부리라 칭한것임
관 산 冠 山	갓 모 산	부 락	이곳 뒷산의 모형이 갓모같다하여 갓모산 이라 칭하고 관산은 한자 발음으로 고친 것임
샛 터		부 락	약15년전에 생긴 부락으로 새로 생겼다 하 여 샛터라 부른것임.
정 지 촌 正 芝 村	정 지 마 굴	부 락	예전에 행군하는 기마병이 쉬여갔다는 뜻 으로 일명 정지마 (停芝馬)굴(谷)이라고 도 부르는데 어떤 이유인지 지금은 모두 들 정지촌이라고 부르고 있는바 이는 전 지를 한자음으로 하고 굴을 촌(村)으로 한 것같음.
석 수 굴		부 락	이곳은 돌이 많은곳으로 석(石)수(數) 굴 (谷)이라 칭한것임.
달 미 達 美		부 락	달산은 원래 달(月)뢰(山)로서 이곳地形이 月形이요 그곳에 산소(墓)가 있다고 하여 달산이라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달산이 달미로 불리우고 있으며 달산이라면 누구 나 아는이 없음.
우 산 이 隅 山 伊		부 락	산 구석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우산이(隅 山伊)라 칭한것임

지 명		지 의 명 류	유 래
A	B		
대 재 이 大 壯		부 락	대재이는 그 지형이 대장형이라 하여 대장리라 불리었다 하나 언어의 변화인지 지금은 대장리라 하는이없고 모두 대장으로 부르고 있음.
성 곡 리 城 谷 里		리	이곳은 본면 남부 해안을 둘러싼 곳으로 내륙은 평야이고 해변으로 산맥이 돌아가 전부 성을쌓은형용이라 하여 성곡리라 칭하게 된것임.
무 들 茂 坪		부 락	이곳은 초목이 울창하고 산수가 좋은곳으로 무성한 들이라 하여 무평이라 부름
별 말		부 락	성곡리 중앙지점 별판 가운데 있는 마을이라 별말이라 부르게 된것임
안 말		부 락	별말에 비하여 산말에 위치하고 있어 안동내라는 뜻에서 안말이라 부르게 된것임
돌 안 말		부 락	안말에서 볼때에 이곳이 옆으로 돌아가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속칭 돌안말이라 한것임.
골 안 말		부 락	이곳은 산과 산사이에 굴속같이 들어가 있으므로 굴을 산골이라 하여 골안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골안말이라 함.
장 가 물 祭 堂		부 락	이곳은 수원(水源)이 없어 매양 농작에 걱정을 하는 곳으로 언제나 (장)가문다 하여(阜拔)장가물이라 부르게 된것임.
신 길 리 新 吉 里		리	이리내에 잔얼부락중 신각과 능길이 있는데 신각의 “신”과 능길의 “길”를 따서 신

지 명		지 의 종 류	유 래
A	B		
			길이라 부르게 됨
새 新	뿔 角	부 락	이 동리는 지형이 우형각(牛形角) 이라는 뜻에서 각을 쓴것이고 이새(新)는 오래된 뿔보다는 새뿔이 장래성이 있다하여 새뿔이라 함.
선 船	곡 谷	부 락	예전에 배가 이곳까지 들어왔다 해서 배골이라 한것임. 그러나 그후 발음상 뱅골이 되었으며 선곡은 한자 속칭임.
능 陵	길 吉	부 락	풍설에 의하면 이곳에 고래능이 있었고 이 능이 언제인지 퇴하게 되자 그후 이 마을이 생기는 동시에 그 주민이 매우 평화롭게 살았다하여 능길이라 속칭한 것임.
성 안 이 成 內		부 락	이곳 뒷산마루가 흡사 성안 같으며 이산마루에 인도가 있는 것으로 성아닌 성이라 그 안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속칭 성내라 함
풍 豐	전 田	부 락	이곳은 토질이 비옥하여 매년 풍작을 보는 고로 풍작의 발이라 하여 풍전이라 부른 것임
별 데 이 別 堂		부 락	이곳은 풍전마을 뒤에 위치하여 마치 한집의 별당같다 하여 속칭 별당이 된것이고 별데이는 언어변화로 된것임.
원 곡 리 元 谷 里		리	원곡리는 옛날에 원상이라고도 부른일이 있어 그 원(元)자와 목곡에 곡(谷)을 따서 원곡이라 칭함.

지 명		지 의 종 류	유 래
A	B		
양 곡 陽 谷	양 지 말	부 락	이마을 위치가 태양에 면하고 있다하여 양지말이라 부르며 양곡은 한자 발음인
모 곡 茅 谷	띠 골	부 락	이곳에 띠(茅)가 무성하여 띠마을이란 뜻에서 띠골이라 하며 茅곡은 한자 발음임. 그리고 원곡리내에 한부락이므로 “리”는 삭제 하여야 타당한 것임
신 흥 촌 新 興 村		부 락	1937년중에 신생한 마을로써 신생촌이라는 뜻에서 신흥촌이라 한것임.
신 촌 新 村		부 락	1952년 피난민촌에서 신생한 마을이므로 신촌이라 한것임.
원 시 리 元 時 里		리	이곳을 예전에 원하라고 부른일이 있어 그 원(元)과 시우에 시(時)를 따서 원시리라 한것임.
풍 곡 楓 谷	옷 나무 골	부 락	이곳에 옷나무가 많아서 옷나무골이라 불렀는데 이 옷나무는 지금에 와서 한나무도 없으므로 옷나무보다 단풍나무가 많으니 풍곡이라 함이 좋을것이라 하여 약30년 이래로 풍곡으로 부르고 있음
시 우 時 雨		부 락	시우는 산곡에 위치하여 농작하는데 수분이 매우 좋은 지대임. 이곳은 언제나 물이 장마진것처럼 흐르고 있으므로 그 풍부한 수량에 비하여 시 우라 속칭한 것임
범 직 凡 直		부 락	옛날 이곳에 범이 자주 나타나 범직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에 와서 범(凡)직이라고 함은 세월의 흐름과 같이 언어의 변화로

지 명		지 의 명 종 류	유 래
A	B		
			무릇범자 범직으로 된것임
월 곳 리 月 串 里		리	월곳리는 그 지형이 반달 같으며 더욱 그 중간을 길게 넷물이 흐르고 있으므로 이 지형을 형용하여 월곳리라 칭함.
마 전 麻 田	삼 받 이	부 락	예전에 이곳에 삼을 많이 경작하였다 하여 삼받이라고 불렀으며 마전은 한자음임.
통 심 이		부 락	이곳은 예전에 통심이란 사람이 혼자 살 았는데 그후 동내 간안 고지명이 통심이가 되었음
별 감		부 락	이곳은 마전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 인데 원래는 한 부락으로 부르던 것이 차 차 가구가 늘어나자 마전과는 아주 따로 지명을 부르게 되어 다른 마을이라는 뜻 에서 별감이라 속칭한 것임
월 동 月 東		부 락	월곳리 동편에 있다하여 월동이라 칭한 것 이며 이는 부락명이지 행정구역명이 아님
별 말		부 락	들 가운데 있는 마을이라 해서 별말이라 칭한 것임.
상 곡 祥 谷		부 락	이곳은 예전에 큰 상돌이 있었다하여 상돌 골이라는 뜻에서 상곡이라 부름.
궁 꿀		부 락	이곳 지형이 궁(弓)형으로 골목고개에 이 르렀으므로 지형을 형용하여 궁꿀이라 속 칭한 것임.
응 고 개			예전에 어느 사람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지 명		지 의 명 종 류	유 래
A	B		
		부 락	얻어먹고 다니다가 그 아들이 병이 들었음 인지 이 고개에서 죽자 그 아비는 수일을 먹지않고 엉엉울고만 있다가 결국 그자리 에서 죽었음, 그래서 이 고개를 응고개라함.
우 목 꿀		부 락	장곡과 고잔간에 빈번이 왕래하는 길에서 우묵히 옆으로 마을이 들어 앉았다하여 우 목꿀이라 칭함.
고 잔 古 棧		부 락	예전 인천 왕래시 이곳에서 배를 타고 떠 났다하여 속칭 고잔이라 칭하게 된것임.
구 능 뿌 리		부 락	이마을 앞산에 예전에 구능(口陵)이 있었 다하여 구능이라 하고 뿌리는 모퉁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구능이 있는 산 모퉁이 즉 구능뿌리가 된것임.
조 구 나 리		부 락	예전에 이곳에 조씨라는 나리(칭호)가 살 고있어 이곳을 조나라라고 불렀다하며 이 일이 옛일이라 “조”자 다음에 “구”자 를 넣어 조구나라라 한것임.
이 호 정 二 戶 井		부 락	최근 신생부락으로 집두채 우물 한개가 있 는 곳이라 하여 이호정이 된것임.
섬 산		부 락	독립된 산(예전에 섬이라 함)에 마을이라 하여 섬산이라 칭함.
장 곡 리 長 谷 里		리	영흥이라는 영(永)을 장(長)으로 응곡이라 는 곡(谷)을 따서 장곡리라 한것임.
응 곡 鷹 谷	매 꿀	부 락	응곡은 그 앞산이 매와같은 형상이라 해 서 매꿀 또는 한자음으로 응곡이라 칭함

지	명	지	명	유	래
A	B	종	류		
안 内	꿀 谷		부 락	이곳은 응곡 마을에 비하여 안동내라는 뜻에서 안꿀이라 칭함.	
신 新	촌 村		부 락	소래 염전 개설당시 이 공사장의 노무원들이 새로 동리를 만든 마을 인바,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속칭 신촌 이라 한것임.	
영 永	흥 興		부 락	동내 위치가 응곡 마을앞에 높이 솟은 (마루태기)곳에 길게 자리잡고 있어 이를 긴 마루라 부르며 영흥에 “흥”은 마루라기 보다 영구적으로 융흥 한다는 뜻에서 마루(宗)을 빼고 흥(興)을 넣어 영흥이라 칭함.	
섬 島	말 村		부 락	예전에 이곳까지 조수가 들어와 이마을은 완전한 섬이었다 하며 이섬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섬말이라 칭함.	
장 長	현 峴	리 里		장현리 내에 있는 자연부락인 조현이나 두일이나 이 부락을 가려면 어느곳이고 긴 재(峴)을 넘게 됨. 그래서 긴재라는 뜻으로 장현리라 함.	
새 鳥	재 峴		부 락	이곳은 고개 넘어 있는 마을로 옛부터 참새가 많이 모인곳으로 속칭 조현 또는 새재라 부름.	
두 杜	일 日		부 락	이 마을은 같은 두일이면서 두군데로 나누어진 부락인데 앞뒤산이 높이 솟아 있는고로 해뜨자 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산이 태	

지 명		지 의 명 류	유 래
A	B		
			양을 막는다는 뜻에서 두일이라 칭함.
정 왕 리 正 往 里		리	예전에 이곳은 봉화산 관계로 나라에서 지극히 중요시한 것이며 여기 왕래하는 사람이 모두 공직자로서 아마 그사람을 정인(正人)이라 하고 왕래함을 가르켜 정왕리라 칭함.
사 랑 沙 浪		부 락	예전에 조수가 이곳까지 들어와 이마을 산 밑은 흰 세사(細砂)로 덮이였다하여 사랑이라 부른것이며 사랑은 사얼부락 이므로 리(里)는 삭제되어야 함.
삼 안 三 安		부 락	예전에 삼형제가 그부모를 가난한 살림에도 극진이 효를 드린바 그부모 구물 이후 이 삼형제는 전에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어 편안히 살았다 하여 이곳을 삼안이라 칭하게 된것임.
함 줄 咸 絃		부 락	이곳은 배닷줄 놓는 곳, 즉 쉬는곳으로 함(咸)줄은함(艦)줄이 맞는 것이나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함(咸)줄로 변한것임.
요 오 굴 腰 腰 窟		부 락	이곳은 함줄부락에서 요하니 들어다 보이는곳에 있다하여 요오굴이라 칭함.
뒤 방 울 後 房 谷		부 락	뒤방울은 사랑부락 뒤산넘어 위치하였으므로 사랑에서 볼때에 뒤산 골짜기라는 뜻 으서 뒤방울이라 칭함.
봉 현 烽 峴	봉 화 재	부 락	이곳의 뒤산이 봉화산이므로 봉화를 연상 하여 봉화재라 하는 것이며 봉현은 한자 발음임.
높 은 어 물 高 井		부 락	고정은 이곳 우물이 높이 있었다 하여 높은 어물 또는 고정이라 함.

지 명		지 의 종 류	유 래
A	B		
배 나 루 船 津		부 락	예전에 이곳에 배(船)가 들어왔다하여 배 나루 또는 선진이라 부르게 된것임
아래평안촌 下平安村		부 락	아래 평안촌과 평안촌은 다같이 平安道 사람들이 군자염전 개설당시 노무자로 들어와서 이 해변에 새로 마을을 일으킨 것이므로 속칭 평안촌이라 함.
염 부 사 鹽 夫 舍		부 락	군자염전 종업원인 염부들이 사는 곳으로 염부사라 함.
굴 독 촌		부 락	이곳은 왜정말에 니가리 공장이란 공장을 새우다가만 굴뚝이 있는데 전편 전란시 피난민들이 이 굴뚝을 주택으로 이용하였다 하여 굴뚝촌이 된것임.
옥 구 도 玉 鉤 島		부 락	이 섬에서 전에 수정을 탄 필경玉은 이 수정을 말하는 것이며 鉤는 이곳에서만 낚시질을 하는고로 鉤을 넣은것 같음. 이래서 섬명이 옥구도요. 부락명도 역시 옥구도가 된것임.
오 이 도 烏 耳 島		부 락	오이도는 까마귀가 많이 모이는 곳으로 오이도라 한것임
살 막		부 락	이곳에서 매는 살주인(어업)이 사는 곳이라 하여 살막이라 부르고 있음.
고 줄 리		부 락	배닷줄을 높이 놓는곳 즉 정박하는 곳이라 하여 고줄이라고 부르나 지금은 정박하지 않음.

지 명		지 의 명 종 류	유 래
A	B		
죽 물 리 竹 栗 里		리	죽물리는 예전에 대암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데서 대(竹)를 따고 이곳은 왜일인지 밤(栗) 나무가 되지 않는다해서 물(栗)을 넣어 죽물리라 한것임.
정 촌 正 村		부 락	이곳 사람은 누구나 성질이 온순하고 정직한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므로 정직 정당한 곳이라 하여 정촌이라 함.
새 말		부 락	이 마을은 약30년전에 생긴 부락이건만 새로 생긴 부락이라는 뜻에서 여지껏 새말이라고 부르고 있음.
대 답 大 畓	한 배 미	부 락	이곳은 한배미 즉 큰논 한배미라는 뜻에서 한배미 또는 대답이라고 칭하는 곳임.
대 촌 大 村	큰 말	부 락	죽물리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부락이고 지금까지도 제일큰 마을이라 하여 큰말 또는 대촌이라 부름.
초 지 리 草 芝 里		리	이동 리는 산야지로 풀이 무성한 곳이라는 뜻에서 초지리라 한것임.
원 당 元 堂	둔 배 미	부 락	이곳은 예전 포촌이었는데 해신 신신에게 제사를 이곳에서 하게 되었으며 이곳 당(堂)이 제일이라 하여 원당이라 부르는 것이며 지금은 완전히 포촌이 아니므로 원당포라 하지않고 원당이라 부르는것임.

지 명		지 의 종 류	유 래
A	B		
백 중 白 中		부 락	이곳에 예전에 중이 100명 살았다 하여 백 중이라 부르는데 아마도 白中은 이유불명에 동음변천이라고 밖에 볼수 없음.
초 지 草 芝		부 락	산초와 떠(芝)가 무성한 곳이라는 데서 초 지라 하는것임.
하 나 골		부 락	예전에 어느사람이 이곳에 살았는데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라 무엇을 나누던지 하나을 즉 하나씩 공정히 나눈다는 뜻에서 하나골이라는 말을 썼으므로 이것이 동요가 되어 이사람이 산곳이라 소지명을 하나골로 부르게 됨.
별 망 別 望		부 락	아득한 옛날에 외국 침략을 막기 위하여 병사가 이곳에 주둔하여 바다를 바라보고 경계한 곳이라 하여 속칭 별망이 된것임.
염 전 鹽 田		염 전	1949년에 창설된 사설염전으로 약 23정보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명칭을 아산 염전이라 하였으니 이는 이조때 이곳 군(郡)명을 딴것이다.

3. 옛생활 (生活)과 풍속 (風俗)

3-1 당 제 (堂 祭)

—풍어와 안전한 귀환을 비는 민속적 종교행사—



시흥군 소래읍 포리에는 당(堂)집이 있고 지금도 매년 음력 정월초순과 7월 초순에 당제를 지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20여년전만 해도 이 당제를 지낸 후에는 전 부락민이 모여 상당히 큰 규모의 도당(都堂) 굿을 했다고 한다.

이 마을은 20여년전만 해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했었다.

이 어부들이 40여일간 어로작업을 하고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곳이다.

주민들 간에는 초자연적인 신앙이 뿌리깊어서 무당의 말은 거의 절대적이었고 만약 무당에게 나쁜 감정을 표시하면 무당은 동네에 다니면서 악담을 하기 때문에 모두들 무당의 비위를 건드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 포리 마을에서는 당제(堂祭)를 지내기 15일 내지 20일 전에 부락민 중 50세~70세의 노인들이 모여 당제를 지낼 제주(祭主) 1명을 선출한다.

이 제주 후보자의 자격은 우선 그의 몸이나 그의 가정에 부정한 것이 없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의 집안에 상을 당했다거나 부인이 월경기에 있다가 그의 집안사람중에서 누가 병환중인 경우에는 제주 후보자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선출된 제주는 수를 보아서 좋은 날을 선택해 제삿날을 정한다.

그리고 또 제주를 도와 줄 사람 4명을 더 뽑는다.

물론 이들도 제주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집안에 부정한 것이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주와 제삿날이 확정되면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의 출입을 금한다.

그리고 제주의 집 문지방엔 황토를 칠하여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이때 당제에 사용할 2개의 우물에는 물을 모두 퍼내고 특별히 우물안과 주위를 청소한다.

그리고 청소한 후의 우물은 당제가 전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의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또한 이 당사(堂舍) 옆에는 약 500년 묵은 은행나무가 서 있다.

이 은행나무는 이 마을 앞에 위치한 군자면 오이도에서 물려오는 액운(厄運)을 막기 위해서 마을 뒤 언덕인 당사옆에 세워진 것이라고 마을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제주는 제삿날 전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속세의 모든 부정을 씻어낸다.

따라서 제주와 그를 돕는 4명의 보조자들은 첫날부터 3일간 당제가 끝날때까지 당집에 머무르게 된다.

이 당제기간에는 마을 사람들을 일체 당집 근처에 머무르지 못한다.

제주의 4명의 보조원들은 첫째날 당집에 들어가 청소하고 제사 음식을 만들고 제사준비를 한다.

둘째날에는 그들을 “조라”라는 감주 비슷한 술을 만들어 저녁에 당에 갖다 바친다.

이 당제는 이 “조라”술 이외에는 어떤 술도 쓰지 않는다.

셋째날에는 인적이 완전히 그친 후 새벽 1시쯤 지성을 드렸다고 한다.

이 당제사때 되는 24그릇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24그릇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이 당제가 끝나면 제주와 보조원은 제사때 쓴 고기와 모든 음식들을 마을내의 가구수대로 나누어 모든 집에 조금씩이나마 신에게 바친 음식을 모두 음복(飮福)하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포리마을에서 도당(都堂)굿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도 당제만을 극히 간소하게 거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3- 2 무동답교 (無童踏橋) 놀이

—우리 고장 고유의 민속놀이—

옛부터 과천면 지방에는 고유의 민속놀이로서 무동답교놀이가 있었다.

이 민속놀이의 창시는 조선 22대 정조대왕시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정조대왕께서는 선친이신 사도세자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시어 화성에 융릉(隆陵)을 모시고 성묘차 능행을 자주하셨다.

정조왕께서 능행하실 때 대왕의 능행을 위하여 부락민들이 무동극을 창설하여 능행시의 환영과 환송을 거듭하니 대왕이 높게 칭찬하시어 한때는 경향각지에서 인기가 대단히 좋았다고 전하여 진다.

과천지방의 무동행사는 매년 정월에 일년의 액운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

PAGE 누락

PAGE 누락

● 제 3 편

천혜의 자원과 보배

1. 명승과 경관

1-1 관악산(冠岳山)



경기도 금강(金剛), 소금강의 별칭이 있는 관악산은 예로부터 일컬어 오는 경기도악(京畿五岳) 중의 일악이기도 하다.

경기도 오악이란 송도(松都)의 송악(松岳), 가평의 화악(花岳), 적성의 감악, 포천의 설악(雪岳)을 일음이니 비록 태산은 아니로되 준령태령(峻嶺泰嶺)으로서의 거암(巨岩)이 중첩하여 장엄함과 험악함을 갖추었고 비록 심산(深山)은 아니면서도 계곡에 고목들이 원시림을 이루고 신비경을 이루고 있으니 소금강의 이름이 있음은 반드시 시인묵객(時人墨客)의 과시가 아니다 더욱이 그 바위의 생김이 묘하고, 봄은 꽃으로, 여름은 녹음으로, 가을은 단풍으로서 겨울의 설경 또한 명산 관악의 면목을 자랑할만하니 대금강을 그대로 축소한듯 하며 해발 638m로 서울시, 안양시와 과천시에 걸쳐 괴기한 바위가 하늘높이 솟아있고 산중에 대소 10여개의 사찰 암자가 있으며 계곡 깊이 동폭포(東瀑布)와 서폭포와 같이 폭포의 물소리 또한 장

엄하다.

낮게 깔린 녹음속에 산골물이 속삭이는가 하면 산 봉우리를 무너트리는
듯 물확에 떨어지는 폭포소리에 머리끝이 쭈뼛한다.

더욱이 왕도남방(王都南方)의 화산(火山)이라 하여 고래로 이에 대한 애
화와 전설이 많으며 관악산으로 가는 길은 서울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과
천면 소재지에서 하차하면 된다

끝으로 관악산의 옛노래가 전해지고 있어 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관악산의 유산가 (冠岳山 遊山歌)

백두산의 대한맥(大韓脈)이 동쪽으로 흘러나려 온갖 명산(名山) 다 되고
서

계룡산(鷄龍山)의 역룡(逆龍)으로 관악산이 되었으니

한수남(漢水南)의 명산이라 한번보기 원이로다.

유산행장(遊山行裝) 차리고서 한강교(漢江橋)를 얼른건너 화장사(華藏寺)를
찾아가니 범범장강 유수강(泛泛長江流水江)에 오가는 선척이라.

탑골동리 다달아서 낙성대(落星垓)를 구경하니 거란군을 대파하던 강감
찬의 탄생지라.

관악산의 정기로서 문곡성하강(文曲星下降) 일세

기구한 산길로서 소바위를 쳐다보고 일보 이보 나아가서 감투바위 다달
으니 한출첨배(汗出添背) 흠뻑젖고 호흡도수(呼吸度数) 더하도다 매재고개 넘
어서서 비석대에 당도하니 연주대의 나한법당(羅漢法堂) 하늘중천 아득하고
관악사의 옛날절터 지금 형적 완연하다

또한 고개 넘어서서 연주암을 찾아가니 오층석탑 우뚝하며 미륵도장(彌
勒道場) 여기로다.

극락전(極樂殿)은 법당이요 금륜보전(金輪寶殿) 새집이라 청산대사(靑山大
師) 재직에 일신중수(一新重修) 하고보니 산악은 생색(生色)이요 사원(寺院)

은 다행(多幸)이라.

좌우산세 생긴모양 소금강이 분명하다.

대(臺)에 올라가는 길로 중대(中臺)에서 한번쉬고 결단고개 넘어서서 연
주대에 들어가니 세가세존 주세불과 십육나한(十六羅漢) 여러분이 험한인간
보시고서 고화미소(枯花微笑) 하는구나

동방약사(東方藥師)님은 효령대군(孝寧大君) 조성이요

이름높은 연주대는 의상조사초창(義湘祖師初創)이라

반공중(半空中)에 솟은것은 지거천(地居天)이 분명하고 연소형(燕巢形)의
저 도국(圖局)이 근기오악(近畿五岳)제일이라

용마(龍馬)바위, 천진형(天真形)을 한번 잡아 타 보고서 최고봉에 올라서
니 매염정(埋監井)이 여기로다.

기우(祈雨)하던 옛날일이 다시한번 생각난다.

장노바위 의수하여 선정중(禪定中)에 든것같고 직직첨첨(直直尖尖)저봉만
이 기기묘묘 불만하다.

만국성도(萬國城都)여의질(如蟻蛭)은 글귀로만 보았더니 시원하고 쾌활하
여 십십청풍(習習淸風)절로난다.

한양성을 굽어보니 팔만가호(八萬家戶)슬비하고 삼각산을 바라보니 백운
대가 우뚝하다.

북한산의 높은 성도 숙종대왕 쌓은바요

남한산성 아홉절을 인조대왕 명설(命設)이라

승장승병(僧將僧兵)세웠으나 해놓은일 무엇인고

송악산을 바라보니 송도(松都)서울 진산(鎭山)이라

한참 당시 변화하여 사백여년 지키더니 임신(壬申)칠월십육일에 국운일
시 변혁하니 정포은(鄭圃隱)의 모진충혈 선죽교에 물드리고 만월대에 가
을풀이 숙조(肅條)하기 짝이 없다

설월(雪月)은 가조색(家朝色)이요 한중(寒鍾)은 고국정(故國靜)이라
 두문동(杜門洞) 칠십이신 강득룡(康得龍)을 모를손가
 일일이 통곡한들 속절없는 허사로다
 수락산을 바라보니 홍국사가 어디멘가
 정종대왕 세자없어 금지옥엽(金枝玉葉) 보시려고 위축(爲祝) 기도 하던일
 이 어제인가 생각나네
 도봉산을 바라보니 망월사가 그곳이라
 고려때 혜거국사(慧炬國師) 심지견성(心地見性) 하시고서 중원국사(中原國師)
 되셨으니 그런 영광이 어디있나
 보조국사(普照國師) 목우자(牧牛子)는 원통사(圓通寺)에 계시면서 가평따라
 멀리보니 만산수목(萬山樹木) 덤불속에 한심존에 옥등잔(玉燈盞) 사람없이
 달려있어 3일 3야 켜있거늘
 그곳에다 절을 지니 신기하다 성적(聖跡) 이어
 가평현등(加平縣燈)이 아닌가
 설악산을 바라보니 봉선사에 광능이라 교종판사(敎宗判事) 사찰로서 수진
 대사(守眞大師) 유명하고 밀밀송림(密密松林) 섰는 곳은 세조대왕 능침이라.
 천보산을 바라보니 회암사(檜岩寺)에 주산일세 지공화상(指空和尚) 개산
 (開山) 하고 나옹화상(懶翁和尚) 상주(常住) 하여 삼산이수(三山二水) 그중간에
 대가람을 세웠드니 변천많은 세상사가 큰절터는 쑥발되고 삼화상(三和尚)
 에 부도비석(浮屠碑石) 야월공산(夜月空山) 서 있구나
 강화도를 멀리보니 4대도(四大島)에 둘째로다 마니산에 제천단은 단군
 태자 쌓은바요 전등사에 전각집(殿閣)은 정화궁주(貞和宮主) 수중(修重) 일
 세 무쇠한손 들먹이 불참(不斬)함은 어인일고, 고려행궁(高麗行宮) 조상(吊
 喪)하고 병인양요 생각하니 대해중의 일편(一片) 섬이 전쟁되고 만셈이라
 병자호란 위급하여 호기만발(胡騎萬發) 침노하니 선원상공(仙原相公) 김상

용(金尚容)은 화약불에 몸던지고 유도대장(留都大將) 김경증(金慶徵)은 속수
무책 항복일세,

인천항구 제물포는 놀기좋은 월미도요 일확천금 얻으려고 미두군(米豆軍)
이 모여든다.

남양만에 잔잔한물 조기배가 번득이고 남태령이 어데멘가, 지지대(遲遲臺)
가 불원하다 화산사적(花山事蹟) 말하려면 애처럼기 짝이 없네.

출천지효(出天之孝) 정묘조(正廟朝)는 두지대왕 묘쓰시고 수원백리 거동하
사 성묘하기 일삼으니

화령궁(華寧宮)은 행궁(行宮)이요.

수원부(水原府)는 유수도(留守都)라

팔달문과 장안문은 남북대문 화려하고 방화수류정자(訪花隨柳亭子) 집은 화
홍문과 자랑한다.

수원서호 고은물은 항주호(杭州湖)의 배승(倍勝)하고 남북십리 능수버들
어류사(御柳斜)가 여기로다.

청계산(淸溪山)을 바라보니 청계사가 지금있고 천진암에 동쪽바위 함월
스님 행적비는 춘풍추우(春風秋雨) 몇백년에 구슬프게 깨지도다.

봉은사를 바라보니 수도산색(修道山色) 의구(衣旧)하네 선릉(宣陵) 청릉(靖
陵) 두능침은 암암송백(庵庵松柏) 우거지고 선종판사(禪宗判事)수선찰(首禪刹)
에 보우대사(普雨大師) 계셨으나 행호시령(行號施令) 하울적에 일국선자(一國
禪子) 분주하매 3년마다 승과(僧科) 보여 인재등용 하옵더니 제주도 임종후
에 벌대총(伐大總)이 웬말인가.

거룩한 판전각(板殿閣)은 남호율사(南湖律師) 공적인데 인거황천(人去黃泉)
명재세지(名在世之) 비석뿐만 남았도다.

이것저것 보고나니 다사하다.

나의 한심 부지중에 솟아나서 장탄식이 절로나네.

우리도 오늘부터 의조조사(義祖祖師) 본을 받아 이탑 위에 가부(跏趺)하고
심지개통(心地開通) 하여볼까 청령장을 다시집고 연주암에 내려와서 일
야유숙(一夜留宿) 하온 후에 폭포구경 하러가세 은하수 맑은물이 돌벽위에
쏟아지니 수렴같은 그 형상이 불만하여 아름답다.

불성만월 구경하고 삼막사로 넘어가니 원효의상 윤필 거사 삼형제(三兄
弟)의 수도처(修道處)라 일막 이막 어디가고 삼막만이 남았는가

백련암에 다다르니 등곡골이 여기로다.

혜각존자(慧覺尊者) 학조대사(學祖大師) 이곳에서 견성(見性) 하사 세조대왕
왕사(王師)로서 후의재상 되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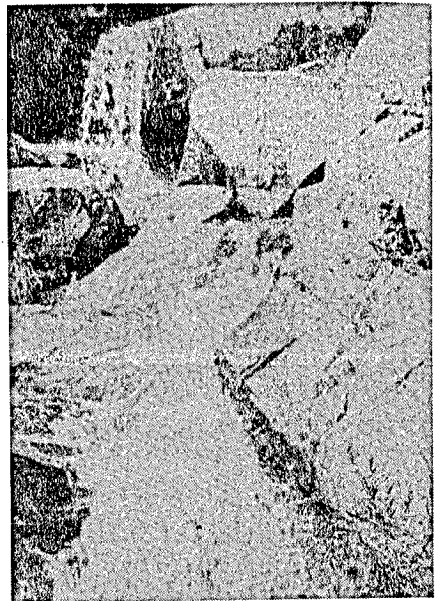
유언부탁 남기시어 등곡칠송(燈谷七松) 심었드니 홍능혜자(洪陵塚字) 특제
할줄 그 누가 알았으리

장하옵신 그의 행적 후에 사람 몰라보고 보승조차 등한하니 그것 아니
한심한가

반월암에 들어가니 약사영천(藥師靈泉) 암전하고 가던길을 돌아서서 염불
암을 찾아가니 공산무인(空山無人) 한적한데 염불소리 처량하다.

경부선의 기차소리 객의행로 재촉하고
소리없는 가을비는 상열단풍 물드린다.
관악삼성 대소사찰 10처라 헤아리나
넋짓넋짓 지내고서 자하동에 당도하니
신위(申緯)선생 옛날터가 소석(小石)조차
정결하다.

석산모옥 촌사람이 별유천지 이곳일세
신하에서 돌아보니 관악산의 단풍빛이
보기 좋게 옥어져서 정거좌애 하련만은
만강회포 이내심사 금강길이 총망하여



머물기가 어려우니 이도 역시 인연일가 인
명춘(明春) 다시 언약하고 관악명산 이별하니
산아 부디 잘있거라 만나볼날 또 있으리

1-2 망 경 대 (望 京 臺)

시흥군 과천면에는 명산 관악산이 있고 그와 마주서 의왕읍 청계리에
는 청계산이 있다.

청계산의 고명은 청룡산(靑龍山)으로 산정에서 청룡이 승천하였다 하는
데서 전한다.

산중에 고찰(古刹)이 있으니 고려 말기의 충신인 박학(博學)으로 이름이
높은 이색(李穡)이 「雲水斷崖臨野 端坐南室誦周易」이라고 읊은 바로 그 청
계산사이다.

이 산정에 석대가 하나 있으니 이 석대가 바로 망경대다. 망경(望京)
은 원래 만경(萬景)이라 하여 산정 석대에 오르면 눈아래 만가지 경치
가 전개된다는데서 유래한 이름이었으나 고려말을 지나 이태조의 이씨왕
조가 군림하자 저지같은 복장에 초라한 선비가 망경대에 오른 후로는 만
경(萬景)이 망경(望京)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 그가 바로 고려 충신인 조
윤(趙胤(涓))바로 그람이었다.

조윤은 이색, 김진양, 윤충보, 이집, 원천석, 길재 등과 함께 고려조를 빛
내던 명유(名儒)요 충신으로 두문동(杜門洞) 72인중의 1인이었으니 이조의
공신이 된 조준(趙浚)의 아우이다.

고려의 신하이던 이성계가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죽이고 이씨조선을 세우
자 명신들은 「열녀(烈女)는 2부(二夫)를 섬기지 않고 충신(忠臣)은 2군
(二君)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부르짖고 일어났으니 먼저 청계산에 들었
던 이색을 위시하여 조윤, 길재 등이 함께 하였다.

산정에서 굽어보니 단풍이 한창이었건만 임금을 잃고 고려를 그리는 마
음으로 즐겁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서울 송도(松都)를 바라보며 울기만 하자 사람들은 만경대(萬景
臺)를 망경대(望京臺)라 부르게 되었다.

조운이 청계산에 들었다 하자 이태조가 사람을 보내 이씨 왕조로 들어 오도록 하였으나 멀리 송경만 바라볼뿐 일언반구도 대답이 없었다 한다.

이에 조운의 마음을 굽히지 못함을 안 이태조는 조운이 우는 자리에 초막을 지어주었으나 조운은 이것도 싫다하고 청계산을 떠났다 하며 바로 이 초막이었던 자리가 오늘의 망경대다.

1 - 3 자하동천과 자하시경 (紫霞洞天과 紫霞詩境)

자하동천이라 함은 과천면에서 연주봉을 향하여 올라가는 도중의 관악산 중 제일 넓은 계곡의 총칭이니 거리가 약 20여리에 걸친다.

관악의 수봉(秀峰) 연주암까지에 약 2시간을 요하는 등산로가 그대로 일대유수계곡(一大幽邃溪谷)을 이루고 있으니 산이 큰지라 나무가 울창하고 골이 깊어 골짜기마다 물소리 크다.

기암괴석이 창공에 걸려있는가 하면 만가지 모양의 형상을 흉내낸 바위들이 생물인양 걸려있으며 자하동천의 절경을 자세히 음미해보면 골짜기 그윽해지는데 하며 옥반(玉盤)에 옥구슬을 울리는듯 싶은 물소리가 졸졸 거린다.

물은 혹은 바위틈에 지새우기도 하고 포말을 풍기며 떨어지는가 하면 백암반석을 미끄러지듯 유유히 흐른다.

태산준령에 계곡까지 유구하니 짐승도 있으련만 귀여운 다람쥐뿐이다.

옛날에 원효, 의상, 윤승(元曉, 義湘, 尹承)의 삼성(三聖)이 입산할때 맹수들은 붓짐을 싸들고 양주, 광주 등으로 이사를 갔다 하기도 하고 또는 강감찬 장군의 재채기소리에 놀라 맹수가 피신하였다고도 전하며 관악산에는 큰 짐승이 별로 없다.

이 자하동 일대를 세상사람들은 자하동천이라 일컫고 자하동천 입구의 절애절암이 병풍처럼 둘러져서 이면 일대절경을 이루고 있는 유곡을 가르쳐서 자하시경이라 부른다.

반석 그대로가 물처럼 보이는 하얀반석은 군데군데 갖은 모양의 육조를 이루어 있고 그 위는 티 하나 없는 옥수와 구슬이 바위를 두드리며 흐르는듯 그대로 구슬소리를 내며 흐르는 것이다.

이 자하동천은 이조 청조, 순조, 헌종 3대에 걸쳐 시, 서, 화(詩, 書, 畵)의 이른바 지하3절로 이름을 떨치게 한 신자하공(申紫霞公)의 마을에서 유래한 것이다.

신자하공(申紫霞公)은 본자 자하동에서 그 유년시대를 보낸 인연으로 이름은 위(緯)요 호를 자하(紫霞)라 하며 이조를 통한 풍류시인 이면서도 그 천성이 호탕불기(豪宕不羈)하여 호군서 무비한 어른이었다. 그의 3절이 얼마나 극지에 이르렀든가는 청국장군(淸國將軍) 추항시어(秋哈侍御)의 자하시평「자하시는 소황에 근하다」(紫霞詩는 蘇黃에 近하다)하였으니 이 소(蘇)는 소동파(蘇東坡)를 황(黃)은 황산곡의 이름이다.

이제 자하공의 성격의 일면을 엿보이는 일화로서 공이 시고(試考) 하던 때 이야기가 전해지니 즉 공이 소시에 보시(補試)에 응하고자 별석(別席)하여 시전에 글을 쓰다보니 마침 중천에 달이 떠오르는지라 공은 자기가 보시중임에도 잊고서 그 시전에다 신비 노출한 필법으로 묵죽일폭(墨竹一幅)을 그리니 보시하던 사람들이 주위를 포위하고 그의 뛰어난 그림에 놀라 마지 않았다 한다.

이 일로서 공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이었든가 알수 있거니와 일생을 좌우하는 시보를 묵숨과 바꿀만큼 청렴했다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한다.

이 자운공의 예술적 재능과 그 우아한 품격과 호쾌절묘한 시경도 실로 이 자운동의 자연에서 영향된바 적지않았으니 중노지경(中老之境)에 일체 관직을 버리고 이 자운동에서 시작과 서화로 낙을 삼아 여생을 보내었다고 한다.

1-4 병풍바위

소래읍에 자리한 소래산의 우측 중단에 기암이 넓게 자리하고 있으니 이름하여 병풍바위이다.

마치 생긴 모양이 병풍과도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1300여년전 신라가 삼국통일을 위하여 라·당연맹을 맺어 삼국을 통일하려 할때 당나라 장군으로서 소정방이 있었다. 소정방은 당나라 장군으로 신라를 도우려 서해의 덕적도를 경유하여 소래산에 진을 치고 있는동안 장군이 천하 장군임을 과시하고자 병풍바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은 오랜 세월의 풍화로 인하여 흔적을 찾을길이 없지만 어렴풋이 그 당시의 그림을 더듬어 찾아 볼 수 있다 한다.

1-5 수종폭포(水從瀑布) 또는 동폭포(東瀑布)

파천면 관문리에서 마주보이는 청계산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 청계산은 고려말의 공신이요 명유인 이색, 조윤등이 이태조에 군사(君事)하기를 싫어하여 입산수도를 했고 그 유적으로서 망경대가 있으며 남성적인 관악산에 비하여 청계산은 여성적이라고 비유된다.

이 청계산 서쪽에 큰 폭포가 있으니 이름하여 수종폭포 또는 동폭포라 부른다.

1-6 서폭포(西瀑布)

청계산 동폭포에 비하여 불리어지는 서폭포는 관악산 중턱에 있다.

이 폭포는 상하 2층으로 된 연폭(連瀑)으로 상폭은 층암단애(層岩斷崖)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고 하폭은 경사를 이루는 큰 바위를 구르듯 물이 흐르고 있다.

이층으로 된 상폭의 높이는 약 15척이며 하폭은 약 20척이나 되어 총 40척에 가까운 대폭이다.

폭포도 그려니와 물이 많고 일대가 바위로 되어 있어 마치 돛자리를 깐듯하여 자연적 수영장이다.

2. 희귀의 종

2-1 백로(白鷺)도래지



시흥군 수암면 하중리 산368번지 1천여평의 야산에 백로 2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어 이지역을 81. 8월에 조류 보호지역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이 지역은 속칭 관곡마을(벼슬구지)이라 하며 동리 앞뜰에 있는 일명 벼락 바위 일대 소나무숲에는 수백마리를 헤아리는 백로떼가 물러들어 밤을 지내고 있는데 이 백로떼들은 매일 아침 6시경이면 제각기 먹이를 찾아 날아 갔다가 저녁 7시 경에는 또다시 이곳 안식처를 찾아 되돌아와 언뜻보기

흡사 소나무위에 백설이 뒤덮인듯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 백로는 79년 7월경부터 수를 알수없는 백로떼가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점차 수를 더해 요즘에는 2백여마리의 백로가 야산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이같이 백로떼가 몰려들어 서식을 하고 있는 것은 길조라고 하며 이 마을 주민들은 백로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3. 유서 깊은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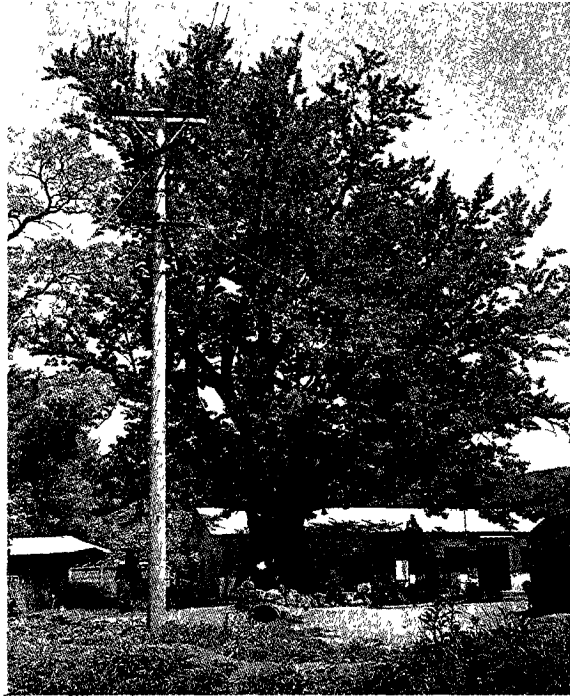
3 - 1 당정리 느티나무



느티나무의 傳說

군포읍 당정리 74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500년이 넘고 면적 31 4m²내에 높이 18m, 둘레 7m로 여름에는 동네 노인들의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느티나무에는 이상한 일이 있다 잎이 아래에서부터 피면 흉년이 들고 위에서부터 피면 풍년이 온다는 전설이 있다 (양재학, 남·70세의 말) 그래서 풍년을 바라는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10월경이면 지난해의 감사와 다가 올 새해의 풍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고사를 지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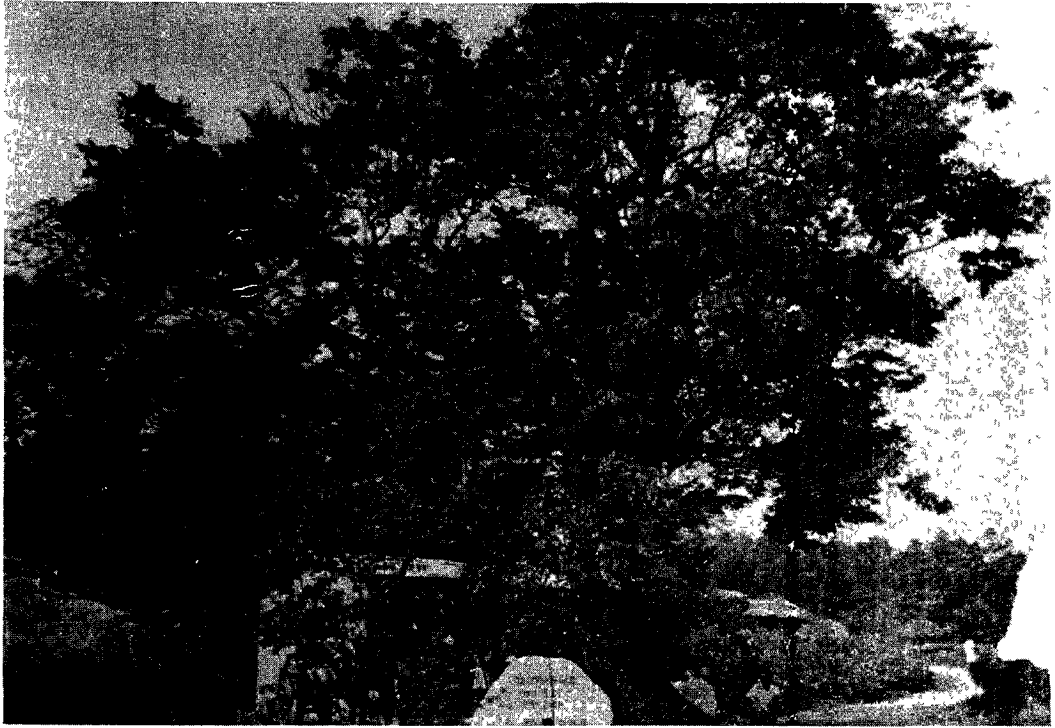


의왕읍 왕곡 1리 마을회관 앞에 서있는 은행나무는 수령이 약 530년으로 수고 35m, 둘레가 약 7m나 되는 거목이다.

왕곡리 은행나무는 약 500년경 이씨조선 중엽 중종반정이 있던 바로 다음 해에 그 당시 병조판서를 지낸 청풍김씨 우증(友曾, 호는 청평군 淸平君)이 심었다하여 김우증이 청주 목사로 있을 당시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공을 세운 것으로 중종이 병조판서로 기용하였고 이 나무를 중심으로 사방 10리통을 사패지(賜牌地)로 하사받아 이곳에 자주 머물렀다한다. 이당시 비 바람이 불어 큰가지가 부러질 때마다 정승이 났다 하여 5대 정승이 나는 가문을 이뤘다고도 전한다.

한편 이 은행나무는 1972년 도지정나무(도지정 38호)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은행이 많이 열린다.

3-3 포일 1리(浦一一里) 느티나무



포일 1리 마을회관 앞에 우뚝 서있는 느티나무는 수고 26m, 둘레 3.3m의 360년으로 추측되는 느티나무다. 이 느티나무는 생긴 모양이 수려하고 가지가 많아 여름철 주민의 휴식처가 될뿐 아니라 주민들이 대화의 장소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 나무를 마을의 신목(神木)으로 여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나무에 따른 유래도 또한 많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동네의 지형에 따라 영농을 시작케 하였으니 즉 나무앞이 필때 나무의 위쪽으로부터 피면 마을의 높은곳으로부터 모를 내고 나무의 아래쪽으로부터 앞이피면 마을의 낮은 곳으로부터 모내기를 시작해야 풍년이 든다고 하나 실제로 앞이 필때는 위, 아래의 순서가 일정하지는 않다고 하며 72년도에 리 보호수로 지정되어 마을에서 공동관리 하고 있다.

보 호 수 현 황

품격	Code No.	소 재 지	수령 년	수고 m	둘레	수 종	유형	면적 m ²	소 유
도41	1	소래읍포리49	500	20	3	은행나무	신목	30	이철호
도40	2	군포읍당정리746	500	21	4.3	느티나무	신목	3.2	양승권
군 2	3	과천면하리517-9	500	18	5.3	느티나무	신목	20	리공동
군 3	4	수암면수암리188	550	20	6	은행나무	노수	60	김종대
군 4	5	수암면수암리421	480	15	4.4	느티나무	노수	45	조영호
군 5	6	수암면화정리50	400	8	2	향 나 무	노수		김녕김씨 종중
군 6	7	과천면주암리18	500	17	4.2	은행나무	노수	25	김정철
군 9	9	과천면관문리107-2	570	25	6.5	은행나무	〃	30	과천면장
군10	10	군포읍산본리132	530	15	2.50	매추나무		35.2	이원남
군11	11	소래읍포리49	400	20	3	느티나무	신목	50	이철호
군자면1	12	군자면 선부 1 리 정지촌	300	30	4	은행나무	거목	20	박내원
과천면1	13	과천면문원리707-3	400	25	4.3	은행나무	노수목	2.8	구세군 양노원장
의왕읍1	14	의왕읍오전리산149	400	30	6	느티나무	노수	15	김상봉
수암면1	15	수암면수암리 260	370	20	5	해 나 무	〃	40	이일성
소래읍1	16	소래읍금이리	500	30	4.5	느티나무	〃	20	신현직
〃 2	17	〃 무지리352	250	20	2	은행나무	노목	15	

품격	Code No.	소 재 지	수령 년	수고 m	둘레 m	수 종	유형	면적 m ²	소 유
신천리1	18	” 신천리421	500	18	1.5	느티나무	노수	10	문효종파 종 친
막계리1	19	과천면막계리49	520	25	4	은행나무	수림목	18	리공동관리
오전리1	20	의왕읍오전리 1	300	5	4.3	느티나무	노수	2	이용재
문원리1	21	과천면문원리683	200	20	2.45	”	거목	25	장순덕
하리 1	22	과천면하리412	100	17	2.2	”	풍치목	30	이상필
관문리1	23	” 관문리122	500	30	4	해 나 무	귀목	15	농지개량 조 합
금정리1	24	군포읍금정리산45	150	1	2.5	느티나무	정자	3.3	박승호
왕곡리1	25	의왕읍왕곡리23	100	35	3.1	은행나무	노수	4	김수웅
이리1	26	” 이리68	150	30	3	느티나무	노목	3	서호석
신길리1	27	군자면신길4리1331	100	30	3	은행나무	거목	15	정이섭
원시리1	28	군자면 원시리	100	20	2	향 나 무	진수		
장곡리1	29	군자면장곡 1 리	150	15	2	질빵나무	진귀	15	이상억
목내리1	30	군자면목내 1 리	160	6	1.2	향 나 무	명목	12	김정기
고천리1	33	의왕읍고천리152	150	20	1.3	”	노목	1.5	박봉호
하리 1	34	과천면하리582-2 1	500	7	4	향 나 무	진귀목	50	김현식
포리1	35	소래읍포리	200	20	2	소 나 무	노목	20	엄익봉

● 제4편

민속(民俗)

概 說

민속이란 일반민중의 생활습관을 말한다. 민속은 생활습관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특수한 의례등을 모두 포함한다. 일상생활에는 의식주를 포함하여 많은 물질문화(物質文化)가 필요하고 이것들의 제작·사용·관리등 여러 과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따르는 도구들이 있어 우리의 주위를 보더라도 잡다한 물건이 많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도구뿐만 아니라 예컨대 食事を 하나의 예로 들더라도 조리법(調理法)이 있고 식사법(食事法)이 있으며 식사후에 행하는 작업등 인간의 행위가 이에 따른다. 뿐만 아니라 계절(季節)에 따르는 음식(飲食)의 내용과 조리법(調理法)이 있고 명절(名節)에 따른 특수한 음식(飲食) 그리고 대사에 따르는 특이한 음식(飲食)이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을 민속이라 하였을 때 민속의 범위는 실로 방대(龐大)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속은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민속에서 취급하는 문화요소(文化要素)들은 민속에 의해서 관리되고 보전되는 것이기에 오랜 전통을 갖는 동시에 언제 어떻게 성립되었다는 시대성이 애매한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예컨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술이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왜 그러한 모양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오래되었다는 것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자료·용도(形態·資料·用途)등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뿐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민중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용기(用器)가 무명의 공인(工人)에 의하여 제작되고, 제작된 수(數)가 한정되기 때문에 많은 공인(工人)이 제작하여야만 수요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민속은 개인에 의하여 이룩되고 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보면 집집마다 의례(儀禮)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가례(家家禮)라 한다. 민속은 이와 같

이 실은 집집마다 갖는 생활양식(生活樣式) 내지 생활풍속(生活風俗)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논하기가 어렵지만, 한편 한 個人이나 한 가족은 고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나 타가(他家)의 것을 모방하게 된다. 따라서 민속은 고을마다 다르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풍속이 집마다 또는 고을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민속문화(民俗文化)의 특색은 전파(傳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적인 특색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 나라 전체가 공유하는 요소들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한복의 경우 지방에 따라 또는 사회계층(社會階層)에 따라 그리고 남녀에 따라 같지 않다 하더라도 한복으로서의 특색은 전국적인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이고 계층에 따라 다른 민속을 시흥군(始興郡)이라는 지역에 한하고 특히 전통사회(傳統社會)에서 일반민중이 사용한 것을 중심으로 이곳에 정리하려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속은 일상생활과 특수 의례(特殊儀禮)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기에 이것을 전부 망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장을 나누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보고, 다음에는 인간이 일생을 통하여 경과(經過)하는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보며, 다음은 1년을 주기(周期)로 하는 생활율동인 세시풍속(歲時 風俗)과 이에 따르는 오락을 보며, 그리고 끝으로 종교생활인 민간신앙(民間信仰)을 보기로 한다.

1. 衣食住生活

의식주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領域)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라도 이것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의식주는 인간이 생활하는 자연환경(自然環境)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영역이라 하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自然環境)은 동식

물(動植物)과 지세(地勢)·지질(地質)은 고사하더라도, 기후가 온대(溫帶)의 특수조건하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영하 10度を, 그리고 여름에는 영상 20度を 오르내리며 계절이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막는 의복과 주택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의식주를 다시 나누어 항목(項目)에 따라 의식주를 보기로 한다.

1-1 衣生活

오늘날 우리가 도시는 말할 것도 없이 농촌의 어디를 가더라도 남자는 양복, 여자는 양장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농촌에서는 일상시에 작업복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며 한복은 하나의 의례복(儀禮服)으로 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양복이나 양장은 10년 내지 5년 또는 더 짧게 1년을 주기(周期)로 그 유행이 바뀌어 가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복과 양장은 일상생활에 많이 착용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민속조사(民俗調査)나 연구(研究)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양복과 양장이 전통적 생활양식에서 자발적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아직 유입된 역사가 짧다는 이유에서 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취급하려는 것은 한국인(韓國人)이 오랜동안 우리의 것으로 간직하여 왔고 한국인(韓國人)에게만 고유하게 애용되었으며 지금도 한국인(韓國人)의 마음에 우리 옷이라 여겨지는 한복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우리의 고유한 의복인 한복의 경우 경기도(京畿道)보다 북부에 있는 평안북도(平安北道)나 함경북도(咸鏡北道)의 사람들이 입는 한복이 추위로 인하여 솜을 더 많이 두고 저고리의 길이가 길다든가 속 단속곳이 두텁다는 차이는 있겠으나, 시흥군(始興郡)만의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양식에 따르고 있다. 차이를 구태어 따진다면 사회계층(社會階層)에 따라 특히 朝鮮王朝(조선왕조)의 관복(官服)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복(官服)은 관사(官史)의 제복(制服)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흔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평민복(平民服)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한복의 제작과정(製作過程)이나 관리·보관(管理·保管) 등은 약하고 형태와 부분 명칭만 보기로 한다.

女服(여복) : 한복은 크게 여복·남복(女服·男服) 그리고 아동복으로 대분(大分)하여 볼 수 있다. 여복(女服)은 다시 저고리, 치마, 단속곳, 바지속곳, 버선, 마고자, 두루마기로 나누어진다.

저고리는 의복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만들기가 몹시 까다로운 것이다. 남자의 저고리 보다 여자의 저고리는 의복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고리는 계절과 연령에 따라 특히 사회계층(社會階層)에 따라 자료가 다르고 유행에 따라 길이, 깃, 배대기 등이 달라진다. 그러나 형태에는 큰 차이가 없다

저고리는 길, 진동, 소매, 섹킷, 동정, 수구, 도련, 배래기, 고대, 고름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한복이 명절(名節)에 입는 예복화(禮服化)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져 가는 것이 삼화장 저고리이다.

삼화장 저고리란 소매끝인 수구에 다른 천을 달고 겨드랑이에 오는 부분에 다른 천으로 화장을 다는 것이다.

남자에 비하면 특히 부인들이 아직도 한복을 입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결혼(結婚)한 기혼여인(既婚女人)의 상징인양 한복은 부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여인의 계절감각(季節感覺)과 색채(色彩) 그리고 경제력(經濟力)에 따라 저고리의 자료가 다양하다. 춘추절(春秋節)에 많이 입는 옷감을 보면 숙고사, 숙사, 진주사, 호박사, 순인, 부사걸, 관사, 삼팔, 명주, 춘추나이론, 옥양목, 뽀뿌링 그리고 춘추모직 등이 있다. 겨울에 많이 사용되는 옷감은 모본단, 양단, 고단, 신단, 공단, 예술단, 방초, 뉴우동, 명주, 나이론, 비로오드, 골덴, 벨벨, 옥양목, 뽀뿌링, 일반모직 등이 있

다 여름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모시, 생모시, 베, 춘사, 향라, 고양사, 아사, 은조사, 생고사, 생삼팔, 광생초, 나이론, 레에스 등이 있다

치마도 저고리와 같은 옷감으로 혹은 같은 것으로 입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조화를 이루어 입는다. 치마는 주름과 단, 허리와 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어깨거리를 달아입는다. 옛날에는 부인들이 열두 폭 치마를 입고 주름도 잔주름을 하여 입었으나 최근에는 여섯 폭 치마도 입고 주름도 굵게 잡아 입는다. 길이의 경우도 옛날에는 발끝이 보이지 않을만큼 길게 입었으나 최근에는 활동하기 편하기 위해 치마의 길이가 약간 짧아졌으며, 또 옛날에는 처녀는 무릎까지만 덮는 짧은 치마를 입었으나 한복이 예복화(禮服化)함에 따라 처녀가 입는 짧은 치마가 볼 수 없게 되고 간혹 전도사가 입는 옷으로 되었다.

단속곳은 치마 밑에 입는 옷으로 두가량으로 된 통 넓은 치마모양과 통치마 모양으로 된 두종류가 있다. 과거에는 단속곳만을 입었는데 최근에는 통치마식의 속치마가 많아져서 단속곳은 입지 않는 경향이였다. 단속곳은 겉에 입는 저고리나 치마와 달리 옷감이야 어떠하던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한 색으로 입기도 한다. 단속곳의 옷감도 계절(季節)에 따라 다르니 춘추절(春秋節)에는 주로 숙고사, 순인, 진주사, 자미사, 향라, 관사, 명주, 삼팔, 인조견, 나이롱 등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자미자, 삼팔, 은반견, 명주, 인조견 등이 많고, 여름에는 모시, 왜사, 아사, 향라, 생삼팔, 생노방, 생고사, 인조견 등을 사용한다. 단속곳은 밑, 가래바대, 주름, 단, 옆트기, 허리 그리고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지는 과거 여자라면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사철을 통해 계절(季節)에 맞는 바지를 입었다. 그러나 근년(近年)에 이르러서는 연로(年老)한 할머니나 입고 젊은 사람들은 바지를 입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바지의 옷감은 대체로 단속곳과 같으며 모양도 단속곳과 같이 밑, 부리, 주름, 배

래기, 옆트기, 허리 그리고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는 별로 입지 않은 것으로 속곳이 있다 이것은 단속곳과 비슷한 모양을 하였으나 길이가 약간 짧고 밑이 길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반드시 입었던 속곳은 우리 나라 온돌생활에 편리한 것이었다. 속곳은 밑, 밑바대, 가래바대, 단, 주름, 옆트기, 허리 그리고 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옷감은 계절(季節)에 따라 단속곳과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

버선은 한복에 없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요소이지만 최근 남자는 물론 여자들도 신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만들기가 어렵고 때가 잘 타며 빨아 말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버선을 신지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나이롱 옷감으로 된 버선을 시장(市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신부(新婦)는 버선을 신고 또 버선을 시가(娼家)의 어른들의 선물로 가져 가는 경우가 많다. 버선은 흰색으로 자료(資料)는 옥양목, 서양목, 광목, 무명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버선은 수놓, 뒤꿈치, 앞뿌리, 목 그리고 뒤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고자는 저고리 위에 입는 것으로 약 60년전부터 입기 시작한 것이다. 마고자는 저고리에서 변화되어 생긴 것이다. 추위에 대비하여 입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 이른 봄, 늦은 가을 등에 주로 입는다. 마고자는 보온용(保温用)이라 하지만 사치로 입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일반(一般)보다는 부유(富裕)한 사람이 입는 옷이다. 마고자는 저고리에서 발전한 것이기에 저고리와 같은 모양을 하였으며 깃섬이 없으며 부분명칭(部分名稱)은 길, 진동, 수구, 화장, 깃, 도련, 배래기 그리고 고대로 되어 있다. 마고자는 겹에 입는 것이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색(色)이 많고 옷감은 계절(季節)에 따라 춘추절(春秋節)에 자미사, 방초, 숙고사, 뽕뿌링, 그리고 동절(冬節)에 모본단, 양단, 신단, 공단, 예술단, 나이롱 등을 사용한다.

두루마기는 겨울에 입는 옷으로 되어 있지만 여자가 두루마기를 입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80여년(餘年) 전(前)의 일이다. 두루마기도 입기 시작하자 마고자와 같이 늦은 가을 이른봄에도 입게 되어 널리 보급되었으나 대체로 경기도(京畿道) 이남(以南)에 분포되었고 외출복(外出服)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두루마기는 길, 진동, 수구, 화장, 무, 쏜, 안쏜, 깃, 동정, 고대, 도련, 옆트기, 그리고 고름으로 이루어졌다 옷감으로는 춘추(春秋)에 자미사, 국사, 모시, 옥양목, 뽀뿌링, 춘추모직 등이 있고 겨울용으로는 모본단, 양단, 공단, 예술단, 궁초, 방초, 호박단, 나이론, 일반모직 등을 옷감으로 한다.

이러한 한복 이외에 여자들이 겨울이면 조바위 남바위를 썼으나 근년(近年)에는 이런 것을 볼 수 없다. 근년(近年)에는 오히려 목도리를 두르는 경우가 많다. 근년(近年)에 특히 농촌에서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월남치마라 하여 통치마로 발까지 덮는 긴치마가 많고 이것은 특히 젊은 여자가 많이 입는다. 그리고 겨울이면 털실로 짠 허리까지 덮는 털샤츠를 많이 입고 이것은 노인들의 일상복내지 외출복이 되어 간다.

男子服: 남자의 한복은 저고리, 바지,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남자의 저고리는 깃썰이 다소 넓었다 좁았다 하거나 길이가 길었다, 짧았다 하였지만 이것들은 극히 적은 부분적인 유행이었고 모양이 대체로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옛날에는 반가(班家)에서 비단옷으로 지어 입는데 대해 서민(庶民)들은 무명옷이었기 때문에 사회계층(社會階層)에 따라 옷감과 색(色)이 달랐으나 근년(近年)에는 한복이 예복화(禮服化)하여 사회계층(社會階層)에 구별없이 다채로운 색과 여러가지 옷감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차이는 오히려 계절적(季節的)인 것이 되었다

남자의 저고리에 사용되는 옷감은 춘추절(春秋節)에 향라, 삼팔, 노방, 부사견, 옥양목, 뽀뿌링, 춘추모직 등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방초, 명주, 부사

견, 옥양목, 뽀뿌링, 일반모직을 그리고 여름에는 모시, 생모시, 항라, 생삼팔, 춘사, 안동포, 초포, 생노방 등을 사용한다. 남자의 저고리도 여자의 저고리와 같이 길, 진동, 수구, 화장, 겹섶, 안섶, 깃, 동정, 고대, 도련, 그리고 고름으로 이루어졌다.

바지는 저고리와 함께 짝을 이루는 것으로 바지에 사용되는 옷감은 대체로 저고리와 같다. 여자가 저고리와 치마를 조화하여 입듯이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를 조화시켜 입는다. 바지는 마루폭, 작은 살폭, 허리의 네부분으로 되어 있고 바지 하단은 대님을 매는 곳을 부리, 작은 살폭의 옆단은 배대기, 큰 살폭이 허리와 닿는 곳을 까마귀머리라 한다.

조끼는 남자들이 입는 한복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끼를 입기 시작한 것은 불과 70여년(餘年)에 불과(不過)하고 그 이전(以前)에는 배자를 입었으나 요즘은 배자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조끼는 길, 진동, 깃, 고대, 주머니, 도련으로 이루어지고 주머니는 셋이 있으며 단추는 다섯이 있다. 조끼에는 대체로 고급 옷감을 사용하니 춘추(春秋)에는 숙고사, 자미사, 방초, 나단, 춘추모직을, 겨울에는 궁초, 양단, 고단, 모직을, 그리고 여름에는 관사, 생고사, 생삼팔, 생노방 등을 사용한다.

마고자는 약 100여년(餘年) 전(前)부터 일반적으로 보급된 것으로 저고리에서 발전한 것이다. 마고자는 길, 진동, 수구, 화장, 깃, 섶, 도련, 고대, 배대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마고자의 옷감은 대체로 저고리와 같다. 깃섶과 동정이 없는 것이 저고리와 다르며 단추를 두개 다는 것이 보통이다.

두루마기를 입기 시작한 것은 고종(高宗) 갑신년(甲申年)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소매가 넓은 도포를 입었던 것이다. 도포에서 옆이 트이고 세 자락으로 된 창옷으로 변하더니 창옷이 현재와 같은 두루마기로 변했다. 남자들의 두루마기도 여자의 두루마기와 같이 길, 진동, 수구, 화장, 무, 겹섶, 안섶, 깃, 동정, 고대, 도련, 배래기, 옆트기, 고름으로 이루어 졌으나 옷

검은 무늬가 있거나 화려한 빛깔을 피하여 춘추(春秋)에는 명주, 향라, 모시, 옥양목, 뽀뿌링, 춘추모직 등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명주, 궁초, 방초, 부사견, 옥양목, 뽀뿌링, 무명, 모직 등을 사용한다.

남자들도 옛날에는 버선을 신었으나 근년(近年)에는 버선을 신지 않고 모두 양말을 신게 되었다. 그리고 외출시(外出時)는 갓을 썼으나, 오늘날은 거의 갓을 쓰고 외출하는 일이 없다.

아동복(兒童服) : 어린이들이 한복을 입는 것은 근년(近年)에 이르러 어른보다 훨씬 적어졌다. 다만 돌때와 명절(名節)에 입는 예복(禮服)으로 화(化)했다. 이러한 때나마 남아 있는 어린이의 옷은 색동저고리, 풍차바지, 조끼, 타래버선, 전복, 복건 등이다.

색동저고리는 남녀(男女) 구별하지 않고 입히지만 돌에는 돌띠를 둘러 남녀(男女)를 구별하니 남자는 남색, 여자는 자주색 띠를 둘러준다. 색동저고리는 소매가 옥색, 노랑, 흰색, 남색 등의 색동으로 되어있고 다른 부분은 모두 성인복(成人服)과 같다.

풍차바지는 밑을 트고 뒤로 여미는 바지로 부분명칭(部分名稱)은 마루폭, 큰 살폭, 작은 살폭, 밑, 배래기, 부리, 주름, 허리, 어깨로 되어 있다. 타래버선이란 돌 전후(前後)의 어린이가 신는 것으로 잘게 누벼 수를 놓은 것이다.

전복이란 뒤와 옆을 튼 것으로 두루마기 겉에 입는 옷이다. 옛날에는 무관(武官)들이 입었던 것이지만 근년(近年)에는 어린이의 호사복으로 되었다. 복건도 옛날에는 총각이나 신랑(新郎) 등이 쓰던 것이 오늘날에는 돌잡이 어린이의 것이 되었다.

예복(禮服) : 일상복 이외에 의례시(儀禮時)에 입는 의례복(儀禮服), 즉 예복(禮服)이 있다. 예복(禮服)이란 혼례복(婚禮服)과 상복(喪服)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을 혼례(婚禮)나 상례시(喪禮時)에 반드시 입던 것이었다. 그러

나 최근에 이르러 정부(政府)에서 권장하는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이 정해지고 혼상례(婚喪禮)의 절차와 과정을 간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혼례복(婚禮服)과 상복(喪服)까지 간단하게 하기를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에는 물론 농촌지역에서도 예컨대 혼례식(婚禮式)에 신랑은 양복을 입고 신부는 드레스에 면사포를 쓰고 예식장(禮式場)에서 결혼식(結婚式)을 올리고, 도시에서는 상례(喪禮)도 평복과 같은 양복을 착용하되 후색두리, 즉 수경(首經)을 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복(喪服)은 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게 되었고 도시에서는 여자가 흰옷을 입는 것이 고작이다. 특히 혼례복(婚禮服)은 농촌에서도 보기 드문 것이 되었다

1-2 食生活

식생활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일일(一日) 삼식(三食)을 하여야 인체(人體)를 유지하고 활동을 할 수 있기에 모든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식생활이라 하면 이곳에는 음식물(飲食物)의 종류(種類), 음식물(飲食物)의 조리법(調理法), 식기(食器), 조리용구(調理用具), 음식물(飲食物) 저장용구, 상(床)차림, 식사법(食事法) 등 多樣(다양)한 것을 포함하여야 되겠으나, 이곳에서는 일상음식(日常飲食)으로서 상(床)차림을 보고 미료류(味料類), 김치류, 등의 반찬류 그리고 절식(節食)을 보기로 한다

밥상(床)을 반상(飯床)이라 한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루 세끼 때마다 주식(主食)인 밥을 먹는 상(床)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밥상에 최소한으로 놓는 것이 밥과 국, 그리고 김치, 간장, 고추장, 나물이다 국은 계절에 따라 콩나물국, 배추국, 무국, 미역국, 시금치국, 감자국 등이 있다.

상(床)은 반찬의 가지 수에 따라 삼첩상(三椀床), 오첩상(五椀床), 칠첩상(七椀床), 구첩상(九椀床), 십이첩상(十二椀床) 등이 있다 칠첩상(七椀床)

이상이 되면 앞서 본 것 이외에 장아치, 젓갈, 건포(乾脯), 구이, 찌게, 회(膾)쌈 등이 놓인다. 특별한 경우에는 밥床 이외에 결상(床)이라 하여 반주(飯酒), 전골(煎骨), 과실(果實) 등을 놓는다.

국수를 주식(主食)으로 차린 상(床)은 국상(麵床)이라 한다. 이것은 원래 밥상(床)보다 간단하게 차리는 것으로 상(床)에는 국수 이외에 김치, 간장, 지짐, 과실(果實), 병(餅), 화채 등을 놓고 또 계절(季節)에 따라 몇 가지를 더 놓을 수 있다.

연회시(宴會時)에 차리는 상(床)을 교자상(轎子床)이라 한다. 교자상(轎子床)은 국수가 주식(主食)이 되지만 때로는 밥이 주식(主食)이 되기도 한다. 교자상(轎子床)은 가세형편(家勢形便)에 따라 차리는 음식(飲食)의 종류가 다를 것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음식(飲食)을 놓는 것이다. 즉 국수 이외에 만두(饅頭), 신선로(神仙爐), 떡, 김치, 회(膾), 편육(片肉), 약식(藥食), 약과(藥果), 유과(油果), 전과(煎果), 잡채(雜菜), 찜, 건포(乾脯), 화채(化菜), 다식(多食), 강정, 생과(生果), 건과(乾果) 등이 상에 놓인다 위의 순서에서 떡 이하를 보면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있을 수 있다 떡의 경우 白편, 색(色)편, 증(蒸)편, 송(松)편, 인절미, 개피떡, 경단, 골무떡, 시루떡 등이 있고 김치의 경우 속백이, 강김치, 동치미, 통김치, 깍두기, 물김치, 등이 있다 회(膾)의 경우는 생선회(生鮮膾), 황육회(黃肉膾), 패류회(貝類膾), 간회(肝膾), 천엽회(千葉膾) 등이 있고 편육(片肉)의 경우 우육(牛肉), 우설(牛舌), 양지머리, 제육(豬肉) 등이 있다 전과(煎果)의 경우 연근전과(蓮根煎果), 생강전과(生薑煎果), 귤전과(橘煎果), 산자전과(散子煎果) 등이 있고 찜의 경우 생선(生鮮)찜, 갈비찜, 영계(嬰鷄)찜 등이 있다 건포(乾脯)에는 육포(肉脯), 어포(魚脯), 대구포(大口脯), 문어(脯)포, 점복포(脯), 오징어포(脯), 등이 있다. 화채(化菜)에는 수전과(水煎果), 식혜 등이 있으며 다식(多食)에는 깨, 흑임자(黑荳子), 송화(松

花), 생강(生薑), 밤, 녹말, 참쌀, 콩 등의 다식(多食)이 있다 강정에는 잣
 깨, 계피, 매화(梅花), 빈사과, 채소(菜蔬) 등이 있고 생과(生果)에는 배, 사
 과, 밤, 굴 등이 있으며 건과(乾果)에는 밤, 대추, 건포(乾脯), 호도(胡桃),
 실백자(實柏子) 등이 있다.

연회용(宴會用)으로도 특히 회갑(回甲)이나 혼인시(婚姻時)에 사용되는 교
 자상(轎子床)을 큰상(床)이라 한다. 큰상(床)에 오르는 음식물의 종류는 대
 체로 교자상(轎子床)과 같은 것이지만 특히 떡, 당류(糖類), 건과(乾果),
 조과(造果), 생과(生果) 등을 높이 괴어 놓는 것이다 당류(糖類)란 원당
 (圓糖), 각당(角糖), 오화당(五化糖), 옥춘(玉春) 등을 말하고 조과(造果)란
 유과(柚菓), 전과(前菓), 강정 등을 말한다

회갑(回甲)과 같이 통과의례(通過儀禮)에 해당하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
 한 상(床)으로 차리는 것에 돌상(床)이 있다. 돌상(床)을 돌을 맞는 어
 린이에게 특별한 음식상을 차려 주고 돌잡이를 하는 것이다. 돌상에는 국
 수, 떡, 생과(生果), 조과(造果) 등을 놓는 외에 돌잡이 어린아가 남아(男
 兒)이면 冊, 붓, 활, 돈 등을 놓아 어린아가 무엇을 먼저 잡느냐를 보고
 먼저 잡는 것이 책이면 學者가 되고, 활을 먼저 잡으면 武人(무인)이 되
 고, 돈을 먼저 잡으면 부자(富者)가 된다고 한다. 돌잡이가 여아(女兒)이
 면 활, 붓, 대신에 실을 놓아 바느질을 잘하는가를 본다.

특별한 상(床)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제상(祭床)이다. 제상(祭床)도
 가세(家勢)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상의 크기에 따라 삼탕, 오탕(三蕩, 五
 蕩) 등으로 부른다. 蕩은 魚蕩, 肉蕩, 鷄蕩을 말하니 이것을 삼탕(三蕩)이
 라 하고 최소의 수가 된다. 오탕(五蕩)은 삼탕(三蕩)이외에 편탕, 수탕을
 더한다. 제상(祭床)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수진설(祭羞陳設)이니 이
 곳에 홍동백서(紅東白西),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해(左脯右醢)라는 것 이
 있다. 홍동백서(紅東白西)란 붉은 과물(果物)은 동편(東便)에 놓고, 흰과물은,

서편(西便)에 놓는다는 것이고 어동육서는 어물(魚物)은 동편(東便)에, 육축(肉屬)은 서편(西便)에 놓는다는 것이니 신위(神位)의 좌편(左便)이 동(東)이고 우편(右便)이 서(西)가 된다. 좌포우해(左脯右醢)란 집사자의 좌편에 포(脯)를 놓고 우편에 식혜를 놓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음식(飲食)에 특색(特色)이 있다면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미료류(味料類)와 김치류이다. 장은 오늘날에도 가정(家庭)에서 담그는 것으로 되어있고 장담그는 날은 길일(吉日)을 택하여 담되 간조와 만조의 시를 알아보아 만조에서 물이 쏠기 시작할 때 장을 담근다. 심한 가정에서는 장담그는 날 외인(外人)의 출입(出入)을 금(禁)하기도 한다. 한 가정의 장맛은 그 해의 기운(氣運)을 예견하게 하는 것이라 하며 장맛은 그 집의 격도(格度)를 좌우하는 것이라 하여 주부(主婦)들은 정성껏 장을 담근다.

김치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것이고 종류도 많다. 김치의 종류(種類)를 말하면 속박이, 통김치, 석박기, 비늘김치, 생김치, 장김치, 나박김치, 동치미, 신건지, 잔지, 깍두기, 오이지, 오이소박이, 가지김치, 풋김치, 채김치, 엇저리, 굴깍두기, 오이깍두기, 멸치젓깍두기, 곤쟁이젓깍두기, 젓무, 무청깍두기, 소금깍두기 등이다.

시흥군에 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생활(食生活)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계절(季節)에 따르는 절식(節食)이 있다. 이것은 특히 세시풍속(歲時風俗)에 따른 특별한 음식(飲食)이니 세시(歲時)는 정월원일(正月元日), 입춘(立春), 상원(上元), 2월삭일(2月朔日), 3월 3일, 한식(寒食), 4월 8일, 5월 단오(5月端午), 6월유두(流頭), 삼복(三伏), 7월 7석, (7月 7夕) 8월 추석(秋夕), 9월중구(9月重九), 10월오일, 11월동지(11月冬至), 12월臘享 등 평일과 다른 절일(節日)을 말한다

정월원일(正月元日), 즉 음력으로 1월 1일날에는 조상(祖上)에 차례(茶禮)를 지내고 윗어른들에게 세배를 가면 음식을 대접받는다.례(茶禮)와 손님에게

주고 식구도 먹는 세간(歲饌)에 떡국이 있다 떡국에 쓰이는 떡은 멥쌀가루를 찌서 목세(木製) 案板위에 놓고 자루달린 떡메로 쳐서 길게 만든 것이니 이것을 흰떡이라 한다. 이것을 알뜰하게 돈같이 썰어 장국에 넣고 쇠고기나 꿩고기를 넣어 끓인 다음 파와 고춧가루를 쳐서 떡국을 만든다 설날이면 누구나 떡국을 먹는 것이기에 속담(俗談)에 나이먹는 것을 『떡국을 몇 그릇째 먹었느냐』고 한다.

정월(正月)보름은 대보름이라 하여 뒤에 세시풍속(歲時風俗)에서 보듯이 여러 행사(行事)가 있지만 절식(節食)에도 특별한 것이 많다 우선 보름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귀밝이술」이라 하여 청주(淸酒) 한 잔을 데우지 않고 먹는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보름간다」하여 날밤, 호두, 은행, 잣, 땅콩 등 껍질이 있는 것을 깨뜨려 먹는데 이런 보름을 먹으면 일년 열두달 무사내평(無事太平)하고 특히 종지나 부스름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상원인 보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곡(五穀)밥이나 약반(藥飯)을 먹는 것이다 오곡(五穀)밥은 멥쌀, 찰쌀, 팥, 콩, 수수, 조를 섞어 지은 밥이다 약식은 찰쌀, 대추, 밤, 기름, 꿀, 간장들을 섞어 찌고 그 위에 잣을 박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름날에 특별한 반찬으로 외꼭지, 가지, 시래기, 호박, 버섯, 무 등을 말려 두었던 것을 나물로 무쳐 먹는다.

2月 朔日에 중화절식(中和節食)이라 하여 송편을 만들어 먹는다. 정월 보름날 세워두었던 화간(禾竿)에서 벼이삭을 내려다가 흰떡을 만드는 것이니 떡가루를 빻아 손바닥만하게 또는 계란만하게 둥글넓적하게 만들고, 속에는 콩을 불려 소를 넣는다. 시루 안에 솔잎을 겹겹이 깔고 그속에 송편을 넣고 찐 다음 송편을 물로 닦고 참기름을 곁에 바른다. 이것을 식구들이 먹는 것이지만 원래는 종들에게 나이 수대로 나누어 먹이는 것이니 이날을 노비일(奴婢日)이라고도 한다. 농사(農事)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1년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노비에게 미리 떡을

먹이는 것이다. 원래 송편에는 콩을 넣지만 팥, 검정콩, 푸른 콩, 깨, 대추를 소로 넣기도 한다.

3月3日의 절식(節食)에 화전(花煎)이 있다. 화전(花煎)이란 진달래 꽃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반죽을 하여 둥근떡을 만들고 이것을 기름에 지진 것을 화전 또는 꽃전이라 한다. 또 화면(花麵)이나 수면(水麵)을 먹기도 하는바 화면이란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것을 가늘게 썰어 오미자국에 띄우고 다시 꿀을 섞고 잣을 곁들인 것이다. 수면(水麵)이란 녹두로 국수를 만들고 이것을 붉은 색으로 물들이고 꿀물에 띄운 것이다. 이것들은 절식(節食)으로 먹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제사(祭祀)를 지내기도 한다

한식일(寒食日)에는 다례(茶禮)를 지내거나 성묘(省墓)를 하며 이때 밥을 하지 않고 술, 과일, 포, 식혜, 떡, 국수, 탕, 적 등으로 제례를 지낸다.

이 외에 봄에 먹는 춘절시식(春節時食)으로 몇가지가 있으니 우선 청포로 만든 묵이니 이것을 잘게 썰고 돼지고기, 미나리, 김을 섞어 초장을 쳐서 먹는 것이다. 특히 봄날 저녁에 먹기좋은 것이다

봄에 먹기좋은 생선이 있으니, 밴댕이, 웅어, 복 등이다

봄에 먹는 떡으로 꿈장떡(餽餠)이 있다 이것은 맵쌀로 방울모양으로 떡을 만들되 그 속에 콩으로 소를 넣고 머리 쪽을 오무린 것으로 오색물감을 들여 다섯 개를 이어놓은 것을 말한다. 오색의 떡을 만들되 소나무 속 껍질과 제비쑥을 섞어 만들며 이것에서 크고 둥근 떡을 마제떡(馬蹄餅)이라 한다. 또 찹쌀에 대추를 섞어 시루떡을 만든다 이들이 모두 봄철에 먹는 시절(時節)떡이다

4月 8日에 먹는 떡으로 석남(石南)떡, 느티떡, 미나리떡, 증편(蒸餅) 등이 있다. 석남떡은 석남잎을 넣고 만든 떡이고, 느티떡은 느티나무의 연한 순을 넣어 만든 떡이며, 미나리떡은 미나리를 넣고 만든 떡이다 증편은 찹

쌀가루를 반죽하되 술을 넣어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속에 삶은 콩을 넣고 위에 대추의 살을 발라 찐 것이다.

4월에 먹기 좋은 것으로 장미화전(化煎), 어채(魚菜), 어만두(魚鰻頭) 등이 있다 장미화전이란 노란 장미꽃을 따다 떡을 만들고 이것을 기름에 지져 먹는 것이다. 어채란 생선(生鮮)을 잘게 썰어 익힌 뒤 외나물 국화잎, 파싹, 석이(石耳)버섯, 익힌전복, 계란 등을 섞어 무친 것을 말한다 어만두(魚鰻頭)란 생선을 넓게 잘라 조각을 만들고 이것으로 쇠고기를 싸서 만든 것이니 초장에 찍어 먹는다.

5월 단오(端午)에는 쑥떡과 수릿떡을 먹는다. 쑥떡은 쑥잎을 짓이겨 맵쌀 가루에 넣고 녹색이 나도록 반죽하여 만든 떡이다. 단오를「수릿날」이라고도 하므로 수레바퀴 모양으로 떡을 만드니 이것을 수릿떡이라 한다.

6월 유두(流頭)는 15일로 「액막」이라 하여 술을 마시니 이 유두연(流頭宴)이라 한다. 유두에는 유두연과 더불어 수전(水團), 연떡(連餅)등을 만들어 먹는다. 수단이란 맵쌀 가루나 찹쌀가루를 찌서 떡을 만들고 이것을 구슬같이 잘게 썰어 이것을 꿀물에 넣고 여름에 채워 먹는 것이다. 수단(水團)을 물에 넣지 않은 것을 건단(乾團)이라 한다. 연떡이란 밀가루로 납적하게 만든 것을 기름에 지지고 이것으로 나물을 싸거나 콩과 깨에 물을 섞은 소를 싸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오무려 만든것을 말한다. 이것을 채롱에 찌서 초장에 찍어먹는 것이니 수단(水團), 연떡(連餅) 등은 유두(流頭)날에 먹는 시절음식(時節飮食)이고 이것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삼복 더위에 먹는 삼복절식(三伏節食)이 있다 삼복하면 우선 꿈는 개국장이 있다 개고기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이 개장이다. 개국에는 고추가루를 맵게 타고 밥을 말아서 먹으면 개장국밥이 된다. 이렇게 하여 땀을 흘리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것을 보충할 수 있다.

개장국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육개장이나 삼계탕(蔘鷄湯)을 먹는다. 이런 절식(節食) 이외의 것으로 국수를 먹는다. 이곳에서 말하는 국수란 밀국수로 이것을 청채(靑菜)와 닭고기와 섞고 어저귀국(白麻子湯)에 말아 먹는 것이다. 또 국수와 미역, 닭고기를 섞고 물을 약간 쳐서 익혀먹기도 한다. 밀가루를 반죽하되 호박을 넣고 이것을 기름에 부쳐 먹는다. 또 호박과 돼지고기에 흰떡을 썰어 넣고 볶아 먹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더운 시절(時節)에 먹는 것이지만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참외와 수박이다.

8月추석(秋夕)에는 송편, 인절미, 율단자(栗團子)등을 만들어 먹는다. 송편 이외에 시루떡도 만드니 무우와 호박을 섞어 시루떡을 만든다. 인절미는 찹쌀가루를 찌서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이것을 삶은 팔이나 콩가루 또는 깨로 곁을 바른 것이다. 율단자(栗團子)란 찹쌀가루를 찌서 계란같이 둥근떡을 만들고 삶은 밤을 꿀에 개어 붙인것을 말한다. 이러한 떡 이외에 특히 보름에 토란국을 먹는다.

9月 9日, 즉 중구(重九)날에 먹는 음식(飮食)으로 국화전(菊花煎)과 화채(花菜)가 있다. 국화전이란 국화꽃을 찹쌀떡과 같이 섞어 만든 것이니 만드는 방법(方法)은 진달래떡을 만드는 것과 같다. 화채(花菜)란 배유자, 석류, 잣 등을 잘게 썰어 꿀물에 탄 것을 말한다.

10月 오일(午日)에는 팔을 넣고 시루떡을 만들어 이것을 외양간에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니 이것은 말의 건강을 비는 것이라 한다.

10月이던 농사(農事)도 끝났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다. 옛 풍속(風俗)에 특히 서울에서는 난로회를 하여 먹었다. 난로회란 화로에 숯불을 피워놓고 번철을 올려놓은 다음 쇠고기를 기름, 간장, 계란, 파, 마늘, 고추가루에 조리(調理)하여 구우면서 화롯가에 둘러앉아 먹는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골이나 불고기를 말한다. 또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무우, 외,

훈채, 계란을 섞어 장국을 만드니 이것을 열구자 신설로라 한다. 메밀가루로 만두를 만드는데 채소, 파,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로 소를 만들어 써서 장국에 익혀 먹는다 이 메밀만두 외에 밀가루 만두인 변씨만두(卞氏饅頭)가 있다 또 멥쌀떡, 꿩고기, 김치, 만두가 시절음식(時節飲食)으로 있으나 김치가 가장 맛있을 때이다. 또 이즈음의 반찬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두부인데, 가늘게 잘라 꼬챙이에 꿰어 기름에 부치다가 닭고기를 섞어 국을 끓인 것을 연포탕(軟泡湯)이라 한다 연한 쑥을 뜯어다가 쇠고기와 계란을 넣고 섞어 끓인 것을 애탕(艾湯)이라 한다. 또 쑥을 찹쌀가루에 섞어 떡을 만들고, 볶은 콩가루를 꿀에 섞어 바른 것을 애단자(艾團子)라고 한다. 또 찹쌀가루로 동그란 역을 만들어 삶은 콩을 꿀에 섞어 바르되, 붉은 빛이 나게 한 것을 밀단고(密團餠)라고한다 이것들이 모두 초겨울의 시절음식(時節飲食)이다. 찹쌀가루에 술을 쳐서 반죽하여 크고 작게 잘라 햇빛에 말렸다가 기름에 튀기면 고치같이 부풀어 오르는데 속은 비어있다 그것에 흰깨, 검은깨, 흰 콩가루, 파란 콩가루를 엮으로 붙인다. 이것을 강정(羌釘)이라 한다. 이것이 이달부터 시절(時節)음식이 되어 시장에서 많이 판다. 강정은 지금도 절식(節食)으로 흔히 볼 수 있다

11月 冬至날은 팔죽을 쑤는데 찹쌀가루로 새알 모양의 떡을 만들어 그 죽속에 넣어 새알심을 만들고, 꿀을 타서 시절음식으로 삼아 제사에 쓴다. 그리고 팔죽을 문짝에 뿌려 상서롭지 못한것을 쫓는다. 이 달은 청어(靑魚)의 철로 종묘(宗廟)와 사당에 천신한다. 또 대구와 생복(生鰻)이 제철이기도 하다. 겨울철 시식(時食)에는 설농탕이 있다.

동지(冬至)후 제 1, 제 3 미일(末日)을 람일(臘日)이라 하는데 내의원(內醫院)에서 각종 환약(丸藥)을 만들어 람약(臘藥)이라 하여 진상(進上)하고, 람향(臘享)에 쓰는 고기로는 산돼지와 산토끼 고기를 사용했다. 또

참새를 잡아 어린이를 먹이며 마마를 깨끗이 한다고 하여 이날 그물을 쳐서 참새를 잡기도 한다. 지금껏 이날은 개를 잡아 먹으면 좋다고 일러온다.

1 - 3 주 생 활 (住生活)

어떤 지역에 부착되어 있는 주민(住民)의 주거(住居)를 민가(民家)라고 한다면, 이는 인간거주(人間居住)의 최소 단위이고 물질문화(物質文化)의 기본속성(基本屬性)중의 하나이다. 민가(民家)의 형태(形態), 구조(構造) 재료(材料)등은 그 지역(地域)의 자연적(自然的) 환경과 문화적(文化的)인 전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화속성(文化屬性)이며 문화지역(文化地域) 구분의 기본요소가 되므로 시흥군 지방의 민가(民家) 파악은 곧 시흥군 지방의 지역적 특색을 보여 주는 것이된다. 그러나 민가형(民家型)의 분포가 행정단위인 시흥군과 반드시 일치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을 유의하면 시흥군(始興郡) 지방의 가옥(家屋) 특색이 곧 중부지방(中部地方)까지 포함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민가(民家)가 갖고 있는 부속시설(附屬施設)로는 장독대, 옥내(屋外) 변소, 축사(畜舍), 우물, 울타리 또는 담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이 장독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위치(位置)는 반 이상이 가옥 후면(家屋後面)에 있고 앞면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30%가량 되며 측면에 위치하는 집도 있다. 울타리는 집 전체를 둘러 싸고 있는 형식이 가장 대표적이다.

건축재료(建築材料)는 목조(木造) 초가(草家)집이 대표적이나 근래에 들어와 양와(洋瓦),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어간다.

2. 관혼상제(冠婚喪祭)

예로부터 우리 민족(民族)은 예(禮)를 숭상하여 왔다. 관혼상제(冠婚喪祭)란 우리 나라의 四禮를 말하는 것으로 관례(冠禮),婚禮(혼례),상례(喪禮),제례(祭禮)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四禮)가 조선왕조시대(朝鮮王朝時代)를 통해 전국적으로 그리고 모든 계층(階層)의 사람에게 보급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있어 시흥군만의 특색(特色)을 찾기 어렵다. 억지로라도 특색을 말한다면 충청남도(忠淸南道),전라남(全羅南)·북도(北道),경상남(慶尙南)북도(北道)등에는 소론(少論),노론(老論),남인(南人),서인(西人)등에 따라 직할(直割)이 아니라 보다 좁은 범위에서 다른 가례(家禮)를 사용하나 시흥군은 두드러진 토착성씨(土着性氏)가 약하기에 주로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사용하는 것이다.

2-1 관례(冠禮)

관례(冠禮)는 어린이에게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갓(冠巾)을 씌우는 의식(儀式)이다. 이 때 갓이란 성인임을 표시하기 위해 머리에 얹는 모자를 의미한다. 관례(冠禮)를 치루기 전에는 어린이였으나 일단 관례를 치룬 후에는 사회(社會)의 일성원(一成員)으로서 성인사회(成人社會)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되는 것이다. 결혼(結婚)을 이 후에 하는 것은 물론이다.

관례(冠禮)는 중국(中國)의 것을 받아들여 고려(高麗) 광종(光宗) 16년(965)에 왕자(王子)에게 원복(元服)의례(禮)를 행한 이래 주로 상층계급(上層階級)에서 행해져 온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성년식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비슷한 고대(古代)의 행사로 신라(新羅)의 화랑제도(花郎制度)를 드는 학자도 있다.

이 관례(冠禮)는 보통 남자는 20세(歲), 여자는 15세(歲) 전후(前後)에 행해지는데 이 시기는 관례(冠禮)를 받은 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成熟)된 시기. 즉 사춘기(思春期)에 이르는 때로서 조선 후기(朝鮮後期)에는 10세 전후에 행해지는 수도 있었다고 한다.

이 관례(冠禮)는 주례자(主禮者)의 주관하에 거행되며 주요 의식(儀式)은 삼가례(三加禮)이다. 즉, 가관건(加冠巾), 재가모자(再加帽子), 삼가복두(三加幘頭)의 세 절차가 그것이다. 초가(初加)에서는 관례자(冠禮者)의 쌍상투를 합해서 쪽찌고 망건에 관을 씌우고 삼규삼(三袿衫)을 벗고 심의(深衣)를 입힌다. 재가(再加)에서는 초가(初加)에서 쓴 관건(冠巾)을 벗기고 사모(紗帽)를 씌우고 심의(深衣)대신 조삼(早衫)에 가죽띠를 매고 계해(繫鞋)를 신게 한다. 삼가에서는 복두(幘頭)를 씌우고 幘衫에 띠를 매고 신을 신긴다. 이 세 가지 의식(儀式)은 일정한 격식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며 매번 주례자(主禮者)인 賓이 축사(祝辭)를 낭독한다.

여자의 경우는 계(笄)라 하여 어머니가 주관하며 쪽을 짓고 비녀를 꽂아 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상과 같은 관례(冠禮)는 남자(男子)가 일단 성년식(成年式)에 달하면 상중 喪中 기간을 피하여 가장(家長)을 비롯한 친척이 참석하여 장로(長老)의 인도로 가관착복(加冠着服)이 행해지는 의식(儀式)으로 예(禮)가 끝나면 자(字)가 수여되고 사당(祠堂)에 告한뒤 참석자(參席者)들에게 절을 하는것이 보통으로 이후로는 성인(成人)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여자(女子)의 경우는 대개 혼사(婚事)를 앞두고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一般的)이다.

오늘날 이 관례(冠禮)는 민속(民俗)에서 사라져 버렸으나, 그 동기(動機)에 대해서는 갑오경장(甲午更張)때에 내려진 단발령(斷髮令)과 그 후 머리를 땅지 않고 상투를 떼어 버림으로서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된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관례는 어디까지나 일부 상류층(上流層)에서나 행해진 것이지 일반 서민(庶民)들에게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혼례(婚禮)에 포함되어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이 관례(冠禮)만은 오늘날의 민속(民俗)도 과거 대중(大衆)의 민속(民俗)도 아님을 알 수 있다.

2-2. 혼례(婚禮)

사람은 누구나 대체적으로 일생에 한번씩은 결혼(結婚)을 하게 마련이다. 물론 승려(僧侶) 중 비구니나 신부(神父), 수녀(修女) 또는 독신주의자(獨身主義者)들은 여기서 제외되겠지만 대개 한번의 결혼(結婚)을 하여 가정(家庭)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결혼(結婚)의 의례(儀禮)인 혼례는 사람의 일생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의례(儀禮)로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혼인은 남녀의 결합(結合)을 사회적(社會的)으로 인정(認定)받는 의식(儀式)으로 문공가례(文公家禮)에는 의혼(議婚),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육례(六禮)가,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의혼(議婚), 납래(納來),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복잡한 의식순서(儀式順序)가 정해져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을 말한 것이지 꼭 그대로 지켜 온 것은 아니며 형편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1) 의혼(議婚)

혼인할 나이가 된 子女를 가진 집에서는 혼인문제(婚姻問題)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된다. 그도 그럴것이 혼인은 일생의 대사이며 혼인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일생을 살아가느냐를 좌우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멀고 가까운 친척(親戚)또는 이웃에게 적당한 혼인을 부탁하는 일이 많다. 여기서 중매인(中媒人)의 역할이 시작된다.

구식혼인(舊式婚姻)에서 중매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예전에는 전문적(專門的)인 중매인도 있어 이를 「중매장이」, 「중매꾼」,이라 하였으나, 흔히 어느 한 쪽의 친척(親戚)이 중매인이 되는 수가 많다. 이렇게 해서 중매가 들어오면 양가(兩家)에서는 서로 상대가(相對家)의 집안 사정에 대해 심문하기 시작하고 궁합(宮合)을 본다든지 당사자의 사람 됨됨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본다.

요즘은 당사자간에 맞선을 보기도 하고 양가 부모(兩家父母)가 먼저 만나기도 하나 예전에는 당사자의 부모끼리 중매인을 통해 일단 혼인시킴으로 합의하여 정혼하게 되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사주와 정혼서를 보내는 것이상례이었다. 이를 납채(納采)라 한다 사주는 백지에 신랑의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적고 이를 5간으로 접어 큰 봉투에 넣은 뒤 전면 「사주」라 쓰고 이면(裏面)에는「근봉」이라 써서 싸릿대에 끼우고 청홍실로 매어 사주보에 싸서 중매인이 신부 집에 전하는 것이다. 사주를 받은 신부 집에서는 허혼서(許婚書)와 택일(擇日)을 보내는데 허혼서에도 일정한 양식(樣式)이 있다 택일은 연길(涓吉)이라고도 하며 전안(奠雁)년월일과 납폐시일(納幣時日)을 기입하되, 양가의 서신은 모두 주혼자인 부모의 명의로 한다.

납폐(納幣)는 함과 보내는 것인데 다른 지방에서는 약간 다른 면도 있으나 대체로 혼인 전날에 보내거나 당일 신랑과 같이 보낸다 함에 들어있는 물건으로는 보통 신부치마 저고리감 두 벌 정도와 예장서(禮狀書)

라는 혼서지를 넣었다. 혼서지(婚書紙)는 일종의 혼인문서인 셈이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는 달리 근래에는 약혼식(約婚式)에서 예물이 교환되고 사주가 오가거나 또는 납폐만은 결혼 전일에 신랑의 친구들이 가져가거나 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혼례식(婚禮式)

혼례를 올리기 위해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것을 초행(初行)이라 한다. 신부집이 멀면 아침 일찌기 떠나야 하는데 이때 동행자로는 신랑집을 대표하여 신랑의 부친 또는 조부, 두 분 다 사망했으면 백부가 가는데 이를 「상객」이라 한다. 이외에 따르는 사람으로는 함과 관복, 또는 오리를 갖고 가는 「함진애비」와 「중방」이 있다. 또한 「후객」이라 하여 2~3명이 따르기도 한다.

신랑일행이 신부의 부락에 다다르면 신부 집에서 「대반」또는 「인접」이라 부르는 안내원이 나와 이들을 「정방」으로 안내한다. 「정방」이란 신랑일행이 잠시 여장을 풀고 쉬는 곳으로 한집의 사랑채와 방 하나를 빌어 신랑이 올 방향에서 신부 집을 건너지 않은 곳으로 정한다. 신부 집에서는 이들에게 간단한 술상을 차려오고 요기가 끝나면 신랑은 집 안에서 사모관대(紗帽冠帶)를 입어 성장(盛裝)을 하고 함진애비는 납폐시에 맞추어 신부집에 들어간다.

신부 집에서는 납폐에 대한 준비로 따로 명석을 깔고 상을 놓고 병풍을 쳐 놓으면 함진애비는 함을 벗어 상위에 놓는다. 이 때 신부측에서는 다복(多福)한 여자가 이를 받아 안방으로 가져가 깔고 앉으면서 『복 많이 왔네』하고 소리치면 신부 어머니는 함에 손을 넣어 처음 잡히는 옷감의 색이 무슨 색인가를 본다. 함진애비에게는 수고했다고 노자

(路資)를 주고 술을 대접한다.

납폐가 끝나고 나면 곧 혼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신부집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휘장을 두르고 가운데에 대례상(大禮床)을 준비한다. 이 상은 「친영상」 또는 「교배상」이라고도 한다. 상 위에는 보통 촛대 둘, 송죽이나 사철나무를 꽃은 꽃병, 밤, 대추, 쌀, 보에 싼 암탉과 수탉, 그리고 청홍실과 쪽바가지 두 개를 놓는다.

신랑이 입장함으로써 혼례식(婚禮式)이 시작되는데 이때 식순을 알리기 위해 글 많이 배운 노인이 활기를 부르는 일이 많다. 혼례식은 이 활기(笏記)에 따라 진행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하마(下馬) : 전에는 가마나 말을 타고 왔기 때문에 그랬으나 요즘은 흥내만 내느라 문전의 쌀가마를 던고 넘어선다. 이 부분은 생략되기도 한다.

贊者揖婿人 : 문에 들어선 신랑을 대반이 안내하여 들어온다.

奠雁廳 : 대반이 신랑을 전안청(奠雁廳)에 안내한다.

從者奉雁援之婿 : 목안을 들고 신랑 뒤를 따라온 사람이 신랑에게 목안(木雁)을 주면 신랑은 이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고 있다.

婿執雁北問詭 : 신랑이 목안을 들고 전안상(奠雁床)앞에 무릎을 꿇고 앉되 방향은 북향으로 한다.

置雁於地 奉雁置于卓上 : 신랑이 목안을 전안상 위에 놓는다.

俛伏興再拜 : 신랑이 잠시 허리를 구부렸다 일어서서 큰절 두 번을 한다. 이 때 신부 어머니는 목안을 싸서 빨리 신부가 있는 안방으로 던지는데, 이것이 바로 서면 첫아들, 누우면 딸을 각각 낳는다고 한다. 이것으로 소례인 전안례, 즉 부부의 맹서(盟誓)가 끝난다.

贊者引婿 : 대반이 신랑을 안내하여 자리를 옮긴다.

交拜席前：신랑이 안내를 받아 대례 올릴 교배상(交拜床)앞에 온다. 이때 신랑은 상 동쪽에 선다.

盥洗位南向立：손을 씻고 남향으로 선다는 것이다 대반(對盤)이 떠 온 물에 손을 씻는 척만 하고 수건으로 닦고 남향하여 선다.

婦引交拜席前：원삼(圓衫)족두리에 곱게 단장한 신부가 양쪽에 인접의 부축을 받으며 얼굴을 가린채 광복으로 갈아 놓은 위로 걸어 대례상 서쪽에 선다

盥洗位北向立：신부가 손을 씻고 북향하여 선다 그러나 옆에 있는 인접이 손만 적실 뿐이다.

婿揖婦就席：신랑이 먼저 대례상을 마주 보고 제자리에 서서 약간 고개를 숙여(읍)(揖)을 하면 신부는 제자리에서 신랑을 마주보고 선다.

新婦再拜：신부가 신랑에게 큰 절을 두 번 한다.

婿答一拜：신랑이 신부에게 큰 절을 한 번 한다.

新婦又再拜：신부가 다시 두 번 절한다.

新郎又答一拜：신랑이 답(答)으로 다시 한번 절한다. 이것으로 교배례가 끝나고 다음은,

新郎新婦各詭：신랑 신부가 제자리에 앉는다.

餞拜禮再行如之！：합근례(合巹禮)를 행하라는 것이다 첫 잔과 둘째 잔은 각기 마시고 세째 잔을 교환하거나, 첫째 잔은 신부가, 둘째 잔은 신랑이 주고, 세째 잔을 교환하는 수도 있다.

대례필(大禮畢)：이것으로 혼례의 핵심인 소례·대례가 다 끝난다.

대례가 끝나면 신부가 병풍을 쳐 놓은 안방에 먼저 들어가고, 신랑은 후에 들어가거나 다른방으로 가기도 한다. 이때 신랑은 「관대벗김」이라 하여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 집에서 만든 옷으로 갈아 입는다.

이어 신랑은 간단한 요기상을 받고 이것을 물리고 난 뒤 상객과 함

게 별도의 큰상을 받는다. 여기 올린 갖가지 음식은 후에 신랑 집으로 보내진다. 상객은 사돈댁 어른과 인사를 나눈 뒤 보통 혼례일에 돌아간다.

신부가 혼례를 치룬 그날로 신랑과 함께 시가(姻家)로 가는 일도 있는데 이를 「당일우귀(當日于歸)」라 한다.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기 위해 신방에 들면 「주안상」이라는 간단한 술상이 들어간다. 신랑 신부는 간단히 요기한 후 신랑이 신부의 족두리와 의복을 벗기고 잠자리에 드는데 이때 「신방엿보기」라 하여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들이 신방(新房)의 창문을 뚫어 구경한다.

이튿날 신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이나 떡국을 신랑에게 대접한다. 아침 식사 후 신랑은 신부의 부모나 가까운 친척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오후에는 신부측 젊은이들이 「신랑다루기」또는 「동상례」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 폐단이 심해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수가 일반이었으나 근년에는 이런 풍속을 보기 힘들다. 3일째되는 날 신랑과 신부일행이 신랑집으로 떠나는데 이를 「신행」이라 한다. 예전에는「해묵이」 또는 달묵이라 하여 해를 넘기고 달을 넘긴 후 신랑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

어쨌든 구식(舊式)의 혼례식은 이렇게 까다롭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 오늘날에는 많이 간소화 되었다.

3) 新行(신행)

신부가 친정을 떠나 시가로 가는 것을 「신행」이라 한다. 신행길에는 신부와 함께 많은 사람이 동행하게 되는데 대체로 신부 집을 대표하는 상객(上客), 신부 수중을 드는 수모, 그리고 짐꾼이 따르고 신랑이 앞장을 선다. 이때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탄다. 신부측 상객은 신

랑측 상객과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나 조부가 되고 수모는 이모나 고모가 아니면, 친척 중 젊은 부인이 가거나 하님이 간다.

신부가 신랑의 마을에 이르면 신랑이 신부의 마을에 갔을 때와 같이 정방에 들어 쉬었다 가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바로 신랑집에 들어간다. 이 때 집 앞에 짚불을 피워 이것을 뛰어 넘게 하거나 양쪽에 불을 피워 지나가게 하고 소금이나 팔 또는 묵화씨 등을 뿌려 부정을 막는다.

신부의 가마가 마루 앞에까지 와서 내리면 신랑이 가마 문을 열어 주고 신부는 가마에서 나와 정한 방에 들어간다. 이 때 신부가 가마에서 내리면 신부 가마에 깔았던 짚방석을 지붕 위에 던진다. 이것은 신부가 도착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방에 들어간 신부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간단한 요기상이 들어오고 조금 뒤에 신부와 상객은 신랑집에서 준비한 큰상을 받는다. 이 역시 별로 손대지 않고 물리면 상에 있는 음식을 빠짐없이 광주리에 담아 신부 집에 보낸다.

신부가 시가에 와서 드리는 인사가 곧 「폐백(幣帛)」으로 이를 「구고례(舅姑禮)」라고도 한다. 신부는 친정에서 준비해 온 대추, 밤, 술, 안주, 과일 등을 상 위에 놓고 시부모와 시가의 어른에게 근친의 차례로 큰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 제일 먼저 신부, 즉 며느리에게 절을 받은 시부모는 치마에 대추를 던져주고 부귀다남(富貴多男)하라고 당부한다. 이 때 신부는 시부모와 시집 식구들에게 줄 옷이나 버선 등 선물을 내놓는다.

다음날 아침 신부는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하고 시부모에게 문안인사(問安人事)를 올린다. 이 문안인사는 시부모가 그치라고 할 때까지 계속되지만 보통 3일 내에 그친다.

시집 온 지 3일간은 신부가 부엌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기간에 가까이 있는 친척들은 신부를 식사에 초대한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새며느리를 데리고 다니며 인사를 시키고 시가의 친족관계(親族關係)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알게 해 준다. 새며느리의 정상생활은 시집 온 지 나흘째 되는 날부터 부엌에 출입함으로써 시작된다.

예전에는 시집 와서 첫 농사를 다짓고 수확한 곡식으로 떡과 술을 만들어 친정에 나들이, 즉 「근친 觀親」을 갔으나 요즘은 신행한 지 1주일내에 신랑 신부가 같이 근친간다. 신랑이 초행 갔다 3일만에 신행이 있으면 신랑에게는 재행이 되는 셈이다.

재행 갈 때에는 신부의 친족이 음식을 장만하여 신랑을 초대하여 이때는 부모가 안내를 맡아 신부의 친족들에게 인사를 시킨다. 이렇게 며칠을 지내고 신랑 신부가 본가에 돌아오면 신부에게는 한 집의 며느리로서 주부로서의 본격적인 살림이 시작된다.

오늘날 관례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 행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 나머지의례중에서는 특히 혼례가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례의 순서나 내용이 많이 약화되거나 생략되고 있다. 더우기 현대의 자유혼의 풍조는 이러한 의례적 관습의 변화를 촉진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혼례를 의례, 혼례식, 신행으로 나누어 그 의례적인 측면을 보았다.

2 - 3. 상례(喪禮)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의례가 곧 상례이다. 상(喪)이란 원래 사망을 뜻하며 특히 자녀가 그의 부모의 사망을 말할 때 상이라 하며, 따라서 상은 애(哀)를 뜻하며 부모의 상을 친상, 친족 방친에의 상을 방친상이라고도 한다.

한편 상이란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哀悼)의 뜻을 나타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례는 조상숭배(祖上崇拜)에 기인한례의 일종으로 제와 함께 선인에 대한 의례이니, 상례를 흥례, 제례를 길례라 한다. 이 중 상례는 유교적(儒敎的)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영역으로 그 절차와 형식은 오늘날에도 변화가 심하지 않다.

여기서는 사람의 임종부터(臨終)검습(斂襲)출상(出喪)대소상(大小祥) 그리고 제령(除靈)의례(禮)까지를 초종(初終)습검(襲斂)치장(治葬), 그리고 흉제(凶祭)로 나누어 본다

1) 초종(初終)

부모의 병이 위독하여 운명할 기미가 보이면 병자(病者)를 시체(屍體)모실 안방이나 대청으로 모시는데 남자는 정침(正寢)에, 여자는 내침(內寢)에 천치(遷置)한다 이를 천거정침(遷居正寢)이라 하는데 즉 남자가 죽음에 임하여 정침에 천귀(遷歸)함으로써 남여의 별(別)을 명백히 하고 죽음을 정히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가(班家)의 습속일 뿐 일반민은 보통 안방으로 모시는 것이 통례이다 자손(子孫)들은 집 안팎을 조용하게 하고 개복(改服)한 다음 부모의 손발을 잡고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 보는데 이를 임종(臨終)이라 하고, 임종을 못 보는 것을 큰 불효로 여긴다

임종할 방에 옮겨진 부모는 동쪽에 머리를 두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 입히고 바로 누어 놓는다. 혹 유언(遺言)이 있으면 이를 머리맡에 앉아 받아 적는다.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예서(禮書)」에는 임종시 남자는 남자의 손에, 여자는 여자의 손에서 숨을 거두어야 한다고 하나, 이는 남녀의 내

외법의 일종으로 생각되며 잘 지켜지지 않는다. 마지막 숨이 단절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숨을 입 위에 놓고 숨이 그치는 것을 지켜보니 이를 속광(屬纊)이라 한다.

이렇게 사마가 완전히 확인되면 모여앉았던 자손들이 애곡벽옹(哀哭擗踊)하니, 즉 소리를 질러 비통하게 곡을 하고 가슴을 치며 발을 구른다는 뜻이다.

한편 밖에서는 영혼(靈魂)을 부르는 고복(皐復)을 한다. 「예서」에는 망인(亡人)의 옷옷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 왼손으로 옷깃을, 오른손으로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해 흔들면서 남자는 관직(官職)명이나 자를, 여자는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 고복(皐復)이 끝나면 지붕에서 내려와 고복을 한 옷을 시체(屍體)의 가슴 위에 얹는다. 고복하는 옷은 벼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공복 또는 심의(深衣)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의나 도포(道袍), 여자는 저고리를 사용한다.

그러나 근래에 행해지는 고복은 마당에 서서 지붕을 보고 오른손으로 망인의 속적삼을 잡고 왼편으로 흔들면서 망인의 주소, 성명을 말한 뒤「복, 복복」하거나 그냥 세 번 「복」만 부르거나 또는 『돌아다 보고 옷이나 가져가시오』라고 외치기도 한다. 그리고 속적삼은 지붕 위에 던져 두었다가 후에 내려서 시체(屍體)가슴위에 얹는다

고복은 떠나가는 영혼을 다시 불러 재생시키는 일종의 초혼의례(招魂儀禮)이며 흰 적삼을 지붕위에 얹는 것은 타인에게 상가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고복에 이어 사자상(使者床)또는 사자밥을 차리는데 이것은 「예서」에는 없다고 하여 안하는 집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사자상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 사자상은 사자가 3명이라고 생각하여 밥 세그릇, 반찬, 돈, 짚신 세 켤레 등을 멍석이나 푼주 위에 올려 놓기도 하고 상 위에 올려놓기도

하니, 이 때 상주들은 재배(再拜)하고 곡(哭)을 한다.

한편 방안에서는 망인을 지켜 보던 처자녀들이 머리를 풀어 피발(被髮)하고 패물 등을 빼고 흰두루마기를 입되 부상이면 좌측 팔을, 모상이면 우측 팔을 끼지 않는 좌단우단(左袒右袒)의 격식을 갖추고 시체앞에 부복하여 근신(謹慎)하되 망인의 친자는 3일 불식하고 기공 이하의 근친은 멸식(滅食)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복이 끝나면 시체가 굳기 전에 반듯이 놓고 간단하게 묶어 놓는데 이를 「수시」또는 「소검」이라 한다. 「예서」에는 풀숨으로 입과 코를 막는 정도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복잡하다. 우선 나무 세 토막 또는 짚 세 뭉치를 베개와 같이 만들어 옷목에 끼거나 또는 머리만 옷목으로 가게 하고 그 위에 칠성판 또는 시송판이라 하는 널판을 놓고, 그 위에 시체를 놓되 손을 앞으로 모아 겹치게 한 다음 이를 허리까지 묶고, 다리를 고르게 하되 발바닥을 위로 치키고 엄지 발가락을 끈으로 매고 시체의 몇곳을 묶은 뒤 홀이불을 덮어 놓고 앞에는 병풍을 쳐 놓는다.

병풍 앞에는 작은 상을 놓으니 이를 「시사전(始死奠)」이라 한다. 이 상에는 혼면(魂帛)을 만들어 놓고 생전음식보다 나은 포혜주과(脯醢酒果)를 놓는다. 「예서」에 의하면 혼백은 백읍(白緇)을 결하여 만든 것이나 일반적으로 쓰는 것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종이를 접어 사통팔달(四通八達)이 되게 하고 오색실로 묶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적백 삼색실로 정자(井字)가 되게 만든 것으로 이 혼백은 작은 상자에 넣어 상위에 둔다.

상(喪)은 갑자기 당하는 일이므로 상사(喪事)를 여럿이 분담한다. 여기에는 상주·주부·호상·사빈·사서·사화·찬축(喪主, 主婦, 護喪, 司賓, 司書, 司貨, 贊祝)이 있다. 상주는 주상자로 시체를 지키고 시사전(始死奠)앞에서 봉사(奉祀)하는 사람이니 적장자(嫡長子)가 이에 해당된다. 만일 적장자가 없으면 승중장손(承重長孫), 차적지손(次嫡子孫), 접출자손(接出子孫), 순위로 정한다. 일단 상

주가 정해지면 형제들은 상주 유고시 동거친으로서 그를 대리하여 분향(焚香)할 수 있으되 여자는 상주(喪主)가 못된다.

주부란 자부들을 통솔하여 상사(喪事)를 치르는 여자로 망인의 처(妻)가 되는데 만일 妻가 없으면 상주의 妻가 된다. 호상(護喪)이란 상주를 도와 제반 상무를 집행 처리하는 사람으로 근친(近親)중에 예에 밝은 사람이 맡는다 사빈(司賓)은 외청(外廳)에서 빈객(賓客)을 접대하는 사람으로 망인의 친구(親舊)중에서 뽑는다. 사서와 사화(司貨)는 상사 중 기록할 사항과 財貨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근친(近親)이나 친구(親舊)중에서 택한다. 찬축(贊祝)은 원래 찬과 축을 말하는 것으로 찬은 찬명(贊鳴)이라고도 하는 의례 때 창(唱)하는 사람이고 축은 축문을 읽는 사람으로 친족이나 친구 중에서 택한다.

상보(喪報)를 알리는 것을 부고(訃告)라 하며 무엇보다 급한 상사이다. 근친에게는 직접 사람을 보내 알리나 원친(遠親)이나 친구(親舊)에게는 사서(司書)가 부고장을 통지하고 관에 제출한다. 부고는 원래 간단하게 「성명(상주명)대인 모관공(某官公)」이라 하고 「이숙환금월모일별세전인부고」(以宿宿患今月某日別世專人訃告)라 하고 년월일과 호상 성명에 상이라고만 기입하던 것인데 요즘에는 흔히 신문지상(新聞紙上)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 되어 상주와 자손, 여서의 이름까지 적어 넣게 되었다.

2) 습검(襲歛)

다음 차례는 시체를 목욕시키고 묶어 관에 넣는 것으로 이에선 습과 소검, 대검이 있다 습은 시체를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 입히는 것이고 소검(小歛)은 시체를 묶는 것이고, 대검(大歛)은 시체를 단단히 묶고

입관(入棺)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운명한 당일에 습(襲)하고 다음날에 소검하고 3일째에 대검하였으나 요사이는 이를 한번에 하며 「습검한다」또는 약하여 「검한다」라고 한다.

습할 사람은 습에 필요한 의상(衣裳)과 기구, 즉 습의, 솜없는 홑이불인 복금(復衾), 시체를 묶을 교포(絞布) 시체 놓을 칠성판, 반함(飯含)에 필요한 것을 갖고 시체실에 들어간다.

먼저 시체를 시상(屍床) 위에 놓은 채 수시(收屍)했던 끈을 풀고 옷을 벗긴후 미지근한 물에 향나무를 넣은 향수를 솜에다 찍어 시체를 씻긴다.

예전에는 전신을 씻겼으나 근래에는 얼굴, 손등, 발등에 몇 번 향물을 찍어 문지르는 정도이다

시체를 목욕시키고 머리를 빗기고 여상의 경우는 버드나무 비녀를 꽂는다. 이 때 손톱과 발톱을 깨끗이 깎고 떨어진 머리카락을 모아 베로 만든 작은 주머니인 조발낭에 넣는다. 이것은 모두 4개로 관에 넣거나 습의 소매나 버선 등에 넣는다.

다음에는 수의(襖衣), 즉 습의를 입힌다. 옛날에는 소검에 입히는 검의와 수의가 따로 있었으나 지금은 검의가 없다. 수의로는 적삼, 고의, 도포, 두루마기를 입히고 버선을 신기고, 행전(行纏)과 대님을 치고 손에는 주머니 모양의 악수(握手)를 끼고 얼굴에는 면건을 덮는다 옷을 입힐 때에는 이불을 덮고 홑이불의 네귀를 사방에 잡아 시신(屍身)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습이 끝나면 반함이라 하여 물에 불린 쌀을 버드나무 수저로 세 번 입에 떠 넣는다. 이것은 망인이 저승까지 가면서 먹는 식량이라 한다. 쌀을 넣을 때에는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가운데에 도합 세번을 넣되 첫번 손가락을 넣으면서 「백석이요」 다음에는 「천석이요」, 「만석이요」라고 한다. 다음에는 동전(銅錢)을 넣는다.

반함(飯含)에 이어 교포(絞布)로 시체를 묶는 점을 한다. 교포는 세로
를 묶은 뒤에 가로로 묶으면서 가로의 매수는 시체의 크기에 따라 5
매듭 또는 7매듭으로 묶고 순서는 발끝에서 위로 3매듭 다음에 머리
쪽으로부터 아래를 묶어 내려가 가운데 부분을 나중에 묶는다. 묶는 방법
은 교포 한자락을 두 가닥으로 쪼개어 시체가 고루 싸이게 하고 오른
쪽 교포가 밑으로 위로 왼쪽 교포가 가게 하고 매듭을 짓지 않고 틀어
서 끼운 후 남은 가닥은 다음 가닥 밑으로 끼운다 교포를 다매면 고깔이
라 하여 창호지를 접은 것을 묶은 사이 사이에 끼워 밑으로 향하도록
한다. 집안 사람이나 친구들을 불러 만들어 쫓는 곳도 있다. 이것은 망
인이 저승의 열두 대문을 지날 때 문지기에게 썩워 주는 것이라 한다.

다음에는 시체를 입관하는 일로 바로 입관(入棺)하는 곳도 있고 칠성
판(七星板)에 묶어 입관하는 곳도 있다. 칠성판이란 시체 크기만한 송 판
에 북두칠성을 그린 것으로 그 위에 시체를 놓고 칠성칠포(七星七布) 라
고 하는 일곱 자 일곱 치로 된 베로 감는다. 칠포를 감는 방법은 두
가닥으로 쪼개어 끝에 한 자 정도는 붙여 두고 발부터 싸맨 후 어긋매
껴서 싸 올라가고 포의 끝은 매듭을 짓지 않고 바늘로 꿰맨다

입관은 지금(地衾)이라는 흙이불을 관위에 팽팽히 걸쳐 놓고 그 위에
시체를 놓은 후 차츰 흙이불을 낮추어 관바닥에 시체가 닿도록 한다.
어깨나 허리, 다리 등이 있는 빈 곳은 짚이나 종이 또는 헨 옷으로 채
우며 이를 「보공」이라 한다. 이렇게 시체가 흔들리지 않게 한 후 그위
에 다른 흙이불인 천금을 덮고 관 뚜껑을 닫고 나무못을 친다 입관시
는 망인을 마지막 보는 것이라 자녀들은 호곡벽용(號哭擗踊)한다.

입관이 끝나면 널 위에 남자는 「모관모공지구(某貫某公之柩)」라 쓰고 여
자의 경우는 「모봉모씨지구(某封某氏之柩)」라 쓴다. 지방에 따라서는 상하만
기입하기도 한다 다음에는 짚과 종이를 섞어 외로 끈 밧줄로 결관(結棺)

을 한다.

입관이 끝나면 혼백(魂帛)을 영좌(靈座)에 안치하고 영영(靈影)을 놓고 명정(銘旌)을 오른쪽에 걸쳐 놓는다. 이 때 상제(喪制)들은 지금까지 입었던 통건과 소복(素服)을 벗고 복제에 따라 상복(喪服)을 입고 성복제(成服祭)를 지낸다. 상복은 친소(親疎)에 따라 참최(斬紵), 제최, 대공, 소공, 사마(緦麻)의 5종으로 나뉘어 상복 베의 질을 달리하고 부속물도 달리한다.

복인은 자기 자기 처지에 맞는 상복을 다 입고 명정을 세우고 영좌 앞에 제수를 차리고 분향(焚香)하고 상주로부터 차례로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이 때 술잔은 보통 제사(祭祀)와 달리 한잔만 올린다.

성복 후에는 정식으로 조객을 맞이하여 상주와 절을 하게 한다. 조객은 자기 집을 떠나 상가에 오기까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조상와서는 영좌 앞에 분향하고 곡을 한 다음 재배(再拜)하고 상주에게 절하면서 『상사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또는 『갑자기 변고를 당하여 망극하십니다』하고 조의(弔意)를 표하면 상주는 곡하면서 맞절을 한다.

3) 치장(治葬)

장이란 시체를 지하에 埋藏(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장지와 장일을 정한 후에 출상한다. 장지로는 이른바 명당(明堂)자리를 고르는데 이는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따른 것으로 풍수사, 지관들이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예기」에 의하면 사회계급(社會階級)에 따라 장기(葬期)와 장일이 달라 대부(大夫)는 3개월, 선비는 1개월을 지내고야 장례를 지냈으며 기한전에 하면 불회(不懷)라 하였고 기한이 지나면 태례(怠禮)또는 태례(殆禮)

라 하였다. 요즈음은 3일장, 5일장이 일반적이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출상 전일(出喪前日)저녁에 빈 상여를 가져오고 선 소리꾼과 상여 멜 상여꾼들이 모여「상여놀이」를 한다. 상여놀이는 빈 상여나 혹은 상여 위에 복인(服人)을 태우고 상여꾼이 발을 맞추어 보고 마당을 몇 바퀴 도는 것이다. 지방에 따라서는 상여줄을 모여서 꼬기도 하며, 상가(喪家)에서는 상여를 잘 메어 달라고 술대접을 한다.

옛날에는 장일(葬日)을 신주(神主)를 만들어 혼백(魂帛)과 같이 영좌에(靈座) 두고 상주복인(喪主服人)들이 관을 들고 가묘(家廟)에 고한 후 관을 내갔으나 지금은 지방(紙榜)으로 대신하고 가묘(家廟)도 거의 없어져 그냥 나간다. 관이 방을 나올 때에는 관을 세번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관으로 바가지를 깨뜨리고 나오거나 도끼나 톱으로 문지방을 약간 치고 나오기도 한다.

방에서 관을 내온 후 상여 앞에 관을 놓거나 상여에 얹고 집에서 마지막으로 제를 올리니 이를「발인제」라 한다. 발인제는 상주로부터 차례대로 행사하되 역시 단작단배(單酌單拜)로 한다.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꾼이 상여를 들고 세 번 올렸다 내렸다 하직인사(下直人事)를 하고 어깨에 멘 다음 상여머리를 돌려 집을 나선다.

행렬(行列)의 순서는 맨 앞에 명정(銘旌)이 서고 다음에 혼백(魂帛)과, 영영(靈影), 향합(香盒)등 영좌에 놓았던 것을 담은 영여(靈輿), 다음에 공포(功布), 만장(輓章), 운아삼(雲亞紵)등이 열을 짓고 다음에 상여, 상주, 복인, 문상객(喪輿, 喪主, 服人, 問喪客)의 순서로 나간다. 예전에는 상여 앞에 귀신을 쫓는다는 가면을 쓴 사람이 칼춤을 추고 갔는데 이를「방상(方相)」이라 한다.

「예기」에는 없으나 농촌에서 요즘 많이 행해지는 것음로 「로전제」가 있다 이는 행상 도중에 상여를 놓고 영여 앞에 제상을 차리고 다시 한번

모두가 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것으로 길에서 지내는 제라 로전제(路奠祭)라 하지만 곳에 따라서 차자(次子)나 극진한 친구가 망인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자기 집 앞을 영구가 지날 때 제사를 올리는 것이라고도 한다. 또한 부락에 따라서는 부락앞을 떠나는 마지막 행사라 하여 「고별제」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로전제(路奠祭)을 지낸 후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상여(喪輿)가 출발하면 장지(葬地)에서는 광중(壙中)을 파기 시작한다. 산역(山役)이 시작되기 전에 간단히 음식을 차려 놓고 깨끗한 사람이 산신제(山神祭)를 지내고 땅을 헐기 시작한다.

상여가 장지(葬地)에 도착하면 상여 옆에 영좌를 설치하고 과물(果物)을 차리고 조객(吊客)의 조문(吊問)을 받는다.

산역은 지관의 명에 따라 한다. 굴토(掘土)가 끝나면 전에는 굴 껍질과 회를 섞어 그 안을 발랐는데 이를 「회격(灰隔)」이라 한다. 천광(穿壙) 회격(灰隔)이 끝나고 하관(下棺)시간이 되면 지관(地官)은 하관을 명하고 이 때 살이 있는 사람은 잠시 자리를 피하게 한다.

때를 맞춰 상제들은 상여에서 관을 운반하여 끈을 매고 천천히 광내(壙內)에 내린다. 관은 지관(地官)이 정한 금정(金井)과 시체의 방향에 꼭 맞게 광내에 놓여져야 한다. 시체는 보통 머리를 북쪽에, 발은 남쪽에 가게 하니 이를 「좌문」이라 한다.

관이 반듯이 놓이면 관옆 빈 곳에 석회(石灰)나 세사(細沙)나 황토로 관 높이까지 채우는데 이를「보토」라 한다. 시체만을 넣을 때는 시체의 윗면까지 덮는다. 그리고 상주가 동심결(同心結)을 역인에게 주면 역인이 시체 가슴 위에 엮는다. 그 위에 다시 명정(銘旌)을 깔고 그 위에 다시 동천개라 하여 참나무나 버드나무 또는 대나무를 홀수가 되게 나란히 놓는다. 관째 넣은 곳에서도 동천개를 덮는 수가 있다. 또 동천개를 다 덮

고 머리 쪽의 것을 하나 벗겨 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상주가 먼저 흙을 붓고 역인이 매장을 한다 이때 상주는 삼으로 흙을 떠서 붓기도 하고 또 옷자락에 흙을 담아 시체 또는 관의 위, 중간, 아랫 부분의 세 곳에 흙을 조금씩 붓기도 한다. 흙이 어느 정도 쌓이면 한번 다진 후에 다시 흙을 넣어 광내(塋內)에 재운다. 한편 산역을 하는 도중 그 옆에서는 영좌와 탁자(卓子)를 놓고 글을 쓰는 제주(題主)를 하였으나 근래에는 신주(神主)를 모시는 사람이 광내가 메워져 평지와 같이되면 평토제를 지낸다. 지방에 따라서는 봉분을 만든뒤 평토제를 지내는 곳도 있다. 평토제를 끝으로 상주는 영좌의 신주나 혼백을 모시고 오던 길로 다시 집에 간다. 집에 다다르면 주부가 곡(哭)을 하면서 이를 맞아 상청(喪廳)에 모신다.

4) 흉제 凶祭

치장(治葬)이 끝난 후 길제(吉祭)까지의 제사(祭祀)를 흉제(凶祭)라 한다. 이는 영좌가 산에서 반혼(返魂)하여 반혼제(返魂祭)를 지내면서부터 탈상(脫喪)까지의 제사를 의미한다.

반혼제(返魂祭)는 시체를 묻고 신주나 혼백(魂帛)만을 모시고 지내는 첫 제사로 곡만 하는 곳도 있고 다음에 본 초우제(初虞祭)를 겸하는 곳도 있다.

우제(虞祭)란 위안(慰安)하는 제사라는 뜻이니 시체를 보내고 영혼을 맞이하여 지내는 제사로 초우제(初虞祭), 개우제(再虞祭), 삼우제(三虞祭)가 있다. 초우제(初虞祭)는 장일(葬日)에 지내는 것으로 장지가 멀어서 당일 영좌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면 주막집에서라도 지내야 되는 것이다. 개우제는 초우제(初虞祭)를 지낸 뒤 처음 맞는 유일(柔日), 즉 을, 정, 기, 신, 제 일(乙, 丁, 己, 辛, 祭日)에 지내고, 삼우제(三虞祭)는 개우제(再虞祭) 뒤의 첫

강일(剛日), 즉 甲, 丙, 戊, 庚, 任일에 행하는 것이다.

우제(虞祭)의 절차는 대개 다음과 같다. 우선 집사자(執事者)가 영좌 앞에 나물, 과일, 포, 술 등을 진설하고 준비가 끝나면 혼백을 열어 놓는다. 이 때 상주 이하의 온 가족이 들어와 곡을 한다.

강신: 집사자(執事者)가 곡을 그치고 하고 상주가 분향하고 재배(再拜)한다. 술잔에 술을 따라 오른손으로 술잔을 들고 모사(茅砂)위에 조금씩 세 번을 부어 반 잔쯤 남게 제자리에 놓고 개배한 후 물러선다.

進饌: 어육 등을 먼저 놓고 다음에 밥과 국을 놓고 떡, 부침, 삼사등을 차례로 상 위에 진설(陳設)한다.

初獻: 상주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잔을 받아 술을 붓고 다시 집사자(執事者)에게 주면 집사자는 잔을 받아 제자리에 놓는다. 밥뚜껑을 열어 놓고 초우(初虞)죽문을 읽는다. 독축(讀祝)이 끝나면 일동은 엎드려 곡을 하고 초헌관(初獻官)이 개배한다.

亞獻: 두 번째 잔을 올리는 것으로 주부(主婦)가 담당한다. 술을 따라 올린 뒤 일동이 곡하고 아헌(亞獻)관이 사배한다

終獻: 세 번째 잔을 드리는 것으로 망인과 가장 가까운 근친(近親)이 올리며 남여를 가리지 않는다. 술을 올리고 종헌관(終獻官)만 곡을 하고 남자면 재배, 여자면 사배한다. 마지막 잔이라 철주(撤酒)하지 않는다.

侑食: 집사자(執事者)가 술잔을 마저 채우고 밥에다 수저를 꽂고 젓가락을 올려 놓는다.

闔門: 상주 이하 모두 문 밖에 나가 문을 닫고 잠시 기다린다.

啓門: 기침을 하고 상주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일동이 따라 들어온다. 국그릇을 물리고 승냥을 올린 다음 수저로 밥을 세 번 떠서 승냥 그릇에 놓는다. 축관이 예필을 고하면 집사자는 수저를 거두어 제자리에 놓고 상주 이하 모두 곡하고 재배한 뒤 축관은 혼백을 닫고 축문을 태

운다. 초상(初喪)후 3개월이 지나면 강일(剛日)을 정하여 졸곡제(卒哭祭)를 지낸다. 이는 지금까지 수시로 하던 곡을 그치는 날로 제사의 절차는 우제(虞祭)와 같다. 그러나 전과 같이 조석(朝夕)으로 밥과 국 등 상식(常食)을 영전(靈前)에 올리면서 조석곡을 한다.

졸곡제를 지낸 이튿날은 부제(耐祭)라 하여 조목(昭穆)의 서에 따라 망인의 조고위, 즉 조부(祖父)와 같이 제상을 병설(並設)해 놓고 제사를 지낸다.

초상 1주년 되는 날 올리는 제사를 소상이라 한다. 제사의 절차는 우제(虞祭)와 유사하나 이 때는 원친도 오고 문상객(問喪客)도 온다. 따라서 음식을 차려 조객(吊客)을 대접하게 되고 다른 제사보다 크게 행사하게 된다. 기년복을 입은 사람은 소상이 끝나고 탈상(脫喪)한다.

초상 후 만 2년이 되는 날이 대양이다. 대상 때는 조객이 더 많이 오기도 하며 크게 행사한다. 소상 삼이후에는 조석곡(朝夕哭)을 그치고 대상에서는 영좌(靈座)를 철회하여 신주는 가묘(家廟)에 안치하고 효장을 폐지한다. 다음의 제사인 선제(禪祭)를 따로 지내지 않으려면 대상에서 탈상한다.

선제는 대상 후 2개월이 지나고 2개월 되는 달에서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내는 제사다. 선은 담(殯)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효자의 심정이 이에 이르러 담연평안(澹然平安)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때 탈상하는 것이 원래의례(禮)이다.

길제는 대상 이후 백일되는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조상의 신주를 고쳐쓰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상의 상례는 우리 나라에 유학(儒學)이 정착되면서 이룩된 의례이다. 이렇게 유교(儒教)로서 절차와 내용의 틀을 잡았으나, 유교(儒教)이외의 불

교(佛敎), 도교(道敎),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 무속(巫俗) 등의 제 요소가 많이 혼합되어 있다

2 - 4. 제례(祭禮)

제례라 함은 일가일족의 사사(私事)이며 조상숭배 제의(祖上崇拜 祭儀)이다. 이러한 조상제례(祖上祭禮)는 정속,대소,각종,(正俗,大小,各種)이 있으나, 현재는 다례(茶禮), 기제(忌祭), 시제(時祭)로 삼대별할 수 있으며 그 실제(實祭)개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례(茶禮)

사당(祠堂)이 있으면 이곳에서 다례(茶禮)를 지내지만 없을 때에는 마루에서 지낸다. 이것은 정조다례(正朝茶禮)인 경우가 그러하고 한식(寒食)과 추석다례(秋夕茶禮)는 집과 묘(墓)에서 각각 지낸다. 또한 의례(儀禮)절차에서도 사당의 유무에 의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당이 없는 경우는 단헌임에 비하여 사당을 모시고 또 묘에서 다례를 지내는 경우는 삼헌인 것이다.

제주는 종손이 하며, 참어 범위는 8촌에 한하고 있다. 그리고 종가의 다례를 먼저 지낸 다음에 갈라져 나온 지손의 서열대로 다례를 지내고 있다.

다례시(茶禮時)의 특별한 제물은 정조의 떡국, 한식의 진달래술, 추석의 송편, 동지(冬至)의 팔죽이다.

시간은 보통 해돋는 때 시작해서 12시경까지 끝내도록 하여 정조다례 후엔 묘소(墓所)가 가까울 땐 반드시 성묘(省墓)를 다녀온 다음에 동리 어른들께 세배(歲拜)를 다닌다.

제의절차는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사당이 없는 경우는 지방(紙榜)을 모실 때와 신주를 모실 때로 구분되며, 그리고 사당에

서 다례를 지내는 경우가 그것이다.

먼저 지방(紙榜)을 모시는 경우 다례를 향응(響應)받을 조상(祖上)중 가장 윗대, 즉 고조부모(高祖父母)의 지방(紙榜)을 붙이고 제물을 진설(陳設)한다. 종손(宗孫)이 분향·모사·재배(焚香·茅沙·再拜)한 후 일동부복(一同俯伏)·고축(告祝)·헌작(獻酌)·개개반(開蓋飯)·정저(正箸)·일동재배(一同再拜)·하저(下箸)·일동재배(一同再拜)·철상(徹床)의 순서로 지낸다 이런 순서로 부모대까지 한번씩 지내며, 그 때마다 헌작(獻酌)을 퇴주(退酒)하고 다 끝나면 음복한다.

신주(神主)를 모시고 있는 경우는 먼저 제물(祭物)을 진설(陳設)한 다음에 신주를 모신 곳 앞에 후손(後孫)들이 양쪽으로 서서 읊하고 있으면 종손(宗孫)이 재배를 한 다음에 꺼내서 교의(交椅)에 모시고 주독(主楮)의 뚜껑을 연다. 그리고 일동이 재배(再拜)하며 참신(參神)한다. 자손이 재배하고 분향(焚香)·모사(茅沙)·초헌(初獻)하면, 정저(正箸)·개개반(開蓋飯)한 다음에 제주 재배(祭主再拜)하고 일동 부복(一同俯伏)하여 돌아 앉아 있다가 집사(執事)가 하저(下箸)하고 합개(合蓋)하면 일동재배로 사신(辭神)한 다음에 철상(徹床)한다 신주는 주독(主楮)의 뚜껑을 덮어 제자리에 모시고, 그 다음의 신주를 내모시고 같은 순서대로 지낸다. 이때마다 역시 떡국을 갈고, 헌작(獻酌)을 퇴주(退酒)하며, 다례(茶禮)를 받을 조상에 대한 다례가 모두 끝나면 음복(飲福)을 한다

사당다례(祠堂茶禮)의 경우 종손과 년장자 5~6명만 사당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후손들은 밖에 명석을 깔고 차례를 지낸다 사당문(祠堂門)을 열고 들어가서 종손만이 재배하고(감실) 龕室에서 주독(主楮)을 꺼내어 교의(交椅)에 모신 다음에 제물을 진설(陳設)한다. 진설은 앞줄부터 먼저 시작해서 떡국과 반갱(飯羹)을 맨 나중에 진설한다. 진설(陳設)이 끝나면 종손이 주독(主楮)의 뚜껑을 열고 일동이 재배하여 참신(參神)한다. 제주가

분향·모사·재배·초헌(焚香·茅沙·再拜·初獻)하면 집사가 육자(肉炙)을 올리고, 떡국그릇과 밥그릇의 뚜껑을 열어놓고 모두 부복하여 고축을 한 다음에 곡을 한다. 곡이 끝나면 일동 재배하고 아헌하면 계자(鷄炙)을 이어 삼헌(三獻)에 어자(魚炙)을 올린 다음 첨작(添酌)을 한다. 이어 합문(闔門)하여 밖에 조금 나와 있다가 계문(啓門)하고 숙냉(熱冷)과 갱(羹)을 바꾸어 밥을 몇 숟가락 떠서 만다음 정저하고 조금 있다가 하저하여 합개(合盞)한 다음 일동이 재배 함으로써 사신(辭神)하고 종손이 신주를 감실(龕室)에 넣고 철상(徹床)한 다음에 종손이 재배하고 사당문을 닫는다. 또한 한식과 추석에 모여서 지내는 다례는 같다고 한다. 그러나 묘에서 갖는 차례는 문중의 년장자가 주과포(酒果脯)와 고축으로 산신제를 지낸 다음에 행한다.

종손(宗孫)으로서 매안(埋安)할 경우는 사당에서 재배하고 주독(主讀)을 모시고 나와 묘소 앞에 제물을 진설(陳設)하고 분향·모사·헌작·고축·재배(焚香·茅沙·獻酌·告祝·再拜)한 다음 주독(主讀)채로 묘소 앞에 묻는다. 이렇게 하여 그 종손은 그 조상을 한식과 추석 때 묘소에서 다례(茶禮)를 올린다.

2) 기제(忌祭)

기제사의 경우 사대봉사(四代奉祀)가 원칙적인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는 좀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종가(宗家)집에서 조차 고조부모(高祖父母)의 기제사는 약화(弱化)하였다.

기제사에서 제주가 종손이 아닐 경우라도 대부분 동고조 팔촌, 즉 당내의 범위에 있으면 같은 동리일 경우 참여한다. 종손도 마찬가지로 당내일 경우 지손(支孫)의 기제사에 참여한다.

제의 장소(祭儀場所)는 예전에는 안사랑이라고 해서 제사를 모시는 방이

따로 있었으나 현재는 마루에서 하며 제상 뒤에 교의(交椅)를 놓고 병풍을 친다.

제의 절차는 먼저 제물을 진설한 후 제주가 신주를 모셔다가 교의(交椅)에 놓고 주독(主讀)을 연다음에는 일동이 재배하여 참신(參神)한다. 이어 제주(장자나 장손)가 재배·분향·모사 초헌(再拜·焚香·茅沙·初獻)하면 집사가 정저·개개(正箸·開盞)하고 일동부복하면 고축을 한다. 고축이 끝나는 대로 「아이고, 아이고」, 하는 형식적인 곡을 너댓번 하고 일동이 재배한다. 다음에 고인의 가까운 후손이 차례로 아헌(亞獻)과 삼헌(三獻) 그리고 첨작(添酌)을 하면 다시 젓가락을 굴렀다가 정저하고 삼시(搯匙)한다. 다시 잠시 동안 일동부복해 있다가 집사가 숙냉을 올려 국과 바꾸어 밥을 서너 수저 숙냉에 말고 잠시 있다가 낙시·복개·퇴작(落匙·覆盞·退酌) (술잔을 약간 돌려 놓음)하면 일동이 재배하여 사신(辭神)하고 철상(徹床)한다. 음식이 준비되는 대로 모두 함께 음복(飲福) 하면서 집안 일을 의논한다. 그리고 이튿날 동네 어른들 중에서 주로 고령자들을 모셔다가 음식 등을 대접한다.

시각(時刻)은 고인(故人)의 사망일 전날밤 12시를 전후로 해서 지낸다.

3) 시제(時祭)

시제는 기제봉사(忌祭奉祀)의 대상에서 넘어간 조상들의 墓所(묘소)에서 지내는 묘제로서 1년에 한 번씩 음력(陰歷) 10월부터 그 직계후손(直系後孫)들이 모여서 지내는 것을 말한다. 과거(過去)에 높은 벼슬에 올랐던 조상의 묘소 아래에 제실(齋室)을 지어 우천시에는 묘소를 대신하여 제실(齋室)에서 봉사(奉祀)하기도 하고, 말봉사(奉祀)뒤엔 음복장소(飲福場所)나 문중회의(門中會議)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그 제실(齋室)의

웅장함으로 하여 그 지방에서 그 가문의 위세(威勢)와 단결력(團結力)을 과시하는 상징물로 되기도 한다.

보통은 종손의 기제봉사(忌祭奉祀)의 대상에서 넘어가면 사세손내(四世孫內)의 방계후손(傍系後孫)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최장방(最長房)에게 체천(遞遷)되어 기제봉사(忌祭奉祀)의 대상이 되었다가 시제로 넘어간다. 그와 동시에 후손들이 그 조상의 시제를 위한 위토(位土)를 장만하여 묘지기를 두어 관장하게 한다. 한편 그 조상이 현달(顯達)하여 과거 왕조로 부터 하사받은 사패지(賜牌地)가 있을 경우엔 그것으로서 위토를 삼기도 한다.

3. 세시풍속(歲時風俗)

시흥군은 우리 나라 수도인 서울의 관문이다. 따라서 조선 이전에는 백제(百濟), 고구(高句)려, 신라(新羅) 그리고 고려(高麗)가 서로 흥기(興起)하는 가운데 각각의 영향을 받아 풍부하고 다양한 歲時風俗과 娛樂을 지니고 있었지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중앙의 서울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오게 되고, 한편 19세기 말 경부터는 서울에서 본격적인 서구문화(西歐文化)가 가장 빨리 침투하게 된 지역이고 보면 다른 군과는 달리 풍부한 민속(民俗)을 지닌 반면 그 변형도 심한 고장이라고도 하겠다.

시흥군의 세시풍속(歲時風俗)을 월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3 - 1 정월(正月)

음력 정월은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므로 그만큼 복된 한 해를 비는 의미에서 행사나 놀이도 어느 달보다 가장 많다. 특히 정월 선보름이고 하여 1일에서 15일까지에는 집단적, 개인적 놀이와 행사가 성행하는 달이다.

1) 설날

「설빔」또는 「설비음」이란 설날 아침에 세수를 하고 새로 지은 옷을 입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어린아이에게 많이 쓴다. 온 집안식구가 설빔으로 갈아 입으면 다례준비에 들어간다.

같은 종족들은 모두 종가집에 모여 4대조의 다례를 뒷 대 에서부터 지내게 되는데, 사랑문을 열고 신주를 모셔다가 지내거나 신주가 없는 집은 지방(紙榜)을 써서 붙이고 지낸다.

다례가 끝난 다음에 음복이라고 하여 제사에 쓴 술이나 다른 음식을 제관이 그 자리에서 나누어 준다. 특히 정월 다례뒤에는 음복과 곁들여 도소주(屠蘇酒)를 마신다. 도소주에는 술에 산초·방풍·백출·밀감피·육계피(山椒·防風·白朮·密柑皮·肉桂皮)등을 조합하여 만드는데, 이것을 마시면 1년의 악기(邪氣)를 없애고 오래 산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풍속이다. 이 풍속에서 나중에는 보통의 술도 도소주라고하여 모두 둘러앉아 마시었는데, 특이한 것은 「송곳이 끝부터 들어간다」하여 나이 어린 사람부터 먼저 먹기 시작하여 차차 나이가 많은 노인의 순으로 마신다.

성묘(省墓)는 다례 때 쓴 제수(祭需)이외에 간단한 주과포(酒果脯)를 별도로 장만하여 산소 앞에 돛자리를 깔고 자손들이 모두 늘어서서 하되, 가장 웃대 산소에서부터 차례로 한다.

다례가 끝난 뒤에 세배를 하는데, 조부모 내외분, 아버지 어머니, 백숙 부모, 형제 등의 순서로 하고 새해인사를 드린다.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부모가 돌아가시어 상청을 모신 집에 가서 상청에 조문하고 상주에게 인사한 다음에 일가 친척 중에서 나이가 많고 향렬이 높은 어른에게서 시작하여, 그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 그 다음에 나이 차례, 향렬(行列) 차례로 세배를 행한다.

2) 정초의 십이지지(十二地支)에 대한 풍속

정월 첫번째 달은 쥐날에는 아이들이 논둑 밭둑에 불을 놓는다. 요새는 대보름에 달을 보기위해 놓는 달불을 쥐불과 따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통용하여 쥐불이라고 한다.

정월들어 첫번째 맞는 축일(丑日)을 소날이라고 하여 소 돌보는 날이다. 농사에 가장 귀중한 가축이 소이므로 소를 잘 돌보고 소와 관련된 도구나 음식을 잘 관리하여 그 해에 더욱 일을 잘하도록 도와 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음양가(陰陽家)에서는 인생어인(人生於寅)이라 하여 사람은 호랑이 정기(精氣)를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正月 첫번째 인일을 사람날이라고 하여 아침 일찍 여자의 바깥 출입을 금하고 사람에게 경사되는 일을 많이 하도록 노력한다.

정월 첫번째 맞는 묘일(卯日)을 툷날이라고 하여 토끼처럼 방정맞고 경망한 짐승을 경계하듯이 집안에 하인이나 여자 등을 절대 들여보내지 않는다.

정월 첫번째 맞는 사일(巳日)은 머리를 빗으면 집안에 뱀이 성한다고 하여 머리를 빗지 않는다.

매월(每月)마다 있는 인동토일 중 정월에 맞는 인동토일은 더욱 나쁘다고 하여 혼인을 지내거나 머슴 등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3) 14일

정월 14일을 「작은 보름」이라고 하여 초하룻날 이후에 가라 앉았던 명절기분이 다시 일기 시작하여 15일을 고비로 정월의 명절은 끝이 난다. 이날은 새해 농사를 위한 준비태세로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열 나흘날은 모두 자기가 하는 행동에서 아홉 번을 채운다. 나물을 캐도, 밥을 먹어도 아홉번 하며 매도 아홉번 맞는다. 보름은 여자의 명절이기도 할 정도로 여자에 관한 놀이 및 행사가 많다.

이날은 또 아침 식사에는 고기불이와 김치를 먹지 않는다. 먹으면 부정을 타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하다. 그리고 점심겸 저녁으로 밥을 지어 먹는데 콩·팥·수수·기장 등 5가지 곡식을 섞은 오곡밥을 먹고, 복쌈이라고 하여 시래기·취따위 나물을 삶아 반찬으로 먹는다. 세집 이상의 타성(他姓)집 밥을 먹어야 한다는 관습도 있어 서로 남의 집에 찾아가 밥을 얻어 먹기도 하는데 이것을 백가반(百家飯)이라고 한다.

4) 15일

정월 보름날 이른 새벽에 밤·잣·호두 등을 깨무는데, 이것을 부럼(腫果)이라고도 한다. 부럼을 하면서 1년 동안의 건강을 기원하기도 한다.

이른 새벽에는 또 귀얄잇병에 걸리지 않도록 귀밝이술(耳明酒)를 마시기도 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아무나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더익 사시오』라고 소리질러 더위를 판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일 년 내내 더위를 모르고 지내게 된다.

또한 「용알뜨기」라고 하여 이른 새벽에 맨 먼저 우물물을 떠가는 사람을 용이 그 전날 밤에 낳은 알을 길어가게 되므로 운수있다고 생각하는 통속이 있다. 이렇듯 정월 보름날의 아침은 매우 부산하다.

달맞이는 새해 들어 첫번째 맞는 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속행사나 놀이 등이 풍부하다. 예컨대 달집짓기라고 하여 달맞이 하기전에 마을의 뒷동산 높은 마루에 달집을 짓는가 하면, 달이 뜨기 시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재수가 있고 소원 성취한다 하여 달이 뜰

지점을 미리 알아 가지고 서로 먼저 보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개인 액막이가 있다 불놀이는 앞서 쥐불을 논할때 설명 하였다

5) 16일

16일은 귀신날, 또는 귀신불은 날이라 하여 이 날은 온 동네 사람이 바깥 출입을 삼가고 집안에서 푹 쉰다. 남자가 일을 하면 1년내 우환(憂患)이 있고 여자가 일을 하면 과부가 된다고 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

3 - 2 2월

1) 1일

음력 2월 1일은 영동 할머니가 내려오는 날이라 한다. 이 할머니가 2월 1일에 세상에 내려와서 두루 민가를 시찰하고 20일에 하늘로 올라가서 세상에 있었던 일을 간추려 하느님께 아된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어느 때에는 며느리도 데려오고 어느 때에는 딸도 데리고 내려오는데, 딸을 데리고 내려오는 때에는 딸을 호사시키느라고 바람이 몹시 불게 되고 이 바람에 딸이 입은 다홍치마를 휘날리게 하여 딸을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이 해에는 흉년이 든다.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오는 때에는 며느리 보기 싫어 다홍치마 얼룩지라고 비가 내리는데 2월 1일에 비가 내리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한다. 20일에 올라갈 때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2월 1일은 또 농가에서는 머슴날 이라고도 한다. 2월이 되면 농사준비를 해야 하므로 농사에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머슴을 위로한다. 그 밖에도 2월 1일에는 나이떡을 해 먹기도 하고 콩을 볶아 먹으면서 곡식을 축내는 새와 쥐가 없어지길 바란다.

2) 쯔생이 보기

2월 6일에는 저녁에 동네마당이나 높은데 올라가서 쯔생이를 본다. 쯔생이는 28성수 중 앙성(昂星)인데, 작은 별이 한데 모여 하나의 성군을 이루고 있다. 쯔생이를 보고 그 해의 농작상태를 점치기도 한다. 예컨대 쯔생이가 달보다 앞서서 가면 그해는 대풍(大豊)이 들고, 달과 평행으로 가면 평년이고, 달보다 뒤떨어져 가면 흉년이 드는데 뒤로 멀리 떨어져 가면 큰 흉년이 든다고 한다.

3) 한식일(寒食日)

한식일은 언제나 동지(冬至)후 105日째 되는 날로 잡는다. 그러므로 음력으로는 2월에 들기도 하고 3월에 들기도 한다. 한식날 농가에서는 나무를 심기도 하고 채소씨를 뿌리기도 한다. 한식에는 찬 밥을 먹고 성묘(省墓)를 가는 것이 큰 행사이다.

3 - 3 3월

1) 삼짖날

음력 3월 3일을 삼짖날이라 한다. 이 날에는「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기대에 들뜬다. 완전히 봄이 되었으므로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며 봄기운으로 초목과 개구리, 나비 등이 눈에 띈다. 사람들은 짐승들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보느냐로 길흉과 신수를 점쳐 보기도 한다.

2) 장담그기

가을에 농사가 끝나면 날을 가리어 메주를 쑤고 이를 덩이 지어 천장

에 매달기도 하고 웃목에 안쳐 놓기도 한다. 3월이 되면 겨우네 뜬 메주를 쪼개어 말렸다가 날을 가리어 간장을 담그는데 쓰게 된다. 장을 담글 때에는 장독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으며 장독대에 차례를 따라 늘어 놓고 언저리에 고추, 숯 따위를 켤 새끼를 장독 아가리께에 동여맨다. 부정을 금하기 위한 조치라 한다.

그밖에도 3월이 되면 나무나 풀 등에 물이 오르므로 이러한 물 오른 나무줄기를 이용하여 악기를 만드는 풍습도 있으며, 물이 오른 풀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장난감도 만들고 놀이도 한다.

3 - 4. 4 월

1) 초 8 일

4월의 큰 행사나 놀이는 「초파일」을 제 1로 꼽는다. 이 날은 석가모니의 탄신일이라고 하여 불가의 큰 명절이다. 육불일이라고도 하여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은혜를 온몸에 입는다는 뜻이다. 이날은 절을 찾아가 재를 올리고 저녁에는 연등(燃燈)이라고 하여 등에 불을 붙여 온 집안, 온 마을에 달아 놓는다. 그리고 등을 들고 여러 신자들이 줄을 지어 거리를 돈다. 이것을 제등행렬(提燈行列)이라고 한다.

가정에서는 등을 가족수대로 만들어 촛불을 밝힌다. 등은 등간(燈竿)을 세우고 그 끝머리에 꿩꼬리의 털을 꽂기도 하고 물 들인 비단으로 기를 만들어 다는데 이것을 호기(呼旗)라고 한다. 또 나뭇가지 추녀 끝에 줄을 매고 그 줄에 등을 달아 두기도 한다.

3 - 5. 5 월

음력 5월 초 다섯날은 단오(端午), 천중절(天中節), 단양(端陽), 중오

절(重五節), 수릿날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진다. 농촌의 명절로서 각 가정에서는 산에 나는 수리치의 어린 싹을 뜯어다 떡을 빚어 먹기도 하고 여자들은 창포(菖蒲)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 뛰며, 남자들은 씨름 따위로 온 하루를 즐긴다.

단오날에는 논에 나는 창포를 뿌리채 뽑아다가 삶아서 그 물에 머리를 감는다. 옛날부터 여자는 머리 채가 길고 윤이 나아 좋다고 했기때문에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털이 윤기가 난다고 하여 이를 행했다. 그리고 창포뿌리로 비녀를 만들어 온종일 꽂기도 하며 창포뿌리 끝에 붉은 칠을 하여 머리의 정수리에서부터 도장처럼 세 군데를 빨강게 찍어 두기도 한다.

단오날의 놀이로는 그네뛰기를 첫째로 꼽는다. 그네는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가로대를 대고 여기에 두 줄의 밧줄을 매고 밧줄 아래에 밀신개를 엮어 놓는다. 밀신개에 올라서서 밧에 힘을 주어 구르면 앞으로 까맣게 솟는다. 혼자 뛰면 외그네요. 둘이 뛰면 쌍그네이다.

씨름은 각희(角戲)또는 각희(脚戲)라고도 하는데 단오날에 씨름터를 마련하고 남자 둘이 서로 맞붙어 이기고 지는 것을 겨루는데 그 하는 방법이나 재간이 여러 가지가 있다.

봉선화 물들이기는 화장품이 단순하던 옛날에 여자의 본성으로서 곱게 보이려는 뜻도 있고, 봉선화 물이 손톱에 드는 호기심도 있었겠으나, 그 방법도 빨간 빛은 귀신을 쫓는다는 풍속에서 모든 질병을 예방 하겠다는 생각도 있다. 봉선화는 매우 소담한데 음력 5월쯤이면 모두 활짝핀다. 봉선화 꽃잎을 따서 잡티가 들어가지 않게 잘 다듬어 이것을 백반을 깨뜨린 가루와 함께 넣고 짓쪼는다. 그러면 빨간 앵두빛의 떡처럼 되는데 이것을 손톱에 바르고 싸서 하루 저녁 재우면 봉선화 물이 손톱에 빨강게 들게 된다.

음력 5월은 대체로 하지절후(夏至節候)이다. 그 때쯤이면 모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인데 특히 이때 해마다 가뭄이 드는 경우가 많다. 조선조(朝鮮朝) 3대 태종이 가뭄을 걱정하다가 승하할 때 상제(上帝)에게 비 내리기를 간청했는데 비가 정말 내려주었다 하여 이날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太宗雨)라고 하게 되었다.

3 - 6. 6월

음력 6월은 「썩은달」이라 하여 대체로 비가 많이 오고, 소서, 대서(小暑, 大暑)의 절후로써 더위도 한창인 때이다. 대표적인 세시풍속(歲時風俗)으로는 유두(流頭)와 삼복(三伏)이 있겠다.

음력 6월 15일을 유두일(流頭日)이라 한다. 이 말은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등에 「육월망일 육발어동유수 불제불상」또는 「취동유수두목욕(就東流水頭沐浴)이란 말에서 유래한다. 유두(流頭)날쯤이면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시기이다. 그래서 이날은 맑은 냇물을 찾아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즐겁게 논다. 이렇게 하면 불길한 것을 쫓고 무사하게 여름을 보낸다고 한다.

또 이날 참외, 수박 등 새로운 채소류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것을 따다가 신위(神位)나 사주에게 먼저 바치고 나서 사람들은 나중에 먹는다. 이것을 유두천신(流頭薦新)이라고 한다. 이것은 조상숭배, 추원보본(祖上崇拜, 追遠報本)의 아름다운 풍속이다. 또 이날은 밀전병, 밀역 등 밀가루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하지(夏至)를 기점으로 하여 세번째 드는 경일(庚日)을 초복, 네번째 경일을 중복, 그리고 입추(立秋)부터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 한다. 그리고 하지 후 네번째 경일과 입추 후 첫번째 경일 사이가 10일이 넘으면 월복(越伏)이라 하여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이 된다.

이 동안이 1년 중 가장 더운 철이고 모든 농사가 이때에 부쩍는다. 그리하여 이 더위를 이기는 한 방법으로 초복날에는 개장국을 끓이고, 소주를 가지고 정자나무 밑이나 그늘진 곳에서 흥겹게 논다. 이것을 「복다림한다」고 한다.

또 햇병아리에 인삼을 넣어 고아먹기도 하는데 이것을 삼계탕(蔘鷄湯)이라고 한다.

중복날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중복 복다림이라 하며 말복날도 같다. 초복, 중복, 말복(初伏·中伏·末伏)에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지친 몸을 보(補)하는 것을 통틀어 「복다림」이라 한다

3 - 7. 7 월

음력 7월은 농촌에서는 바쁜 농사일이 거의 끝나고 지루한 장마도 지나고 극성스러운 더위도 한풀 꺾이어 망중한(忙中閑)을 즐길 수 있는 달이다. 그래서 「어정 칠월 동동 팔월」이라 한다. 논도 다 매고 밭의 김도 다 뽑고 하여 겨울철나무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어정어정하는 사이에 이 달이 지나간다는 뜻이다. 이달에는 칠석과 백종일(百種日)이 있다.

7월 7일은 칠석이라 하여 농촌에서는 즐거운 명절 중의 하나이다.

칠석날이면 하늘의 성군 중 견우성과 직녀성이 1년만에 한번 만나는 날이고 만나면 하도 반가와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여 이날은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마가 지기도 하는데 이것을 「칠석물 간다」고 한다. 그리고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銀河水)를 가운데 두고 서로 바라보기만 하는데 이것을 딱하게 여긴 까막까치가 그 몸을 서로 이어서 다리를 놓고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했다 하여 오작교(烏鵲橋)라는 이름이 생겼고, 칠석날이 지난 아침에는 까마귀, 까치들이 털을 가느라고 머리털이 많이 벗어지는데 이것은 오작교(烏鵲橋)다리 놓은 데

를 견우·직녀가 밟고 지나가서 머리털이 빠졌다고 한다.

이 날은 밀전병을 부치고, 가지, 고추 등 햇것을 천신(薦新)하고, 나물을 무치어서 햇곡식 맛을 본다. 또 이날 여름 옷을 빨아 쟁겨두고 책을 널어 말린다. 이것을 폭서(曝書)한다고 한다. 여름철의 장마와 더위 때문에 옷이나 책이 습기에 차서 못쓰게 되므로 장마도 걷히고 더위도 한풀 꺾인 7월의 칠석날에 행하는 것이다. 또 동네에 따라서는 우물을 쳐내기도 한다. 이것도 농사일이 끝난 한가한 때에 여름내 더위에서 발생한 불길한 것을 제거하는 한 방법인 것이다.

음력 7월 15일을 백종일(百種日), 백종절(百種節)이라고 한다. 뒤에 불교의 영향으로 우란파다(盂蘭波多)에서 우란분(盂蘭盆)으로 변하고,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망혼일(亡魂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때는 농사일이 완전히 끝나고 참외·오이 따위는 끝물이고 가지, 고추 따위가 만발한 시기이다. 이런 새로 난 과일, 채소들을 조상의 영에 드리는 천신(薦新)하는 풍속이 있고, 이때에 장이 서는데 이것을 백종장이라고 한다. 백종장에는 농꾼들이 사방에서 모여 드는데 특히 머슴들은 농사일이 끝나서 하루를 푹 쉬면서 지친 몸을 보충하는데 가장 알맞는 때이다. 그러므로 장터에서 서로 만나 여름동안 지난 이야기로 꽃을 피우기도 한다. 그리고 술, 밥, 떡, 고기 등을 마련하여 돌아가신 분의 넋을 위로하기도 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며 물고기를 강에 넣어 살려 보내는 방생(放生)의 모임을 갖기도 한다.

음력 7월은 농사일 중 갈고 김매고 하는 일은 일단 끝난 달이다. 그러므로 7월 15일은 전후하여 여름동안 논을 매고 밭을 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연장인 호미를 잘 씻어서 다음 해의 준비를 위하여 깊숙히 보관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서연(洗鋤宴)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농사가 일단 끝난 것을 의미하며, 술을 빚고 떡을 하며 온갖 음식을 장만

하여 농사일에 애쓴 머슴들을 위로한다. 그리고 두레 농사를 짓는 고장에서는 이날 농악(農樂)을 치고 흥겹게 놀고 난 다음 이 농악기(農樂器)역시 손질하여 잘 보관한다. 즉 농사가 끝났으므로 다음대의 농사에 대비하려는 조치이다.'

3 - 8. 8 월

음력 8월은 농촌에서 가장 즐거운 달이다. 여름 동안의 농사는 결실을 보게 되고 오곡백과(五穀百果)가 풍성하고,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다. 「어정 칠월 동동 팔월」이라고 논밭의 곡식을 거둬들이기에 즐겁기도 하고 바쁘기도 한 나날을 보내야 한다.

음력 8월 보름의 가위날은 모두 성묘를 간다. 성묘를 갔을 때 산소의 封墳(봉분)에 잡초가 우거져 있어 절을 하려 하여도 설 자리가 없을 정도라면 이 이상의 불효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8월로 접어들면 우선 산소에 가서 배례를 하고 봉분을 비롯한 그 주위의 풀을 정성껏 깎는다. 이것이 벌초(伐草)이다. 이 벌초(伐草)는 겨울철에 흰 눈이 온 산을 뒤덮었을 때에 산소 주위의 눈을 쳐 내는 작업과 마찬가지로 묘소(墓所)관리에 대한 자손들의 정성 표시인 것이다.

음력 8월 15일을 가배일, 중추절(嘉俳日, 中秋節), 가위, 한가위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 이중 가배일(嘉俳日)은 가위날을 취음하여 표기한 것이다. 8월은 기후로 보아 춥지도 않고, 오곡백과(五穀百果)가 만발한 시기이고, 하늘은 높고 푸르다. 이중 15일에는 쟁반같은 달이 중천에 떠오른다. 이날은 여러 가지 놀이와 행사가 있다.

우선 아침나절에는 햅쌀로 빻은 송편으로 다례(茶禮)를 올린다. 그리고 온 일가 친척이 둘러앉아 음복을 하고 아침을 먹은 다음에는 간소한 주과포(酒果脯)를 가지고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한다. 저녁나절이면 풍물

을 앞세우고 동네를 돌면서 즐겁게 논다. 예를 들면 「거북놀이」, 「소놀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숫잎을 따서 한 가운데 모습을 지어 길게 엮는다. 이것을 몇 개 이어서 마치 명석처럼 만든다. 그리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까불거리며 걸어간다. 그러면 마치 거북이가 걸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거북이 입자가 뒤에 서서 『거북아 거북아 만세 거북아 잘도 먹고잘도 놀아라』하고 외치면 풍물도 여기에 맞추어 농악을 연주한다. 그리고 동네에 광작(廣作)하는 집마당에 가서 흥겹게 놀면서 갖은 덕담으로 그 집을 추켜 세운다. 그러다 거북이 쓰러지면 거북이가 배가 고파서 쓰러졌으니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면 그 집에서는 이것을 신호로 미리 준비하였던 술·떡·과실들을 푸짐하게 내온다. 그러면 여기서 배불리 먹고 즐기다가 또다른 집으로 간다. 이렇게 하여 온 동네가 술 풍년, 떡풍년, 노래 풍년이 든 듯하다. 이 거북이 놀이를 소놀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

음력 8월 15일은 농촌에서는 정월 설보다 근친(覲親)하기에 알맞는 계절이다. 망친(亡親)은 부모와 멀리 떨어져서 외지에 나가 있던 아들딸이 어버이께 뵙고 문안드리는 것을 말한다. 아들의 근친(覲親)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지만 여자는 누구나 시집을 가기 때문에 친정(親庭)어버이께는 근친(覲親)을 해야할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음력 정월에는 여자의 나들이는, 정월 초순에 여자가 남의 집 출입하는 것을 꺼리는 금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8월은 농사의 바쁜 일도 끝나고 오래 떨어져 있는 부모도 보고 싶으므로 이 추석날은 대체로 근친(覲親)을 많이 간다. 가까운 곳에서는 「반보기」라 하여 시집과 친정의 중간지점에서 서로 만나 그동안 못 보았던 회포를 푸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3 - 9 9 월

음력 9월 9일은 중구(重九) 또는 중양절(重陽節)이라 한다. 중구는 구자가 겹쳤다는 뜻이고 중양은 양이 겹쳤다는 뜻이다. 주역 周易 에서는 홀수의 1, 3, 5, 7, 9는 양이고 짝수의 2, 4, 6, 8, 10은 음이다. 이 철은 갖은 국화(菊花)가 만발하는 시기이다. 그리하여 9월은 국월(菊月)이라고 하고, 국화는 가을을 상징하므로 국추(菊秋)라고도 한다. 이 국화중 재래종 국화는 그 향기가 맑고 극히 강렬하다. 이것을 따서 술을 빚은 것이 국화주(菊花酒)요, 국화꽃잎을 따서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단자(團子)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이 국화전(菊花煎)이다. 이 국화주(菊花酒)와 국화전(菊花煎) 드로 즐기는 날이 9월 9일이다.

또 이때쯤이면 약초(藥草)가 한 고비를 이룬다. 그중에서도 구절초(九折草) 또는 구절초(九節草)는 이때가 가장 약효가 좋다고 하여 산에나 들에 가서 구절초를 뜯는다. 이 구절초는 약재로 매우 중요시 된다.

3 - 10. 10월

음력 10월은 「상달」이라고 한다. 이달에는 농사 일 중 가장 중요한 가을 걷이와 타작(打作)이 완전히 끝나서 농가에서는 겨울 휴가로 들어가는 달이다. 그러므로 가을일 뒤에 차분히 행하는 행사가 많다.

1) 말날(馬日)

음력 10월 들어 첫번째 드는 오일(午日)을 말날이라고 한다. 이날은 특히 말을 위하는 풍속이 있다. 이 날에는 팔떡을 하여 마굿간 앞에 차려 놓고 말의 건강을 빌기도 하고, 그대신 팔죽을 쑤어 놓고 빌기도 한다. 이 풍속이 확대되어 「가을떡」을 하게 되었다.

가을떡은 대체로 10월에 드는 무오일(戊午日)을 가려서 하는데, 이 무「戊」는 무「茂」로 통하므로 상마일(上馬日)또는 무말날이라고도 한다 이 날은 특히 무시루떡을 찌서 토주신에게 고사를 지내어, 금년 농사를 잘 짓게 하여 준 데 대한 감사의 뜻과 온 집안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며 내년 농사가 잘 되기를 빈다 그리고 온 동네에 「가을떡 도른다」하여 골고루 나누어 먹는다. 그리고 「안택굿(安宅굿)」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떡본김에 굿한다」든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하는 속담이 있다

2) 시제(時祭)

우리 나라 풍속에 4대조까지는 집에서 제삿날 기제사를 올린다. 그러나 5대 이상이면 신주를 산소에 묻거나 불에 살라 버리기 때문에 신주도 없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1년에 한번 날을 정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이 시제이다. 시제는 대체로 10월 1일에서부터 15일 안에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가 들에서 제사 지내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멀리 떨어져 있던 일가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3) 손돌날(孫丱日)

음력 10월 20일은 손돌날이라 한다. 김포에서 강화로 가는 길목이 있는데 물이 소용돌이쳐서 뱃길로는 대단히 위험한 곳이다 손돌이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을 배에 태우고 이 바닷길목을 지나다가 그 귀한 사람이「손돌」이가 고의적으로 자기를 위험한 곳으로 끌고 온 것으로 오해하여 죽이었다. 이 손돌이 원통하게 죽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죽은 날과 별안간 춥고 비바람이 치는 일과를 연관시켜 생각한다. 그래서 이날을 「손돌이 날」 또는 「손돌날」이라고 하여 겨울옷을 준비하여 월동(越冬)

할 준비를 하게 된다.

4) 김장

우리나라에서 「김장은 반양식」이라 하여 겨울철의 반찬으로 김장을 담그는 풍속이 있다 김장을 담그는 가장 적당한 시기는 입동의 전삼후삼이라 한다. 즉, 입동을 전후한 6일 동안이 최적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입동이 대체로 음력10월에 든다. 그래서 10월은 김장달이라 하여 겨울 먹을 김장을 담근다.

김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담그는 방법도 가지가지이며 여기 들어가는 양념도 가지각색이다. 부녀자들은 김장철이면 모두 자기 솜씨껏 김장을 담그느라고 열을 올린다. 그리고 시흥군에서는 개성의 보쌈김치를 일품으로 친다.

3 - 11. 11월

11월은 한 겨울로 접어드는 달이다. 그리고 겨울의 중심이라고 하는 동지가 바로 이 달에 들었기 때문에 달 이름도 「동짓달」이라 한다.

1) 동지 (冬至)

동지는 양력(陽曆)으로는 대체로 12월 22일이나, 음력(陰曆)으로는 11월에 드는 경우가 많다. 동지날에는 「동지팔죽」이라하여, 특별한 집안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팔죽을 쏜다. 팔죽에 찹쌀가루로 새알만큼 썩한 동그란 단자를 만들어 넣는데, 이것이 새알심(鳥卵心)이다.

팔죽을 쑤어 놓고 기다리다가 동지시가 되면 대문위나 담의 벽등에 뿌린다.

어느 집안에서는 사당에 팔죽으로 다례를 지낸 다음 방, 마루, 장광 등

*

에 한 그릇씩 퍼다 놓기도 한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둘러 앉아 먹는다. 팔죽은 그 빛이 검붉다. 귀신들이 이 빛을 싫어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날 팔죽을 뿌리면 못된 귀신이 침입하지 못한다고 하여 온 집안에 뿌린다. 어느 고장에서는 팔죽을 동네 앞의 큰 고목에 뿌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악귀나 아귀(邪鬼)가 그 동네에 침입하지 못하여 동네가 무사 태평하다고 한다.

3 - 12. 12월

음력 12월은 1년 중 마지막 가는 달 이고, 가장 추운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추위의 절정인 소한·대한 등의 절기가 대체로 이 달에 든다.

1)臘享 (납향)

동지로부터 세째번에 해당하는 미일(末日)을 납향(臘享)이라고 한다. 이 날은 대체로 음력으로 12월 중순(中旬)쯤이 된다. 이 날은 1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신에게 보고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 지내는 제사를 「납향제」(臘享祭)라고 하는데, 이 날 제사 지내는 풍속은 이제는 거의 없어져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 날은 또 참새의 수난일(受難日)이다. 이 날 밤에 새를 잡아 구워서 아이들을 먹이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추녀밀이나 나무둥치에 얹은 새를 잡는다. 또 이 날 내린 눈은 약이 된다고 하여 독을 열어놓고 눈을 받기도 한다.

2) 묵은세배

세배는 새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달 그믐날, 즉 제석(除夕)날은 1년의 마지막 가는 날이므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인사로서 마치 정월 달

•

에 세배를 하듯이 어른이나 일가를 찾아 다니며 세배를 한다. 이것이 묵은 세배이다. 또 이날 조상의 산소에 성묘하기도 하는데 초롱불을 들고 밤 늦게까지 다닌다.

3) 딱총놀이

음력 설달 그믐날 한 밤중 쫄음에 생대를 꺾어서 이것을 불에 태운다. 그러면 대가 타면서 그마디가 불에 달아서 쪼개지느라고 딱딱하며 큰 소리를 낸다 이것을 「폭죽」또는 「대총」, 「대불」이라고 한다. 이런 풍속에서 음력 정초에 아이들이 딱총을 가지고 노는 버릇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숨어 있던 악귀가 그 소리에 놀라서 멀리 달아나게 되므로 집안이 깨끗하고 무사태평(無事泰平)하게 보낸다고 한다.

4) 밤새우기

설달 그믐날 밤은 집의 방, 뜰, 부엌, 변소 등은 물론 뒤뜰 안에까지 불을 밝힌다. 그리고 잠을 자지 않는다. 이것을 수세(守歲)한다고 한다. 만약 잠을 자는 사람이 있으면 밀가루를 참기름에 반죽하여 눈썹이 하얗게 되게 바른다. 이것을 「눈썹 세었다」고 한다. 그리고 저마다 눈썹이 세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로가 감시하느라고 뜯눈으로 밤을 지낸다고 한다.

집안에 묵은 악은 모조리 내어다 불살라 버린다. 이것은 악의 냄새를 따라 모든 질병이 없어지라는 액막이다. 그리고 집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한다. 이렇게 하여 묵은 것을 모두 깨끗이 청산하고, 맑고 깨끗하고 명랑한 기분으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한다

3 - 13. 윤달

윤달은 음력으로 12월 외에 더 드는 어느날 달을 말한다. 그런데 그

드는 달은 .일정하지가 않다. 2월에 들면 윤 2월이고 3월에 들면 윤 3월이다 그런데 음력 11월, 즉 동짓달에는 이 윤달이 잘 들지 않는다고 하여 하기 싫은 일이나 갚기 싫은 일을 말할 때에 『윤동짓달 초하룻날 한다』는 말을 흔히 쓴다.

윤달은 12개월 외에 더 있는 달이므로 「덤달」이니 「공달」·「여벌달」이라고 하여 이 달에는 꺼릴 일이나 피할 일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윤달에는 송장을 꺼꾸로 세워도 탈이 안난다」는 속담이 있다.

이 달에는 혼인, 집 수리, 이사, 사초(莎草)들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수의(壽衣)도 이 달에 만들어 둔다. 이 달에는 불정(不淨)이 나 액(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달 든 해에는 절에 세번가면 모든액이 소멸되고 복이 온다고 하여 부녀자들은 이름 있는 절을 찾아 불공을 드리기도 한다

4. 오락(娛樂)

4 - 1 . 집 단놀이

1) 두레놀이

두레는 농촌에서 공동 작업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한 동네 장정(壯丁)모두가 두렛군이 된다 두레를 상징하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농기(農旗)가 있다 한 두레에는 팽과리를 중심으로 하여 징·북·장구·소고, 법고 등의 악기가 갖추어져 있다. 삼사십명의 농군이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점심 먹고 난 뒤와 같은 쉴 때에 각기 농기(農旗)를 꽂아 놓고 그 아래에서 흥겹게 한 바탕 논다.그리고는 장구잡이와 팽과리,

징, 북잡이 등만 남겨 놓고 모두 일터에서 일을 한다. 동작에 따라 농부가 풍년가(豐年歌)따위에 맞추어 농악을 울리고, 일꾼들은 노래로 피로를 풀어가면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피로를 잊고, 일이 능률적으로

되는 것이다. 농사 일이 끝나면 농악기(農樂器)를 보관하여 두었다가 팔월 보름, 음력 정월 초 하룻날, 보름날, 동네 굿하는 날 따위와 같이 이름있는 명절이나 동네 공동 이익을 위한 행사에 온 동네 사람이 두레를 놀아가며 즐겁게 논다.

2) 거북놀이

정월 정월 보름날에 행하는 고장도 있으나 대체로 음력 8월 보름날 한다. 두 사람 이상이 엮드리고 그 위에 명석을 썩우거나 수숫대로 발을 넓게 엮어 뒤집어 썩운다. 그러면 마치 거북이 모양처럼 된다. 마을 사람들은 이 거북을 앞세우고 농악을 치면서 동네의 큰집을 찾아다닌다 거기에서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만세 거북아 놀아라』하며 음악을 연주하면 이 거북이 음악에 맞추어 흥겹게 거들거리고 논다 이렇게 한바탕 놀면 집주인은 술과 떡 등을 내어 일동을 대접한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간의 쌀을 거두어 동네 일의 기금을 삼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하며 온 동네를 돈다. 거북이 다녀간 집은 재앙이 달아나고 복이 온다고 하여 다투어 거북을 맞이하기도 한다.

3) 장치기

나뭇꾼이나 농사들 사이에 오래 전부터 전하여 오는 놀이로 장치기가 있는데, 현재에는 축구, 농구 따위의 구기(球技)가 보급됨에 따라 자연 소멸되어가고 있다.

나무 공이를 주먹만하게 둥글게 깎는다 이것이 공이다 양쪽에 돌이나 땅바닥을 그어 문을 만든다 그리고 두편으로 갈라 서서 각각 작대기를 가지고 이 공을 쳐서 상대방의 문밖으로 쳐내서 이기고 짐을 결정하는 놀이이다 공도 딱딱하게 작대기로 함부로 치는 놀이이므로 위험

성이 뒤따른다.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서 치는 것을 편공치기 또는 편 장치기라고 하는데, 썩썩하고 남색적인 면도 있으나 너무 거칠어서 위험성도 크다.

4)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우리 나라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놀이이다. 동네에서는 남녀로 가르기도 하고, 한 동네와 다른 동네와의 동네 대항도 있고 아랫뜸 윗뜸과 같은 부락대항도 있다.

대체로 정월초부터 보름 사이와 8월 명절, 5월 단오(端午), 7월 백중(伯中)등에 흔히 볼 수 있는 집단적놀이의 하나이다.

4 - 2. 개인놀이

1) 갈퀴치기

나뭇꾼들이 갈퀴를 던져서 이기고 지는 것을 겨루는 놀이로서 「칼땅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갈퀴를 쥐고 뺑 돌리면서 힘껏 던져서 갈퀴가 엮어지면 이기고 져히지면 지는 것이다. 또는 옆으로 던지기도 하고 뒤로 던지기도 한다.

대체로 나뭇짐을 걸고 내기를 해서 나무를 따먹기도 한다. 진 사람은 자기 나무는 못하여도 이긴 사람에게 나무를 한짐 주어야 하고, 이긴 사람은 나무는 안하고 싹컷 잠만 자도 된다

2) 고 누

종이에 그리기도 하고 임시로 땅바닥에 말발을 그려 놓고 돌이나 작은 나뭇가지 또는 종이 따위로 자기 말을 삼아 하나씩 놓아 가면서 상대방의 말을 먼저 따먹거나 많이 따먹음으로써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물고누, 네발고누, 여섯발고누, 열두발고누, 호박고누, 물레고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우물고누란 네모지거나 박달모양으로 된 틀에 X자를 그려 놓고 이쪽 저쪽에서 각각 말 두 필씩으로 두어나간다. 한 쪽은 띄어 놓았는데, 그쪽으로는 말이 가지 않는다. 「우물 고누 첫수」란 말이 있듯이 먼저 두는 사람이 이쪽을 짝 막으면 한 수 지게 되기 때문에 이 수는 두지 않기로 되어 있다. 빈 발이라고는 하나 밖에 없어서 이쪽 길만 막으면 말이 갈 데없이 갇히어서 지게 되는 것이다. 고누 중에서는 가장 초보적인 것으로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고누에 익숙하면 다른 고누는 쉽게 익힐 수 있다.

3) 골 패

손가락 마디만한 검붉은 나무나 뼈의 바탕에 그와 똑같은 크기의 흰 뼈를 붙이었는데, 흰 뼈에는 한 구멍에서부터 여러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모두 서른 두 짝이 한 목인데 구멍수에 따라 백아(쥐코), 아사, 어사, 판이, 아륙, 삼사, 삼오, 삼륙, 사오 각 한 짝이고, 풍소, 소삼, 백오, 백륙, 진이, 장삼, 직홍, 준오, 사륙, 오륙, 준륙이 각각 두짝인데 두 사람, 혹은 너댓 사람이 둘러 앉아서 한쪽을 내고 한 짝을 맞추고 하는 놀이이다. 여시, 골여시, 짹찌기 등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마작의 원시적인 형태이다.

4) 투전

두꺼운 종으로 넓이는 대체로 1cm 안팎이 되게 만들었는데, 본래는 인물(人物), 조수(鳥獸), 충어(虫魚)들을 그리고 있었다. 후에 와서 숫자를 위와 같은 모양으로 그리었다. 80장, 60장이 한벌이 되어 실지 놀이에서는

40장만 가지고 사용한다. 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화투가 들어 오기 전에는 이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5) 화 투

화투는 우리 나라 고유한 것은 아니고 일본 전래설이 유력하다. 너무 잘 알려진 놀이여서 생략하기로 한다.

6) 낫치기

나무꾼이나 풀 베는 청소년들 사이에 낫치기 또는 낫거리란 놀이가 있다. 낫치기는 나무를 한 다발 해서 열 발짝쯤 되는 거리에 세워두고 낫을 던져서 나무판에 꽂히게 하는 것이다. 낫이 제대로 꽂히면 이기는 것이다. 이긴 사람은 진사람의 나무를 소유하게 된다.

7) 돈치기

돈을 땅에 던져 놓고 이것을 다른 돈으로 쳐서 맞고 안맞고의 여부로 승부를 가리는 내기로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놀이이다.

8) 서 리

서리는 주로 청소년들이 주인이 모르게 남의 과실을 따다 먹거나 가축을 잡아다 먹는 것을 말한다.

서리의 대상으로서 가축으로는 닭이나 오리 등을, 과실로는 감서리, 대추서리, 밤서리, 배서리 등에서 참외서리, 심지어는 무우서리에까지 다양하다. 원칙적으로 남의 물건을 값을 주지 않고 몰래 훔쳐 먹는 것이므로 도둑질이나 같은 행위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에 욕심이 나서 한 짓이 아니고 글방에서 글을 읽던 글방 도련님이나 사랑방에서 밤이 이슬하도

록 놀던 농부들이 시골에서 밤참할 것도 없고 시장기는 들고하여 하는 수 없이 한 동네 것을 훔쳐다 먹는 것이므로 모두 애교있게 봐 주었다. 또 이렇게 서리를 해다가는 주인을 청해다 함께 먹는 일이 많으므로 나중에 알고도 말할 수 없게 된다. 또 오늘은 이 집에서 닭서리를 하고 내일은 저 집에서 감서리를 하는 식으로 동네 사람끼리 하는 서리이므로 결국 동네 물건가지고 동네잔치하는 격이 되어 모두 너그럽게 봐 주었다.

9) 연날리기

연날리기 놀이는 대체로 음력 12월쯤에서부터 시작하여 음력 정월 보름날까지 날린다. 연의 종류도 가지 각색이고 연을 올리는 기술도 다양하다. 특히 연싸움이라고 하여 서로의 연줄을 걸고 당기다 늦추었다 하여 어느 연줄이 질긴지를 시험한다. 이때에 연줄이 끊어진 쪽이 지게 마련이다. 커다란 연이 높이 떠서 잦은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면 흥이 난다.

10) 엿치기

가래엿을 꺾어서 구멍이 크게 뚫린쪽이 이기는 내기이다.

11) 종경도 놀이

정초에 부녀자나 소년·소녀들이 앉아서 하는 조용한 놀이이다.

넓은 박지에 유학(幼學)에서부터 봉조하(奉朝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관직명(官職名)이 질서 있게 적혀 있다 맨 먼저 유학(幼學)에서 출발하여 누가 먼저 영의정(領議政)을 거쳐 봉조하(奉朝賀)의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겨루는 내기이다. 놀이 자체가 이렇게 낮은 데에서 높은 위치로 오르게 되는 것이므로 1년 운수를 점치거나 또는 중경도 판에는 관직명이 거의 빠짐없이 있으므로 어려서부터 관제를 배우는 데에도 매우 유익한 놀이였다.

그밖에도 부녀자들 놀이나, 소년·소녀들의 놀이가 많지만 생략하기로 한다.

5. 민간신앙(民間信仰)

민간신앙(民間信仰)은 원초(原初)부터 인간본연(人間本然)의 종교적(宗教的) 욕구에서 자연발생(自然發生)한 것이며, 계시(啓示), 교리(教理)등과 같은 것도 없는 자연적인 종교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은 그 유구한 역사성과 대다수 민중의 생활과의 밀착성(密着性)에 있는 것이며, 이 현실은 도외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민간신앙을 무조건 미신(迷信)으로 생각하고 타파(打破)하여야 할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민간신앙은 결코 원시적인 미신(迷信)의 집합체는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민(庶民)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할 가치는 더욱 큰 것이다.

기능면(機能面)에서 보면 가족신앙(家族信仰)은 고생 많은 한국 부인(婦人)들의 마음의 귀의처(歸依處)이며, 그 모성애에 힘을 주는 절실한 신앙이다. 부락제(部落祭)는 촌락사회(村落社會)에 일체감(一體感)을 주며, 혈연적 중심의 한국 사회에 지연적(地緣的)인 통합과 질서를 유지시켜 왔다. 무속(巫俗)을 비롯한 이들 민간신앙의 고대의 국가통합 기능, 예술출산성은 지금도 남아있는 성질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기능과 성격을 가진 민간신앙을 여기서는 가족신앙, 부락신앙(部落信仰), 무속, 점복(占卜) 및 주술(呪術)의 순으로 각 절별로 일

반적인 성격과 시흥군 지방의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記述)해 보기로 한다.

5 - 1. 가족신앙

가족신앙은 조영·성주·터주 등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신앙이다. 이제 그중에서 주요한 것들을 개략해 보기로 한다

1) 성 주(城主)

이것은 가신들 중에서도 최상위의 신으로, 하위의 다른 가신들을 통괄하면서 가택(家宅)의 안태수호(安奉守護)를 가져오는 신이다. 이것은 성주대감(城主大監) 또는 상량신(上樑神)으로 불리우며 보통 집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체(神體)는 대들보 가운데 기둥인 동자주(童子柱)에 흰 종이를 오려 붙이기도 하고, 담배를 말아 붙이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안방의 한 귀퉁이의 윗쪽에 판자를 붙이고 쌀을 담은 항아리를 얹어 놓기도 한다. 이 성주(城主)단지 아래에는 지폐(紙幣)와 마른 명태를 걸어 두기도 한다.

성주는 대부분의 부락(部落)에 나타나는 신이며 지역(地域)에 따라 그 형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부락(部落)에도 집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터 주

터주는 터주대감(大監)·지신(地神)·후상(後上)·주임(主任) 또는 터주 대주(垚主)라 고도 불리우는 신으로 주택지(住宅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어느 지역(地域)에서는 터주를 「터주까리」또는 「터주막」

이라고 부르며 신체(神體)는 조그마한 단지를 놓고 벽로 단지 뚜껑을 덮어서 넣어 둔다. 그리고 쌀을 넣은 항아리나 단지는 장독간 모퉁이나 집 뒤에 안치(安置)해 둔다.

3) 제석(帝釋)

이 신은 집안 사람들의 수명(壽命)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으며 「세존」이라고도 한다. 방안의 다락위에나 부엌의 한 귀퉁이에 조그마한 단지를 두고 그 속에 쌀이나 조를 넣고 많은 형절조각을 늘어놓은 형태로 안치(安置)되어 있다.

어떤 지역(地域)에서는 안방의 벽에 주머니를 만들어 쌀 3되 가량을 넣어 걸어 놓은 것으로 「제석주머니」라고 부르고 있다.

4) 조왕(竈王)

조왕은 화신 또는 부엌신으로 밥 짓는 일과 부엌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물 일체에 관계되는 신으로, 부엌의 그릇을 올려놓는 선반위에 바가지를 엮어서 그 속에 삼베조각을 넣어두기도 하고, 부엌의 한쪽 벽에 백지(白紙)나 혹은 형절조각을 붙여 놓기도 한다.

5) 업(業)

「업위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신은 재물신(財物神)으로 가재와 가복을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통 창고 또는 광의 윗쪽 한 귀퉁이에 팔을 담은 옹기의 형식으로 안치되어 있기도 하며, 혹은 부엌에 안치되어 있기도 하다.

6) 조 상(祖上)

이 조상신은 「조상대감」이라고도 불리우며 기제사의 범위를 벗어나 4

대조 이상의 조상신으로 자손의 보호를 담당하는 신이다. 경기도에서는 주로 안방에 안치하고 마루에 안치하는 경우도 있다.

7) 대감독(大監毒)

대감독은 「어병항아리」·「대감항아리」또는 「대감뽕티기」등으로도 불리우는데 보통 대청마루의 안쪽에 안치되어 있다. 평소에는 쌀을 넣어두며 일년에 한번 추수가 끝나 햅쌀을 넣으면 다음 해의 추수 때까지 그대로 보관했다가 꺼내먹고 또 새로 추수한 햅쌀을 넣어둔다.

8) 복조리

드물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쌀을 일 때 사용하는 조리를 안방 또는 안방문 앞에 매달아 놓고 있다. 마치 쌀을 일 듯이 집안의 수복(壽福)을 빈다는 뜻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사용하기에는 좀 작은 것이며 예쁜 색실을 매달아 두기도 하였다.

9) 삼 신(三神)

삼신은 자식(子息)의 재생산(再生産)및 발육(發育)을 주관하는 신으로 중이·형질 또는 실을 안방의 한 구석에 높이 달아 놓는다. 일명 산신(産神)이라고도 한다.

이상에서 가신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한 신들을 개략해 보았는데, 이들은 모두 집안의 제재초복(除災招福)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집안의 행운(幸運), 가족성원(家族成員)들의 장수복록(長壽福祿), 기자(祈子), 남아다산(男兒多産), 자녀(子女), 성장(成長), 건강(健康), 임신출세(立身出世), 소원성취(所願成就), 제액(除厄), 무병(無病), 병환회복(病患回復), 수재(水災) 및 화재(火災)예방, 농산물(農産物)의 풍작(豐

作)등이 위에서 살펴 본 초자연적(超自然的)인 존재(存在)들에게 바라는 항목(項目)들이다.

家神祭는 크게 나누어서 고사와 안택(安宅)의 두 가지 제사로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제사에 대상이 되는 신은 일치하지만 그 목적과 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고사는 추수가 끝난 뒤에 매년 정기적으로 거행되는 전통적인 농민사회(農民社會)의 중요한 통과의례(通過儀禮)의 하나로, 1년간의 노력의 결과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가내의 제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가신들에게 수확한 농산물의 일부를 바치면서 영복(迎福)의 기쁨을 표시하고, 또한 돌아오는 해에도 풍년(豐年)이 들 것을 기원하게 된다.

제장은 청결해야 하며, 보통 신이 있는 집안에 설치한다. 집안에서는 비교적 청결한 대청 마루나 장독대를 제장으로 한다. 제사를 드리기 몇일 전에 집안사람 모두가 합심하여 주위를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제주는 예외없이 가정주부이며, 거의 이 주부에 의하여 거행되어 왔고 또 보유(保有)되어 왔다.

이와는 달리 안택제는 정월에 정기적으로 거행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임시로 또는 수시로 거행되기도 한다. 이 제사의 주목적은 제액(除厄)에 있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짓는대든가 또는 집을 고치거나 이전(移轉)하는 데에 관련된다고 믿어지는 불안·질병 또는 기타의 재화(災禍)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이 밖에 제사에 관련된 사항은 위의 고사와 흡사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신제는 거의 예외없이 가정의 주부에 의해서 거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된다.

이 가신제는 일가일족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祈願)함에 있는데, 인생에 관한 일체의 일이 다소간 자력 이외의 힘, 더우기 신영의 힘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는 우리 민간신앙(民間信仰) 중에서도 고유의 관념과 형상을 적극적으로 보유해 내려오는 가장 오랜 신앙의 하나이다.

5 - 2. 부락신앙

우리 나라의 많은 신앙형태(信仰形態)들 중에서 지연적(地緣的)인 위합(圍合)·화목제(和睦祭)의 성격을 띠는 것은 부락신앙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뿐이다. 동제라고도 하는 이것은 부족국가시대(部族國家時代) 이래의 유구한 전통이며 일하는 농민의 것이며, 협동성(協同性)을 다짐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민주성을 띠는 민중의 축제이다. 그러면 먼저 부락신앙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동제의 성격과 기능을 살펴보기로 하자.

동제당의 명칭은 소제당, 산신당(경기, 충청), 서낭당(江原), 당산(전라, 慶尙), 본향당. 포제당(제주)등이며, 제명은 동제·당제들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5 - 2 - 1. 동제의 기능

1) 신성기간(神聖期間)

외부인을 출입금지(出入禁止)시키고, 임산부는 출타(出他)시키고, 상고(喪故)가 나면 일단 중지하며, 동구, 신목, 제관 집들에는 다 금(禁)줄을 친다. 이때는 일상 세속생활에서 분산(分散)·해이(解弛)되었던 상호 연대감(連帶感)을 핵심인 동신에게로 소생·집결시키고 일체감을 갖는 신성기간이다. 그리고 부락대표인 제관은 신년 첫 출발의 순간에 경건히 신전에 머리 숙이며, 오곡풍등(五穀豐登)과 국내민안(國泰民安)을 축원하는 것이다.

2) 통합기능(統合機能)

부락민의 일체감은 제후의 음복에서 더 한층 굳어지게 된다. 음복은 제물이 적으면 제관, 유지들만 하는 수도 있으나 흔히 전부락민 남자들이 참가하거나, 「반기」를 돌려서 전부락민이 분식(分食)하며, 이 때가 드물게

고기맛을 보는 즐거운 날인 곳도 많다. 음복이란 신성만 제신의 덕을 이어받는 것이다. 이러한 음복을 통하여 부락제는 통합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3) 정치기능(政治機能)

제후 음복에서 노역, 상호부조문제(相互扶助問題), 식목(植木), 품앗이값 등을 논의하는 부락이 있고, 이 때 의장을 놓고 4H클럽 청년회, 부인회들까지 다 모이는 마을도 있다. 이것이 고래의 촌락사회(村落社會)의 정치이며, 이 제정일치성(祭政一致性)은 소상(邇上)할수록 강했을 것이다.

4) 축제기능(祝祭機能)

부락제에는 제비(祭費)추렴의 결립(乞粒)에서부터, 여러 가지 것이 곁들여지게 된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사가 앞뒤로 끼게 되는데, 이런 부락민 최다수(最多數)가 참가하는 합동축제가 바로 부락제이다.

5) 예술적 기능

농악, 가면놀이 등은 중요한 농민의 집단예술(集團藝術)욕구의 표현이다. 여기에는 별신굿이 있었고, 별신굿은 무당굿으로도 가면극(假面劇)으로도 발전했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 기능을 가진 부락제는 요즈음 들어와서는 시흥군에서 약 반수 이상의 마을이 지내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명칭에 있어서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은 산신당이라는 시흥군의 제당이름과 같이 산신제가 제사의 명칭이다. 그 밖에 「산고사」와 「산치성」이라는 이름도 있다. 이런 명칭이 모두 산과 관련된 것임을 생각한다면 시흥군내의 부락제의 대부분이 산신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 2 - 2. 부락제의 절차

부락제를 지내는 시기는 대체로 10월과 11월이 많고, 그 다음으로는 7월, 3월과 11월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확이 끝나는 10월과 11월을 합치면 거의 반수가 가을에 지내고 있다.

부락제의 대상이 된 신의 성이 남신인지 여신인지 대체로 확실하지가 않다. 모르는 부락도 많고 남과 여의 비율이 비슷한 것을 보아 부락제의 대상이 되는 신의 성(性)은 별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락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개 제사를 지내기 얼마전에 제주를 선출하는데 보통 동네의 유지들이 모여서 선출하게 된다. 제주 후보자(候補者)의 자격(資格)은 우선 그의 몸이나 그의 가정에 부정(不淨)한 것이 없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그의 안집이 상을 당했거나, 부인이 월경기에 있다거나, 그 자신이나 또는 그의 집안 사람중에서 누가 병환중인 경우에는 제주후보자에서 제외된다. 보통 제주외(祭主外)의 임원을 더 뽑게되는데, 이 사람들도 제주와 비슷한 자격(資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출된 제주는 그의 생기복덕을 맞추어서 제일을 정한다. 이와 같이 제주와 제일이 확정되면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마을의 출입을 금하게 된다. 제주의 집 문지방엔 황토를 칠하거나 뿌려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그리고 제주는 대개 제사 3일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데, 우선 마을의 우물을 청소한다. 제사에 사용하는 우물을 「당우물」이라고 하는데 이 우물은 안과 밖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후에는 제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동민들의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제사의 비용은 어떤 독립적인 재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동민들의 추렴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비는 부락마다 일정하지는 않

지만, 대체로 쌀 한 말 정도인 것 같다.

제사는 준비기간까지 합쳐서 원칙적으로 3일간에 걸쳐 거행되는 셈이다. 제사일이 결정되면,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우선 이틀전에 우물 청소가 시작된다. 청소가 끝난 우물은 일단 덮어두며 마을 사람들은 제사가 끝나는 시기까지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즉, 이 우물은 제사의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다.

제일 전날에는 제주가 목욕을 하고 세속의 부정을 의식적으로 씻어낸다 그리고 그날 제사에 쓸 술을 빙게되는데 이것은 감주 비슷한 술로 「조라」라고 부른다.

제사의 과정은 부락마다 조금씩 다른데 당제와 산제를 나누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당제는 제일에 인적이 그친 후 새벽 1시나 자정쯤에 치성을 드린다. 이 때는 제주가 주된 역할을 한다. 이 당제사 때에는 24그릇을 올리는데 그 각각의 이름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왜 그것이 24개인지도알 수가 없다. 그저 습관대로 내려온 것이라 그대로 굳어진 것 같다. 제사를 받는 신들은 새끼줄에 창호지를 걸어놓은 걸립이라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다.

참고로 당제에 있는 축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축 문 (祝文)

유

세차 병오 칠월 청미삭 초삼일

기유 유학 채추명

감소고우

동정학산 지하 유정감천

음지만인 무재무병

일동치성 주과지천우신

상향

(·표의 내용은 매년 제일과 제주에 따라 다르다.)

이 축문에서 뚜렷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당제를 통해서 당신에게 동민의 무재무병을 제주가 대표하여 빌고 있다.

산제의 과정은 우선 당집 바깥에서 산신령을 모시는 초헌제로부터 시작되는데 햇불을 동·서 양쪽에 들고 북쪽을 향하여 4번 절하면서 산신을 불러들인다. 다시 당사안에서 제물을 차려놓고 4번 절하면서 산신령에 치시을 드린다. 참고로 이 때 읽는 축문의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축 문 (祝文)

유

세차병오십월기해삭초십일갑신유학

제주명 감소고우

발산지령유악강신보아생민

수복기다례당보새내택길일

생주시결감갈우성영집세사

상

향

維

歲次丙午十月己亥朔初十日甲申幼學

祭主名 敢昭告于

鉢山之靈維嶽降神保我生民

受福既多禮當報實乃擇吉日

牲酒是饗敢竭愚誠永執歲事

尚

饗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음복을 하게 되는데, 제사 때 쓴 고지와 모든 음식물들은 마을내의 가구수대로 등분되어 모든 집에 보내어진다. 이것은 제사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보다 비록 조금씩이나마 부락 신에 바친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신혜를 향수하는 데에 의의를 찾고있다.

이상과 같은 부락제는 근대화의 추세로 점점 사라져 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민간신앙을 연구하는 데에는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다.

5 - 3. 무 속

한국인의 무속은 신앙생활 및 일반 정신문화생활 속에서 성장 되었으며 항상 한국문화 일반의 한 저류를 형성하고 보존해 왔다. 그런 면에서 무속은 민간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대 한국사회에서 무속(巫俗, shamanism)이란 말이 마치 미신의 개념 대용어처럼 남용되고 있다. 사실 한국의 무속은 샤머니즘 분포권 속에 위치하나, 샤머니즘이란 말의 개념은 그렇게 간단히 규정짓기는 어려운 말이다.

한국의 무속은 샤머니즘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무당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역사상의 기록으로 보면 한국의 무속은 삼국시대부터 국가종교로서 요동성내 장병의 결속이나, 국가통합의 사회적 기능에, 금관같은 예술 산출의 기능까지도 다양하고 찬란하게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조선조 이후로는 사라지고 무속은 서민층에만 머물게 되었다.

호칭에 있어서 무격의 전국 통칭은 「무당」이지만, 이 말에는 천대의식이 들어 있어서 직접 본인에게 호칭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제삼자들 끼리의 대화에서는 흔히 여성이면 「무당」, 남성이면 더러「박수」·「박사」라고한다. 무당이라는 천대어를 피한 말이 「만신」이다. 다 직접 호칭으로는 쓰

이지 않으며 대부분이 여성이고 남성수는 적다.

무당은 강신무와 세습무의 두가지로 구별되는데 강신무와 통칭「화랭이패」라고 불리우는 세습무는 이제 그것이 거의 다 사라져가는 순간에 처해 있다.

이 통칭 「화랭이 패」들은 이제 10쌍을 넘기 어려울 것 같고, 그것도 다 60대 이상들 뿐이다. 그들은 이른바 「단골구역」들을 가지고 있었고, 부가계내에서 고부간으로 계승되는 사제직과 남성들의 악사역의 계승으로 뛰어난 예술성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신여부, 공수(神託)의 유무가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것은 무속연구면에서 다소의 의의가 있는 연구일 수도 있다.

5 - 3 - 1. 무 당

전술하였듯이 무당은 강신무와 세습무(화랭이패)로 나누어진다. 시흥군에서는 무당을「만신」이라고 부르는데 강신무는 입무에 의한 신딸로 불리우는 제자에 의해서 계승되어지며, 화랭이패는 주로 세습에 의한다. 우리나라에서 중부이북은 주로 강신무의 사제계승형이다.

강신무에서 말하는 내린 신을「몸주」라 하며, 신장·산신·바리공주등 이들 수호령(몸주)은 무당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고 꼭 단일하지도 않다. 신이 내리면 무병상태로서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입무를 해서 몸주를 모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고 한다. 입무는 큰 무당을 찾아가서, 신어머니로 모시고 신딸이 되어 내림굿(입무)을 한다. 유명한 무당일수록 신딸이 많은데, 그중 한 사람을 계승자로 삼고「명두」와「명다리」를 준다. 명두는 무령의 상징물로서 동경을 연상시키는 직경 20cm내외의 원형 놋제품이고, 명다리는 귀동자·허약아(虛弱兒)들의 장수

· 건강을 기원하여 어머니들이 자식의 생년월일·주소·성명들을 3척·7척 등 길이의 무명에 묵서해서 바치는 것이다 이것을 계승받는 신딸은 단골댁들과 같이 무녀의 중요수입원을 계승받는 결과도 된다.

이렇게 내림굿을 하여 입무를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굿을 해주는 무당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은 대개 낮은 수준의 것이다. 사실 강신무업자들(降神巫業者)은 그 대부분이 무학이고, 가난하며, 또 불우한 사람들이 생활에 짓눌리고 사회에서도 제일 밑바닥에서 허덕이다가 겨우 가누어 잡은 일줄의 직업이요, 수입길이였다

화랭이패는 본래 전라도식으로 이 세습무는 거의 없어져가는 형편이다. 이들 통칭 화랭이패 단골무당은 대체로 한강이남에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부 60대 후반이나 70대 노인들 뿐으로서 이제는 시흥군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통해서도 10여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짐작된다.

5-3-2. 굿의 종류

시흥군 일대에서도 최근까지 많은 마을에서 도당굿이 행해졌고,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이 화랭이패 무당들이 사제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화랭이패 무속의 한 기반이기도 한 것이었다

도당굿은 대개 정월에 소 한마리씩을 잡아서 규모를 크게하여 지냈고, 화랭이패들이 20여명씩이나 참가한다 여자만신은 2·3명이고, 사니(男巫)가 20명, 이들이 주로 덕담과 재주놀이로 끝나나갔고 여무는 처음의 부정과 조상거리 정도만 사제했다. 제일은 정월 3일에 택일을 하되 대개 10일 이내로 7·8일쯤부터 시작한다 굿의 제차는 다음과 같다.

① 부정(不淨)

만신(무녀)이 홍천익을 입고 서서 축원(祝願)을 하고 잣물을 뿌리고 소

지(燒紙)를 사르고 정화한다.

② 시루돋음

여무가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시루를 잡고 신을 내려받아서 동네 평안 여부를 묻는다. 화랑이들은 편리·젓대·해금 등으로 잡이를 한다

③ 뿔뿔이

화랑이들이 동서 양편으로 삼현육각을 갖추고, 만신의 덕담을 곁들 이면 돈다. 우물·장군(長姓)들께 제사지내고 가가호호를 돈다. 매호에서는 소반에 쌀을 담은 꽃반을 차려서 축원을 해받고, 화랑이패들은 중간지대(中間地帶)에서 마주쳐서는 한바탕 놀아댄다.

④ 산바라기

만신이 홍천익(紅天翼)을 걸치고 산신을 모시고 동네의 대동굿을 잘 받으라는 것이다. 축원후에 걱정 말라는 공수가 나온다. 화랑이패들의 반주는 계속된다.

⑤ 공구리

이것은 굿거리와는 아니고, 굿당의 노인들이 「무권」을 서는 것이다. 당시에는 「무권춤」을 공구리 춤이라 했다. 그 밖의 동네 인사들도 나와서 춤추고 놀며 화랑이들은 계속 악기만 쳐준다.

⑥ 제석(帝釋) 굿

장삼·고깔차림의 화랑이가 자손 번창하고 농사 잘 되라는 축원을 하는 거리이다.

⑦ 군웅굿(軍雄)굿

감전복을 입은 화랑이가 덕담(德談)을 하고 군웅마누라 노정기를 엮는다 당나귀를 타고 이 땅에오는 과정이 가창(歌唱)된다. 동네 사람들이 별비(別費)를 내면 무당들은 신이 나서 재주를 부린다 만신은 안나온다. 군웅은 배에 대한 귀신이며, 또 거리마다 임장군을 쳐드는데 특히 군웅

거리에서 더 모신다.

⑧ 손 굿

화랭이가 감전복차림으로 동네평안과 대주(各家長), 기주(주부)들, 자손들 특히 선주들을 축원해 준다. 밤낮 배에 관한 덕담이 많고 배만 주장으로 축원한다.

⑨ 양푼뛰기

여기서는 무녀가 파랑 바탕에 색동이 달린 옷을 입고 입에 한지를 물고 큰 숫양푼을 물고 바쳐든다. 이것을 사람들이 나와서 떼어도 떨어지지 않으나, 재수가 나쁜 사람이 떼면 떨어진다. 그러면 두루마기 끈을 떼서 양푼 속에 넣는데 그 재수가 사나운 사람은 굿을 하라고 공수를 내린다.

⑩ 뒷 전

화랭이가 감전복을 입고, 굿청 끝에 굿 시작 전부터 사람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서 한 상차려 바쳤던 짚인형 허수아비를 붙잡고 씨름도 하고 오랜 수작을 부리면서 군중한테서 돈이 나오게끔 있는 데까지 재주를 부린다. 그렇게 실컷 시간을 끌고, 그 밖의 잡신들을 쫓고 허수아비는 불을 지르고 끝을 낸다. 허수아비는 도깨비가 아닌가 생각되나 확실하지는 않다.

⑪ 왕당대 올리기

흰 사기병 두 개에 각각 1m길이의 가지가 달린 참나무를 도당할아버지 할머니의 내림대로 꽂아 놓았던 것을 당주가 잡는다. 화랭이패들의 덩더쿵 가락에 홍천익(紅天翼)을 입은 만신이 춤을 추고 덕담을 해서 왕당대가 흔들리면 다 같이 당으로 올라가서 실컷 춤추고 놀고 왕당대를 당내에 모셔 둔다

이렇게 동네 인사들과 화랑이들이 운집한 가운데서 잡은 소와 차린 음식들은 내장이며 고기며 뽕따귀들을 몇차례 끓여 먹고, 끝난 다음에는 조금씩이라도 각 가정에 반기를 돌리는데 배를 부리는 집에는 일반인의 (一般人) 두 몫을 돌린다.

始興의 傳統 文化

1983年 12月 印 刷

1981年 11月 初版發行

1983年 12月 增補版發行

發行處 始 興 郡

發行人 始 興 郡 守

編 著 文 化 公 報 室

印 刷 부 흥 인 쇄 사

〈非 賣 品〉

